



2010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1

【 비양도의 고기잡이 】

연구 책임자: 강 정 희

공동 연구원: 김 순 자



국립국어원 2010-01-39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221-14

2010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1

- ▣ 연구책임자: 강 정 희(한남대학교)
공동연구원: 김 순 자(제주대학교)
- ▣ 조사 주제: 비양도의 고기잡이
- ▣ 조사 지역: 제주도 서부(비양도)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2010년도 민족생활어 조사”에 관하여 귀 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
에 의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연구책임자: 강 정 희(한남대학교)

연구 기관: 한남대학교

연구책임자: 강 정 희

공동연구원: 김 순 자

제 1 부

사업 개요

제1장 연구개요	3
1. 조사 개요	3
1.1. 소멸 위기의 어촌 생활어_3	
1.2.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_4	
1.3. 조사 방법_5	
1.3.1. 조사의 의의	1.3.2. 조사 과정의 특징
1.3.3. 조사 시 고려 사항	
2. 조사 지침	6
2.1. 현장 조사 지침_7	
2.1.1. 일반 원칙	2.1.2. 조사 지점 선정 기준
2.1.3. 제보자 선정 기준	
2.2. 전사 지침_10	
2.3. 올림말 선정 지침_11	
2.3.1. 일반 원칙	2.3.2. 세부기준
2.4. 뜻풀이 지침_15	
2.4.1. 기본 원칙	2.4.2. 뜻풀이 형식
2.4.3. 뜻풀이 용어	
제2장 연구 추진 과정	16
1. 조사 계획	16
2. 조사 보고	17
2.1. 제보자_17	
2.1.1. 주 제보자	2.1.2. 보조 제보자
2.2. 조사 기간과 방법_18	
2.3. 조사 장소_19	
2.4. 조사 내용_19	

2.5. 조사 결과물_20

제 2 부 연구 내용

제3장 구술 발화	23
1. 출생과 가족관계	23
2. 고기잡이와 유년의 기억	24
3. 비양도 생활과 고기잡이	25
3.1. 갈치 잡이_25	
3.2. 생성 잡이_26	
3.3. 뱀자리 낚시와 미끼_26	
3.4. 결혼과 군대 생활_27	
3.5. 주낚 생성 잡이_28	
3.6. 주낚_30	
3.7. 비양도 전설_31	
4. 바다 이름	33
4.1. 바다 이름_33	
4.2. 포구와 개_35	
5. 어로 활동	36
5.1. 열일곱부터 고기 잡이_36	
6. 어로도구와 어획물	36
6.1. 풍선_36	
6.2. 고기 이름_37	
6.3. 배와 사공_39	
6.4. 옥돔 잡이_41	
6.5. 갈치 잡이_45	
6.6. 고등어 잡이_46	
6.7. 생성 주낚_48	
6.8. 생성 값_49	
6.9. 니껍_50	
6.10. 그물 잡이_51	

6.11. 낚시_53	
6.12. 고생담_54	
6.13. 배 종류_55	
7. 바다 이름 2	57
8. 어로 도구와 어로 행위	59
8.1. 배 부분 명칭_59	
9. 날씨와 시간	61
9.1. 바람_61	
9.2. 물 때_64	
10. 민속	70
10.1. 고사_70	
10.2. 제수_71	
10.3. 금기어_74	
11. 음식	74
11.1. 음식 이름_74	
11.2. 생선 손질 과정_76	
11.3. 생선 부분 명칭_77	
11.4. 생선 구별법_78	
12. 기타	79
제4장 조사된 어휘	82
1. 행위자	82
1.1. 뱃사람_82	
1.1.1. 명칭	
1.2. 해녀_83	
1.2.1. 명칭	
2. 환경	84
2.1. 공간_84	
2.1.1. 바다	
2.2. 어장_85	
2.2.1. 명칭	
2.3. 바다이름_87	

2.3.1. 명칭	
2.4. 날씨_92	
2.4.1. 상태	
2.5. 바람_93	
2.5.1. 명칭	
2.6. 조류의 흐름과 세기_95	
2.6.1. 무수기	2.6.2. 미세기
3. 어로 도구와 어로 방법	100
3.1. 배_100	
3.1.1. 종류	3.1.2. 부분명칭
3.1.3. 기타 도구	3.1.4. 행위
3.2. 그물류_115	
3.2.1. 종류	3.2.2. 부분 명칭
3.2.3. 행위	3.2.4. 기타
3.2.5. 상태	
3.3. 덩장_124	
3.3.1. 종류	3.3.2. 부속물
3.4. 낚시와 낚시대류_126	
3.4.1. 낚시대(종류)	3.4.2. 낚시(종류)
3.4.3. 재료	3.4.4. 부분명칭
3.4.5. 행위	3.4.6. 단위
3.4.7. 낚시줄	3.3.7. 상태
4. 기타	133
4.1. 해녀 도구_133	
4.2. 행위_135	
5. 어획물	137
5.1. 물고기_137	
5.1.1. 종류	5.1.2. 부분명칭
5.1.3. 상태	5.1.4. 냄새
5.1.5. 단위	5.1.6. 미끼
5.1.7. 손질 행위	
5.2. 조개류_161	
5.2.1. 종류	5.2.2. 행위
5.2.3. 상태	
5.3. 고등류_165	

5.3.1. 종류	5.3.2. 부분명칭
5.3.3. 상태	
5.4. 계류_168	
5.4.1. 종류	5.4.2. 부분명칭
5.5. 오징어류_169	
5.5.1. 종류	
5.6. 기타 어획물_170	
5.6.1. 종류	
5.7. 해조류_172	
5.7.1. 종류	5.7.2. 부분명칭
5.7.3. 상태	5.7.4. 행위
6. 민속 179	
6.1. 고사_179	
6.1.1. 종류	6.1.2. 신과 행위자
6.1.3. 제물	6.1.4. 행위
6.2. 속담·금기어_181	
6.2.1. 배에 닻 발양 중이가 내리문 그날 바당 가지 말라.	
6.2.2. 잠수 늪언 보난에 도곰속곳 하나더라.	
6.2.3. 비늘 엇인 궤기는 제사상에 안 올라간다.	
7. 음식 182	
7.1. 종류_182	
7.1.1. 국류	7.1.2. 젓갈
7.1.3. 죽	7.1.4. 기타
7.2. 맛_185	
7.3. 행위_186	

제 3 부 연구 결과

제5장 마무리 191
참고문헌 193
부 록 195
찾아보기 235

제 1 부

사 업 개 요

제 1 장 연구개요

제 2 장 연구 추진 과정

제 1 장 연구 개요

1. 조사 개요

1.1. 소멸 위기의 어촌 생활어

인간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적응하며 문화를 만들며 그 속에서 문화를 누리며 살고 있다. 인간은 다양하고 역동적인 생활 모형을 창조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이미 만든 생활 모형을 따르며 살아가기도 한다. 이러한 인간 활동의 매개체는 바로 언어이다. 언어를 통해 축적된 문화를 전수하며, 또 언어를 이용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다. 또한 시대, 문화가 변해가면서 언어가 또 다른 모습을 띄기도 한다. 새로운 언어가 생기고, 사용하던 언어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기도 한다. 언어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소멸하는 것이다. 언어의 생성, 소멸은 언어생태학적 관점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는 있겠지만, 언어가 담고 있는 것은 다양한 우리의 모습의 표상이므로 언어의 소멸을 손 놓고 보기만 하기는 그 가치는 참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문화란 주로 말과 글이라는 언어로 전달되고 있고 이 언어의 죽음으로 인해 언어 전달이 무너지면 지식 상속에 심각한 손실이 일어나고 이는 다시 개별 문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언어학자 데이비드 크리스털의 말은 사라져 가고 있는 언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많은 언어학자들이 이 사라져 가고 있는 언어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지형적인 특징은 바다라는 환경에 적응하여 그와 관련된 여러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지역이 많음을 나타낸다. 또한 그것을 담고 있는 언어가 다양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처럼 어촌 지역의 생활 문화를 담고 있는 말을 어촌 생활어라 한다. 여기에는 어촌 지역의 환경, 전통사회, 경제, 문화 활동과 연계된 어휘, 표현이 들어 있고, 또한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수많은 문법적인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어촌 사회의 급격한 도시화와 이로 인한 경제 형태의 변화는 이와 관련된 어촌 생활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존 것과는 다른 형태로 바꾸고 있다. 도시화, 산업화로 전통 어촌 생활 문화를 담고 있는 언어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 속도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어촌 지역의 생활어는 모습을 달리 하고 있으므로 어촌 지역의 기층 생활어, 이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

기이다. 더구나 어촌 생활어는 그동안 정부기관이나 학자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어촌 생활어에 대한 조사는 현재 절실히 필요한 작업이다. 조사를 통해 생활어의 문서화가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 문서화란 데이비드 크리스털의 말처럼 단순히 그러 모으기 식의 과제가 아니라 사용 가능한 모든 매체를 동원하여 하나의 언어를 영구적으로 그려 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어학자 조지 스타이너는 “모든 것은 잊는다. 그러나 언어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우리가 어촌 생활어 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는 어촌 생활어 조사를 통해 사라져 가는 어촌생활의 문화 일면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열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2.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본 사업의 목적은 한반도 남쪽의 해안 지역에 분포된 어촌을 대상으로 하여 바다와 관련된 기초 어휘와 소멸 위기의 기층 생활어를 조사, 문서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국 해안 지역을 조사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바다와 관련된 기초 어휘와 어촌 사회·경제·문화 활동과 연계된 기층 생활어를 조사한다. 이러한 조사 작업은 해당 어촌 지역의 정체성을 살피고 그들의 삶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우리 국토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형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지형적인 특징은 바다를 생활환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해안 지역에는 다양한 어촌 생활문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는 그 지역의 토속적인 언어와 기층 생활어의 결정체이다. 그러나 최근 어촌 사회의 급속한 도시화의 속도와 함께 해당 지역의 토속 언어와 기층 생활어가 점점 소멸해가고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 기관이나 학자들에 의해서 수행되어왔던 지역어 조사는 대부분 농촌 생활 중심이었다. 이러한 조사 지역의 편중성은 곧 해안 지역-어촌 생활에 대한 본격적인 언어학적 조사 사업과 업적의 영세성에 대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조사 사업은 이와 같은 현실을 보완하기 위하여, 또한 최근 표준어의 간섭과 기계화로 인하여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의 전통사회·경제·문화 활동과 연계된 기층 생활어를 조사하여 이를 문서화(documentation)하여 민족문화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확립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오늘날 어촌 사회의 급속한 도시화와 지구 온난화 현상에 따른 바다의 온도 상승은 해양 생태계의 변화를 야기하고 이는 또한 어촌 생활 생태계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어촌 사회의 환경, 생태계의 변화와 파괴는 어촌 생활과 문화의 변화, 소멸을 의미한다. 이는 나아가 그것을 담고 있는 언어의 소멸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소멸 위기의 개체들에 대한 기록과 보호는 현시점에서 필수적이며 시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소멸 위기의 언어를 조사하고 이를 문서화(documentation)하는 일은 언어 유지의 필수

조건이다. 문서화는 언어 유산의 상징이 될 몇 가지 어휘만을 수집하는 식의 비교적 단순한 과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문서화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전 편찬이라는 전통적인 작업의 수준을 넘어서 구술 발화 등과 같은 담화 자료를 녹음기, 사진, 동영상 등 모든 매체를 동원하여 조사 대상을 하나의 언어 활동체로서 그려 내는 대규모의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한 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그 모습 그대로를 그려내는 것이다.

어촌 생활의 기초 어휘와 구술 발화 자료는 지금까지 각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국어의 어휘, 표현법의 발굴이 기대되며 나아가 국어 어휘장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휘 체계를 정리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어촌 지역에 관련된 국어문화 아카이브를 구축하게 하는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1.3. 조사 방법

어촌 생활의 기초 어휘와 소멸 위기의 기층 생활어 조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조사 방법은 질문지에 의한 현장에서 직접 조사방법을 채택한다. 기초 어휘 조사는 공통 질문지를 가지고 조사를 하며, 개별 주제 조사는 연구원 각자의 간략 질문지를 이용한다. 질문지 조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설명하기 어려운 해당 어휘에 관해서는 사진을 병행하여 조사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해당 어휘 항목을 조사하고, 나아가 조사 어휘를 심층 밀착 조사하여 해당 어휘의 하위 항목의 어휘까지 수집한다.

질문지를 이용하여 효과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사자의 조사 어휘 항목에 대한 문헌 조사를 통해서 조사 대상에 대한 이해는 기본이며, 조사 과정에서의 꼼꼼함과 성실함이 요구된다.

1.3.1. 조사의 의의

- 어촌 지역 기초 어휘와 소멸 위기의 기층 생활어에 관한 일련의 조사는 사라져 가고 있는 어휘의 보존 작업에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 질문지를 통한 조사는 기본적인 어휘 항목이 정해져 있으므로 어촌 생활에 관련된 기초 생활 어휘를 수집하기에는 용이한 방법이다.
- 또한 이 조사 방법을 통해 여러 조사 지점의 해당 어휘를 비교 분석하는데 필요한 자료 수집에 용이하다. 해당 어휘가 지역별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이다. 조사 후 해당 어휘의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어촌 지역의 생활 어휘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 질문지를 통한 해당 어휘의 조사 뿐 아니라 조사자의 심층 밀착 조사는 하위 항목의 어휘를 수집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어휘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어촌 생활어의 어휘망 확충, 어휘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3.2. 조사 과정의 특징

- 조사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지역에 대한 1차적 배경인 자연 환경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2차적 배경인 역사적인 조건과 외부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경우에 조사 어휘에 대해 심층적으로 접근하여 다양한 확장 어휘를 수집할 수 있다.
- 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기초어휘 항목에 대한 선정과 이와 관련된 질문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질문지를 통해 질문하기 어려운 어휘 항목에 대해서는 사진 자료를 준비하여 함께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질문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되어야 한다. 조사의 원활한 진행과 질 높은 어휘 수집을 위해서는 조사 어휘 범주, 어휘 항목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 수집 어휘가 대표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보자를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

1.3.3. 조사 시 고려 사항

- 조사 지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어촌 지역이라는 일반적인 요소 이외에 해당 지역만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수집할 수 있는 어휘의 양과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해당 조사 어휘가 가지는 특수성과 일반성의 양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 윤리적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인 개인, 집단의 행동과 말이 기본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설명을 위해서는 배경과 과정을 고려해야 하고, 이를 선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2. 조사 지침

기초 어휘 조사는 소멸해가는 어촌 생활 기초 어휘를 수집하기 위해 작성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해당 어휘를 조사하여야 한다. 어촌 생활 기초 어휘 조사를 위한 질문지는 어촌 생활에 관련된 행위자, 환경, 어획물, 어로도구와 어로방법, 음식, 민속에 관련된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범주별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행위자
- 환경 : 시간(물때, 미세기, 하루), 날씨(바람, 비, 눈, 해·달·별, 기타), 공간(방위, 바다, 해안가, 지형)

- 어획물 : 물고기(부분 명칭, 종류, 상태), 조개류(부분 명칭, 종류, 상태), 계(부분 명칭, 종류) 해조류(종류, 상태), 기타(종류, 상태)
- 어로도구와 어로행위 : 그물류(부분 명칭, 종류), 낚시류(부분 명칭, 종류), 배(부분 명칭, 종류), 어로 도구 기타, 어로 행위(조개류, 해조류, 그물류, 배, 기타)
- 음식 : 젓갈류, 기타
- 민속 : 제의(뱃고사), 금기·속설·은어·노래

또한 소멸 위기의 기층 생활어 조사를 위해서 어촌의 집단별, 직업별, 영역별, 기층 생활어 중 조사 지역에 특수하게 나타나는 상황에 맞는 범주를 정해 조사한다. 간략 질문지를 작성하고 질문지를 근거로 해당 어휘를 조사하고, 나아가 하위 항목의 어휘를 수집한다.

조사는 직접 질문 조사 방식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행위자(제보자)의 구술발화를 채록하여 이를 바탕으로 어휘를 추출해내고 어휘의 용례를 추출하기 위함이다. 질문지의 범주별 조사 항목에 맞추어 어촌 생활 기초 어휘와 기층 생활어를 조사한다. 또한 다양한 하위 항목의 어휘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조사 지역의 제보자와 일정 기간 숙식을 함께 하는 심층, 밀착 조사 방법을 채택한다. 조사자와 제보자 사이에 친밀감이 형성될 때 비로소 조사 어휘 외의 주변 생활어까지 조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자의 구술발화 자료를 근거로 하여 생활어 어휘, 의미, 용례, 행위, 사회·문화·생태·역사의 맥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주제와 관련이 없는 개인 생애사는 가급적 채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질문지를 이용한 심층 밀착 조사를 통해 어촌 생활 기초 어휘와 기층 생활의 어휘장을 넓히고 어휘체계를 구축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조사의 원칙으로 한다.

2.1. 현장 조사 지침

현장 조사를 위해서는 조사원들은 문헌 조사를 통하여 조사 대상 지역에 대한 지리, 역사적 배경에 대한 정보를 얻은 후 조사에 임하여 조사의 질을 높인다. 또한 기초 어휘를 먼저 조사한 후 개별 주제 조사를 진행하여 조사 가능한 기초 어휘의 확장 어휘, 어법을 보완 조사 한다. 기초 어휘 조사는 공통 질문지를 이용하며, 개별 주제 조사는 간략 질문지를 이용한다.

2.1.1. 일반 원칙

- 각 조사 지역에 해당하는 어촌 생활 기초 어휘와 문법형태소를 조사 대상으로 한다.
- 조사 현장에서 채록된 모든 어휘를 수집하여 해당 어휘가 전형적인 의미를 가질 때 올림말로 상정할 수 있다. 또한 이에 확장된 여러 어휘를 수집하여 관련 어휘 체계

망 구축을 위한 기초를 마련한다.

- 어휘론적 변종만을 올림말로 선정하며 음운론적 변종은 올림말로 상정하지 않는다.
- 조사된 어휘 항목에 대해서 사전 편찬을 위한 정보가 기술되어야 한다. 또한 조사된 어휘 용례는 대표성과 일반성을 획득하기 위해 2개 이상 제공되어야 한다.
- 모든 사진 자료와 음성자료는 최종 어휘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조사 대상에 대한 어휘의 실물이 존재할 경우 모두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사진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 조사 대상에 대한 행위와 실물에 연관된 동영상을 촬영하여 영상 파일을 제출할 수 있다.
- 조사 대상자를 통해 관련 그림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올림말 선별 기준에 의해서 올림말로 등록하지 못한 어휘도 조사 자료 정리 방식에 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어휘 목록은 국어원에서 검토, 올림말로 선정 가능한 어휘는 다시 조사자에게 보내 올림말로 선정할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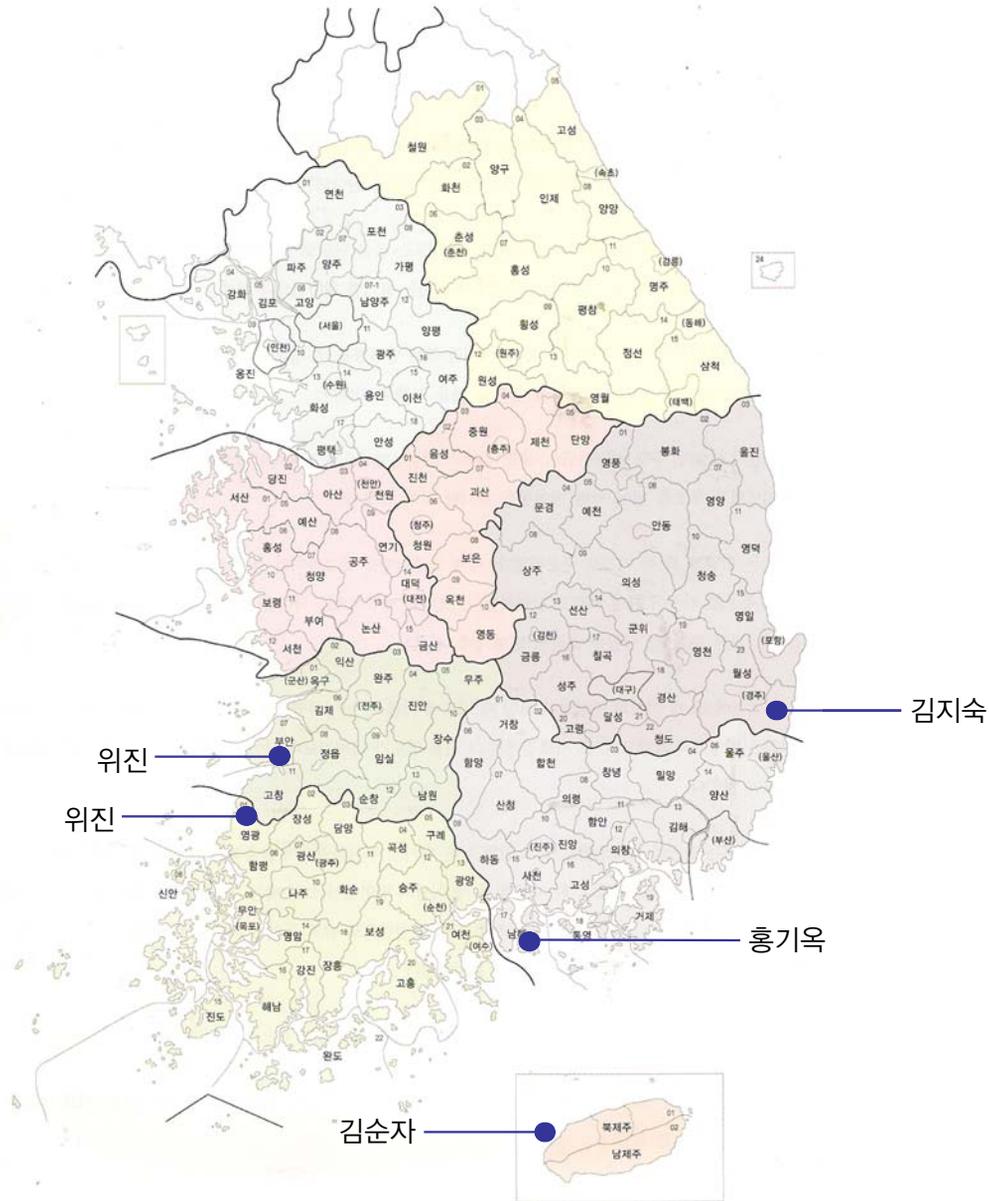
2.1.2. 조사 지점 선정 기준

한반도 남쪽 어촌 생활 기초 어휘를 조사, 수집하기 위해서 제주도,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지역을 우선 광역으로 나누고, 다시 이 지역 중 언어, 생활 문화 차가 예상되는 어촌 지역을 중간 크기로 나누고, 각 지역에서 독특한 어촌 생활어를 수집할 수 있는 조사대상 지역을 선정한다. 조사 지역 선정의 기준은 조사원 간의 조사 지점을 지역 간 거리차를 두어 정하도록 한다. 이는 해당 어휘에 대한 다양한 어휘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다.

-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제주도로 어촌 지역을 나누어 지역별 조사 지역을 선정한다.
- 조사 지점 간의 거리차를 두어 조사 지역을 선정한다.

● 다음은 2010년도 ‘소멸 위기의 어촌 생활어 조사’ 를 위하여 선정된 지역이다.

● 2010년 조사지역



2.1.3. 제보자 선정 기준

이 사업의 성격상 기존의 방언학에서 적용하여 왔던 제보자 선정 기준(NORMs)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어촌 생활어 조사의 제보자 선정은 조사 상황에 맞게 정하되 될 수 있는 대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보자는 조사 지역에서 3대 이상 거주한 50~60세 이상으로 어업에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는 지역 토박이로 한다.

- 70세 이상의 제보자는 되도록 학력이 낮은 사람을 선정하도록 하고, 50대와 60대의 경우는 중학교 정도 졸업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한다.
- 눈과 귀가 어둡지 않고 치아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 구술 발화 자료의 채록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입담이 있는 사람이 제보자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 전사 지침

※ 어휘 수집을 위한 전사 지침을 따르되, 음운론적인 정밀 전사가 필요한 경우(구술전사 등)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전사 지침을 참고할 수 있다.

- 올림말(표제항) 및 용례
 - 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능한 한 어간을 밝혀 적는다.
 - ② 유기음화, 경음화, ㄷ-구개음화, 유음화, 자음군단순화, 비음화 등과 같은 공시적인 음운규칙이나 음성규칙에 의한 음운변화나 음성변화는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국또 → 국도, 가치 → 같이, 노코 → 놓고, 실라 → 신라, 감만 → 값만,
 혹또 → 혹도
 - ③ 일반적인 음운규칙이나 음성규칙에 의해서 예상되지 않는 음운변화 혹은 음성변화 또한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어휘들이 올림말로 선정될 경우 ‘발음 정보’에 명시한다.
예) 김빡 → 김밥, 양념깐장 → 양념간장, 서울써 → 서울서, 돈또 → 돈도
 - ④ 단모음 ‘기’가 이중모음 [wi]로 실현되는 것도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 ⑤ 단모음 ‘괴’가 이중모음 [we]나 [e]로 실현되는 경우 소리 나는 대로 전사하되 해당 어휘 뒤에 ()를 두어 표준어를 밝혀 준다.
예) 차뫼 → 참뫼(참외), 헤이 → 헤이(회의) 등
 - ⑥ 이중모음 ‘기’가 예측가능한 음성환경에서 [e]나 [i]로 실현되는 경우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민주주이 → 민주주의
 나에 → 나의
 이사 → 이사(의사)
 이자 → 이자(의자)
 - ⑦ 이중모음 ‘기’가 [-]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해당 어휘 뒤에 ()를 두어 표준어를 밝혀 준다.
예) 의사 → 으사(의사)

나으 → 나으(나의)

으자 → 으자(의자)

- ⑧ 자음 뒤에서 이중모음 ‘꺨’가 [e]로 실현되는 경우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지혜 → 지혜
혜성 → 혜성
- ⑨ 단모음 ‘꺨’나 ‘꺨’가 [E]로 실현되는 경우 해당 어휘가 기원적으로 ‘꺨’이면 ‘꺨’, ‘꺨’이면 ‘꺨’로 전사한다.
예) 대떡[E-] → 대떡
- ⑩ 단모음 ‘ㅡ’나 ‘ㄱ’가 [ɕ]로 실현되는 경우 해당 어휘가 기원적으로 ‘ㅡ’이면 ‘ㅡ’, ‘ㄱ’이면 ‘ㄱ’로 전사한다.
- ⑪ 전설 모음 앞에서 ‘ㅅ’이 구개음으로 실현되는 것은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샴 → 사람
세수 → 세수 등
- ⑫ 음장은 별도의 기호를 두어 전사하지 않으며, 다만 올림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발음 정보’에 명시한다.
- ⑬ 체언 어간말 자음 ‘ㄷ, ㅌ, ㅊ, ㅈ’ 등이 곡용 패러다임에서 마찰음 ‘ㅅ’으로 실현된 경우에는 소리는 나는 대로 전사하고 해당 어휘 뒤에 ()를 두어 표준어를 밝혀둔다.
예) 바시 → 바티(밭이)
저시 → 저티(젓이)
꼬시 → 꼬티(꽃이)
- ⑭ 조음위치동화에 의한 음운론적 변이형들은 음운변화는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보듬기다>보듬기다, 안기다>앙기다, 암개>앙개 등
- ⑮ 변자음화에 의한 음운변화는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익꼬 → 익고, 묵꼬 → 묵고(埋) 등
- ⑯ 표준어에서 ㅅ-불규칙, ㅂ-불규칙 활용을 하는 어휘들이 정칙 활용을 하는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전사한다.
예) 이서서, 부서라, 지서라 등
추버서, 매버서, 짜버서 등

2.3. 올림말 선정 지침

2.3.1. 일반 원칙

- ① 모든 어휘론적 변종들은 올림말로 선정한다.
② 단순 음운론적 변종은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음장, 장

단, 비음화, 유음화, 경음화, 격음화, 자음군단순화, 위치동화, 활음화, ㄷ-구개음화(형태소 경계) 등의 음운규칙이 적용되어 기저형의 예측이 가능한 표면형은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③ 다음의 올림말 선정 세부기준을 참고하되, 필요시 협의 과정을 거친 후 올림말 선정의 예외를 결정한다.

2.3.2. 세부기준

- ① 올라우트 실현형 : 괴기, 핵교, 호랭이, 귀경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다만, 게재자음 제약에도 불구하고 올라우트가 실현된 경우에는 올림말로 선정할 수 있다.(매디(마디), 쇠리(소리), 개지다(가지다) 등).
- ② 어두경음화 실현형 : 걱정(걱정), 쏘주(소주), 까지, 깨구리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③ ㄱ-구개음화 실현형 : 질(길), 지둥(기둥) 등
 -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④ ㅎ-구개음화 실현형 : 성(형), 소자(효자), 심(힘), 송년(홍년) 등
 -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⑤ 체언 어간말 자음군의 어간재구조화형 : 흑(흙), 닥(닭), 갑(값)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⑥ 체언 어간말 자음 ‘ㅈ’와 ‘ㅊ’의 음운론적 교체형 : 바대(바다), 가매(가마), 감재(감자), 봉애(봉어), 고등애(고등어), 잉애(잉어)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⑦ 치찰음화(혹은 구개모음화) 실현형 : 벼슬(벼실), 썸나물(쓴나물), 씨다(쓰다, 苦)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⑧ 모음 상승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ㄱ. ㅏ>ㅓ : 자두(자도), 삼촌(삼촌), 사둔(사돈), 가우리(가오리)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ㄴ. ㅓ>ㅗ : 그지(거지), 은니(언니), 그짓말(거짓말)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ㄷ. ㅕ>ㅓ : 기(蟹), 시상(세상), 히푸다(헤푸다)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⑨ 유음 아래서 ‘ㅡ’의 전설모음화 : 흐리다(流), 마리다(마르다), 고리다(고르다)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⑩ 순음 아래서 ‘ㅇ>ㅓ’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어휘 : 몰(馬), 풀(밭), 뵘다(밟다) 등

-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⑪ 어두음절에서 ‘ㅈ>ㅉ’의 교체형 : 새다리(사다리), 채곡채곡(차곡차곡), 재갈(자갈)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⑫ 순음 아래서 ‘ㄱ>ㄲ’의 변화를 반영하는 교체형 : 봉어리(병어리), 볼(벌), 보짐(버짐), 모루(머루) 등
 -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⑬ 자음첨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ㄱ. ㄹ-첨가 : 모가지>모감지, 호맹이>흙맹이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ㄴ. ㄴ-첨가 : 고치다>곤치다, 까치>깐치, 무치다>문치다, 나중>난중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ㄷ. ㄷ-첨가 : 고르다>골르다, 도르다>돌르다(속이다, 흙치다), 지리>질리(길이)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ㄹ. ㅇ-첨가 : 해구다>행구다, 바우다>방우다(배우다), 베이다>벵이다(배우다)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⑭ 단순 모음 교체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ㄱ. ㅏ>ㅑ : 망>명(그물), 쇠망>쇠명, 살강>설경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ㄴ. ㅓ>ㅕ : 구석>구삭, 흘청>흘창, 베개청>베개창, 수령>수랑, 뚜껍>뚜깡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ㄷ. ㅣ>ㅝ : 비늘>베늘, 비누>베누, 함씨>함씨(할머니), 개비>게베 등
 - ☞ 올림말로 선정한다.
 - ㄹ. ㅓ>ㅜ : 고자리>괴자리, 도토리>되토리, 코>괴, 꼬랑>피랑(도랑), 고>괴 등
 - ☞ 올림말로 선정한다.
 - ㅁ. ㅜ>ㅟ : 괴기>게기, 괴비>게비(식물), 외우다>에우다, 뉘시다>메시다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ㅂ. ㅓ>ㅕ : 구저리>귀저리(구더기), 굴뚝>귓뚝, 꾸다>뀌다, 추다>취다 등
 - ☞ 올림말로 선정한다.
 - ㅅ. ㅐ>ㅝ : 꿩이>꿩이, 왜홀태>외홀태, 산토펙이>산토펙이, 껌>피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⑮ 단순 자음 교체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자음교체가 지역적 특성일 경우는 예외)
 - ㄱ. ㅂ>ㅍ : 자봉침>자광침, 버마제비>거마제비, 덩석>덕석, 고부리다>고구리다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ㄴ. ㅂ>ㅍ : 진눈깨비>진눈깨미, 버버리>버머리, 땅개비>땅개미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ㄷ. ㅁ>ㅂ : 나막신>나박신, 대리미>대리비, 입감>입갑, 비점>비점(버짐)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ㄹ. ㄱ>ㄴ : 주걱>주벽, 웅구럭대기>웅구럽대기(미꾸라지) 등
 - ☞ 올림말로 선정한다.
- ㅁ. ㄱ>ㅇ : 탁성냥>당성냥, 복송씨>봉송씨, 꼭다리>꽁다리(꼬리), 물팍>물팡(무릎), 어덕>어딩(언덕), 꼭사리>꽁사리(송사리), 등
 - ☞ 부분적으로 수용한다.
- ㅂ. ㄱ>ㅎ : 아곱>아흡, 돛>뚝, 숙->송-(雄), 군지>훈지(그네) 등
 -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⑩ 조음위치동화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안기다>앙기다, 암캐>앙캐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⑪ ‘ㅡ’ 삽입에 의한 어간 재구조화형 : 앓다>안즈다, 엮다>여끄다, 앙기다>앙그다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부분적 수용 가능)
- ⑫ ‘△’의 탈락 여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여수~여시, 가슬~가실, 잇다(이서라~잇꼬), 붓다(부서라~붓꼬) 등
 - ☞ 체언인 경우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⑬ ‘ㄴ’의 탈락 여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솔~소플~소불(부추), 장팍~장꼬방(장독대), 마름~말밤, 덩다, 춡다 등
 - ☞ 체언인 경우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⑭ ‘ㄱ’의 탈락 여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가새~가시개, 물개~모래, 생강~새양, 시렁~실경, 개암~깨금, 질구다~지루다(기르다) 등
 -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⑮ 평음의 유기음화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차꼬(자꾸), 혼차(혼자), 땡퐁(병퐁), 팜나(밤낮), 풀세(벌써), 탐박질(달음박질), 몬차(먼저), 클씨(글세)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부분적 수용 가능)
- ⑯ 어간말 자음 ‘ㅈ, ㅊ, ㅌ’ 등의 어간재구조화(마찰음화) : 꺾(꺾), 웃(웃), 빗(빗)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부분적 수용 가능)
- ⑰ 용언의 어간재구조화형은 한글로 표기할 수 있을 경우 : 꺾다(꺾다), 짚다(꺾다) 등
 - ☞ 올림말로 선정한다.

제 2 장 연구 추진 과정

1. 조사 계획



[사진 1] 비양도 천년 기념비



[사진 2] 비양도

사면의 바다로 둘러싸인 화산섬 제주도 사람들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를 일궈왔다. 제주 사람들은 지금도 바다를 무대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생활환경과 양식의 변화로 바다에서의 삶의 방식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은 그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문화가 달라진다는 뜻이다. 문화가 달라지면 그 언어도 달라진다.

언어는 모든 생명체가 그러하듯이 나고 죽는 과정을 거친다. 언어는 아무도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을 때 죽는다. 그러나 인류가 만들어낸 언어는 영원히 죽을 수도 있지만 인류의 노력으로 영원히 부활할 수도 있다. 사용하는 사람이 없지만 그 언어가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서는 소멸하기 전에 언어 자료(문자, 음성, 영상 등)를 기록하여 구축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언어는 기록하기 전에 소멸의 길을 가고 있다. 대대로 이어온 민족생활어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 생활환경의 변화와 시대의 흐름은 누대로 전해오던 언어 지도를 바꿔놓고 있다. 토착어가 표준어에 밀려 사라지고, 한국어도 영어 등 외국어와 외래어에 밀려 자취를 감추고 있다. 제주의 민족생활어도 예외는 아니다.

2010년 민족생활어조사의 주제를 ‘제주 서부 비양도 고기잡이’로 잡은 것도 소멸 위기의 제주 민족생활어를 살리겠다는 취지에서다.

고기잡이 도구인 그물을 보자. 예전 우리 조상들은 천연 재료를 소재로, 손으로 직접 그물을 만들어 썼다. 그러나 요즘은 소재가 나일론으로 바뀌었을 뿐 아니라 손수 만들어

쓰는 대신 기계로 만들어진 그물을 사다 사용한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물의 천연 재료와 그물을 직접 만들 때 사용했던 어휘들이 전승 기회를 놓치고 사라지거나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생태계의 보존에 관심을 쏟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어의 보존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언어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한 자산’(호켓)이기 때문이다. 그 자산이 손실되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현장에 나가 기술해 두어야 하는 것은 순전히 언어학자들의 몫이다.

이번에 비양도의 고기잡이 조사에 주목하는 바도 비양도에서 전통 방식으로 고기잡이를 했던 사람들이 거의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양도에는 제주 특산품인 옥돔의 주산지이고, 고등어와 갈치 잡이를 많이 했던 전통 어촌 마을로, 아직까지는 어로생활과 관련한 생생한 어휘들이 살아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비양도의 어촌생활어도 사라지거나 소멸위기에 놓여 있어 화급한 조사가 요구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비양도의 어장은 물론, 포구와 개 등의 바다밭 이름, 비양도에서 잡히는 어종과 어부들이 고기잡이 과정에서 과생되는 어휘를 채록하여 정리할 것이다.

2. 조사 보고

2.1. 제보자

비양도 고기잡이 조사 제보자는 모두 8명이다. 주제보자 4명, 보조제보자 4명에게 조사를 하였다. 주제보자 가운데 차철의를 통해서 비양도의 전반적인 어로활동에 대한 구술 채록도 하였다.

2.1.1. 주 제보자

1) 차철의

주제보자 차철의(남, 77세)는 한림읍 옹포가 고향으로 어렸을 때 비양도에 들어와 평생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을 해 왔다. 전통적인 방식의 옥돔잡이는 물론, 갈치 낚시, 고등어 낚시, 주낙 등 바다에서만 삶을 일궈온 전통 ‘보제기’다. 돛단배를 타고 비양도 바다는 물론 서귀포, 모슬포, 관탈섬 등 제주바다를 누비면서 고기잡이 생활을 하였다. 지금은 둘째 아들의 일을 돕고 있다. 조사자가 만난 7월에는 멸치잡이를 위해 ‘멜그물 갖는 일’을 돕고 있었다. 슬하에 부인과 3남 1녀가 있으며, 비양도 어로 활동과 관련한 풍부한 지식을 지니고 있었다.

2) 장명상

제보자 장명상(남, 71세)은 비양도 토박이로서, 유일하게 비양도에서 옥돔잡이를 하는

옥돔재비다. 부인 강영례와 함께 옥돔잡이를 하고 있다. 옥돔 잡이에 대해 구술해 주었다.

3) 강영철

강영철은 (남, 57세) 비양도가 고향이지만 울릉도 등지에서 고기잡이 경험을 가지고 있다. 비양리의 이장이기도 한 그는 비양도에서 덩장 운영을 15년째 하고 있다. 덩장은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날씨가 좋은 날은 매일 새벽 어장에 나가 그물을 걷는다.

4) 김선자

김선자(여, 57세)는 한경 두모 출신으로 울릉도에 물질을 갔다가 그곳에서 고기잡이를 했던 남편 강영철을 만나 결혼한 후 남편과 함께 비양도에 정착했다. 남편과 함께 덩장을 운영하는 한편 물질도 하고 있는 현직 해녀다. 덩장 관련 어휘는 물론 ‘멜컷’ 담그는 모습, 자리물회 만드는 법 등을 직접 재현해 주었다.

2.1.2. 보조 제보자

1) 강영례

보조제보자 강영례(여, 67세)는 지금까지 비양도를 떠나보지 않은 토박이다. 남편 장명상과 함께 옥돔잡이를 하는 한편 바다에 가지 않을 때는 물질을 하는 현직 해녀다. 전통적 방식의 옥돔 잡이에 대하여 구술해 주었다.

2) 김순선

김순선(여, 81)은 부모 때에 비양도에 들어와 비양도에서 낳고 자란 토박이다. 비양도 상황을 꿰고 있는 그녀는 요즘도 간간이 물질하고 있는 현역 해녀다. 그물을 잣고, 멸치 잡이 때는 ‘그물을 터는 일’을 소일거리로 한다.

3) 공비자

공비자(여, 70)는 비양도 토박이로서, 비양도에서 물질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생선 ‘비늘 거시리는’ 모습을 재현해 보여주었다. 물고기의 부분명칭 등에 대해서도 알려 주었다.

4) 강씨 할머니

강씨 할머니(여, 80)는 비양도 토박이로, 지금도 물질을 하고 있다. 이름 밝히는 것을 꺼려해서 성만 따서 소개하지만 토착화된 비양도 방언을 구사해 많은 도움이 되었다.

2.2. 조사 기간과 방법

비양도 고기잡이 조사는 5월 31일, 7월 20일과 21일, 7월 24일, 9월 17일 5일 동안 이루어졌다. 5월 31일은 제보자 선정과 생선의 부분 명칭과 자리돔으로 하는 음식을

조사하였다. 7월 20일에는 덩장을 직접 찾아가 조사를 하는 한편 비양도의 전반적인 어로활동에 대한 1차 구술 자료도 확보하였다. 7월 24일은 고기잡이와 관련하여 추가 조사를 하였다. 9월 17일에는 2차 구술 채록을 하였다. 조사는 조사자가 작성한 질문지를 가지고 집중적인 구술채록방식을 택하여 하였다. 채록된 구술자료는 전사하여 어휘와 용례를 추출하여, 뜻풀이를 정리하였다. 일정별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정	조사 내용	장소	도구
4·6월	문헌 조사		
5. 31.	제1차 현지조사 제보자 선정 옥돔잡이 등 고기잡이 조사 기초 어휘 조사	비양리 강영철 이장택, 비양도 포구	녹음기 카메라
7. 20.~21.	제2차 현지 조사 -옥돔잡이 등 고기잡이 조사 -덩장 현지 조사(동영상 촬영) -기초어휘 조사	제보자의 집, 비양도 바다, 비양도 포구 등	녹음기 카메라 캠코더
7. 24.	제3차 현지조사 -기초어휘, 바다밭, 그물 등 어로 행위 조사	제보자의 집, 비양도 포구	녹음기 카메라
9. 17.	제4차 현지 조사 -옥돔잡이 등 비양도 어로 행위 조사, 기초어휘 보충 -동영상 촬영	제보자의 집, 비양도 포구 등	녹음기 캠코더

2.3. 조사 장소

조사는 제보자의 집과 덩장, 비양도 포구, 바닷가 등지에서 이루어졌다. 구술자료와 어휘 조사는 주로 제보자의 집에서 이루어졌고, 덩장 조사와 어로도구 조사는 비양도 바다에서 이루어졌다.

2.4. 조사 내용

조사 내용	세부 항목 조사
행위자	어부, 보제기, 해녀, 즈녀, 즈수, 이물사공, 고물사공, 한사공 등
공간	포구, 개, 어장, 바다 밭 이름 등
날씨	바람(셋바람, 갈바람, 하늬바람, 산부세 등), 물때(물들다, 물써다, 한 무날, 두무날, 열두무날 등, 조금, 한조금, 막조금, 백중사리 등)
어획물	물고기, 고동, 오징어, 문어, 해삼 등 바다 동물, 파래, 모자반, 툫, 청각, 우뭇가사리 등 바다 식물, 상태, 미끼 등

조사 내용	세부 항목 조사
어획 방법	옥돔 잡이, 고등어 잡이, 갈치 잡이, 덩장과 관련한 어획 방법
어로 도구	배, 그물, 낚시, 낚시대 등의 종류와 재료, 부분 명칭. 족바지, 버국, 뽕돌, 테왁, 구덕, 바농대 등 기타 도구.
어로 행위	그물 놓다, 그물 뺏기다, 그물 시치다, 주낚 추리다, 주낚 갈리다 등
민속	선양굿, 제물, 고사, 네조, 배에서 쥐 내리면 바다에 가지 않는다 등
음식	젓갈, 국거리, 횡국, 죽, 맛, 상태 등
구술 채록	차철의의 생애, 옥돔잡이, 갈치잡이 등 비양도의 사계절 어로 활동에 얽힌 이야기, 어장, 민속, 음식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

2.5. 조사 결과물

비양도 고기잡이 조사 결과물은 한글 조사 보고서와 음성파일, 사진 파일, 엑셀파일로 이루어졌다. 조사 보고서는 어휘에 따른 대응표준어와 뜻풀이, 용례, 사진 자료 등을 곁들여 작성되었다. 엑셀파일도 뜻풀이와 용례 등을 담아내 활용하기 쉽도록 하였다.

비양도 고기잡이와 관련하여 조사된 어휘는 629개다. 이 가운데는 비양도 어촌생활어 기초어휘와 중복되어 조사된 어휘는 117개이다. 이 가운데 《표준 국어 대사전》에 올림말로 등재되지 않은 제주도 방언 어휘는 461개다. 이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조사내용	조사 어휘		음성 자료		영상 자료	
	총 어휘 수	미등재 어휘	구술/전사	분절 음성	사진	동영상
호상웃	629	461	2/2	500	70	5

※ 미등재 어휘는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어휘를 말한다. 여기에서 미등재 어휘는 기초 어휘에서 중복된 미등재 어휘가 포함된 숫자다.

제 2 부

연 구 내 용

제 3 장 구술 발화

제 4 장 조사된 어휘

제 3 장 구술 발화

1. 출생과 가족관계



[사진 3] 구술자 차철의

@ 예. 성함이 어떻 됩수과?

차 자 철 자 의 자. 차철의.

@ 태어난 건 어디서 태어난마씨?

본적은 옹폰디이, 나가 열두 설에 아버지가 돌아간 이제 춤 이디 저디 고생허면서 많이 살앗주기에. 게연 살단 옹포 서도 춤 이제 저 앞에 워정 때에 불칸 베에 공사도 그디 이제 헤나고. 이제 그추룩허명 나가 이남 일너를 낫단(2남 2녀 였는데의 의미) 나가 지금은 독신이라. 게연 그 옹포에 가믄, 나 본적은 옹포라. 우리 초상도 옹포고. 게연 옹포에 거기 허믄 그 췌에 그 빼다구 하나라도 올라오믄 이제 저디 강 이제 문고, 이제 그렇게 다 헤 주니까 춤 이제는 우리 아덜덜 영 성공현 거 같아부러.

@ 지금 연세가 어떻 됩수가?

칠십 칠세. 호적으론 삼오년 생인디이, 혼나가 나 죽어전게.

@ 아아. 게믄 원래는 삼사년 생인데 삼오년 생 텐 거 구나예? 이 집 주소는 뭐우과?

이 집 주소는 옛날에이, 비양도 산 3번지엔 헤낫저게.

@ 비양도 산 3번지예? 예예. 게믄 가족은 아덜만 들.

아덜 싯 딸 하나.

@ 아, 아덜 싯 딸 하나? 여기 비양도는 누게 살았수가?

셋아덜.

@ 셋아덜 하나만? 딸들은 다 어디?

큰아덜도 한림에 3층집. 셋아덜도 한림에 삼층집 싯저. 딸도 이제 저 소길리 그디 이제 좋은 집 짓언 살고 저 동문시장 광남상회엔 허믄.

@ 아아. 광남상회. 동문시장. 거기 가믄 이런 생선같은 거 파는 데우과?

어. 고기 장시. 거 우리 딸이여. 고기 하나 사다 먹곡 허라이. 죽은아덜은 서울 살고. 이녀 따로 조그만헌 사무실 출런 그자 벳뎡 밥 먹엄저게.

2. 고기잡이와 유년의 기억

이제 그추룩허단 이제 그일 꺾나난 우리 어머니는 또 품삭 헤여와근에 쓸 혼 돼 실르곡 옹포서 노젓는베에 이젠 저 이 비양도 앞의서 고기 생선 낙수로 잡단. 고기술로 그치룩허단 이제 그 삼스월 돼믄 이 앞바다에 생선이 안 물기 때문에 노를 젓고 이제 저녁 혼 이제 열 시 돼믄 배를 출발허여. 돛 들양 노룻에, 노룻이엔 허믄 이 한라산으로 오는 노룻 헤여근에 그 저 모실포 바당꺼지 그 풍선 탕, 이제 그디 가는 배 선주 하르방은 누구냐 허믄 문성숙이 하르방이라게. 그 베에 가간에 이제 그 바당에 가도 칫사공, 이제 치 심은 사공은 이제 언제 갓구나 허영 허믄 이제 혼 열 시가 돼곡 열한 시가 돼영 이제 그디 도착돼믄 초즈냇이 열 시 가간에 뒷넷 날 열한 시가 돼믄 거기 벳뎡 도착 돼여. 게근에 강 허믄 그 하르방 이제 돛 지우고 이제 노로 이제 네를 영 머물영 젓영 머물영 앓이믄 그 하르방 고기술 쥐. 생성줄. 그 하르방이 생성술 쥬 하나 물민 이제 그디 닻을 놓곡 생성을 잡곡, 못 잡으믄 이레 노 젓영 가간에 그 하르방 생선 하나 물 때까지 허당 보믄 옛날은 거기 허당 보믄 이 마포름. 마포름 탱탱 불믄 거기서 이제 배질 허영 저 모실포 앞바다에서 배질 허믄 저 어디 가느냐 허믄 그 어디고? 저 거세기 신도 알이 도착 돼여. 저 신도 알이 아니고이 저 이 제주시 그 거기 그 비행장 앞의. 그디 도착 돼영 허믄 그디서 돛 들양 오믄 비양도 이제 저디 저 등대 잇는디, 그

앞의꺼지 이제 도착웨믄 또 돛 들믄 또 이제 귀덕 알 가. 귀덕 알 가간에 허면은 그뻘 이 비양도 넘어 가근에 거기 허믄 옹포 알 거저 가가믄 돛 지와근에 옹포에 가근에 생성 하나 못 나끄곡 우리 어머니 그 품삭 받아온 쓸, 보리쓸이든 좁쓸이든 혼 뉘 짜쥐근에 허믄. 옛날은 그치록 보리쓸 좁쓸 혼 뉘 짜 쥐도이 저 밥차롱. 밥차롱에 우알착 아래도 싸곡 우알착도 싸간에 퀘기 허믄 그건 이틀은 먹어놋주께.

@ 아 한번 쌍가믄예?

으, 거 이틀 먹엉, 이틀 쫓나믄 이제 그 밥을 허렌 허여. 그 하르버지가. 그 베임제 하르방 그 문성숙의 하르방이게 밥허렌 허민 밥허여근에 허영 주곡. 생성도 오늘은 나까지믄 으섯사름이 간디, 세 사름 생성 하나씩 내 낱 그거 허영 생성국 끌령 먹곡. 웬장에. 간장이 잇어나시냐? 그 웬장덜 가정강 그 옛날 제주 웬장 언마나 맛 좋느니?

@ 예, 예, 예.

그 웬장 낱 국 끌려근에 거 먹엉 밤인 갈치 나까도 안 물어. 그 바당에서도. 이젠 영 갈치 나끄레 와랑자랑 다녀도. 게여근에 허믄 돛넷날 그 하르방 일어나근에 고기술 쉼 생성 하나 물믄 또 거기서 나끄거니와 겨 아녀민 또 노 짓엉, 이제는 이렇게 안개 쉼도 옛날은 콤파스도 엇엇저. 콤파스도 웃고 거세기 허믄 노 짓어근에 저레 글렌 허영 허믄 가간에 생성 무는 디 이제 강 허믄 그 하르방 춤 생선 하나 물믄 이디 이제 닷 주렌 허영 닷 쉼 나깻주. 경 아녀민 우리 생성 하나도 못 나끈다. 어떤 뎀. 게연 그치록허연 완 옹포일은 이결로 쫓이.

3. 비양도 생활과 고기잡이

3.1. 갈치 잡이

@ 멧 설에 이 비양도 넘어 왔수가?

나 비양도 쓰물하나에, 쓰물하나에 이 할망 만났저. 이 할망 만난 춤 나도이.

@ 할머니는 원래 비양도?

으, 비양도 살안. 옹포에서도 나도 어머니하고 우리 일 남 이 녀는, 일 년디 다 춤 저 세상 가불곡 하나도 이제 현재 나 독자여마는이. 이제 춤 이디 완 김수철의 하르방엔 현 사름 조그만현 풍선 그거 탕 이제 어디 가느냐 허믄 저 관탈 갈치 나끄레. 갈치 나끄레 가믄 그디 수심이 혼 칠십 닷 밭 들어.

@ 예에.

게 백 밭 술 가정강 갈치 나까도 춤 그뻘 못 먹는 흥년이니까 갈치 흐루 나깁 혼 서른 머리, 마흔 머리, 쉬은 머리 나까도 그거 풀양 하르버지, 그 하르버지신디 그때 선개 그 배깁이 이제 갈치 열 머리믄 갈치 두 머린 그 하르방 적시 여덟 머리는 나 적시. 그치룩 허여도 갈치 나까근에 꿩기 허믄 춤 돈은 못 벌언게. 게영 왕 보면은 할망은 저 아기덜 낱곡 올망졸망 허곡 꿩기 허단 또 나 군인 간 삼 년 살안 오고. 완 허난 또 하르방네 갈치 나끄고.

3.2. 생성 잡이

또 뜬 베앵 이제 생성 나끄레 다니명 경 해근에 춤 그때 죽을 고생 멧 번 넘고. 생선 나끄명도. 켄디 생선 나끄당도 이제 음력 삼스월 뉘믄, 그 옛날 보리덜 허여근에 보리 테작힐 때 그때에 꿩기허믄 저 그때엔 저 이 차구섬 앞의 그디 가믄 갈치 물어. 춤 도 자지도 못허곡 춤 우리 할망 놈으 밧 농스허믄 그 보리 갓다근에 주곡 할망은 보리 비믄 무꿈질도 나 못 허여낫져. 영 보리 무끄는 거. 그치룩허명 이제꺼지 우리 영 할망 허곡 살단 보난 이젠 행복허게 살주마는 이제 그치룩허명 허여도. 이제 생성 나끄레 가믄, 생선 서 못이엔 허믄 열 머리가 혼 못. 쓰무 머리는 두 못 서른 머리는 서 못. 그치룩 나깁간에 허믄 선개는 서 못에 생성 으섯 머리만 주믄 나머진 이녁 먹엇주마는. 이젠 생성 깎도 영 좋곡 머의든지 영 이제 고기깎이 좋아도 그뻘 생성 나까도, 고기깎도 엇고 생성 깎도 엇고. 이제 그치룩허단 또 이 앞바당에이 벤자리. 벤자리 옛날은 그 낙수로 나까낫져.

3.3. 벤자리 낚시와 미끼

@ 낙수로예?

구물로 나끈, 구물로 잡아난 것이 아니고, 낙수로 꿩기 허믄 그 이제 미끼 뉘이나 허민 갈기.

@ 갈기가 뭐우과?

계수리.

@ 아아, 갈기가 계수리우과?

어. 이제 그거 해긴에 거 게, 강이. 이제 제주말로 강이. 강이 잡아긴에. 그때 퀘기허
 른 벤자린 흥 마은 머리 백 머리 그렇게도 잡고. 퀘기 해긴에. 계여근에 밤새냥 고기
 나까긴에 그뻐 또 안개 찌른 노 젓어긴에 판포 알꺼지 강. 아 비양도 요디서 요딘디 네
 젓당 보른 판포 알 가부러.

@ 안개 찌부난예?

어. 이제 그치록허여긴에 벤자리 얼음을 차시냐? 뭐 헤시냐? 벤자리 그 으름이 뒸른
 시간 굴리는 고기주기.

@ 아 빨리 상허는 구나예?

으. 그치록 해긴에 이제 그 벤자리 나까긴에 이제 왕 풀른 그 때에 벤자리 돈 언마
 쥐시냐? 서푼 반양 허른 그것도 춤 벤자리 나까근에 풀른 돈으로 퀘기 허른 나가 옛날
 돈 오천 원, 오천 원이른 하영 번 돈이주. 오천 원 벌른 이천 원 쥐불곡, 저 천오백 쥐
 불곡 삼천오백원 나 적시주기. 그치록 허여도 살질 못 헤여났저.

3.4. 결혼과 군대 생활

@ 그게 멧 슬 때우과?

그대에 아마 이 우리 할망 만난 흥 저 아덜덜 낳고 쓰물서너 대으섯. 계여단 또 군
 인 갖다 오고. 그르후로 군인 춤 저 논산 간 떨어전 오고. 이거 나 역사 골암찌이. 이
 제 그치록허연 군인 간 떨어전 완. 또 두번찬 벤자리 나간. 신체검사 혈 때에 그뻐 갖
 으면 불합격 웰 건디. 그 낭 강알에, 저 어딘고 허른 것이 어디냐? 저 제주시 넘어간
 함덕. 함덕 그 초등학교 간 신체검사허는디 그 뒸고? 이제 그 버드나무. 이 버드나무가
 아니고 저 살귀나무. 살귀나무 아래 나가 이제 그디 간 줌 잔. 모두 신체검사허연 나

완. 나 혼자 떨어진 들어간 을증으로 줘 불지 아녀냐. 을증으로 쥘 그때 군대 간 허난. 춤 이제 논산 가도 공부 못 헛젠 아녀ㄴ렌 허연 그 이제 그 합격은 뤄연. 그, 이 뭣고? 필기시험. 그거 받 필기시험을 안 봤주기. 백지로 내부니까 이젠 그 옛날은 그 군인 그 공민학교가 있어났어.

@ 예, 예. 아아?

그 공민학교에 간 허난, 세상치고 공부, 거 그때에 아무리 공부 못해도 이녁 알아진 거 다 써간에 내쳤으믄 내가 왜 여기 와졌는고 현 생각이 무득무득 나났저.

@ 예에.

밤의 열시만 뤄민 저 우리 저 신장[신짱]만이 현 디. 저 고양이 중이 잡으레 들어강 울컥허믄 들어강 울컥 허믄 나오렌 허곡이. 그치룩허단이 일 학기 그 시험보난 백 점 받안 허난. 이젠 다시 이제 저 훈련소로 가렌 허연. 훈련소에 간 허난 그때에 그 경기도 어른덜, 춤 경기도 아이덜 춤 나허곡 이제 군대 동창덜 만난. 우리 제주도에 간 사름, 그때에 제주도에 천 명 가가지고 이제 저 흔 팔백 명은 합격 뤄났주기.

@ 예에.

이백 명은 돌려보내나난. 그 께 빼연 이번이랑 돌려보내주카 부덴 허난. 군의관 쫓꼬 만 허믄 돌려주커라라 마는이. 지위관 그디 직접 그 지위관 와아전 이 사름 어떤 사름 이냐? 하니까 을증으로 들어가렌 허연. 또 군대도 을증이라. 거 훈련 이제 그 춤 전반기 후반기 흔 팔십 주, 팔 주를 이제 다 마탄 거세기 허난. 미군 미 공* 거세기로 갈 거라라났주게. 운이 없으니까 나 십오사단 춤 이제 십오사단 가아전 그디 간 이제 그치 룩허단 이제 제대헤연 오난. 이젠 이디 완 이제 주났을 헛어. 주났 헤영 허믄 춤 이 생 성도 하영 잡허곡.

3.5. 주났 생성 잡이

@ 예에.

거세기 헤도 그땐 깎이 웃언게.

@ 예. 깎이 만약에 생선 열 머리 주면 뭐, 그거에 대가는 어느 정도 줘수까? 뭘 살 수 있었수까? 생선 열 머리 풀른.

생선 열 머리, 쓰무 머리 줘야 보리쌀 흔 뉘라.

@ 진짜 가격을 안 준 거여예. 요즘 그 정도만 헛시민 완전 부자 뉘볼 건디.

요즘그찌 헛시민 일류 갑부 뉘주.

@ 게니까?

꿩미 꿩어긴에 꿩기 허믄 이백 원도 반곡 삼백 원도 반곡 그치룩 허단 보난 무슨 돈을 버느니? 이 한 장도막을 등기지 못허고 허멍 살단 으, 이용진이. 그 어머니네 베에 나가 갈치 나끄레 가낫주기. 갈치 나끄레 간 그 어머니가 그 이용진의 형이 셔 낫젠.

@ 예에.

“게연 뉘 슬 먹언디?” 그 어머니가 허난, “나 아무 설 먹어수다.” “아이고, 우리 큰 아덜이영 동갑이로구나. 나 아덜 허마.” 게연 그 할머니네 집의셔 쓸도 흔 뉘 말 그 할머니 갖다쥬 우리 먹언 저 아기덜 살렷저게. 술찌거니 게난 우리 아시엔 곱앗주.

@ 예, 예, 예.

게연 그치룩허연 그 하르방네 배도 갈치를 못 나간게. 그때에 또 근탈 강 갈치 나끄레 가난, 가믄 가당 기계 고장 나근에 노 젓엉 들어와볼곡. 또 그 바당 강 갈치 뉘 머리 나끄믄 또 어둑으믄 또 들어오젠 허믄 기계 고장나근에 꿩기허곡 헤부난게 게난 그 할망이 그 어무니가 아덜 닳은 아덜이엔 헤영은에 할망이 아덜허켄 허영은에 쓸 뉘 말 갖다쥬 우리 먹언 이 아기덜이영 살렷저. 경 허당 이젠 또 우리 이제 큰 대성호. 이 대성호 허연 허난, 이 추자에 네바리(?) 그 볼락. 그 빨근볼락 잡으레 가믄 배가 죽아 근에 거기 가난 하늬브름 겨울에 그 볼락 나난.

@ 예에.

배 죽으믄 놉으 그물 우의 티우믄 구물 끈차부렁 춤 한 재산 잃어볼다실피 허단 이 집도 늘어나고 대성호도 늘아날 거라 난디 이 우리 할망은 재산을 풀안 빗 물게. 난 아

편 놔두켜. 이 낭중 아덜덜이 깡통 차든 그찌 깡통 창 거지벳기 더 뉘는냐? 허연 놔두난 춤 이 집도 살고 배도 살아나고 저 아덜덜토 저거 셋아덜이여.

@ 예에.

이제 이치룩허연 성공허연. 거 이제 거세기 그때 퀘기엔 허든 대성호 서귀포 가긴에 기계 고장 나긴에 메칠에 혼번 생성 잡으레 강 허든 생성은 잘 문다 그뻬.

3.6. 주낙

@ 예에. 그뻬 주낙 허영예?

어, 주낙 허영은에 허든 낙수가 열 가락이든 두 가락만 비주 으답 가락은 다 생선, 조기 경 물영 올라와. 게연 그디도 허난 또 아덜덜토 빗나는 거라. 게연 이 집 들고 배 들러나켄 헤나시네. 우리 할망이. 게연 허난 이젠 서귀포도 안 가고 우리 춤 나 이 큰 메누리, 이 메누리들, 아들들, 저치룩 허여도이 나 큰아덜 큰메누리 셋메느리이 작은메느리덜 불쌍허게 생각허여진다. 우리 집의 고생허레 온 아이덜이구나 헤연. 게연 그때 거세기 허연 서귀포 가도 뉘지 안 허고 이 집 놀아날 건디 이 바다에서 생선 잡으멍 혼 푼 두 푼 뉘운 것이 그 빗을 흐뎡씩 가파가는 것이 그 빗을 다 가파부러져. 게연 춤 이제 이 집도 남곡 그치룩허단 보단 또 퀘기 헤근에 이젠 이디서 생선 낚나든 또 이 철에 돛주낙. 저 춤 돛그물. 돛그물 헤근에 저 차귀도. 차귀도에 강 퀘기 허든 돛 잡아도 그때도 까격 엇어라. 혼 배 잡아왕 헤도이 까격 엇어근에 허고. 돛도 이제 그 그물에도 잡곡 또 이제 주낙으로도 잡곡. 돛도. 그 이제 이젠 돛 잡젠 허든 오징어, 이제 살린 오징어 쥐야 돛을 잡는디 옛날은 오징어도 써근. 덩장에서 곧 거려온 거 썰어근에 요만씩 썰어도 경 돛 물더라.

@ 으, 옛날에는예?

으. 계단 그런 돛이 어디 시니게. 그치룩허곡 또. 그렇게 이제 돛 잡단, 또 이젠 저 낙수 두 개짜리 헤긴에 오징어 중간으로 퀘영 살게꾸리 퀘여긴에 요만이헌 돌 돌아매곡 이제 그 주낙도 아니곡, 줄 메여긴에 그디 낙수 밑에 메여긴에 쉼 놔두든 어느 것엔 물든 돛도 물곡 아니 무는 건 번쩍허곡. 게 이제 그치룩헤영 잡으멍 허연 살단 보난 이제 이 뉘 기기도 뉘고 이제 하간 거 이제 또 이디서 다금바리구물이여, 갓돛구물이여 이제 그치룩헤영 살앗져게.

3.7. 비양도 전설

@ 이 비양도는 이 비양도 전설이나 이런 거 이신가마씨?

전설. 젠디이 이 비양도에 나가 들어완 거세기 허니까 잇어른이 이 비양도에 갑인년 해에 이 비양도에 주민이 어느 김씨 하르방인가 임씨 하르방인가 홍씨 하르방인가 두 분에서 혼 분이 이디 거주해낫덴 허데.

@ 갑인년에?

그 어른이 유식헌 어른이라낫주기. 이디 옛날 이 비양도가 옛날 그 갑인년 해에 여 기 사람이 들어완 살고. 저디 이제 그 오름에 요 앞의 파진 디 그것이 보니까 대를 쫓 었단 행 보니까 왕대가 아니고 족대. 그 족대를 저 쫓언 홈 파졌덴.

@ 족대를 쫓어갓고 홈 파졌다고?

어어. 게연 저것이 이제 우리 비양도에도 이 앞의 영 보문 영 그 길 ㄴ치 나지 아녀 샤? 그것이 족대 쫓언 그 길이라고 허연 허난 글로 이제 또 밧도 ㄴ음이라. 젠디 이 비 양돈이, 이 펠랑. 이 펠랑만 이거 공유수면이주 이 오름이고 어디고 공유수면이 하나 었다게. 다 개인 소유. 강 이장 곧이지 아녀냐? 개인소유엔. 이 앞의 그것이 옛날 거세기 허고. 이제 그치록 허고 우리집 큰아덜 이장 때에 이 비양도에 오름에 불 나낫주기. 불난 고씨 하르방인디, 놉으 밧 갈아주멍 하르방이 거기서 담배를 피완, 담배 피우멍 성냥갑 피완 데갓는가 거세기 허연 그 밧도 다 같지 못허곡. 그 하르방 불 끼우젠 허연 부비데기난 불이 거 ㄴ만이 쥬디느냐? 가을에 거기 헨 브썩 물론 그 세에 불부떠 놓난. 육지서든 역새주만 여기 제주말로 새난. 그 하르망 춤 영창 같 거, 우리집 이장이난 거 세기허고 그치록 허연 이제 살려쫓저. 게연 이제 이걸로 쫓이여게.

@ 애기업은 돌도 이십디다? 그거는 전설이 뭐 잇수가?

그거이. 어디고? 저 함덕, 함덕 우에 거 조천 만세동산. 거기 가니까 뭐 우리 비양도 가 저 중국서 띄어온 섬이라고 그렇게 허멍 거세기헤라. 젠디 뭐 옛날은 뭐, 저 어디 고내서 뭐 어느 아기 업은 아지망이 뭐 소변 봐부니까 이꺼지 띄어왔젠. 띄어왔으믄 저 령게 이렇게 하간디 여가 잇고 그렇게 험 수가 잇느냐게? 거 거짓한 역스주게. 뭐 그 함덕, 그 만세동산에 가도 뭐 중국서 띄운 섬이엔 허여도 띄운 섬에 저 빌레가 생기곡

거세기 허느냐?

@ 맞아 비양도 사람들은 일년 동안 거의 고기잡이 허영 살아마씨? 비양도 사람들은 주로 어떤 생활을 허멍 삽니까?

옛날에이. 이 비양도 툷. 툷 알아지커까?

@ 예. 압니다게.

툷을 이제, 이젠 구 개리 어촌계엔 헛주마는 옛날은 스 개리주기.

@ 어디 어디 어디우과?

금릉, 협재, 옹포, 한림, 비양도 오 개리구나.

@ 이제는 구 개리에서 여기 비양도 바당을 다 헤?

겐디 잇어른덜 거세기허는디 뭐 비양도는 이제 어느 지경, 이제 한림은 어느 지경, 옹포 어느 지경, 협재 어느 지경, 금릉은 어느 지경, 이렇게 헤낫젠 헤라게. 그치록허는 디 이 툷을 일년에 혼 번씩. 이젠 춤 이 물툷으로, 툷 요만이 현 때 캐영도 풀곡 허는 디이. 옛날은 툷을 이만이 혼 발씩 질영 캐영, 그 조합에 이제 휘를 허연 간 허난. 협재 금릉 옹포 한림 계난 비양도에서 네 사름이 갓어.

@ 예에.

이제 비양도 툷 허레 온덴 허난, 그 하나 어른은 배 탕 가고 그 어른 할망은 대국말 잘 헤도 아무 말도 안 허고. 옹포는 나가 놀리고, 나가 본적이 옹포라부난 옹포 어른덜 신딘 나가 놀리고, 협재, 금릉은 이제 죽어분 이덕순이엔 현 어른 놀리고, 한림은 장창 옥 씨라고 현 어른이 한림 놀리고 헨 허난, 이제 그때 이디 서용진 씨가 어촌계장 헨 때난, 그 조합장신디 강 “어떻 허느니?” 허연 허난, 전무가 이제 나완 허난, 전무가 허는 말 “하이고, 비양도 어촌계장님, 어촌계장님보다 불씨 이 어른덜 다 해결 봐부럿수다.” 툷 허레 오켄 허난, “뭐 허레 오쿠가?” 거 비양도 우리 거세기 허난 낭중에 어떻 허연 이제 구 개리에서 이젠 먹젠 입 벌겨 부러어. 입 벌겨 부니까 그때 이제 멧 프로 내여퀸 갈라떡단 이젠 그런 법이 엇다게.

4. 바다 이름

4.1. 바다 이름

@ 예. 그 섬 이름은 뭐우과?

이제 그디 저 서비여. 큰서비여, 밧서비여.

@ 바당 이름도 하예?

바당 이름도 한다. 목주리, 안목주리, 밧목주리, 베릿밧, 뭐 굼부리쌀, 이제 느리난여, 삼방난여, 뭐 어디 즈진여슬 어디 어디 어디 뭐. 이름이.

@ 이름이 하예?

이 비양도도 영허른 한섬드리, 또 이제 비양도 이제 저 거세기 허른 상저리여.

@ 상저리여?

이제 들렁머리.

@ 여기 이 비양도 어장예? 비양도 어장은 어디 어디 형성 뵈수가?

아, 이 덤장?

@ 덤장도 그렇고 고기 잘 잡히는 디?

고기 잘 잡히는 디 비양도 사름만 헤 먹게 험시냐게. 나 툇덜아.

@ 누계가 왕 또 잡아? 그 구 개리 말고도 또 와?

서귀포 모실포서도 와긴에 고기도 잡곡 다 헤간다. 이 비양도 공동바당이라부난 누 구 임제가 엇주기. 저 이 뵈고? 지도선. 나 저거 잘못 뵈텐 험다. 웨그러냐 허른, 이 문 어는 일년 쟁이거든. 일년 쟁인디 비양도 어른덜 통발이 낡 잡앗던 뵈험던 낙수꾼에 대 해가지고 지도선이 저치록 단속허주만은 아 비양도 어민 비양도에서 이제 저 지금 춤

문어 잡는 어른덜이 거제 육십 세 칠십 세 노인덜이거든.

@ 예. 맞습니다.

그런 어른덜신디 통발일 허여 먹으렌 해야지. 저 지도선이 뭐허레 생겼느냐. 저 이 권작선덜 와긴에 허곡, 거 대구리덜 와긴에 이 앞바다에 끄는 건 그냥 놔볼곡, 이 비양도에 이 통발이 해긴에 거 불쌍헌 어민덜 저 늙은이덜 먹지 못허게 허는 거 난 거 상당히 잘못이렌 생각헌다.

@ 그러면 우리 여자 삼춘은 바당에 해녀 헨마씨?

해녀질 해어도 조합원도 개입 안 뵈저게. 옛날에이, 족쇄눈 썩. 느 안경보다도 족은 눈. 이제 큰눈 썩 해도 그런 눈 씨긴에 즐락물질 허연 춤 저 아기덜 살려낫저게.

@ 즐락물질은 뭐우과?

곧 들어긴에 곧 나곡게. 옛날 이제 지금은 뻘스 입엇주마는 옛날 속곳 입영 물적삼이나 셔시냐? 속곳만 입어긴에 발 미징 처근에 달달달달 떨어근에 불추어근에 오멍 미역 즈물곡 이제 정각 즈물곡 이제 저 뵈고? 춤뭉 이젠 춤뭉이 웃인다.

@ 춤뭉이 엇어예?

이 비양도 춤뭉 옛날 상당히 좋아난 섬이여.

@ 예에.

춤뭉이 하나 엇다. 오염웨연. 오염 웹 보단도 요만이 어린 때 캐어부니까 춤뭉도 하나 엇다. 옛날은이 춤뭉 거세기 허믄 이 배에 거세기 허믄. 춤말로 우리 아덜네 뽕마만 이 헌 거. 흔 시간만 허민 흔 배 실렁 와낫주기. 춤뭉. 그런 춤뭉이 하나 엇다. 거 요만이 날 때부터 캬 시작 헤부니까.

@ 켜은에 즐락물질 헌 거라예. 들어갓다 나왔다 허는 경허민 이제는 즐락물질 허는 거 구나예?

계난 제주말로 즐락물질. 또 서귀포 가믄 ㄱ자 읍디가? 이디선 이제 읍디간 말은 서

귀포선 ㄱ자 읍디가 영도 허는 말 아니가.

@ 예. 이제 읍디가를 ㄱ자 읍디가 허는 식으로. 졸락물질 이 동네선?

우린 졸락물질. 저 기신 썸 사람은 오래 살곡 기신 어신 사람은 곧 들엇당 곧 나.

4.2. 포구와 개

@ 계난 삼춘은 곧 들엇당 곧 나 와부러. 거난 졸락물질. 여기 개들도 으라 군데 잇지예? 포구는 뭐렌 험니까? 이 동네 이름으로?

개창.

@ 개창예. 개창 말양 배 맺던 데가 멧 개 멧 군데 잇지예? 비양도에.

성장.

@ 성장도 개창도. 저쪽에는 터우 매는 개도 잇어나지 아녜수가?

테메는개.

@ 테메는개 잇어예?

저 섬 두에. 거기 테메는개에 헤긴에, 잇어른덜 하르방덜이 그디 가긴에 몸 실렁은 예, 그 이 낫 닳은 거 조그만헌 요만이 현 거 헤긴에 낭 돌아메근에 허영 어깨로 흘팅 그 몸 실러긴에 이디 못 오른 그디 들어가근에 옛날 몸 퍼난 생이여게. 몸 푸곡 그 테 니까 바람이 불어도 춤 그 뿌시테기지 아녀고 허난 텃베, 텃베 허연 테메는개엔 그렇게 이름 지운 생이여.

@ 그치록 테메는개 허는 식으로 이 바당에 개가 멧 개 잇수과?

큰가저, 족은가저. 산여뿌리, 큰원, 족은원, 종나머리, 또 일로 오른 이제 저 들렁머 리, 이제 상제리여, 옷앗은여. 그거주기 뵈이라.

5. 어로 활동

5.1. 열일곱부터 고기 잡이

@ 계난 이제 아까 고기잡이 허는 거 아기 쓰무 살부떠 했다고? 열두 설부떠?

열일곱부터.

@ 열일곱설부터 멧 슬꺼지 헛수가?

아마 나 갈치 나끄곡 퀘기헨 허니까. 혼 이 멜구물이어 뭇이어 해긴에 혼 칠십세 설 까진 해 진 거 같으다게.

6. 어로도구와 어획물

6.1. 풍선

@ 계믄 그 맨 처음에예. 배는 이제 아까 저 풍선으로 헛잖아예. 네 짓이멍 다니멍예?

어. 돛 들앙 다니곡.

@ 돛 들앙 다니고예. 풍선으로 허고. 허당은에 배 산 거는 언제 헛수가? 맨처음에.

배 나가 혼 쓰물 일곱에부터 배 험 시작 헤져실 거라. 그때도 노젓는배 풍선허단, 이제 우리 큰아덜이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허연. 저 우리 아덜 이제 퀘기 허믄, 이 건축과. 저 건축, 토목과가 아니고 건축허는 디 거기 허연 제주시예 그디 이제 그 사무 보는 디 가낫주기. 계연 그디 간 원 나 혼자 버치고 거세기 허난 아덜이 완 받 아버지 허는 거 버천 허난 지 그디 안 가켄. 거 건축회사에 다녀야 돈 언만 안 주고 허난 완 춤 노 젓영 벤자리 잡으난 돈이 흐뎀 그디 다닌 때 보단 흐뎀 낫이난게 안 다니켄 허영. 멧 번 이제 편지, 전보 막 오랜 거세기 해도 안 갓주기에. 계연 그치록허멍 허연 춤 글로 허여 어전 조그만헌 그 모다베[뻘] 하나 헤연 허단 이제 또 대성호 허연. 우리 셋아덜도 그 모다베 거세기 허연 허단 모두 퀘기 허난 성 물려주곡, 아시 거세기 허곡, 우리 집의는 형제간에 싸움이 었나.

6.2. 고기 이름

@ 그치룩허여근에 베 허연 현 거구나예. 이 비양도에서 잡아난 고기 일름들. 고기 하지예. 이 바당에 퀘기들, 퀘기 일름 아는 대로 곱아봅서?

고기?

@ 예. 옛날에 잡아난 거. 이제 엇어도 옛날에 잡아난 거?

벤자리, 갈치, 돔, 생성, 우럭, 이제 뭐 뿃을 더 곱을 것고?

@ 아는 대로 이 바당에서 나는 거?

에리. 이젠 에리도 웃어.

@ 아 에리. 이게 에리가 막 냄새 나는 퀘기우과?

아니. 거 저 이 소랑해가지고 옛날은 그 에리에는 고기가 *** 혼 머리가 이만씩 헤 낫주기. 영허영 나 손 췌지 못 헐 정도로 현 퀘긴디 이만이 진 건디 것도 해낫이 나까 낫주기.

@ 해낫이예? 이 에리 퀘기는 맛 줍니까?

맛 좋아. 맛 존디 거 풀젠 허문 그 고긴 못 먹고 그 창지. 에리 창지. 에리 창지 빼 여긴에 우리 먹엇주기. 우리 가정에 떡곡 고기는 풀곡.

@ 계민 에리허곡?

뿃 곱아 또?

@ 또 퀘기 이 바당에 나는 퀘기들 하실 건디. 아는 대로? 무꾸럭도 잇고.

또 광어도 잇곡.

@ 또 광어도 있고. 광어엔 험니까? 이 동네 말로?

으. 이제 삼치, 방어, 또 이제 방어도 ㄹ똥 꿩이라도 저 뵈고 히라지.

@ 히라지?

그건 이제 고등어, 전갱이, 이제 거벳과 더 큰지 못허키여게. 생키, 솔치. 솔치가 생키엔 헤낫주기.

@ 아, 솔치가 생키엔 허여예?

생키. 찢르다는 생키. 또 우럭에도 준준헌 그 생키우럭이 있어.

@ 아 생키우럭이 또 잇어예? 것도 가시 잇엉 찢르는데?

거 찢르믄 아픈다.

@ 또 뜬내봄서?

복쟁이.

@ 복쟁이. 옛날에 여기 복쟁이 하낫젠 허멍마씨?

이 복쟁이 어디고? 신창 알 허고 이 월령 알 많이 나낫주기. 그 복쟁이가 뜰려.

@ 아, 어떻 뜰려마씨?

그건 노랑헌 복이고, 꺾테기가 노랑헌 디이 그 복쟁이가 없어. 그건 춤, 그 복쟁이는 우리가 나까당 풀지 못허믄, 이 담에 그 기냥 그 ***만 헤영 널엇당 기냥 꺾 먹어도 사름 죽지 아녀.

@ 아아. 이 노랑헌 거예. 그 복쟁이는 그냥 복쟁이렌 험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일름 잇수가?

또 이제 그 복쟁이 잇고 노랑복. 이제 또 참복. 까칠복.

@ 까칠복도 잇고.

또 이제 뭐 물복. 이제 졸복.

@ 졸복.

비양도에 이제 꿩기 허른 거 낙수에 잡는 복은 무슨 복인지 모르켜 밀복이엔 허는가?

@ 밀복예?

으. 이디서 쥬쥬헌 복쟁이 영 춤대로 나끄는 거 밀복이엔 헤났저.

@ 밀복허고 물복 ㄱ튼 겨우과? 틀린 거?

틀려.

@ 어어. 쥬쥬헌 거 밀복이고예. 복쟁이가 잘도 한 게?

물복, 밀복.

@ 계난 복쟁이 종류도 잘도 한 게마씨?

으, 하. 옛날에 거 노랑춤복허고 이제 춤복허고 까칠복 뭐 여러 가지 싯저게. 이제 ㄱ만. 더 이젠 튼나지도 못허켜게.

6.3. 배와 사공

@ 이젠예. 나중에 왕 또 흔 번 더 물어보쿠다? 옛날 배 일름. 배 허면 여기 고물이여 이물이여?

이물은 이사공.

@ 이물은 이사공? 고물은?

한장은 한사공.

@ 한장에는 한사공 잇고.

꼬불엔 고사공.

@ 꼬불엔?

고불.

@ 고물엔 고사공. 게믄 사공이 멧 명을 타. 배 하나에.

그 세 사름이 이름 굳는디이 이 배 앞에는 이사공, 이씨가 탕던 모양이라. 이사공. 가운데는 한사공.

@ 한씨가 탕구나. 거기는?

아 한씨가 탕는지 고불에는 그 조름. 이제 도항선 그 조름 이제 영 그 물 기계 돌리
믄 이 앞디레 그 오는 그 조름. 그것보곤 고사공. 그딘 고사공 탕단다.

@ 우리 삼춘은 무신 사공이라났수과?

난 사공엔 들어가나지 아녜주게. 게난 옛날은 그 잇어른덜 곶은 말이 이물에 이사공
한장엔 한사공 꼬불은 고사공. 한장은 한씨난 한사공, 이물은 이씨난 이사공 경혜연.

@ 게난 옛날에예 이제 다음에 한 번 올 때랑, 고기 잡을 때도 미끼들도 다 틀리지 아
넘니까?

아, 미끼?

@ 예. 미끼도 틀리지 아넘니까? 뭐 생선 잡을 때 무신 미끼, 무신 거 혈 뎀 무신, 이

런 미끼 다 틀리지예?

미끼는 다 ㄹ튼다게. 웨 그러냐허믄이, 생선주낫에 고등어, 이제 쾡치, 이제 오징어, 한치이, 또 강원도오징어 다 쓴다게. 그것벳기 엇다게.

@ 이 바당에도 쾡치 낍니까?

육지서 온 거.

@ 육지에서 온 걸로 헤영 미끼 헤예?

고등언 이 바당에 나믄 거 근질럿당 우리 생선주낫에도 물큰 거 근질럿당 니꺽허곡게.

6.4. 옥돔 잡이

@ 옥돔도예. 그 생선, 크기에 따라 불르는 이름이 다 잇어마씨?

대생성, 중생성, 소생성.

@ 새끼 이런 건 다른 이름덜은 엇고. 새끼들 옥돔 생성 쥬 족은 거 무슨 생선 엇고?

게 소생성게. 족은 거.

@ 여기에는 옥돔 잡이는 멧 월부터 언제까지 험니까?

이제 이 주낫허고 구물허곡 꺽기허난 허주. 옥돔은 춘하추동 나는 거여게.

@ 춘하추동?

겐디이 춘하추동 나되 이 삼스월 뉘믄 옥돔이 안 물어. 이 바당에. 게난 나가 저 모 실포바당 갓젠 말이, 그디 가나시네. 게난 이 바당 안 나당 오월 단오 넘어서 가믄 한 두 머리 나끈다. 게당 칠월칠석 넘어야 생성이 나.

@ 예전에 옥돔잡이 허젠 허면 옥돔 바당에 준비허는 것부터 시작헿 어떻게 낍시 헤

영 쪽 과정을 옥돔 잡양 오젠 허민 어떻 헛수과?

나가 어려가지고 혼 열댓 설부터 이제 바다에 다님 시작했주기게.

@ 예.

그때 옥돔 잡으레 영 다니당 그뻐 나이도 어리고 옥돔도 못 잡았어. 그치록허단 이제 저 사르미 췌. 이 협재광 비양도 중간에 그 일본배 굴라아진 거 그거 이제 그디 일 허멍 퀘기 현디 그때에 혼 두 들 일헛는가. 두 들 일 현 거 옛날 돈 스백오십 원 것이 게 받지 못허카부덴 허난 옹포에 어른덜이 간 받아단 주난 우리도 그 머구리도 부산 사름인디 부산 진해 사름. 나 ㄴ찌 글렌 헤도 안 갖주기. 안 가난 불쌍허덴 헤연 옛날 춤 요런 작업복이라도 옛날 작업복 혼 불 보내질 입고. 생성을 나끄단 또 퀘기 헤연에 저 모실포 이정팔이라고 허는 사름 그 사름네 퀘기 헛 때 그디 일 허엿주게. 이제 일허멍 허연 벌어먹기도 허고 거 쫓나니까 그디도 한 사 개월 동안 그 일 허연 쫓난 허난 이젠 옹포서 옹포 하르방네가 이제 그 어른덜은 다 고인이 돼 가지고 다 저 고인이 아 니고 다 거세기 허연 돌아갓주마는 그 하르버지네가 생성 나끄레 글렌. 가른 이디서 갈 때에 미끼는 뭐이냐 허문 문어. 이제 문어 퀘기허문 이 문어 혼 발이문 이제 집의서 그 거 이제 영 꺾테기 뺏겨가지고 한 알 한 알 거세기 헤가지고 낙수에 퀘게꾸리 게 그치 록헤근에 허민 문어가 한 발이문 요만이 현 문어 한 발이 그 문어 혼 발도 다 안 췌.

@ 이만큼씩 퀘는구나예?

퀘문 문어 혼 내일꺼지 쓸라고 미끼를 니겍을 내일꺼지 쓸라고 영허문 생성 혼 두 서너 서너 머리 서너네 머리 나까지문 생성을 이제 미끼로 썰영 율대영 칼로 율쭈랑이 썰영은에 양쪽이 니겍을 퀘영 허민 고기도 더 물어. 그 생성도.

@ 생성도 니겍으로 췌어예.

지 꺼 먹어. 이제 그치록 문어 혼 발 현 거 냉것당 넬 갈라고 건 아껴뵤은에 건 생 성을 쓰주기. 게근에 나끄문 그자 혼 댓 못도 나끄곡 잘 나끄문 일고으담 못이엔 허문 괘십 머리 육십 머리.

@ 혼 못이 열 개우과?

열 개. 계근에 허믄 그걸 이제 올 때엔 칩, 이제 저 산에 칩. 칩으로 칩줄 그거 걷어 다간에 몰렸단 이녁 쓸 건 그 베에 가가지고 장 속에 담양 나뉘. 계근에 허믄 올 때는 생선 세 머리가 한 꿩미거든.

@ 세 머리가 한 꿩미?

그거 해근에 허민 그때 돈 혼 옛날 돈이니까 혼이 해방 넘으니까 백오십 원도 주곡 이백 원도 받곡 그렇게 해놔주기. 그거 허연 춤 우리 어머님이 영 살림 살단 이제 그추 룩허명도 이제 저 서바당 모실포 앞의. 이제 그덜 모실봉 텐디엔 허주게. 그디 가정 허믄 삼스월. 이 느룻에 계근 이디서 혼 아홉 시 내지 열 시에 이제 돛 들양 거세기 허믄 베가 브름 분 때 흐끔 가곡 안 분 때엔 흥창망창 헐 거 아니가? 어린 때에도 줌이 들어. 치 심은 사름 그 어른은 칫사공이엔 해놔져, 옛날은.

@ 칫사공?

칫사공 바당 다 못 왓덴 허믄 그땐 노 젓이렌 해근에 노 젓엉 그 바당 거제 가지믄 이제 혼 오늘ㄴ치 느 오는 시간ㄴ치 혼 아홉시 반 어떤 땐 인척 가믄 열 시, 열두 시, 경혜영 그 바당 들어가믄 베임제 하르방이 고기술 쥐서 생성 하나 물엉 오른 닷 주고. 들구 이리저리 노 젓엉 다녔주기. 다니멍 그 하르방 고기 하나 물엉 올 때꺼지 노 젓엉 다녀. 계근에 가간에 술에 당장 닷 주믄. 경 아녀민 늘 노 젓엉 다녔주기.

@ 예에.

이제 마브름 불믄 옛날은 마브름 무섭게 생각해놔주기. 마브름 불믄 아홉주제라고. 씨게 불민 마브름만 불어가믄 고기술도 안 쥘 대개 돌아오는 거라. 안 돌아오믄 옹포를 잡히질 못허여. 계근 저 어디 가느냐 허믄, 저 애월 아래. 애월 알꺼지 가주기. 애월 알가간에 또 배 꺼꿀로 돌아왕 허믄 비양도 저 등대 잇는디 와. 등대 오른 또 귀덕 알가.

@브름 때문에예?

브름 때문에 비양도 앞의 와. 또 돛 들믄 수원 알벳기 못 잡혀. 계연 그치룩허명 허단 이제 비양도 앞의 또 거기 허믄 비양도 요만이 등대 잇는 쪽 오른 돛 지와근에 노를 젓엉 옹포로 들어가놔주기. 그 고생허지 말자 이디서 허여야 또 한림 잡형 또 어디

잡형 그때사 옹포 갈 거니까 그 시간이든 우리 집의 간다 허여근에 이젠 그 뜻을 내리우고 이제 노 저어 가지고 옹포 가간에 허든 생선 혼 머리로 안 잡곡 밥은 못 먹을 때 난 등대그르에 보리쌀 서텅 밥 허영 우알착 싸곡 보리쌀이나 좁쌀이나 이 밥뉘로 한뉘. 건 비공식으로 가정 다니는 거. 바람 불영 거기 허든 우리 먹젠. 그치록 허연 다녔주기. 다니단 또 이제 이디 우리집의아기어멍 만나게 뉘난 이디 왕 살게 뉘주기. 이디 완 살명 또 꿰기 허난 이젠 또 갈치 나끄레. 이 저 갈치 나끄렌 어디 가시냐 허든 저 이 관탈.

@ 예, 관탈.

관탈엔 현 섬 중 안네 가민 수심이 혼 칠십 발이 들어. 고기술이 백 발 가정 가. 가든 거 칠십 발에 곧 내려간 혼 뉘 발에 갈치 안 물영 주곡 주곡 허든 물이 쉼든 고기술 백 발까지 백 발 안 주젠 허여근에 혼 칠십 혼 뉘 발 팔십 발 갈치 건어불주기. 술 새로 쥐근에 건영 갈치 나끄곡. 거 갈치도 이녁 니껍 꿰기 허고. 문어 갈치 니껍 허든 절대 갈치 안 물어.

@ 문어는예?

이 밤의 갈치 나끌 때도 문어 꿰영 주든 갈치 안 물어. 거 이상허여. 문어 만큼은 갈치 안 물어. 이녁 술이나 이제 그 옛날 그 브들레기, 덤부지 그런 거 잡앙 가든 갈치 나끄거니와 문어 가정은에 갈치 안 물어.

@ 아까 브들레기허고 무신 거옌 곶앗수가?

덤부지.

@ 덤부지는 무슨 고기마씨?

사발 머리뺍 몽탁헌 거 싯저게.

@ 몽탁헌 거. 요즘 표준어로, 요즘 말로

이제도 덤부지엔 허여. 브들레기, 덤부지.

@ 손가락보다 크나마나. 그 브들레기는?

이만이 허지. 이거보다 큰 것도 있고. 그거 브들레긴 이젠 읍대믄 갈치 혼 번 나끌 미끼가 뒤여. 꺾테기 뱃기지 아녀도. 냄새가 친구라 가믄 갈치 물어. 덤부지도 갈치 물곡. 그 덤부지는 그냥 이 머리뺍으로 꿩영 허믄 그냥 물어, 건. 게 그치룩허고 이 저 동바당 갈 때도 니꺾 없으믄 브들레기 나까근에 그때도 삼스월뻗긔 그자 이 삼스월 이 월 나믄 이월 그물어 제주시에 강 살고 비양도에서도 다니곡 헤낫저게. 갈치 나끄레. 그치룩허멍 허여도 춤 옛날은 고기 하영 나까야 돈을 얼마 줘사. 또 갈치 나까근에 허믄 술 먹곡 어느 좋은 집의 가당 보믄 돈이 없어지고.

6.5. 갈치 잡이

@ 게믄 갈치는?

갈치는 대갈치, 소갈치, 중갈치.

@ 옛날 다른 디 가난 봄갈치여 ㄹ을갈치여?

아, 옛날에 우리 못 먹을 때에 저 차구섬 앞의 가긴에 그 보리 빌 때에 스월들에 보리 비지 아녀사? 옛날은. 스월들에 보리 비당 남아도 갈치 나끄레 가주기. 브름 잔잔허곡 노 젓영 그디가 나끄믄 봄갈치[봄갈치] 여름에 나끄믄 여름갈치. 춘하추동. 이제 갈치 나끄는 베ㄹ치 갈치 나끄지 봄에부터 저 어디고 삼스월까지 저 관탈 간 나끄당 이젠.

@ 경 해근에.

그디 꺾나믄 이디 완 보리 비멍 갈치 나끄레 다녓주기. 갈치 나끄당 여름갈치 그 봄갈치 꺾나가믄 츄츄 비양도 두의레 오멍 이 비양도 두의레 오믄 여름갈치주기. 가을갈치도 내내 비양도 두이서 물곡. 켜디 갈치도 봄갈치도 맛있고 이제 가을갈치가 더 맛있어.

@ 가을갈치가예?

팔구월 시월달 이제 나끄는 갈치가 맛있어. 여름갈치보단.

@ 겨울갈치렌은 말은 안 해.

겨울갈치 이젠 베로 언양(원양) 다니명 나끄지. 옛날은 그덜 못 가시네게.

@ 그다음에 갈치도 대갈치 소갈치 중갈치 말양 다른 갈치렌 이름 부르는 건 엇수과?

엇어.

6.6. 고등어 잡이

@ 고등어도 잡아봅디가?

으, 고등어도. 고등어 잡는 딴는 투망구물엔도 싯곡.

@ 투망구물?

투망구물엔도 고등어 잡는 어망. 어망인디 고등어 투망구물이렌 요만이 현 테왓덜
턱우명도 잡고이 또 갈치낙수에도 물어.

@ 갈치낙수에도예?

각제기도 물어. 켜디 각제긴 물더라도 더 하영 떼어지주.

@ 으, 고기가.

틸틈이 하나씩은 올라와. 각제기도. 고등언 잘 올라와.

@ 게믄 아까 생성낙수허고 갈치낙수허고 고등어낙수허고도 다 틀리잖아예?

틀리지. 이 고등어낙시는 이 갈치낙수로도 옛날 옛날 헤나고. 우리 나끄는 건. 투망
은 구물에 허곡 불케여 가지고.

옛날은 이 전기가 없기 때문이 카바이또 가스, 이제 거 이 가스가 아니고 영 놓믄
요 주먹만이현 돌덩어리 닳은 건디 그거 헤긴에 그걸로 헤긴에 불 부짱 허믄 그 가스

가 올라왕 그것이 불이 흰허여낫주기. 가스불에 불 뜨랑 게믄 이제 낙수가 영 허곡 영 허곡 영 헤근에 네 개 돼게꾸리 헤영 고냥 딸라진 디 그 줄 메영, 줄 메는디 하나, 둘, 세 개, 네 개까지 메영 수심 쥐긴에 푸끄문 이제 고등어 물믄 등강 떼여가민 아랫 것도 걸렁 올라오민 들구 이제 떼영 놓는 거라.

@ 거는 고등어 올린텐 허는 거구나예?

가스불로 고등어 일리왕 놔근에 낙수로 니껌도 안 주고 꿰어 올리는 거. 옛날은 그 고등어가 막 그런 고등어가 었어. 옛날은 이만씩헌 크난 뭐 와상와상 일민 배 두드려볼 정도로 낙수로 푸끄문 올라오곡.

@ 영 확.

확 배 우의 왕 탁탁 떨어져.

@ 그 낙수 이름은 뭐렌 헛수과?

이 고등어 건장낙시.

@ 건장낙시에예. 게난 들르는 식으로 낙수가 허니까. 고등에도 일름이 하나?

대고등어, 중고등어.

@ 고등어새끼 ㄹ란 뭐엔 허여?

건 고도리. 각제기도 존 건, 줄 땀 각제기 새끼엔 허주기.

@ 다른 말도 잇수과?

고등어, 고도리, 죽은고등어, 큰고등어, 중고등어. 고등어도 으라 가지주게.

@ 고도리허곡 고등어는 ㄹ튼 종내기?

ㄹ튼 종내기.

@ 게문 고등어는 어느 계절에 나까마씨?

으. 그건 투망 허민 걸러오곡 이젠 갈치낙수에 이 불켄 베에 거 춤대에도 올라왓시 네게. 고등어.

@ 역불 고등어 배는 엇구나예?

고등어배는 대구리 권작덜 강 고등어 일어시민 권작성에서 불 주민 고기 주켄 해도 마음 좋은 선장은 하영, 선장 므음 나쁜 운반선에 메껴불든 짐 채우젠 거 고등어 실르는 베에선 주젠은 안 허주게. 선장이 거 혼 가고 쥐라 허민 주곡. 므음새 좋은 선장은 저 배 짐 채와져두고 너네 실르라 허민 막 하영 실러주되 경 아녀는 사름은 안 쥐.

@ 권작성이 대구리?

고등어 잡는 배.

@ 이 앞의서 불 케여가지고.

권작성. 대구린 이 수심 깊은 디 이제 그 옥돔덜 하고 하근 거 이제 조기 ㄴ튼 거 이제 그런 거 잡는 배가 대구리.

@ 베일름도 대구리엔 허고 권작성은 고등어 말고는 다른 건 안 잡아?

돔도 잡지. 불케영 일어나든 무지무지 잡는덴. 우린 안 봤는디.

@ 권작성에?

으.

@ 이 삼춘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잡은 비양도에 어장허고, 요즘 나이 들었 뻗 이 비양도 어장허고 비교허든 어떻 헤마씨? 고기나 이 낙수허는 거나?

6.7. 생성 주낫

옛날은 고기 하나까 생성도 나끄레 이제, 거 돛 돌아가지고, 그 풍선. 그 돛 들안

가근에 나끄렌도 갖는디 이젠 생성 강 이제는 주낫 가도 물지 아념시네.

@ 그러니까예?

옛날은이 주낫 이제 그 영 췌기 허든 영 꺾라앗는 건 무듬바리.

@ 무듬바리?

이 주낫 무듬바리. 그 멘세주낫보고 무듬바리. 또 수지주낫은 뜸바리.

@ 뜸바리.

뜸바리로 요새 생선덜 잡암시네게. 뜸바린 중간중간 버국 잇으니까 니꺽만 땅 아래 영 헤가지고 츄츄츄츄 흘러가게 돼엇어. 무듬바리는 딱 가면은 그만이 잇고 뜸바리는 흘러가면서 고기 물게 췌 거주기.

@ 경허니까 무듬바리는 물어부니까 무듬바리구나. 경 헤근에 하고. 상황이 옛날하고 오늘날 상황허고?

달르고. 고깃잡은 상당히 좋아졌지.

6.8. 생성 값

@ 그거를 흐뎡 굴아줍서?

옛날은 돈 까격 얼만 업고 요조금은 옥돔 일 킬로에 뉘 이만오천 원인가 삼만 원씩 간덴 허데. 또 너미 큰 대생성은 흐뎡 헐허고. 너미 커부난.

@ 너미 커부난예?

크도 족도 아년 거 건 돈 나가. 또 이제 소생성은 돈 안 나가. 그건 조기값이나 마찬가지로. 주낫에 조기도 잘 물주기.

@ 조기도 잘 물어예? 그 비양도 고기들은 어떻 허우과? 옛날허고 종류?

어중은 마찬가지로. 어중은 마찬가지로, 옛날은 이 비양도에서 춤 우럭, 불바리덜
경 하나도 이젠 하나 엇주기. 이제 그 옛날은 이 비양도 아래 멜 가정 가문 우럭 이녁
떡을 거 혼 못씩은 나까낫주게. 이젠 우럭 혼 못 나끝 디가 엇어.

6.9. 니깍

@ 우럭 니깍은 멜이구나. 종류에 따라 니깍 곱아줍서?

우럭 나끄주기.

@ 멜허곡. 브들레기허고 덤부지 현 거는 갈치 나끄곡?

갈치 나끄곡

@ 생성은 문어. 이 동네 말은 뭐엔 험니까?

무꾸럭 들린 거 그거 영 쨌영 쨌여가지고 니깍 쓴 거.

@ 거는 생성.

브들레기도 생선 물건 허여.

@ 브들레기도 생선 물고예. 옛날에 어랭이 계수리?

잘 곱암구나. 계수리. 이제 벤자리. 갈기, 또 이제 어랭이 니깍 거 이제 계수리.

@ 벤자리도 계수리도 허는 거우과?

옛날은 벤자리도 옛날은 준계수리로 나끄곡 큰 갈계수리엔 현 건 손바닥 현 거 이만
씩 진 거 나오주게.

@ 계수리가?

갈계수리엔 현 거.

@ 계수리하고 갈계수리허고 틀린 거우과?

틀려. 준 거, 큰 거 셔. 그걸로 잡아난 디 벤자리. 옛날은 나끄레.

6.10. 그물 잡이

@ 이젠 다 그물로?

어디 가야 벤자리 하나 물질 아녀.

@ 요즘 낙수허는 거는 저기 갈치허고 돔이나 생선?

이 돈 나는 거. 이 베덜 이제 그 등덜 돌아긴에 흐, 흐 시, 두 시, 세 시 돼여가믄 나가는 거 갈치 잡으레 가는 베 아니가게. 계긴에 전기 케여가지고 전기 힘으로 이제 갈치 나끄는디 갈치 미끼는 이제 그 나끄는 사름덜 콩치 썸저.

@ 이젠 콩치 쓰곡. 옛날허고 니껍도.

어. 겐디 콩치가 헐허여부난게. 콩치 흐 상자에 만오천 원 허믄 갈치 나끄젠 허믄 컷던 죽앗던 흐 사름 그 미끼, 니껍 쓰는 것이 거제 반 상자 내지 흐 상잘 써 불거든.

@ 흐 사람이?

콩치 쓰젠 햄시네. 콩치로벳기 나끄지 안 현덴.

@ 옛날 그 꿩기 잡이 헐 때 썸난 도구덜 잇지 아녀우과? 그물도?

잇엇주게. 예를들어 돔 잡는 구물이어 벤자리 옛날에 삼바에라고 삼폭, 삼폭그물이주게.

@ 삼폭구물?

으, 구물은 코가 즘질아도 컷그물이 이만씩 커. 거 우알로 썸왕. 죽은구물은 가운디 담고 안과갓덜로 그 컷에 뽕돌 무꺼근에 삼폭이주기.

@ 계민 겹이 세 개가 되는 거우과?

계난 삼폭그물.

@ 삼폭구물은 허가 되는 거우과?

안 돼여.

@ 옛날은 웨겹으로 하나.

그건 웨폭.

@ 이겹은?

이겹은 없어.

@ 구물은 이겹 엇수가? 웨폭구물하고?

그물은 삼폭구물 안 써. 이젠 다 웨구물.

@ 웨그물로. 이런 식으로 구물 종류가 이제 그렇게 하고.

계난 이 벤자리 잡는 구물은 사 줄.

@ 건 무슨 말마씨?

코이 영허영 꿩이가 사 줄 오 부라야 그 벤자리 걸리고 요지금 혼 세 치, 네 치 경
현 그물은 구룣도 잡곡 따치고 걸리곡 꿩이 허곡. 벤자리 몸이 흐뭇 죽으니까.

@ 젤 즐안게예?

코가 죽고. 이제 거 웨 폭에 꿩이 허든 이제 뭐 삼 줄, 사 줄, 오 줄 영 헤긴에 꿩이
허든 오 줄인가 육 줄인가 영 헤가든 이제 그것에 따라근에 돔도 잡는 그물은 육 줄인
가 이제 멧 줄 돼곡, 이 그물 코 수로 가주께.

@ 일 줄은 무슨 말이라마씨?

옛날은 사 줄. 이젠 경허지 아녕 삼 줄, 사 줄, 오 줄, 육 줄 영 혜근에 꿩기 헌 텐 허대.

6.11. 낚시

@ 아아. 낚수도 저기 일름이 다 다르지예.

주는 낚순 돛낚시도, 이제 돛 잡는 건 흔 촌 오나 촌 육이나 써야주지.

@ 건 촌으로 쓰고.

건 커.

@ 돛이 켈 큰 거?

으.

@ 마삭은?.

생성 잡는 마삭은 췌로 만든 마삭 쓰곡. 갈치 나쁠 때는 이제 저 산에 가든 윤노리.

@ 윤노리냥?

윤노리냥 영 빵 든든히 굳은 걸로 깎스롱헤도 든든히 굳은 거 옛날 갈치마삭허젠 허든 이녀 집의서 꿩지고기 사 먹지 못 허든 늙은 집의 돛추럼 허영 먹는다 그디 역불로 가근에 스정허영 그 돛국물에 그 윤노리를 쫓아.

@ 돛국물에?

돛국물 흔 멧 번만 쫓으면 윤도리가 꺼꺼지지 아녀주지. 흘랑흘랑 갈치 확. 구덕에 꺼꺼지지 아녀. 거 걸렁 봐도 꺼꺼지지 아녀. 마삭 이제 그 윤도리마삭 거 돛국물에 흔 서너번만 쫓으면, 옛날은 갈치술도 돼지피 받아근에 그거 맥여근에 솟디서 칠 때에도

또 윤도리 ㄹ치 처.

@ 돼지피 헐 때도. 그거는 돼지피로 갈치술 현 겨우과?

갈치술이 연드롭게. 연드롭게 허곡. 이 술이 연드롭고 정허게 만들젠 허믄 요 생선도 영 거기 무는 거세기가 툃툃툃 허주기. 영 퀘기 허믄 어랭이 나글 때 퀘기 허믄 미끼 주믄 혼 번 툃툃 허믄 이젠 등가보믄 물적 안 물적 허믄 생선은 두 번만 툃툃 허믄 건 문 거.

@ 딱 알아져예? 느낌이.

게 생성은 무정헌 거난 혼 두 번 툃툃 허믄 건 걸려 잇는 거.

@ 옛날은 거 마삭이엔 헤서예. 낙수 비늘은 어디우과?

낙수 비늘은 거 낙수에 부텃주기에.

6.12. 고생담

@ 예전 고기잡이 헐 때 못 헝 올 때도 잇고. 잘 헝 올 때도 잇고, 재미, 고생헐던 일 이런 거 곱아줍서?

아이고, 고생헌 거. 바람 불믄 게 풍선덜 쥘 우터주게. 풍선덜 퀘기 허믄 비양도베겏 디 가긴에 퀘기 헤도 혼 바람이 겨울에 파도가 썰믄 초석. 초석이 돛. 이제 거세기 허믄 제일 앞의 돛. 그거 가운디 세왕 조그만이 들앙 그 누에 맞춥 오주기에. 죽기 아녀믄 살내기로 허영 오주기에.

@ 그때 누도 막 지키고 행예?

거 옛날에 옹포 어른덜 혼 멧이, 이제는 의복도 좋고 우리 입는 내로 하나라도 옛날은 이런 옷이 셔샤게. 그냥 미녕바지. 뽀스도 셔. 미녕바지에 그자 허리띠 즐라매영 그 랑그렁 퀘기 허도 죽곡 죽곡 헤영 입을벳기 더 헤나샤? 아 겨울에 누 출락출락 헤가니까 바당에 옹포 사름 죽어서.

@ 추우니까?

누 맞으니까 죽어질 거니까 2만이 맞앙 그 누 출락출락 맞이난게 실련 꼬구라지니까 거 메기주게. 계고 또 잇어른덜이 다 풍선이니까.

@ 예에.

돛 들곡 노 젓고 퀘기 허는 베니까 바람 췌여가지고 풍패로 배 어퍼져도 그디 베 대지 못허연 그 사름덜 구졸 못 험젠 헤시네. 우리도 살아야겟다.

@ 같이 죽으니까?

같이 죽으니까 죽는 거 봐도 왓젠 험시네게. 이젠 저 큰 배덜 기켓배덜 시니까 언간 이 브름 붙어 요코나미로 채우멍 사름 혼 두 사름 살령 옛날은 그렇게 허지 들어오주마는 옛날은 그렇게.

@ 삼춘도 잇어났수가?

아 잇어나서.

6.13. 배 종류

@ 눈 앞에서 보멍이라도예? 베도 종류가 하영 바꿨지예?

옛날은 초석베로 돈 언만 쥐사게. 돈 혼 아마 이제 2뜨른 돈 혼 오륙백이든 좋은 거 살 거라.

@ 옛날예?

등만 들고 노 젓는 거. 갈치 나끄는 베덜 뭐 삼 억까지 가는 베가 싯젠 현디 뭐.

@ 이 아들네 베는 얼마짜리우과?

아들네 벤 하차년 거.

@ 이 동네는 누게네 베가 쥘 비싼 거?

이 동네 저 셋동네덜 큰베덜 셔. 옐 들어서 족아사 팔구 톤.

@ 아아.

톤 수로. 게난 십 톤만 뉘든 이제 언간히 브름 불 때도 갈 수가 잇주게.

@ 십 톤만 뉘면. 예전에는 여기에 그 아까 초석베로 췌잖아예. 초석도 없는 거 노만
젓는 거 잇지예? 그 베 일름은 뉘우과?

뽕마. 그거 그 큰베에 또꼬냥에 창 뽕마엔 허주기.

@ 아, 그 초석베에 ㄴ치 다녀?

뽕마엔 현 거 뽕마엔 허여 낫주.

@ 뽕마에는 뉘 헤난 거우과? 뉘 용이라?

이 비양도 앞의셔 불락도 나끄곡.

@ 것도 고기잡이셔 쓰는 베?

고기도 잡곡 옐 들어서 옹포꺼지라도 브름 안 불 때 노 젓엉 옹포도 가곡 험재도 가곡.

@ 자가용인게.

이제 뽕드덜 엔진 거니까, 옛날은.

@ 맞아예. 뉘 허거나 자리 헐 때는 낭으로 만든 베?

떼. 뽕배. 쉐디 비양돈 뽕배 엇어나서.

@ 아, 기우과?

옹포도 엇고.

@ 젤 죽은 거 뽀마베?

거 옥돔 잡으레 풍선 돛 들앙 다니는 베에 그 몸 허영 실럿주기.

7. 바다 이름 2

@ 뗏베로 안 허고. 테메는개도 잇언개. 개 이름도 테메는개.

테메는개. 낭시끄는코지.

@ 그런 거 잇인디 어떻 허연?

계난 이 비양도에도 이거 동쪽에 가믄 한삼뜨리, 흐뽀 가믄 종남머리, 아기업은돌, 이제 큰원, 죽은원, 산이부리동산, 또 저영 가믄 상경주.

@ 상경주?

또 큰가제앞, 이제 또 테메는개. 이제 죽은가저.

@ 죽은가저?

이제 영 돌아오믄 둘렁머리.

@ 둘렁머리?

너부베.

@ 너부베?

낭시끄는코지, 이제 원, 원. 이제 쭈쭈나간 건 오저뿌리.

@ 오저뿌리. 또 이수과?

비양도 베겏딜로 가든 옹포선 이제 거 저 벳겏 등대 잇는 거 그거 도고리여엔 현디 이디선 큰새비여엔 허여.

@ 여기에서 불르는 거는. 비양도에서 불르는 거는?

등대 세와진디 영 동쪽으로 저 등대 하나 잇지. 그 등대 세와진디 옹포선 도고리여엔 현디 이 비양도에 오니까 큰새비여엔 허대.

@ 똑 같은 장소를 두고도 부르는 게 달라예?

또 서비여 잇고. 그디서도 서비여 안네도 이제 동안이슬, 이제 작지뿌리. 작지 시니까 작지뿌리지.

@ 부리는 무슨 말. 거 이름에 대해가지고 뿌리엔?

작지뿌리, 동안이슬.

@ 동안이슬은?

영장 파도 막 치는 디 동안이슬, 동안이슬.

@ 원도 남아 잇는 원이 잇수과?

명칭은 셔. 원 둘러난 원담 더러 셔.

@ 그 다음에 선장허고 앞의 사는 사람 이를 틀리고 아까 칫사공 허는 것처럼?

고불엔 고사공, 한장에 한사공, 이물에 이사공. 칫사공이 고사공.

@ 칫사공이 고사공이우과? 아아. 혹시 여기에서 직접 배 만드는 것도 봐봤수과?

배짓는 거.

@ 예.

봤주게.

8. 어로 도구와 어로 행위

8.1. 배 부분 명칭

@ 그러면 배가 영 이실 거 아니우과예? 여기는 앞이니까 이물, 여기는 고물, 여기가 한장. 이런 옆에 이름은 뭐우과?

이제 풍선은이, 배 영 짓이른 것보고 뭐셴 헨다마는 나 잊어부러저. 저, 그것보고 뭇 이엔 헨디 파락, 파락.

@ 여기 파락예?

파락 거세기 허른 옛날은 그디 널 낭 맞인 거 툃툃 그디 거세기 허영 영 치멍 거세기 헤낫주기. 거 떼여저도 글로 물 담아들어.

@ 아아. 파락 그 쪽 헤갓고. 또 노도 종류가 으라 개 잇수가? 이런 배에 부분 이름덜 잇지예.

이 제일 두에 젓는 건 도문네.

또 한장.

@ 한장.

읤네.

@ 읤네는 두 개. 그 다음에 치도 치에도 종류가 다르지예. 앞에도 아 네예예?

그건 넷입. 이제, 넷입엔 허곡 그것보고 건 뭇엔 헨다마는 잊어부러 안 나옴직허다.

@ 네는 거기에 벤드레.

벤드레.

@ 벤드레 행은에 영 허는 거지예? 그 다음 생각나는 거 엇수과? 이름 잇인 거 부분 부분 이름. 그 다음엔 샷대도 들고.

뭐 셔게?

@ 배 나오젠 허믄 긴 대?

서울대.

@ 서울대로 허영 허는 거지예? 그 다음에 세우젠 허믄 닷?

닷줄. 가지.

@ 가지는 뭐우과?

안까게.

@ 닷가지. 밑으로. 그 다음에는예, 이 비양도에서 일년에 보통 메칠 정도나 고기잡이 해신고마씨?

이 옛날은, 구물 이 덩장구물도 이제 흔 스월로 꿩기허믄 칠월들 허민 옛날은 다 가 다쓰기 해낫주마는 이젠 기술이 그게 아니라 계속 허지 아념샤. 백중사리만 이 자망 구 물도 벤자리 잡당 무슨 거 잡단 그물도 다 걷어 올려낫주기. 걷어올려근에 딱 늘어나 서. 이젠 그것이 아니주게. 이젠 춘하추동 늘 허여떡어.

@ 요즘은 늘 허여떡고. 옛날은?

백중사리가 질 크게 세여부럿주게.

@ 구물 눈 거는 뭐렌 헤?

아 구물 제긴 거게, 늘엇젠게.

@ 수입은? 요즘

돈이 요조금 옛날엔 그만이 돼여시냐?

@ 고깃값이 옛어부난예?

요조금은 어디 저 소문에 들으른 뭐 잘 잡으른 혼 백오십만 원도 잡곡 백만 원도 잡곡 이치록헌다는디. 경 잡는 배가 싯젠 햄시네?

@ 우리 멜 헐 때는 하영 웰 거 같던데?

몰라. 그건이 오래 아녀니까게. 하루에 혼 백만 원어치 벌어. 백만 원 넘주마는 자기.

@ 백만 원 자기 수입이고?

흐꿈 넘은 건 멜 터는 사름 뚜드렁 때려 주는 사름 일쿰도 줘야 헐 거. 선원덜도 줘야고 혼 백만원 벌어져 허른 자기 아덜이 혼 칠십만원 뽏뽏 웬다게.

@ 하루에 칠십 만원 버는 게?

멧 메칠 동안. 멜 기기 뭐 혼 보름벧기 안 돼여.

@ 보름 헤도게?

그치록 허연 헤사 이제 거 선원덜 갈라줘불곡 턴 사름 갈라줘불곡 천오백이 이녀 돈 웹시민, 천오백 이녀 돈 안 웹시네게.

9. 날씨와 시간

9.1. 바람

@ 계곡 바람이 켈 고기잡는디 영향이 크잖아예. 이 동네 바람 종류도 하지예? 바람 종류 알아봅서. 어떤 바람 어떤 바람?

셋벼름.

@ 셋벼름.

하늬벼름, 저 하늬벼름, 늦하니.

@ 늦하늬는?

바로이 이만이 오지.

@ 이만이 방향으로 동서남북허면은 어느 쪽이우과?

이 바로 북방이지.

@ 바로 북쪽이 늦하늬. 하늬벼름은?

하늬벼름은 하늬.

@ 동북쪽으로 온 게 하늬벼름 늦벼름은 바로. 그 다음?

서풍.

@ 그 다음 벼름 종류 뭐 잇수과?

마팍름. 산부세.

@ 산부세는 한라산. 산에서 오니까 산부세 험니까? 방향은 동서남북 헤갓고?

이젠 옐 들어서 늑새벼름, 하늬 뭐 뭐 뭐 막 곧주.

@ 그 벼름 종류를 다 곶아줍서. 늑새벼름은?

동쪽 흐꿈 피행은에 하늬벼름, 늑하늬쪽.

@ 게문 동북쪽 뒤편네? 뚝하늬는?

하늬벼름계.

@ 뚝하늬나 하늬벼름은 방향은 흐뭇 틀릴 거 아니라예?

또 췌기 허믄 곧은하늬.

@ 곧은하늬?

곧은하늬 나 곶은디 갈벼름쪽 그 서북 허곡 동북허곡 그 중간으로 오는 벼름.

@ 곧은하늬? 다시예. 이렇게 동서남북허면 여기가 동쪽이라예. 동쪽으로 오는 게 셋벼름예? 동으로 오는 거.

서쪽으로는 갈벼름, 북쪽으로는 하늬.

@ 하늬벼름이잖아예?

늦하늬.

@ 늦하늬가.

바로.

@ 하늬벼름은?

뚝새벼름은 요만이.

@ 여기는 요만이?

뚝하늬 이만이.

@ 여기는 뚝하늬? 그 다음 산부세?

일로.

@ 산부세하고 마프름?

마프름은 이만이.

@ 산부세 이만이예? 한라산 쪽을 남쪽으로 헵니까?

동남으로 게난. 이디가 동남이 돼주게. 이거 동쪽이라도.

@ 산부세허고?

바로 한라산으로 오는 것이 한라산이 흐뎀 벗어정 검은오름 쪽으로 영 오는 것이 산부세엔 허주기. 그 이상은 더 모르커라.

9.2. 물 때

@ 여기 어떤 물때도 하지예. 어떤 거를 물때렌 낚는 거우과?

물때. 열 들어서이, 음력 이제 초열을. 초열을부터 혼물이주기.

@ 초열을이 혼 물.

오늘이 혼물이라.

@ 오늘이 혼물이우과? 물때를 멧 개를 세여?

열두물을 세여야주기게.

@ 게믄 세어봅서?

혼물 두물 서물 너물 다섯물 으섯물 아홉물 열 열하나 열둘.

@ 열두물 지나서?

열 들어서이, 물때도 이제 초열흘이 혼 물. 열흘루가 두물, 열이틀이 서물, 열사흘이 너물, 이제 열나흘이 다섯물, 이제 보름이 으섯물. 보름으섯, 그믐으섯.

@ 그믐도 으섯물?

으, 보름도 으섯물, 그믐물쨌 언제부터 허냐 허른 쓰무닷새가 혼물이라.

@ 예. 쓰무닷새가?

게난 들이 크고 적으민 흐루가 죽어져도 그믐이 왜든 으섯물.

@ 아 그믐왜든 으섯 물. 이제 초흐루 일곱물, 보름이 일곱물.

@ 보름이 일곱물 허곡. 아까 초열흘이 혼물 헛잖아예? 그믐물쨌.

그믐물쨌 쓰무닷새부터.

@ 거는 그믐물쨌고. 초열흘부터 허는 거는 보름물쨌.

게곡 조금은 이제 초일레부터 조금.

@ 초일레.

음력으로 초일레 초여드레 초아흐레. 게문 초으드레가 한조금, 초아흐레가 아끈조기.

@ 아끈조기?

열흘이 혼물. 이디선 조금 사흘벧기 안 세주기.

@ 아까 백중사리엔 헛잖아? 사린 뭐우과?

백중사리는 물때를 보름물쨌 꿰기 허는디 백중이 경 물이 췌여났던 모양이여. 게난 백중사리엔 옛날 거세기 해낫주기.

@ 사리라는 말은 물찌?

물찌. 물 하영 들 때보고 사리엔 허주기. 물도 잘 싸는 물찌가 잇고 덜 싸는 물찌가 잇어.

@ 거는 어떻 무슨 말이우과? 바당을 알아야. 잘 싸는 물찌는 어떤 때 잘 싸는 물찌렌 글아?

계난 물찌 쉼 때가 잘 싸는 물찌 아니가? 것사리, 족사리.

@ 것사리엔 허곡?

족사리?

@ 것사리는 무슨 말이고 족사리는 무슨 말?

것사리엔 허는 물이 걸싸게 싸분다 잘 싹다, 족사리는 ㄴ쁜 물때라도 죽은 족사리.

@ 물이 하영 들어올 때가.

혼물부터 이제 사리가 올라가는 거주기.

@ 혼물 두물 헤갓고?

혼물 서너물 물도 혼뎀 싸근에 이제 툃도 허레 가고 뵈도 허게 가곡 헤나시네?

@ 것밧디 물들 때는? 그 이제는 고기 잡으면 어떤 식으로 헤근에 강 팔아마씨?

그때도계 옛날도 벤자릴 잡으나 무슨 생성을 벤자리 잡아도 웃밧으로 완 받아낫저 게. 이디 완 받아도 돈이 하영 주지 아녕 서푼까치 쥐도 한림꺼지 네 젓엿가기 실프민 풀곡. 경 아녀민 한림꺼지 네 젓엿 강 풀양 술 혼 잔 먹엿 자빠정 자당보문.

@ 돈도 엿어저불곡.

베에 오명 초석 하나 들양 브름 웃덴 허영 이 브름이면 끄딱끄딱허민 오꼴 즘들 때가 만허여.

@ 베에서?

즘 자당 보민 저 서비여 베젓디 넘어가 불 때 잇고. 어떤 땐 비양도 와근에 동쪽에 한섬드리 초석 든냥 주왓주왓 베가 건드려 가믄 그때 개영 그 거기 서울대 말양 나왕 집의 들어오주기. 집의 들어오믄 각시덜은 좋게 생각허느냐게.

@ 맞아. 빨리 쓸도 받아와야.

쓸랑 받기랑. 고기 풀믄 베고픈 짐에 우동 혼 그릇에 술 뒤 잔 걸치믄 다 즘잘락이 주, 뒤.

@ 다 즘잘락. 돈도 안 가정와. 요즘은 어떤 식으로?

이젠 가믄이 수협에 가믄 거기 허고 이 구물에 고기 잡는 건 상인덜 물영 풀암시네게.

@ 수협 강.

이디서 우리 아덜네 잡는 건 상인 헤여가지고 활어 산 거 그거 풀곡 죽은 것도 풀곡 그치록허영 거세기 험시네?

@ 아덜네는 무신 거 험수과? 요즘.

어, 감태 허영 한글험이랑 말양. 아직 낫나지 안 허여서.

@ 그 다음에 고기잡이 나가지 아널 때예. 고기잡이 바당에 갈 때 말양 집에 잇을 땐 주로 무슨 일을 헤마씨?

구물 잣곡게. 그치록허고 생성 나믄 때엔 이 뵈고 짝이, 나룩 짝이. 나룩 짝으로 거 닷줄을 허난 그 베 다니젠 허민 줄 백 말이믄 백 발 새끼 꼬양 내놔야 허여.

@ 아, 닷줄을 그걸로 현 거라만씨? 나룩 짝으로?

나룩쪽으로 계도 오래 가.

@ 그거는?

계도 오래가.

@ 그거는 쏘거나 이런 거는 안 하고?

솟지 아녀. 새끼 꼬양 레기 허른 닷 뽑는 곱놀이 잇주기. 곱놀엔 현 거.

@ 곱놀은 뭐라?

닷 뽑는 거. 닷줄 뽑는 거. 옛날에 새깃줄. 또 이제 호랭이. 건 줄 영 걸리는 거. 옛날 집의 저.

@ 집 일 때 허는 거?

그거 허영 막 레기 주른 닷줄 거기 주른 거 낭으로 레기 뒷차대. 거 이제 영 낭 영 건 왕대라도 영 해근에 고양이 찢러근에 호랭이 너미 자게 비른 줄 끈차지난 줄에 맞추왕 거세기 뒷차대로 영 비여주곡 앞의 두에서 거 곱놀로 이제 닷줄 뽑아가른 꺾 둘러주는 거세기 허여낫주게.

@ 호랭이?

호랭이. 이젠 곱놀엔 현 건 영 허여긴이 요만이 해근에 이디 고양이 뜯라지곡 이디 뜯라지고 이디 뜯라정 세 가달 뜯라져. 줄 끄트머리 이디 찢렁 어땡허영 꺾디 만들앙. 그디 낭 거세기 해근에 줄 잘 뽑는 어른 거기 앓아근에 하영 뽑지 못허여. 그 하나 만들젠 어떤 땐 흐루헤원 걸러.

@ 줄 주는 거는? 그 사이엔 짝을 줄 뽑는?

그것이 아니고 이 짝으로 새긴 다 꼬대 영 막 데와냥 그 두에 영 곱놀 앞의 앓앙 영 영 닷을 뽑아주는 사름이.

@ 영.

세 가달.

@ 고망이 세 개 해서 다 주는 거.

영 거세기 허른 꿩기 나라비 앓앙 영영 돌려가믄 닷줄이 꼬아져가주기.

@ 그거 허는 거를?

곰늘.

@ 이 기구가 곰늘 아니라예. 하르방이 세 개 현 거 닷 뽑는 거. 무슨 말인지 알았수다. 찍으로 이런 식으로 헤갓고?

옛날 그치룩허연 헤낫주기.

@ 요런 것덜도 베에 안 갈 땐 일을 현 거네예?

@ 구물도 찍으로도 짜낫수과?

옛날은 그 도랭이구물엔 허영이, 도랭이 알아지느냐?

@ 상어 닳은 거. 요즘은 그런 고기가 옛덴 허멍?

찍노 깰왕 줄을 쭉앗덴 헤라. 줄을 꼬왕 손으로 이제 하르방네 이제 베 꼬듯이 세 가달로 꼬왕 그물 꾸면 써낫주기.

@ 도랭이는 꿩기가 얼만이 현 거우과?

상언디 요만이 허어.

@ 요즘은 그런 거 옛덴 허멍.

비께도 엇잖아.

10. 민속

10.1. 고사

@ 계민 고사도 지내났수과?

고사 지내야주게.

@ 고사는 언제 지내여?

건 정월달에 제를 지내는 사람 잇고, 또 삼스월까지. 또 이 그거 말양 이월초흐를날.

@ 예. 이월초흐를날?

이월초흐를날 허곡 정월 그믐엔 영등 들어온 덴 허영 베가 네조 혜영. 네존 뭐이나 허믈 이 풍선은 돛을 혼 번 들앗당 누리곡 또 혼번 들앗당 내리우곡 세 번 째 들양 내리곡 내번 째 돛 들양.

@ 정월?

초흐루가 아니고 이월 초흐를날은 똑 그치룩허영 가. 초사흘날꺼지 허는 사람도 셔.

@ 그거를 네조라고 해예? 고사 지낼 때는 심방 빌어당도 고사 지냅니까? 그거는 무슨 고사렌 헉니까?

심방 빌어당도.

@ 그건 무슨?

그건 베 선양긔.

@ 선양긔 안 허지예?

허는 디도 셔.

@ 이 동네도?

우리도 허단 흔 일이년 안 험서.

@ 이제는 안 허고. 요거는 배 심방 개인적으로 허는 거?

개인적으로 허는 거. 선주들이 이녁 집에서 허는 거니까. 이녁 선앙을 잘 뒤편 비는 거주게.

@ 배에서 허는 거 아니?

배에서 허곡. 문전에 빌어주고 요조금은 콤삭이 빗나부난 흙부로 심방 빌어점샤?

10.2. 제수

@ 맞아. 게문 선앙곳 할 때는 제물 어떤 식으로 험니까?

뒤편머리도 사도 거세기 허곡, 떡도 청 가곡. 시리떡도 시리떡이엔 허여도 거 사발시리떡이주게.

@ 사발시리?

그 옛날은 흰시리 이제 좁쌀시리떡 뭐 경 헤낫주. 이제 그런 건 없고 신식 뒤편 흰시리로. 옛날은 거 그 배에, 이 꿩기 허젠 허문 흰시리, 좁쌀시리, 조팍 이제 쌀밥 그치 룩허연 다니지 아녀서.

@ 선앙 험 때도?

이젠 그치룩은 아녀도 옛날은 그치룩허연 다니서.

@ 조팍하고 곤밥허고 메는 멧 개 올리는 거.

흰메 두 기, 좁쌀메 두 기. 네 기 올려줘야주기.

@ 메 네 기 하고, 그 다음 국도 올려?

국은 안 놔.

@ 메허고 또 올리는 거 뭐우과? 선양긔 헐 때?

생성덜.

@ 생성덜은 어느 정도 올려? 멧 개?

메가 네 개 아니가. 네 개믄 생성도 네 개 올라가야 허는 거 아니가?

@ 과일은 주로 뭐뭐 헛수과?

밀감. 밀감 없으면 유자, 배, 능금.

@ 능금. 세 가지?

네 가지.

@ 그것도 따로따로는 네 개.

따로따로 허곡 나그네 지네 초상거옴 허영 더 허여.

@ 과일 그거는?

과일도 더 허곡 메도 더 허여. 거 나그네덜 심방덜 오믄 지네 초상덜 거 앞의 올려 놔야 자기네 문답 나오지이.

@ 선주가 준비하는 건, 심방이 따로 헤?

베임제가 다 헤영 내놓는 거주.

@ 계난 선양긔 헐 때 준비허는 거 곶아뵙서게.

다섯 개 산지 으섯 개 산디 그치록 들고. 돈도 만원씩이라도 오육만원 들어가곡.

@ 그렇지.

또 콤주는 것도 옛날 십오만 원도 주곡 이십만 원도 주곡 경허는디 백만 원 쥐도 안 해준덴.

@ 하루 종일 허곡예?

돈 백으로 해주젠 햄서.

@ 경허난덜 안 허는 거라?

시리혜야 사발시리게. 종이 끌어근에 거 허영 잘 거기 혜긴에 솟디 숲으른 잘 익나 게. 그치록혜긴에 사발시리 대으섯 개 허곡게.

@ 사발시리 대으섯 개 허곡. 채소같은 거.

콩늬물, 잡채도 허곡 다 허여.

@ 국만 안 허는 구나예?

안 허여.

@ 생선, 따른 케긴 안 올려?

이녁 잡은 고기 기자 열 들어서 벤자리 잡안 잇으른 벤자리도 올릴 때 잇고, 그렇지 아녀른 돔도 올령 허곡게.

@ 잡은 걸로?

이녁 성의껏 잘 뒤줍센 비는 거난.

@ 그런데 올리지 아녀는, 제물로 못 쓰는 케기?

그거는 못 올리지. 갈치 고등어 못 올리지. 그거 하영 잡아도 갈치, 고등어 지속도 안 씬시네게.

@ 지속도 안 헤예? 갈치 고등어도 비싸도예.

10.3. 금기어

@ 예전에 아이고, 오늘은 날은 좋은디 가지 말아여 돼켜 허는 금기허는 것도 잇수과?

금기허는.

@ 배에서 쥐 느리면 배가 안 뜬다.

그것 잇어른 말인디이 뭐 그 배에 닷 발앙 중이가 내리믄 그날 바당 가지 말라 대라. 그치룩 헤나서.

@ 건 무산고예?

선양이 내려부럿젠. 쥐가 선양엔 험다게.

@ 배 허는 사름은 쥐라 선양이렌 곶아.

배에서 절대 그 배에 베염이 나와도 거시지 말아야. 잇어른덜이 그런 말 헤난 거 나도 곶암저마는 그런 건 엇고.

11. 음식

11.1. 음식 이름

@ 비양도 바당께기 바닷고기를 가정은에 헤 먹는 음식?

음식은게 이녁 므음대로 행 먹을 거 아니가게.

@ 행 먹은 거 알아봅서.

고등어도 사시미 떡국 갈치도 사시미 먹고, 다 먹어진다.

@ 옛날도 사시미 해영 먹었수과?

잇날은 초 없으믄 고등어, 갈치는 그 소금, 소곰 확 절영 확 시쳐불민 그것이 소독웬 덴 허영.

@ 아아? 소곰에 절여갓고 그걸 먹는 거라.

확 시쳐똥 먹어. 그치룩 허영 웬장 찍어근에 떡국.

@ 그 다음에 아까 옥돔 잡았을 때 옥돔으로 주로 허는 거는 무슨 음식 헤마씨?

아 옥돔도게 으라 가지 허영 먹주게. 횡도 허영 떡국. 옥돔횡가 언마나 맛 조은지 알 았다.

@ 그냥 횡? 날로 먹는 거?

날로 해영도 떡국 찍어서 강횡도 해영 떡국. 바다에 가믄 옛날은 이제 요 초장 웃어 도 그 이제 생선 율텡이 니깍 생성 혼 머리 딱딱 뚜드러근에 물 혼 그릇에 웬장 낱 확 놓믄 꿩기 허믄 풀고치 하나 딱 썰어낱 허믄 어찌난 맛 좋은 디 몰른다.

@ 그 음식은 뭐우과?

그 음식은게 베에서 난도질허영 횡국 해영 먹엇젠.

@ 요즘, 횡국말 허여가난 입에서 막 침 고염수다. 횡국도 행먹고, 메역 낱은에 생선메 역국예. 생성으로 해영 먹는 게 꿩근에 먹고.

꿩도 먹고. 보깡도 먹고.

@ 생성 보깡도 먹어마씨?

생선 무사 생성 보강은 안 먹느냐? 생성국 허곡.

@ 그 다음 죽 썰 떡국.

죽 썰 먹고 고등어도 죽 썰 먹고. 고등어죽 쭈든 닭 죽 저레 가렌 한다.

@ 고등어죽 쭈는 거 혼 번 곱아줍서?

고등어죽은 지금 압력솥이 이제 물 맞추왕 그자 내가 옛날 으, 우리집 다섯 식귀 혼 끼니 먹을 거 언마 쓸 그디 이제 고등어 그 거세기 썩고등어든 이제 간현 건, 무린 걸 랑 허지 말라. 흐뎀 먹음직 현 거. 경 맛 좋아.

@ 생고등어를 쓸에 같이 낱 죽을 쭈는 거라마씨?

압력솥이난게 쓸도. 케기 먹을 때라근에 고등어 영 케기 허든 영 것으민 다 녹아 일 로 절로 고등어가 다 갈라진다게.

@ 뼈채 놓는 거라마씨.

뼈채 낱. 다 놔. 창지 허고 아가미.

@ 아 경 행은에 고등어죽 행 먹어?

혼 번 강 혜영 먹어봐.

11.2. 생선 손질 과정

@ 닭죽보다 맛있다고? 생선 손질할 때예, 생성 잡앙 오면 손질하는 과정을 한 번 곱아 줍서? 손질허는 과정 곱아줍서?

아 칼로게 비늘 거시령 영 그 아가미 빼여뵈 게여근에 칼로 영 베강.

@ 베강.

계긴에 소곰 해긴에 소곰 맞추왕 허믄 맛 존 생성도 잇고 너미 짜게 허믄 흐꼼 짜곡
계. 이녁 소곰 허는 요령에 웨는 거주. 아무 것도 아니.

11.3. 생선 부분 명칭

@ 아무 것도 아니라마씨? 생성이 있으면 이름도 다 틀리잖아예. 이게 생선이라예. 여
기는 뭐렌 험니까?

머리.

@ 요거는?

눈.

@ 눈이렌 험니까?

생선눈. 이제 가운데 한복판 가운데 토막.

@ 가운데 토막.

또 쫍지.

@ 이거 쫍지. 이거 베타는 건 이거고?

경 웰 거. 등슬.

@ 여기 이렇게 잇는 거는?

늘게기.

@ 늘게기. 그 다음에 여기 영 허면 아가미는 뭐렌 험니까?

구생이.

@ 구생이. 그 다음에 이 안에 빼부는 거는 뭐?

빼부는 거 창지게. 피끗 때불곡.

@ 피끗이 뭐?

생선 피 닳은 거 잇지 칼로 손으로 잘 시쳐야 깨끗허주게.

@ 피처럼 영킨 거를 피끗이렌 험니까? 피끗 때불곡 험 씻영은에 소금 험 물리는 거. 어느 정도 물려야 맛 좋아마씨?

너무 물리봐도 맛 없고 시들시들해근에 귀야 반 시들믄.

@ 반 시들어야 젤 맛 좋아?

그때가 젤 맛 좋아.

@ 조리는 것도 반 해 갖고.

늘 것도 조리는 거 험 수도 잇고 근헌 것도 생성죽도 끓리믄 언마나 맛 좋느니?

11.4. 생선 구별법

@ 생선은예, 싱싱헌 거는 어떤 식으로 구별해마씨? 어떤 게 싱싱헌 거?

아궁이 보믄 알아. 아게미. 아가미가 탁 영 들러서 보믄. 또 어떤 사람 잘못 속으믄 아까쟁기 칠헌 사람도 신다이.

@ 생선을 아까쟁기를 칠해부러마씨? 불그스름헌 게 좋은 생선?

빨강헌 것이 제일 좋은 거주게. 하여튼 곧 걸려근에 냉동에 나와도 아가미가 빨강게 허믄 젤 존 거.

@ 아, 냉동에 거 볼 때도 아가미 보면 알 수 잇는 거라예?

그 아가미가 짓궂겅허믄 상당이 존 거. 아가미가 흐뭇 희뽀룩허곡 흐뭇 아가미가 뜰리믄 이거 흐 불 갖구나 헤부러야지게. 건 흐뭇 오래 헤연 놔 둔 거로구나 헤야주.

@ 생선 우리가 냉동 뒀든 뭐 헛든 아가미를 보라고?

베칸 건 아가미가 엇이난 못 봐. 베칸 건 영 물라근에 고기 보믄 안다게. 고기 색제냐 제 색제냐 고기도 멩직아보믄 느네 돛궂기든 뒤이든 사믄 싱싱헌 거 알아지지 아녀느냐?

@ 요 식계나 제숙으로 쓰는 거는 뭇 하영 썻수가?

다 이제도 생성 썻. ㄱ이서 불러당 쓴다게.

@ 아아. 여기서 아니고 ㄱ이서 헨 거 다른 궂기 동쪽은 가니까 우럭 쓴덴. 생성이 안나니까.

여긴 우럭도 쓰는 사름도 잇고 이녁 고단고단이주게. 이녁이 흐뭇 잘 살아지믄 생성 허젠 허곡 못 산 사름은 우럭이라도 시믄게 궂도 비늘 돋은 고기 아니가게. 그치룩허영 지속 허는 거.

@ 지속은 비늘 이신 거. 지속 못허는 건 엇어마썻?

아, 예여리는 못헌다.

@ 예여리는?

몰라. 그건 지속 안 썻. 궂치도 안 쓰곡이.

12. 기타

@ 궂치도 안 쓰고 비늘 엇수가? 아 우의 궂궂 잇구나. 궂치도 안 쓰곡 예여리도 안 쓰곡. 이 비양도 살믄 가장 불편헛던 거 뒤가 쥘 힘들어난마썻?

불편헌 건 게 이녁 베 엇이른 늬의 배로 이제 부떠 강 ㄱ이 가도 오젠 그 시간 걸리는 거. 또 이디서 가쟁 허믄 또 그 고생. 것이 뭐 불편헌 거주 뭐. 불편헌 거 셔. 느 곧 가젠 해도 어디 가지커가?

@ 그때까지 놀아야 헐 거주게. 물 때문에도 고생 하영 헛지예?

아이고, 물 때문에 많이 고생헛저.

@ 물은 옛날은 어떤 식으로.

옛날은게 비양도 저 토종독덜 많이 질루와났주기. 집집마다 거 독똥 싸도게 그 썰면 거세기 허영 받아먹나. 옛날은 거 이 혁 마당에 그 물 글르믄 거 발안 먹어서네게. 거 독똥물도 먹곡.

@ 독똥물도 먹곡 마당에 물통을 팻수가? 아니면은 지붕에서 내리는 물?

하늘바지. 이 땅에 떨어지믄 그거 반양은에 항에 놓나 통에 비와근에 그거 끌라아지민 먹엇주게. 경 헤가믄 장쿨레비 툽 레영 와글와글 허영 모기 뉘는 장쿨레비 그거 먹곡.

@ 그런 식으로 먹으믄 물 때문에 배도 아프곡 하영 헤실 거라예, 옛날에.

이제야 물 바파지난 아프다 암이여 뭐여 막 건느렵주. 옛날은 막 물에 대해서는 뭐 사름덜은 죽엇주마는 그때는 뭐 간장염이엔만 영 허엇주. 요즘 어디 그 옛날 사름덜 암이엔 현 사름이 어디 시니. 그자 레기 허믄 팻벵.

@ 팻벵 옛날에는?

팻벵이 쉘 무섭게 생각허어나고 이제 간장염이 쉘 무섭게 생각헤여났주.

@ 간장염허곡 팻벵예. 경 허영은에 이제 물도 경 허영은에 먹고. 여기는 아까 이제 한 립을 ㄱ엔 험니까? ㄱ되 감덴 헤?

아이 험쩨 가나 아무디 가도 ㄱ되 갈 거주기. ㄱ되 갈 거주기.

@ 여기는 뭐렌 혜?

여기는 굿디 갖다 왔젠.

@ 혹시 옹포도 살아나고 저기 한림도 왔다갔다 허니까 이 비양도만 독특한 풍습같은 거 잇수과?

특이한 거 었어. 거의 ㄴ타. 이디 저 분향도 이 당도 잇주마는 꼭 ㄴ타. 축으로 허여. 그 전엔 굿 허여낫주.

제4장 조사된 어휘

1. 행위자

1.1. 뱃사람

1.1.1. 명칭

1) 어부, 보제기

‘어부’는 물고기 잡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달리 ‘보제기’라고도 한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바다 속에 들어가서 조개, 미역 따위의 해산물을 따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나, 제주에서는 ‘어부’의 의미로만 쓰인다.

⇒ 레기 잡는 사람 ㄹ라 어부. 보제기도 곧곡계.

2) 사공

‘사공’은 배를 부리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 큰노를 짓는 사람을 {사공이렌} 헛주게. 큰노 있고 작은노 있고, 왼쪽 오른쪽 다 잇엇주게.

3) 고사공

‘고사공’은 배의 고물 쪽에서 배를 짓는 사공을 말한다. 고물사공을 성씨에 비유해서 일컫는 말이다. 고물사공이라고도 한다.

⇒ 꼬불엔 {고사공}.

4) 이사공

‘이물사공’을 성씨에 비유해서 부르는 이름이다.

⇒ 이물은 {이사공}.

5) 찻사공

‘찻사공’은 배의 키를 잡은 사공을 말한다.

⇒ 치 심은 사람 그 어른은 찻사공이엔 헤낫저, 옛날은.

6) 선원

‘선원’은 배의 승무원을 말한다.

⇒ 뭇 터는 사람 뚜드렁 때려 주는 사람 일콧도 쥐야 헐 거. {선원덜도} 쥐야고

7) 배임제

‘배임제’는 배의 임자를 말한다. 한자어로 ‘선주’라고 한다.

⇒ 그 {배임제} 하르방 그 문성숙이 하르방이 밥허렌 허민 밥허여근에 허영 주곡.



[사진 4] 배임제

1.2. 해녀

1.2.1. 명칭

1) 줌수, 줌녀, 줌네

‘줌수, 줌녀, 줌네’는 바다에서 해산물 따위를 전문적으로 따는 사람을 말한다. 표준어 ‘해녀’에 해당하는 말이다. 《표준 국어 대사전》의 ‘줌네’는 줌네로 표기해야 맞다.

⇒ 궤기 잡는 사람 ㄱ라 어부. 보제기도 곧곡게. 물질허는 사람 줌수.

⇒ 이젠 {줌녀} 하지 아녀. 물질 안 배와노난게.

⇒ 물질허는 사람 {줌네}.

행위자와 관련한 어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행위자	어휘
뱃사람	어부, 보제기, 고사공, 사공, 이사공, 찻사공, 선원, 배임제, 선주
해녀	줌수, 줌녀, 줌네

2. 환경

2.1. 공간

2.1.1. 바다

1) 마이, 굿디

‘마이, 굿디’는 비양도에서 한림이나 협재 등 제주도 ‘본섬’을 일컫는 말이다.

- ⇒ {굿되는} 보말ㄴ튼 것도 옅어.
- ⇒ 지숙은 다 이제도 생성 씨. {마이서} 불러당 쓴다게.

2) 굿밭

‘굿밭’은 바다에 인접해 있는 돌이 있는 공간이다. 물이 썩면 고동 따위를 잡을 수 있는 공간이다.

- ⇒ {굿밭되로} 보말ㄴ튼 거 물싸른 보멸도 잡아당 먹고.

3) 므른밭

‘므른밭’은 바닷가 마을 사람들이 바다가 젖은 밭에 비유해서 물의 밭을 가리킬 때 쓰는 말. 또는 해안가에서 물이 드는 곳에 빗대어서 물이 들지 않은 갯가의 돌무더기가 깔려 있는 곳을 비유해서 일컫기도 한다.

- ⇒ 물에 가른 영영 휘기 때문에 {므른밭되서보단} 덜 아파.
- ⇒ 폭렌 {므른밭되서} 매는 거.

4) 옷밭

‘옷밭’은 바다를 밭이라는 관념 하에 바다 이외의 물을 일컬을 때 쓰는 말이다. 달리 ‘므른밭’이라고도 한다. ‘밭’은 밭의 제주어.

- ⇒ 옛날도 벤자릴 잡으나 무슨 생성을 벤자리 잡아도 {옷밭으로} 완 받아낫저게.

5) 누, 절

‘누’와 ‘절’은 파도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 겨울에 파도가 세믄 초석. 초석이 돛. 이제 거세기 허믄 제일 앞의 돛. 그거 가운데 세왕 조그

- 만이 들앙 그 {누에} 맞칭 오주기게.
 ⇒ {절} 지침젠 현 말을 옛날은 아이고 저디 막 누 지쳐왓저 영 허곡.

6) 풍패

- ‘풍패’는 세찬 바람과 험한 물결을 아울러 이르는 말. 표준어 ‘풍파’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옛날은 바람 췌여가지고 {풍패로} 배 어퍼져도 그디 베 대지 못허연 그 사름덜 구줄 못 험젠 헤시네.

7) 너울파도

- ‘너울파도’는 바람이 불지 않아도 파도가 크게 물결치는 것을 말한다.
 ⇒ {너울파도는} 바람은 안 불어도 그 파도만 일어.

2.2. 어장

2.2.1. 명칭

1) 개창, 성장, 축항, 개

‘개창, 성장, 축항, 개’는 물가에 배를 대고 짐을 싣거나 부리게 만든 시설로, 표준어 ‘포구’에 대응하는 말이다.

- ⇒ 개는 그냥 그 갯도여 무신 {개창이여} 영만 허엿주.
 ⇒ 배 매는 딴 {성장}.



[사진 5] 축항

2) 꿩기바당, 꿩기어장

‘꿩기바당, 꿩기어장’은 물고기가 많은 바다를 지칭하는 말이다.

- ⇒ 문딱 비양도는 {꿩기어장}이주기. {꿩기바당이주기게}.

3) 해녀바당

‘해녀바당’은 해녀들이 주로 물질하는 바다를 말한다. ‘바당’은 바다의 제주어다.

- ⇒ 비양도 어장이 최고로 널르주. {해녀바당도} 널러.

4) 모살통

‘모살통’은 바다 속에 모래가 있는 곳을 가리키는 말. ‘모살’은 모래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즈복허고 해삼은 지픈디 나. 옛날 {모살통에} 지픈 디 나. 우리 배물질 가났저.

5) 먼바당

‘먼바당’은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바다를 말한다.

⇒ 옥돔 주낫은 여기에서 {먼바당에} 빨바당이라고 거기에서 하쥌.

6) 걸바당, 걸밭

‘걸바당’은 바닷 속에 돌이 깔려 있는 바다를 말한다. 해안에서 멀지 않은 바다로, ‘걸밭’이라고도 부른다.

⇒ 가까운디 {걸바당}. 그 아래 바위 깔려 있어.

7) 빨바다

‘빨바다’는 바다 속에 개흙이 깔려 있는 바다를 말한다.

⇒ 제주도 한림 근해에는 거의 {빨바다}예요.

8) 동바당

‘동바당’은 비양도의 동쪽 어장 이름이다. ‘바당’은 바다에 대응하는 제주어.

⇒ 비양도에 어장요 {동바당}, 서바당 여러 가지 잇쥌.

9) 서바당

‘서바당’은 비양도의 서쪽 어장 이름이다.

⇒ 비양도에 이름 어장요 동바당 {서바당} 여러 가지 잇쥌.

10) 앞바당

‘앞바당’은 비양도 포구 있는 앞쪽의 바다를 가리킨다.

⇒ 이제 그치록허단 또 이 {앞바당에이} 벤자리. 벤자리 옛날은 그 낙수로 나까났저.

11) 원, 원담

‘원’은 바다에서 밀물과 썰물의 차이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돌로 둘러쌓아서 만든 장치를 말한다.

⇒ {원} 둘러난 {원담} 더러 셔.

12) 툃바당

‘툃바당’은 툃이 많이 나는 바다를 말한다.

⇒ 배에 시경 {툃바당에도} 가고.

13) 여

‘여’는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않는 바위를 가리킨다.

⇒ 이렇게 하간디 {여가} 잇고 그렇게 헐 수가 잇느냐게?

14) 코지

‘코지’는 바다 쪽으로 좁고 길게 뻗어 있는 육지의 한 부분을 말한다. 표준어 ‘곶’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그디ㄴ란 {너부배코지엔}.

2.3. 바다이름

2.3.1. 명칭

1) 큰가재

비양도 서쪽 해안가에 있는 바위다. 바위 안으로 굴이 뚫려 있다. 바위 형상이 코끼리 모양이라고 해서 코끼리 바위라고도 부른다. 갈마우지와 갈매기의 서식지로, 바위 위가 새 똥으로 하얗게 변해 있다.

⇒ 바당 이름도 요쪽에 건 {큰가재} 또 요쪽에 거는 죽은가재 경헤낫주.

2) 큰원

비양도 북쪽 해안에 있는 원으로, 작은 원 서쪽에 위치한다. 큰 원 사이로 도로가 뚫려 원이 두 개로 나뉘었다. 멸치어장이었으며 툃이 많이 나는 곳이기도 하다.

⇒ 옛날엔 이딴 그냥 이런 펠쿠물 아널 때 저디 {큰원엔} 헨 디 싯고 죽은원이 잇는디 원을 싯어.

3) 죽은원

비양도 북쪽 갯가 중 ‘배댄코지’(또는 ‘중남머리코지’) 서쪽에 있다. ‘애기업은돌’ 바로 서쪽에 위치해 있는 원이다. 조간대 층층에 자리해 있으면서 어느 정도 물웅덩이를 이루고 있다. 툇이 많이 자라는 곳이다. 그 서쪽에 있는 ‘큰 원’에 비해 적기 때문에 ‘죽은 원’이라고 한다.

⇒ 옛날엔 이딴 그냥 이런 펠쿠물 아널 때 저디 큰원엔 헨 디 싯고 {죽은원이} 잇는디 원을 싯어.

4) 테메는개

비양도 서쪽 갯가에 있는 뱃자리. ‘테’ 즉 ‘테우’를 매어두었던 개로, 자연 포구이다. 큰가재 북쪽에 있다.

⇒ 잇어른덜 몸 푸곡 그 테니까 바람이 불어도 춤 그 뿌시테기지 아녀고 허난 텃베 텃베 허연 {테메는개엔} 그렇게 이름 지운 생이여.

5) 한섬드리

비양도 동쪽 해안 지경이다. 비양도할망당에서 서쪽 해안으로 30m 거리에 위치한 지경이다.

⇒ 비양도도 영허문 {한섬드리}, 또 상저리여, 이제 둘렁머리.

6) 작지뿌리

비양도 바다 이름의 한 가지이다.

⇒ 서비여 안네도 이제 동안이술, 이제 {작지뿌리}.

7) 즈진여술

비양도 바다 이름의 한 가지.

⇒ 저 서비여, 큰서비여, 밧서비여. 이 비양도이 바당 일름도 한다. 목주리, 안목주리, 밧목주리, 베릿밧, 뭇 굽부리술, 이제 느리난여, 삼방난여, 뭇 어디 {즈진여술}, 어디 어디.

8) 죽은가저, 죽은가재

‘죽은가저, 죽은가재’는 비양도 바다 이름의 한 가지이다. 비양도 초소 앞에 있다.

- ⇒ {죽은가져}. 산여부리, 큰원, 죽은원, 종나머리, 또 일로 오든 이제 저 둘렁머리, 이제 상제리여, 옷앗는여. 그거주기 뵈이라.

9) 오저뿌리

‘오저뿌리’는 비양도 서쪽 바닷가로 서남쪽으로 길게 뻗어나간 곳을 말한다.

- ⇒ 또 큰가제앞, 이제 또 테메는개. 이제 죽은가져, 이제 영 돌아오든 둘렁머리, 너부베. 낭시끄는 코지, 이제 원. 이제 쭈쭈나간 건 {오저뿌리}.

10) 옷앗는여

‘옷앗는여’는 비양도 개창과 오줌부리 사이에 있는 여로, ‘옷’, 즉 바다오리가 잘 앉는 자리라고 해서 붙여진 바다이름이다.

- ⇒ 죽은가져. 산여부리, 큰원, 죽은원, 종나머리, 또 일로 오든 이제 저 둘렁머리, 이제 상제리여, {옷앗는여}. 그거주기 뵈이라.

11) 아기업은돌

비양도 북쪽 바닷가에 있는 서 있는 바위로, 그 형상이 마치 사람이 어린 아기를 업고 있는 형태여서 붙여진 이름이다.

- ⇒ 비양도에도 이거 동쪽에 가든 한삼드리, 흐뎡 가민 종남머리, {아기업은돌}, 이제 큰원, 죽은원, 산이뿌리동산, 또 저영 가든 상경주.



[사진 6] 아기업은돌

12) 목주리

‘목주리’는 비양도 바다 이름의 한 가지이다.

- ⇒ 저 서비여. 큰서비여, 밧서비여. 이 비양도이 바당 일름도 한다. {목주리}, 안목주리, 밧목주리, 베릿밧, 뵈 굽부리썰, 이제 느리난여, 삼방난여, 뵈 어디 즈진여술, 어디 어디.

13) 안목주리

‘안목주리’는 비양도 바다 이름의 한 가지이다.

- ⇒ 저 서비여. 큰서비여, 밧서비여. 이 비양도이 바당 일름도 한다. 목주리, {안목주리}, 밧목주리, 베릿밧, 뵈 굽부리썰, 이제 느리난여, 삼방난여, 뵈 어디 즈진여술, 어디 어디.

14) 밧목주리

‘밧목주리’는 비양도 바다 이름의 한 가지이다.

- ⇒ 저 서비여. 큰서비여, 밧서비여. 이 비양도이 바당 일름도 한다. 목주리, 안목주리, {밧목주리}, 베릿맛, 뉘 굽부리썰, 이제 느리난여, 삼방난여, 뉘 어디 즈진여술, 어디 어디.

15) 서비여

‘서비여’는 비양도 북쪽에 있는 큰여. 비양도 등대가 세워 있는 곳이다. ‘아기엿은돌’ 북쪽 바다에 있다.

- ⇒ {서비여} 안네도 이제 동안이술, 이제 작지뿌리,

16) 밧서비여

‘밧서비여’는 비양도 북쪽에 있는 여 이름. 비양도 등대가 세워 있는 것으로 바깥쪽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밧서비여란 이름이 붙었다.

- ⇒ 저 서비여. 큰서비여, {밧서비여}. 이 비양도이 바당 일름도 한다. 목주리, 안목주리, 밧목주리, 베릿맛, 뉘 굽부리썰, 이제 느리난여, 삼방난여, 뉘 어디 즈진여술, 어디 어디.

17) 큰서비여

‘큰서비여’는 비양도 북쪽에 있는 여 이름. ‘서비여’ 가운데 큰 것을 칭하는 이름이다.

- ⇒ 저 서비여. {큰서비여}, 밧서비여. 이 비양도이 바당 일름도 한다. 목주리, 안목주리, 밧목주리, 베릿맛, 뉘 굽부리썰, 이제 느리난여, 삼방난여, 뉘 어디 즈진여술, 어디 어디.

18) 산여부리, 산이부리

‘산여부리, 산이부리’는 비양도 바다 이름의 한 가지이다.

- ⇒ 죽은가져. {산여부리}, 큰원, 죽은원, 종나머리, 또 일로 오문 이제 저 둘렁머리, 이제 상제리 여, 옷얏은여. 그거주기 뉘이라.

19) 삼방난여

‘삼방난여’는 비양도 바다 이름의 한 가지이다.

- ⇒ 저 서비여. 큰서비여, 밧서비여. 이 비양도이 바당 일름도 한다. 목주리, 안목주리, 밧목주리, 베릿맛, 뉘 굽부리썰, 이제 느리난여, {삼방난여}, 뉘 어디 즈진여술, 어디 어디.

20) 상경주

‘상경주’는 비양도 바다 이름의 한 가지이다.

- ⇒ 비양도에도 이거 동쪽에 가른 한삼다리, 흐뎡 가민 종남머리, 아기엃은돌, 이제 큰원, 죽은원, 산이뿌리동산, 또 저영 가른 {상경주}.

21) 상저리어, 상제리어

‘상저리어’는 비양도 바다 이름의 한 가지이다. 구술자에 따라서 ‘상제리어’라고도 발음한다.

- ⇒ 비양도도 영허른 한섬다리, 또 {상저리어}, 이제 둘렁머리.

22) 베릿맛

‘베릿맛’은 비양도 바다 이름의 한 가지이다.

- ⇒ 저 서비여. 큰서비여, 밧서비여. 이 비양도이 바당 일름도 한다. 목주리, 안목주리, 밧목주리, {베릿맛}, 뭇 굽부리쌀, 이제 느리난여, 삼방난여, 뭇 어디 즈진여술, 어디 어디.

23) 낭시끄는코지

‘낭시끄는코지’는 비양도 남쪽 ‘너부베’에 있는 코지 이름이다.

- ⇒ 또 큰가제앞, 이제 또 테메는개. 이제 죽은가저, 이제 영 돌아오른 둘렁머리, 너부베. {낭시끄는코지}, 이제 원. 이제 쭈쭈나간 건 오저뿌리.

24) 너부베

‘너부베’는 비양도 서쪽에 있는 바다 밧으로, 비양리 공동양식장. 비양도 포구에서 서쪽 해안초소까지의 바다 밧을 말한다.

- ⇒ 또 큰가제앞, 이제 또 테메는개. 이제 죽은가저, 이제 영 돌아오른 둘렁머리, {너부베}. 낭시끄는코지, 이제 원. 이제 쭈쭈나간 건 오저뿌리.

25) 느리난여

‘느리난여’는 비양도 바다의 여 이름의 한 가지이다.

- ⇒ 저 서비여. 큰서비여, 밧서비여. 이 비양도이 바당 일름도 한다. 목주리, 안목주리, 밧목주리, 베릿맛, 뭇 굽부리쌀, 이제 {느리난여}, 삼방난여, 뭇 어디 즈진여술, 어디 어디.

26) 동안이술

‘동안이술’은 비양도 바다 이름의 한 가지이다.

⇒ 영장 파도 막 치는 디 {동안이술}.

27) 둘렁머리

‘둘렁머리’는 비양도 서쪽 해안 초소가 있는 언덕이다.

⇒ 또 큰가제앞, 이제 또 데메는개. 이제 죽은가저, 이제 영 돌아오믄 {둘렁머리}, 너부베. 낭시끄
는코지, 이제 윈. 이제 쭈쭈나간 건 오저뿌리.

28) 종남머리

‘종남머리’는 비양도 동쪽 해안가의 높은 동산을 말한다. ‘한삼드리’에서 50미터 지난
곳 바다 쪽의 지명 이름이다.

⇒ 비양도에도 이거 동쪽에 가믄 한삼드리, 흥꿈 가믄 {종남머리}, 아기업은돌, 이제 큰윈, 죽은윈,
산이뿌리동산, 또 저영 가믄 상경주.

2.4. 날씨

2.4.1. 상태

1) 바당 불다

‘바당 불다’는 바다가 세지 않고 잔잔하다는 의미다.

⇒ {바당 불아야} 고기 잡으레 가지.

2) 날 불다

‘날 불다’는 바다가 세지 않고 날이 좋다는 의미다.

⇒ 니깍을 배에 시껏당 {날 불믄} 바당에 가.

3) 누지치다

‘누지치다’는 표준어 ‘파도치다’에 대응하는 제주어. ‘누’는 파도를 말한다.

⇒ 저디 막 {누지쳐왓저} 영허곡.

4) 출락출락

‘출락출락’은 파도가 바위나 배 따위에 부딪칠 때 나는 소리 또는 모양이다.

⇒ 아 겨울에 누 {출락출락} 헤가니까 바당에 옹포 사름 죽어서.

2.5. 바람

2.5.1. 명칭

1) 셋븜

‘셋븜’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말한다. 표준어 ‘셋바람’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동쪽으로 오는 건 {셋븜}.

2) 갈븜

‘갈븜’은 뱃사람들이 서풍을 일컫는 말로, 표준어 ‘갈바람’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달리 ‘셋갈븜’이라고도 한다.

⇒ 서쪽으로는 {갈븜}, 북쪽으로는 하니.

3) 마팍븜

‘마팍븜’은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말한다. 표준어 ‘마과람’을 말한다.

4) 하니븜

‘하니븜’은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말한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서풍으로 되어 있다.

⇒ 홑셋븜은 셋븜도 아니곡 {하니븜도} 아니곡 중간치기로 오는 거.

5) 곶은하니

‘곶은하니’는 바른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말한다.

⇒ {곶은하니} 나 길은디 갈븜쪽 그 서북 허곡 동북허곡 그 중간으로 오는 븜.

6) 홑하니

‘홑하니’는 동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북쪽으로 더 치우쳐서 부는 바람을 말한다.

⇒ 동쪽 흐뵂 피행은에 하니븜, {홑하니} 쪽.

7) 눅셋벼름, 눅새벼름

‘눅셋벼름, 눅새벼름’은 동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말한다. 표준어 ‘높새바람’이다.

⇒ 눅셋벼름은 셋벼름도 아니곡 {하늬벼름도} 아니곡 중간치기로 오는 거.

8) 늦하늬

‘늦하늬’는 북풍을 일컫는 말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서남풍’으로 올라 있다.

⇒ {늦하늬는} 바로 북방이지.

9) 셋갈벼름

‘셋갈벼름’은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말한다. 갈바람과 같은 말이다.

⇒ {셋갈벼름} 눅셋벼름 셋마폭름 저 한라산으로 오는 거는 산부세벼름 동남향이주게.

10) 셋마폭름

‘셋마폭름’은 서남풍을 말한다.

⇒ 셋갈벼름 눅셋벼름 {셋마폭름} 저 한라산으로 오는 거는 산부세벼름 동남향이주게.

11) 아웁주제

‘아웁주제’는 비양도에서 마과람이 센 것을 비유해서 하는 말. ‘아웁’은 아홉을 말하고, ‘주제’는 비 또는 바람이 자주 불 때 하는 말이다.

⇒ 옛날은 마벼름 무섭게 생각해났주기. 마벼름 불문 {아웁주제라고}. 씨게 불민 마벼름만 불어가
문 고기술도 안 쟁 대개 돌아오는 거라.

12) 산부세, 산부세벼름

‘산부세, 산부세벼름’은 비양도 사람들이 한라산 조금 비껴나서 ‘검은오름’ 쪽으로 불어
오는 바람을 일컫는 말이다.

⇒ 한라산이 흐뎀 벗어정 검은오름 쪽으로 영 오는 것이 산부세엔 허주기.

13) 돛쟁이벼름, 회오리벼름

‘돛쟁이벼름, 회오리벼름’은 ‘회오리바람’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 {돛쟁이브름} 불어왓젠.
- ⇒ {회오리브름엔} 현 건 막 팽팡팡팡 막 돌멍 들어오는 거.

14) 느룻

‘느룻’은 맑고 바람 없는 밤이나 새벽 때에 대기의 몹시 추운 기운을 말한다.

- ⇒ 한라산으로 오는 {노룻} 헤여근에 그 저 모실포 바당꺼지 그 풍선 탕 강.

2.6. 조류의 흐름과 세기

2.6.1. 무수기

1) 물때

‘물때’는 아침저녁으로 밀물과 썰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때를 말한다.

- ⇒ 어부들은 해녀들은 {물때} 보고 가죠.

2) 물찌

‘물찌’는 썰물과 밀물의 차를 말한다.

- ⇒ 물도 잘 싸는 {물찌가} 잇고 덜 싸는 {물찌가} 잇어.

3) 물들다

‘물들다’는 바닷물이 육지로 밀려 들어오다는 의미다. 표준어 ‘물밀다’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 도령이그물 그 물 막 싸른 강 낫당은에 이젠 {물들영} 도령이 들어왕 들어시른 또 물싸른 강 건너와.

4) 물싸다

‘물싸다’는 밀려 들어왔던 바닷물이 물러 나가다는 의미다. 표준어 ‘물싸다’에 해당한다.

- ⇒ 구두리는 {물싸른} 강 메기도 허여.

5) 들물, 민물

‘들물, 민물’은 표준어 ‘밀물’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조수의 간만으로 해면이 상승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 ⇒ {들물게}. 쌀물. 물쌘저. 들엄저
- ⇒ 민물이 물 들어올 때. {싼물}은 물 나갈 때.

6) 싼물, 쌀물

‘싼물, 쌀물’은 달의 인력(引力)으로 바닷물이 밀려 나가서 해면이 낮아지는 현상. 또는 그 바닷물을 말한다.

- ⇒ 민물이 물 들어올 때. {싼물}은 물 나갈 때.
- ⇒ 들물게. {쌀물}. 물쌘저. 들엄저

2.6.2. 미세기

1) 혼물

‘혼물’은 음력 초열흘과 25일의 무수기를 말한다. 표준어 ‘한무날’에 해당한다.

- ⇒ 물때도 이제 초열흘이 혼물. 열흘루가 {두물}, 였이틀이 서물, 열사흘이 너물, 이제 열나흘이 다섯물, 이제 보름이 으섯물. 보름으섯 그똘으섯.

2) 두물

‘두물’은 표준어 ‘두무날’에 해당한다. 음력 초열하루와 26일의 무수기를 말한다.

- ⇒ 물때도 이제 초열흘이 혼물. 열흘루가 {두물}, 였이틀이 서물, 열사흘이 너물이라.

3) 서물, 시물

‘서물, 시물’은 표준어 ‘서무날’을 말한다. 음력 12일과 27일의 무수기다.

- ⇒ 물때도 이제 초열흘이 혼물. 열흘루가 두물, 였이틀이 {서물}, 열사흘이 너물이라.

4) 너물

‘너물’은 표준어 ‘너무날’을 말한다. 음력 13일과 28일의 무수기다.

- ⇒ 물때도 이제 초열흘이 혼물. 열흘루가 두물, 였이틀이 서물, 열사흘이 {너물}이라.

5) 다섯물

‘다섯물’은 표준어 ‘다섯무날’에 해당한다. 음력 14일과 29일의 무수기를 말한다.

⇒ 물때도 이제 초열흘이 혼물. 열흘루가 두물, 열이틀이 서물, 열사흘이 너물, 이제 열나흘이 {다섯물}, 이제 보름이 으섯물. 보름으섯 그믐으섯.

6) 으섯물

‘으섯물’은 표준어 ‘여섯무날’에 대응한다. 음력 보름과 그믐 때의 무수기를 말한다.

⇒ 물때도 이제 초열흘이 혼물. 열흘루가 두 물, 열이틀이 서물, 열사흘이 너물, 이제 열나흘이 다섯물, 이제 보름이 {으섯물}. 보름으섯 그믐으섯.

7) 일곱물

‘일곱물’은 일곱무날을 말한다. 음력 초하루와 16일의 무수기다.

⇒ 여기서 {일곱물} 물이 세텐 허주게.

8) 으덥물

‘으덥물’은 표준어 ‘여덥무날’에 해당한다. 음력 초이틀과 17일의 무수기다.

⇒ 혼물 두물 서물 너물 다섯물 으섯물 일곱물 {으덥물} 아홉물 열물.

9) 아홉물

‘아홉물’은 조수 간만의 차가 같은 음력 사흘과 열여드레를 이르는 말이다. 표준어 ‘아홉무날’을 말한다.

⇒ 혼물 두물 서물 너물 다섯물 으섯물 일곱물 으덥물 {아홉물} 열물.

10) 열물

‘열물’은 조수 간만의 차가 같은 음력 초나흘과 19일을 일컫는 말이다. ‘열무날’을 말한다.

⇒ 다섯물꺼지 작업허믄 {열물} 날꺼지 놀거든.

11) 열흔물

‘열흔물’은 비양도에서 음력 초닷새와 20일의 무수기를 가리키는 날. ‘열한무날’을 말한다.

⇒ 게메 그거는 {열훈물}.

12) 열두물

‘열두물’은 표준어 ‘열두무날’에 해당한다. 음력 초엿새와 21일의 무수기를 말한다.

⇒ 물찌는 한물부터 {열두물꺼지} 쉰 다음에 개무수 조금 그렇게 들어가죠.

13) 조금

‘조금’ 음력 초이레부터 초아흐레, 22일부터 24일까지의 무수기를 말한다.

⇒ 게곡 {조금은} 이제 초일레부터.

14) 찻조금

‘찻조금’은 음력 초이레의 조금을 말한다. 표준어 ‘찻조금’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조금이렌 허곡. {찻조금}, 한조금, 막조금 무수엔.

15) 한조금

‘한조금’은 무날을 쉰 때 음력으로 여드레와 스무사흘을 이르는 말. 밀물이 제일 적게 들어오는 때다. 아치조금과 무수사이에 있다.

⇒ 조금이렌 허곡. 찻조금, {한조금}, 막조금 무수엔.

16) 아끈조기

‘아끈조기’는 음력 초아흐레와 24일 무수기. 한조금 다음 날이다.

⇒ 게믄 초으드레가 한조금, 초아흐레가 {아끈조기}.

17) 막조금

무날을 쉰 때 음력으로 아흐레와 스무나흘을 이르는 말. 조금 가운데 마지막에 드는 무수기다.

⇒ 조금이렌 허곡. 찻조금, 한조금, {막조금} 무수엔.

18) 무수, 개무수

‘무수, 개무수’는 무수기를 열두무날까지 다 쉰 다음에 오는 3일 동안의 조금을 일컫는

말이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1」 무쉬의 잘못, 「2」 무쉬의 북한어로 올라 있다. 표준어 ‘무수’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 물찌는 한물부터 열두물까지 쉰 다음에 {개무수} 조금 그렇게 들어가죠. {무수} 뎀 개무수. 월력에 다 {무수라고} 뉘 잇고.

19) 그뭍물찌

‘그뭍물찌’는 한 달에 두 번 세는 물찌 가운데 그뭍부터 세는 무수기를 말한다.

- ⇒ {그뭍물찌} 언제부터 허냐 허믄 쓰무닷새가 혼물이라.

20) 그뭍으섯

‘그뭍으섯’은 무수기로 볼 때 그뭍이면 여섯무날이라는 뜻이다.

- ⇒ 물때도 이제 초열흘이 혼물. 열흐루가 두물, 열이틀이 서물, 열사흘이 너물, 이제 열나흘이 다섯물, 이제 보름이 으섯물. 보름으섯 {그뭍으섯}.

21) 보름으섯

‘보름으섯’은 무수기로 볼 때 음력 보름이면 여섯무날이라는 뜻이다.

- ⇒ 물때도 이제 초열흘이 혼물. 열흐루가 두물, 열이틀이 서물, 열사흘이 너물, 이제 열나흘이 다섯물, 이제 보름이 으섯물. {보름으섯} 그뭍으섯.

22) 사리

‘사리’는 음력 보름과 그믐 무렵에 밀물이 가장 높은 때를 말한다.

- ⇒ 물 하영 들 때보고 {사리엔} 허주기.

23) 족사리

‘족사리’는 조수(潮水)가 가장 낮은 때를 이르는 말이다.

- ⇒ 갯사리엔 허는 물이 걸싸게 싸분다. {족사리는} ㄱ뎡 물때라도 족은 {족사리}.

24) 갯사리

‘갯사리’는 조수(潮水)가 가장 높은 때를 이르는 말이다.

- ⇒ {갯사리엔} 허는 물이 걸싸게 싸분다. 족사리는 ㄱ뎡 물때라도 족은 족사리.

25) **백중사리**

‘백중사리’는 백중날에 조수(潮水)가 가장 높이 들어오는 때를 말한다. 곧 백중날의 한 사리를 비양도에서 일컫는 말이다.

⇒ {백중사리엔} 자망 구물도 벤자리 잡당, 무슨 거 잡단 그물도 다 걷어 올려놔주기.

환경과 관련하여 조사한 어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환경	조사 어휘
공간	ㄱ이, 등대, ㄹ른밧, 바당, 옷밧, 필랑, 궁글궁글, 개창, 걸바당, 걸밧, ㄱ밧, 곱부리썰, 궤기바당, 궤기어장, 낭시끄는코지, 너부베, 느리난여, 동바당, 동안이슬, 둘령머리, 먼바당, ㄹ른밧, 목주리, 밧목주리, 밧서비여, 베릿밧, 빨바다, 산여부리, 산이부리, 삼방난여, 상경주, 상저리여, 상제리여, 서바당, 서비여, 성창, 아기업은돌, 안목주리, 앞바당, 영장, 여, 오저뿌리, 옷앗는여, 원, 원담, 작지뿌리, 즈진여슬, 죽은가저, 죽은가재, 죽은원, 종남머리, 축항, 큰가재, 큰서비여, 큰원, 테메는개, 툷바당, 한섬드리, 해너바당, 누, 절, 절지치다, 출락출락, 풍괘, 모살통
날씨	갈브름, 곧은하늬, 느릿, 뉘새브름, 뉘하늬, 늦하늬, 마프름, 산부세, 산부세브름, 셋브름, 아웁주제, 하늬브름, 회오리브름, 바당 불다, 날 불다
시간	개무수, 것사리, 그뭍물찌, 그뭍으섯, 너물, 다섯물, 두물, 물들다, 무수, 물 때, 물싸다, 물찌, 민물, 백중사리, 보름으섯, 사리, 서물, 시물, 썩물, 아끈조기, 열두물, 으섯물, 조금, 족사리, 한조금, 혼물
기타	개남, 산개남

3. **어로 도구와 어로 방법**

3.1. **배**

3.1.1. **종류**

1) **노젓는배**

‘노젓는배’는 노를 저어 움직이게 하는 배를 말한다.

⇒ 그때도 {노젓는배} 풍선허단.

2) **목선**

‘목선’은 나무로 만든 배를 말한다. 목조선과 같은 말이다.

⇒ {목선} 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이물 여기는 고물. 옆에 파락.

3) 초석배

‘초석배’는 ‘돛단배’를 가리키는 제주어. ‘초석’은 돛에 해당하는 제주어다.

⇒ 옛날은 {초석배로} 돈 언만 쥐사게.

4) 풍선

‘풍선’은 바람으로 움직이는 배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 옛날은 {풍선} 잇고게. 나무로 만든 테 잇엇고게.

5) 걸리쟁이

‘걸리쟁이’는 돛이 없는 작은 배를 말한다. 표준어 ‘거룻배’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작은배는 죽은배엔 허연에 이제 {걸리쟁이}.

6) 뽀마

‘뽀마’는 크기가 작은 배를 가리키는 일본어. 거룻배를 가리키는 말이다.

⇒ 그거 그 큰배에 또꼬냥에 창 {뽀마엔} 허주기.

7) 뗏배, 텃배, 테

‘뗏배, 텃배, 테’는 뗏목처럼 통나무를 엮어 만든 배를 말한다. 주로 가까운 바다에서 고기를 잡거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데 쓴다. 표준어 ‘떼배’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겐디 비양돈 {뗏배} 엿어나서.

⇒ 잇어른덜 뽀푸곡 그 테니까 바람이 불어도 춤 그 뿌시테기지 아녀고 허난 {텃배} {뗏배} 허연 테메는개엔 그렇게 이름 지운 생이여.

⇒ 잇어른덜 뽀푸곡 그 {테니까} 바람이 불어도 춤 그 뿌시테기지 아녀고 허난 텃배 텃배 허연 테메는개엔 그렇게 이름 지운 생이여.

8) 도향선

‘도향선’은 섬과 물을 드나드는 배를 가리키는 용어다.

⇒ 이제 {도향선} 그 조름 이제 영 그 물 기계 돌리믄 이 앞디레 그 오는 그 조름에 고사공 탕단다.

9) 꿩배

‘꿩배’는 고기잡이를 업으로 하는 배를 말한다. ‘고깃배’ 또는 ‘어선’이라 한다.

⇒ {꿩배} 나끄는 배라 나꿈바리배.

10) 옥돔바리

‘옥돔바리’는 옥돔을 주로 잡는 배를 말한다.

11) 갈치배

‘갈치배’는 갈치를 주로 잡는 배이다.

⇒ {갈치배탈도} 고등어 많이 잡지.

12) 고대구릿배

‘고대구릿배’는 배의 일종으로, 바다 밑에까지 들어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큰 배다.

⇒ 저 구물 낚는 거 있어. 땅 아래 가근에 막 주머니거찌 허여근에 돌 돌아매곡 까꾸리 허여근에 펄을 막 굽어가문 오만 잡케기가 다 들어가. 그 망탱이 소곱에. 경허영 낚는 것이라 {고대구릿배} 질구물 낚어부니까.

13) 고등어배

‘고등어배’는 고등어를 주로 잡는 배를 말한다.

⇒ {고등어배는} 대구리 권작덜 강 고등어 일어시민 권작선에서 불 주민 고기 주켄 해도 마음 좋은 선장은 하영 쥐도 선장 믿음 나쁜 운반선에 메껴불든 김 채우젠 거 고등어 실르는 베여선 주켄은 안 허주게.

14) 그물배

‘그물배’는 그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고기잡이를 하는 배를 말한다. 달리 ‘어망선’이라 한다.

⇒ {그물배는} 저거 그물허는 그물 자릿배.

15) 기계선, 모다배

‘기계선, 모다배’는 기계 장치에 의하여 움직이는 배를 말한다. 여기에서 ‘모다’는 모터의 일본어식 발음이다.

- ⇒ 옛날에 전부 노젓는배. 비양도는 {기계선이} 벨로 없었어요.
- ⇒ 우리 셋아덜도 그 {모다배} 거세기 허연 허단 모두 퀘기 허난 성 물려주곡.

16) 께작선

‘께작선’은 고깃배의 한 종류다.

- ⇒ {께작선덜} 이 고등어 잡아오는 것도 다 비양도 바당에 거.

17) 나꿈바리배, 낙싯배

‘나꿈바리배’는 ‘낙시로 고기잡이 하는 데 쓰는 배’를 말한다. 달리 낙싯배라고 말한다.

- ⇒ 퀘깃배 나끄는 배ㄴ라 나꿈바리배.
- ⇒ 갈치나끄는 배 오라가믄 아이고 저 갈치 나끄는 {낙싯배} 왁저. 덤장배 왁저.

18) 대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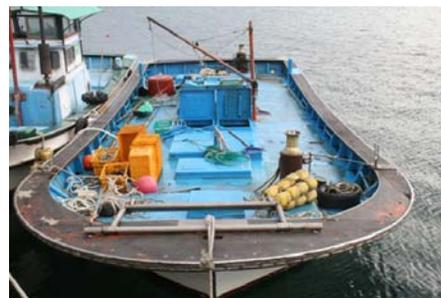
‘대구리’는 수심 깊은 데 가서 옥돔과 조기 따위를 잡는 배를 일컫는 말이다.

- ⇒ {대구린} 이 수심 깊은 디 이제 그 옥돔덜 하고 하근 거, 이제 조기 ㄴ튼 거 이제 그런 거 잡는 배가 {대구리}.

19) 덤장배

‘덤장배’는 덤장을 위하여 사용하는 어선을 말한다.

- ⇒ 갈치나끄는 배 오라가믄 아이고 저 갈치 나끄는 낙싯배 왁저. {덤장배} 왁저.



[사진 7] 덤장배

20) 자릿배

‘자릿배’는 주로 자리돔을 잡는 어선을 말한다.

- ⇒ 그물배는 저거 그물허는 그물 {자릿배}.

21) 주낯배

‘주낯배’는 주낙을 이용하여 고기를 잡는 배를 말한다. ‘주낯’은 주낙에 해당하는 제주어.

- ⇒ 주낯허는 건 {주낯배}.

3.1.2. 부분명칭

1) 이물

‘이물’은 배의 머리를 말한다.

- ⇒ 고불엔 고사공. 한장에 한사공 {이물에} 이사공.
- ⇒ {이물}은 앞의 7라 이물코지.

2) 고불, 고물

‘고불, 고물’은 배의 뒷부분을 말한다. 표준어 ‘고물’에 해당한다.

- ⇒ 배가 있으면 네 칸으로 돼 있지. 칸은 이물에 한 칸, 중간에 한 칸, {고물에} 한칸.
- ⇒ {꼬불엔} 고사공.

3) 이물장

‘이물장’은 풍선의 이물에 있는 장을 가리킨다.

- ⇒ {이물장} 고물장 한장 가운데 윗네. 가이는 노 젓는 거.

4) 한장

‘한장’은 풍선의 가운데에 있는 장을 가리킨다.

- ⇒ 이물장 고물장 {한장} 가운데 윗네. 가이는 노 젓는 거.

5) 고물장

‘고물장’은 풍선의 고물에 있는 장을 말한다.

- ⇒ 이물장 {고물장} 한장 가운데 윗네. 가이는 노 젓는 거.

6) 뱃장

‘뱃장’은 목선(木船)의 안쪽 바닥을 말한다.

- ⇒ {뱃장에} 그 배 아래 물봉이 있어. 물 영 막는 이 요만큼 공기 있어.

7) 선장방

‘선장방’은 배의 선장이 사용하는 공간이다.

⇒ 옛날은 이물장 안에서 고사 모셨는데 요즘은 {선장방에서} 고사 지나지.

8) 너장

‘너장’은 배에 있는 기관실의 윗덧개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다.

⇒ 배 이렇게 칸을 덮는 거를 {너장}.

9) 파락

‘파락’은 거루나 풍선 따위의 양옆 위쪽에 바깥으로 둘러있는 나무를 말한다.

⇒ 배 넘어지지 못하게 허는 거 파락.

10) 이물코지

‘이물코지’는 배의 앞머리 부분의 뽀족한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다.

⇒ 이물 앞의 마라 {이물코지}

11) 간판

‘간판’은 배 위에 나무나 철판으로 깔아 놓은 넓고 평평한 바닥을 말한다.

⇒ {간판엔} 현 거는 앞의 이물에 장 시난 그디 마라 끈고.

12) 이물명예

‘이물명예’는 거룻배나 돛단배 따위에서 이물 쪽의 뱃전 밖으로 내린 창막이 각목의 끝 부분을 말한다. 달리 ‘앞명예’라고 한다.

⇒ {이물명예엔} 현 디 그 이물코지에 이디 잇주게. 앞명예 뒷명예 현디 앞명예에 그거 매는 디가 있어.

13) 앞명예

‘앞명예’는 거룻배나 돛단배 따위에서 이물 쪽의 뱃전 밖으로 내린 창막이 각목의 끝 부분을 말한다. 달리 ‘이물명예’라고 한다.

⇒ 이물명예엔 현 디 그 이물코지에 이디 잇주게. {앞명예} 뒷명예 현디 앞명예에 그거 매는 디가 있어.

14) 뒷명에

‘뒷명에’는 거룻배나 돛단배 따위에서 고물 쪽의 뱃전 밖으로 내린 창막이 각목의 끝부분을 말한다.

⇒ 이물명에엔 현 디 그 이물코지에 이디 잇주게. 앞명에 {뒷명에} 현디 앞명에에 그거 매는 디가 있어.

15) 한장도막

‘한장도막’은 배의 한가운데 부분의 명에를 가리킨다. 달리 ‘한장명에’라고 한다.

⇒ 이 {한장도막을} 등기지 못허고 허명 살단.

16) 치

‘치’는 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장치를 말한다. 표준어 ‘키’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그 바당에 가도 칫사공, 이제 {치} 심은 사공.
⇒ 뒷명에엔 현 디 고망 툐라근에 {치} 허는 명에가 싯주기.

17) 칫고망

‘칫고망’은 ‘키를 끼워 내리는 구멍’을 말한다. ‘고망’은 구멍의 제주어다.

⇒ 뒷명에엔 현디 고망 툐라근에 치 허는 명에가 싯주기. {칫고망도} 있어.

18) 물봉

‘물봉’은 배 바닥에 물을 담을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구멍을 말한다.

⇒ 뱃장에 그 배 아래 {물봉이} 있어. 물 영 막는 요만큼헌 궁기 있어.

19) 사울대

‘사울대’는 배질을 할 때 쓰는 긴 막대. 배를 댈 때나 띄울 때, 또는 물이 얇은 곳에서 배를 밀어 나갈 때 쓴다. 표준어 ‘상앗대’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네 젓엉 못 들어가믄 {사울대로} 받으멍 들어가.

20) 네

‘네’는 ‘노’에 대응하는 제주어. 물을 헤쳐 배를 나아가게 하는 기구다.

⇒ 그 하르방 이제 돛 지우고 이제 노로 이제 {네를} 영 머물엿 짓엿 머물엿 앓이븐 그 하르방 고기술 쥐.

21) 율네

‘율네’는 풍선 따위의 노 짓는 배에서 배 양쪽에서 짓는 노. 달리 ‘젓거리’라고 말한다.

- ⇒ 네는 세 개. 율의 넌 {율네}, 옛날엔 젓거리엔도 허곡.
- ⇒ 이물장 고물장 한장 가운데 {율네}. 가이는 노 짓는 거.

22) 젓거리

‘젓거리’는 풍선 따위의 노 짓는 배에서 배 양쪽에서 짓는 노다. ‘율네’라고도 부른다.

- ⇒ 네는 세 개. 율의 넌 율네, 옛날엔 {젓거리엔도} 허곡.

23) 도문네, 도문노

‘도문네, 도문노’는 배 뒤쪽 가장자리에서 짓는 노. 다른 지역의 ‘하노’를 가리키는 말이다.

- ⇒ 제일 두에 짓는 건 도문네.

24) 넷입

‘넷입’은 노를 저을 때 물속에 잠기는 노의 넓적한 부분을 말한다. 표준어 ‘노깃’을 말한다.

- ⇒ 넷입엔 허곡.

25) 몽고지

‘몽고지’는 배를 짓는 노의 손잡이를 말한다. 표준어 ‘노손’에 해당한다.

- ⇒ {몽고지에} 영 벤드랫줄 걸엿 이레 걸엿 짓고 이거 네 꿏다리.

26) 닻

‘닻’은 배를 한곳에 멈추어 있게 하기 위하여 줄에 매어 물 밑바닥으로 가라앉히는, 갈고리가 달린 기구. 갈고리가 흙바닥에 박히어 배가 움직이지 못하



[사진 8] 닻

게 된다. ‘닷’을 말한다.

⇒ 그 하르방이 생성술 쥬 하나 물민 이제 그디 {닷을} 농곡 생성을 잡곡

27) 닷가지

‘닷가지’는 가지처럼 번은, 닷에 달린 갈고리를 말한다. 보통 네 갈고리이며 두 갈고리도 있다. 표준어 ‘닷가지’를 말한다.

⇒ 건장이렌 허영 {닷가지} 세 가달 돋은 거 물에 들이청 꺾어내는 거 싯곡.

28) 이물닷

‘이물닷’은 이물에 설치하는 닷을 말한다.

⇒ 앞의 닷은 {이물닷} 그레 농라 허곡 두에 닷은 고물닷 메라 영.

29) 고물닷

‘고물닷’은 고물 쪽에 설치하는 닷이다.

앞의 닷은 이물닷 그레 농라 허곡 두에 닷은 {고물닷} 메라 영.

30) 닷줄

‘닷줄’은 표준어 ‘닷줄’에 해당한다. 닷을 매다는 줄. 밧줄이나 쇠줄로 되어 있다.

⇒ 나룩쪽으로 거 {닷줄을} 허난 그 배 다니젠 허민 줄 백 말이든 백 말 새끼 꼬양 내놔야 허여.

31) 곱늘

‘곱늘’은 닷줄을 만드는 줄을 꼬을 때 사용하는 도구를 말한다.

⇒ 새끼 꼬양 꿰기 허든 닷 뽑는 {곱늘이} 잇주기. {곱늘엔} 현 거.

32) 뒤차대

‘뒤차대’는 두 가닥의 줄을 하나로 꼬을 때 뒤에서 돌리는 기구다.

⇒ 호렝이 너미 자게 비든 줄 끈차지난 줄에 맞추왕 거세기 {뒤차대로} 영 비여주곡 앞의 두에서 거 곱늘로 이제 닷줄 뽑아가든 ㄴ찌 둘러주는 거세기 허여넛주게.

33) 도레기

‘도레기’는 바퀴에 홈을 파고 줄을 걸어서 돌려 물건을 움직이는 장치를 말한다.

- ⇒ 닳은 이 돛대에 돌아매영 이거 {도레기} 메왕 이 이제 초석 아래 그 활대에 줄을 이젠 무껍은 에 영 잡아댕기든 이젠 돛대가 올라가고 줄을 늦추면 알러레 돛대가 꼬구라정 알

34) 벤드레, 벤드렛줄

‘베드레, 벤드렛줄’은 낚싯거루의 노를 저을 수 있도록 배 멩에와 노손을 묶는 밧줄이다.

- ⇒ 몽고지에 영 {벤드렛줄} 걸영 이레 걸영 젓고 이거 네 끷다리.

35) 돛, 풍, 초석

‘돛, 풍, 초석’은 배 바닥에 세운 기둥에 매어 펴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도록 만든 넓은 천. 바람을 받아 배를 가게 한다. 표준어 ‘돛’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 돛대가 두 개민 {돛도} 두 개.
- ⇒ {풍은} 초석. 풍선에 풍선. 돛배 초석이라고 하고.
- ⇒ 풍선엔 {초석} 두 개 드는 배도 싯곡 큰 풍선에 세 개 들곡.

36) 이물초석

‘이물초석’은 돛단배의 이물에 다는 돛이다. 달리 ‘야오초석’이라고 한다. 두 개의 돛을 다는 배의 작은 돛을 말한다.

- ⇒ 풍선엔 초석 두 개 드는 배도 싯곡 큰 풍선에 세 개 들곡. {이물초석} 이제 고물초석 한간초석 그 가운데 거.

37) 야오초석

‘야오초석’은 배의 이물 쪽에 있는 돛을 말한다. 달리 ‘이물초석’이라고 한다.

- ⇒ 거기도 {야오초석}, 큰초석 또 초석에 바람 땡기는 줄 있어. 버릿줄이야.

38) 큰초석

‘큰초석’은 돛 가운데 가장 큰 돛을 말한다.

- ⇒ 거기도 야오초석, {큰초석} 또 초석에 바람 땡기는 줄 있어. 버릿줄이야.

39) 한간초석

‘한간초석’은 돛 세 개 다는 배의 가운데 부분인 한간에 다는 돛을 말한다.

⇒ 풍선엔 초석 두 개 드는 배도 싯곡 큰 풍선에 세 개 들곡. 이물초석 이제 고물초석 {한간초석} 그 가운데 거.

40) 고물초석

‘고물초석’은 배의 고물에 다는 돛을 말한다.

⇒ 풍선엔 초석 두 개 드는 배도 싯곡 큰 풍선에 세 개 들곡. 이물초석 이제 {고물초석} 한간초석 그 가운데 거.

41) 초석줄

‘초석줄’은 돛을 매달 때 사용하는 줄을 말한다.

⇒ 닻은 이 돛대에 돌아매영 이거 도레기 메왕 이 이제 초석 아래 그 활대에 줄을 이젠 무경은에 영 잡아텅기른 이젠 돛대가 올라가고 줄을 늦추면 알러레 돛대가 꼬구라경 알러레 영. 그것ㄴ 라는 저 {초석줄}.

42) 돛대

‘돛대’는 돛을 달기 위하여 배 바닥에 세운 기둥을 말한다. ‘돛대’의 옛말이 제주어에 남아 있는 경우다.

⇒ {돛대가} 두 개민 돛도 두 개.

43) 활대

‘활대’는 돛 위에 가로 댄 나무를 가리킨다.

⇒ 그 {활대에} 줄을 이젠 무경은에 영 잡아텅기른 이젠 돛대가 올라가고.

44) 야웃대

‘야웃대’는 배의 이물 쪽에 있는 돛대를 말한다.

⇒ {야웃대는} 앞에 돛대.

45) 버릿줄

‘버릿줄’은 돛에 매달려 있는 줄. 바람에 따라 돛의 폭을 조절하는 줄이다.

⇒ 초석에 바람 뺏기는 줄 있어. {버릿줄이야}.

46) 노라

‘노라’는 그물을 당길 때 사용하는 배의 돌림판을 말한다. ‘노라’는 영어 ‘롤러’의 일본어식 발음이다. ‘양만기’라고도 한다.



[사진 9] 노라

⇒그물 뺏기는 기계 이름은 {노라}.

3.1.3. 기타 도구

1) 지피에스, 노랑

‘지피에스, 노랑’은 고기잡이 하는 어선에서 사용하는 현재 위치를 표시해 주는 기계를 말한다. GPS는 Global Position System의 약어다. 뱃사람들은 달리 ‘노랑’이라고도 부른다.

⇒ 연장이라고 옥돔 잡으러 갈 때는 도구들은 배에 다 있어요. 매베에 잇는 어탐허고 노랑, {지피에스} 하나 허고.

⇒ 기계로 찍영 고기 나는 디 아는 기계 {노랑이라고} 있어.

2) 어탐

‘어탐’은 어군탐지기의 준말. 어선 바닥에서 초음파의 반사를 내어 물속의 어군의 존재나 수량·종류 등을 분석하는 장치를 말한다.

⇒ 매베에 다 잇는 거. {어탐허고} 노랑 지피에스 하나.

3) 콤파스

‘콤파스’는 ‘나침반’을 가리키는 말.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컴퍼스’의 잘못으로 돼있다.

⇒ 이렇게 안개 쩌도 옛날은 {콤파스도} 옛엇저.

4) 콘테나

‘콘테나’는 물건을 넣기 위해 네모나게 만들어진 플라스틱 상자를 말한다. 어부들이 배에서 잡은 고기를 담을 때 사용한다.

⇒ 꿩기 잡으민 옛날은 구덕에 뇌신디 요센 통에 담야. {콘테나에} 담앙 와.

5) 공쟁잇대

‘공쟁잇대’는 긴 막대 한쪽 끝에 고리를 달아 물건을 끌어 올릴 때 사용하는 도구다. 일본어로 ‘하까’라고 부른다.

⇒ 공쟁이 걸리는 공쟁이난 {공쟁잇대}.

6) 하까

‘하까’는 그물 따위를 걸어 올릴 때 사용하는 도구. ‘공쟁잇대’를 가리키는 말이다.

⇒ 그물 걸리는 것마라 {하까엔}. 걸리는 거. 뜨는 거는 다마. 족바리 그튼 거. 다마질 허는 거엔 곶아.

7) 까꾸리

‘까꾸리’는 끝이 뾰족하고 꼬부라진 물건. 흔히 쇠로 만들어 땅을 파거나 끌어당길 때 쓴다. 표준어 ‘갈퀴’ 정도에 해당하는 말이다.

⇒ 저 구물 끓는 거 있어. 땅 아래 가근에 막 주머니거찌 허여근에 돌 돌아매꼭 {까꾸리} 허여근에 펴을 막 굵어가든 오만 잡레기가 다 들어가. 그 망텅이 소곱에. 경허영 끓는 것마라 고대구 텃배. 질구물 끓어부니까.

8) 다마

‘다마’는 그물에 걸려온 고기 따위를 뜨는 도구를 가리키는 일본어다. 표준어 ‘뜯채’에 해당한다. 달리 ‘족바리’라고 한다.

⇒ 그물 걸리는 것마라 하까엔. 뜨는 거는 {다마}. 족바리 그튼 거. 다마질 허는 거엔 곶아.

3.1.4. 행위

1) 배 짓다

‘배 짓다’는 배를 만든다는 의미다.

⇒ {배 짓는} 거 봤주게.

2) 바당 가다, 바당에 가다

‘바당 가다, 바당에 가다’는 배를 타고 바다에 고기잡이 가다는 말이다. 달리 해녀들이 해산물을 따러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물에 들다, 물에 감저’라고 말한다.



[사진 10] 공쟁잇대

- ⇒ {바당 가는} 건 배로 고기 잡이 가는 거, 해녀 가는 거 물에 들레 가는 거.
- ⇒ 물에 감저 허곡 바당에 고기 {바당에 감저} 허고 경허는 건가 허영 살앗주게.

3) 배에 다니다

‘배에 다니다’는 고기잡이를 위해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다는 의미다.

- ⇒ 비양도 촌에덜은 물에도 다니고 {배에도 다니고} 살기가 힘들어. 이젠 농사근튼 거 아녀.

4) 배질

‘배질’은 어부들이 바다에서 배를 타고 고기잡이 하는 일을 말한다.

- ⇒ 마프름 탱탱 불른 저 모실포 앞바다에서 {배질} 허른 저 어디 가느냐 허른 신도 알이 도착 웨어.

5) 네 젓다

‘네 젓다’는 노를 젓다는 의미다.

- ⇒ 비양도 요디서 {네 젓당} 보른 판포 알 가부러.
- ⇒ 한림꺼지 {네 젓영가기} 실프민 풀곡.

6) 닻 주다

‘닻 주다’는 배를 한곳에 멈추어 있게 하기 위하여 닻을 물 속으로 가리얏게 하다는 의미다.

- ⇒ 그 하르방 춤 생선 하나 물른 이디 이제 {닻 주렌} 허영 {닻 쥘} 나갓주. 경 아녀민 우리 생선 하나도 못 나끈다.

7) 돛 들다

‘돛 들다’는 돛을 달다는 의미다.

- ⇒ 이제 열 시 웨른 배를 출발허여. {돛 들앙} 노릇에.

8) 돛 지우다

‘돛 지우다’는 펼쳐있는 돛을 내리다는 의미다.

- ⇒ 그 하르방 이제 {돛 지우고} 이제 노로 이제 네를 영 머물영 젓영 머물영 앓이른 그 하르방 고기술 쥐.

9) 돛대 세우다

‘돛대 세우다’는 돛을 달기 위하여 눕혀있는 기둥을 세우다는 의미다.

⇒ 돛 두 개 있으면 세우는 거는 돛대. {돛대 세운다고} 하고.

10) 등기다

‘등기다’는 물건 따위를 힘을 주어 자기 쪽이나 일정한 방향으로 가까이 오게 하다는 뜻이다. 표준어 ‘당기다’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이 한장도막을 {등기지} 못하고 허명 살단.

11) 불케다

‘불케다’는 (전등 따위에) 불을 밝히다는 의미다. 배에 집어등을 밝힐 때 사용하는 말이다.

⇒ 그건 투망 허민 걸러오곡 이젠 갈치낙수에 이 {불켄} 배에 거 촘대에도 올라왓시네게, 고등어.

12) 개남

‘개남’은 목표나 기준에 맞고 안 맞음을 헤아려 봄. 또는 헤아려 보는 목표나 기준을 말한다. 비양도에서는 산을 보고 가늠했기 때문에 ‘산개남’이라고 한다. ‘개남’은 가늠의 의미다.

⇒ 옛날은 산을 보고 어느 바당에 고기 있다 현 걸 {개남을} 보고 작업을 했어요. 지금은 전자 제 품으로 사용해서 하지만요.

13) 산개남

‘산개남’은 바다에 고기잡이 갔을 때 산을 기준으로 위치 따위가 맞고 안 맞음을 헤아 리는 일을 말한다.

⇒ 옛날은 고기잡으레 다닐 때 무신 {산개남} 현텐 허여. 이젠 기계로 {산개남을} 잘 안 허여.

14) 돌아매다

‘돌아매다’는 줄이나 끈, 실 따위로 잡아매어서 달려 있게 하다는 의미다. 표준어 ‘매달 다’의 의미다.

⇒ 돛은 이 돛대에 {돌아매영} 이거 도레기 메왕 이 이제 초석 아래 그 활대에 줄을 이젠 무경은 에 영 잡아텅기븐 이젠 돛대가 올라가고 줄을 늦추면 알려레 돛대가 꼬구라정 알려레 영. 그것

ㄱ라는 저 {초석줄}.

15) 실르다, 시끄다

‘실르다, 시끄다’는 표준어 ‘실다’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 몸 {실러긴에} 이디 못 오믄 그디 들어가근에 옛날 몸 퍼난 생이여.
- ⇒ 니곁을 배에 {시껏당} 날 불믄 바당에 가.

3.2. 그물류

3.2.1 종류

1) ㄱ상구물

‘ㄱ상구물’은 바닷가 가까이에 쳐 놓는 그물을 말한다.

- ⇒ 도랭이는 {ㄱ상그물} 낚게 물싼 땀 강 낚 놔두민 들어가민 그 도랭이 왕 막 그물에 얽어져.

2) 삼폭구물

‘삼폭구물’은 그물이 세 겹으로 짜여진 그물을 말한다.

- ⇒ 벤자리 옛날에 삼바에라고 삼폭, {삼폭그물이주게}.

3) 것구물

‘것구물’은 삼중 망의 곁에 씌운 그물. 실의 굵기는 속그물의 1.5~2배, 코의 크기는 3~7배이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곁그물’이 북한어로 올라 있다.

- ⇒ 구물은 코가 좁질아도 {것구물이} 이만씩 커. 거 우알로 씌왕. 족은구물은 가운데 담고 안파곶 달로 그 콧에 뽕돌 무꺼근에 삼폭이주기.

4) 웨구물

‘웨구물’은 한 장으로만 이루어진 그물을 말한다.

- ⇒ 삼폭구물 안 써. 이젠 다 {웨구물}.

5) 족은구물

‘족은구물’은 세 겹으로 되어 있는 그물의 안 쪽의 작은 그물을 말한다.

⇒ 구물은 코가 좁길아도 첫구물이 이만씩 커. 거 우알로 씌왕. {족은구물은} 가운디 담고 안파것 딜로 그 콧에 뽕돌 무꺼근에 삼폭이주기.

6) 어망

‘어망’은 물고기를 잡는 데 쓰는 그물을 가리키는 말이다.

⇒ {어망인디} 고등어 투망구물이렌 요만이 현 테왁덜 튀우명도 잡고.

7) 자망구물

‘자망구물’은 바다에서 물고기 떼가 지나다니는 길목에 쳐 놓아 고기를 잡는 데 쓰는 그물을 말한다. 정치망의 ‘길그물’에 대응하는 ‘질그물’의 다른 말이다.

⇒ 백중사리엔 {자망 구물도} 벤자리 잡당 무슨 거 잡단 그물도 다 건어 올려낫주기.

8) 정치망

‘정치망’은 한곳에 쳐 놓고 고기 떼가 지나가다가 걸리도록 한 그물을 말한다. 달리 ‘덤장’ 또는 ‘자리그물’이라고 한다.

⇒ {정치망은} 자리도 들고, 돛도 들고 삼치도 들고.

9) 통발

‘통발’은 가는 뗏조각이나 싸리, 그물 따위로 통같이 만든 고기잡이 기구를 말한다.

⇒ 이 비양도에 이 {통발이} 헤긴에 거 불쌍헌 어민덜 저 늙은이덜 먹지 못허게 허는 거 난 거 상당히 잘못이렌 생각헌다.

10) 투망구물

‘투망구물’은 그물의 하나. 원추형 모양으로 윗부분에 몇 발의 벼리가 있고 아래에는 추가 달려 있어, 물에 던지면 좌 퍼지면서 가라앉아 바닥에 닿은 후 그것을 당겨 올려 고기를 잡는다.

⇒ 고등어 잡는 디는 {투망구물엔도} 쇧곡.

11) 후리구물

‘후리구물’은 강이나 바다에 넓게 둘러치고 여러 사람이 두 끝을 끌어당겨 물고기를 잡는 큰 그물을 말한다.

⇒ 이딘 모래가 엇이니까 {후리구물은} 못허주.

12) 사들

‘사들’은 손잡이가 길고 모양이 국자처럼 생긴,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말한다.

⇒ 여긴 저 자리 {사들로} 자리 떠난.

13) 족바지, 족바리

‘족바지, 족바리’는 그물에 걸려온 고기 따위를 뜨는 도구다.

⇒ 멜 거리는 {족바지엔} 허어나서.

⇒ 그물 걸리는 것ᄇ라 하까엔. 걸리는 거. 뜨는 거는 다마. {족바리} ᄇ튼 거. 다마질 허는 거엔 곶아.



[사진 11] 족바지

14) 갓돔구물

‘갓돔구물’은 돌돔을 잡을 때 사용하는 그물을 말한다. ‘갓돔’은 ‘돌돔’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어제 보난에 벤자리구물도 간 낚 왔고 {갓돔구물도} 낚 왔고.

⇒ 이디서 다금바리구물이어, {갓돔구물이어} 이제 그치룩허영 살앗저게.

15) 콩치구물

‘콩치구물’은 콩치를 잡을 때 사용하는 그물을 말한다.

⇒ 콩치도 옛날엔 허연게 이젠 아니 험신게 {콩치그물덜} 안 낚. 멜쿠물거찌 놓른 똑 멜 걸려오듯 걸러와낚주게.

16) 다금바리구물

‘다금바리구물’은 다금바리를 잡을 때 사용하는 그물이다.

⇒ 이디서 {다금바리구물이어}, 갓돔구물이어 이제 그치룩허영 살앗저게.

17) 도랭이구물

‘도랭이구물’은 팽이상어를 잡을 때 사용하는 그물이다. 나일론 그물이 나오지 않을 때 짚으로 만든 ‘짚구물’을 사용했다고 한다.

⇒ {도랭이구물} 그 물 막 싸른 강 낚당은에 이젠 물들영 도랭이 들어왕 들어시른 또 물싸른 강 곶어와.

18) 돛그물

‘돛그물’은 돛을 잡기 위하여 사용하는 그물이다.

- ⇒ 생선 낚시꾼은 또 이 철에 {돛그물} 해근에 저 차귀도에 강 퀴기 허른 돛 잡아도 그때도 까격 엇어라.

19) 멜구물, 멜쿠물

‘멜구물, 멜쿠물’은 멸치를 잡아올릴 때 사용하는 그물을 말한다.

- ⇒ 이 {멜구물이어} 밧이어 해근에 혼 칠십세 설까진 해진 거 같으다게.
- ⇒ 콩치도 옛날엔 허연게 이젠 아니 험신게 콩치그물덜 안 낚. {멜쿠물거찌} 놓른 똑 멜 걸려오듯 걸려와낫 주게.



[사진 12] 멜구물

20) 벤자리구물

‘벤자리구물’은 벤자리를 잡을 때 사용하는 그물을 말한다.

- ⇒ {벤자리구물은}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이고 덩장 구물은 한 군데 설치허는 거.

21) 새우그물

‘새우그물’은 새우를 잡을 때 사용하는 그물을 말한다.

- ⇒ {새우그물도} 낚 새우도 막 잡아나고.

22) 생성구물, 생선구물

‘생성구물, 생선구물’은 옥돔을 잡을 때 사용하는 그물이다. 제주에서는 ‘생성, 생선’은 옥돔을 가리킬 때만 사용하는 말이다.

- ⇒ 그물도 벤자리그물도 잇고 돛그물도 잇고 뭐 {생선구물도} 잇고 여라 가지지.

3.2.2. 부분 명칭

1) 그물코

‘그물코’는 그물에 뚫려 있는 구멍을 말한다.

- ⇒ 퀴기 {그물코에} 걸어져나민 하루 지나민 그릇이 나요.

2) 버리

‘버리’는 그물의 위쪽 코를 꺾어 놓은 줄을 말한다.

3) 아바줄

‘아바죽’은 그물의 버릿줄에 달아서 그물을 물 속에서 뜨게 하는 물건을 단 줄을 말한다. ‘아바’는 그물의 버릿줄에 달아서 그물을 물 속에서 뜨게 하는 것을 뜻하는 일본어다.



[사진 13] 아바줄

⇒ 물 위의 뜨는 거는 {아바줄이엔} 허곡. 또 몰아래 골라 앓는 건 유아줄이엔 허고. 유아줄엔 뽕돌 돌아매여.

4) 유아줄

‘유아줄’은 그물의 버릿줄에 달아서 그물을 물 속에 가라앉게 하는 쪽의 줄을 말한다.

⇒ 물 위의 뜨는 거는 아바줄이엔 허곡. 또 몰아래 골라앓는 건 {유아줄이엔} 허고.

5) 버국

‘버국’은 물 위에 띄워 어떤 표적으로 삼는 물건을 말한다. ‘덤장’이나 ‘양식장’ 등의 위치를 표시하는 데 많이 사용한다.

⇒ 우의레 뜨는 건 {버국계}.

6) 뽕돌

‘뽕돌’은 그물이나 낚시 따위에 매다는 납덩이나 돌덩이 따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 그거 어음대. 그디 무신거 낙시 돌아매고 {뽕돌}. 거 ㄱ라 마삭. 이제 뽕돌 영허영 돌아매는 거. 갈치 나끄는 마삭.

3.2.3. 행위

1) 구물 꾸미다

‘구물 꾸미다’는 구물을 만들다는 의미로 쓰인 말이다.

⇒ 옛날은 그 도랭이구물엔 허영이, 도랭이 알아지느냐? 짝노 ㄱ왕 줄을 쏘앗덴 헤라. 줄을 꼬왕 손으로 이제 하르방네 이제 베 꼬듯이 세 가달로 꼬왕 {구물 꾸명} 썩낫주기.

2) 그물 출리다

‘그물 출리다’는 고기잡이를 나갈 때 사용하는 그물을 잘 챙기다는 의미다.

⇒ 팔월나민 옥돔 {그물도 출리고}. 또 물에 갓돔그물도 하고 다금바리그물도 하고.

3) 구물 놓다

‘구물 놓다’는 고기 잡을 장소에 가서 그물을 치다는 의미다.

{구물 놓는} 건. 즈낙이 간 낫당 아침이 강 건너오는 거.

4) 거리다, 게리다

‘거리다, 게리다’는 자잘한 물고기 따위를 그물로 잡아 올리다는 의미다.

⇒ 이젠 돔 잡젠 허른 오징어, 덩장에서 곧 {거려온} 거 썰어근에 요만씩 썰어도 경 돔 물더라.

⇒ 여긴 저 자린 떠난. 사들로 허연. 영 어음 만들양 즈룩 들리꼭 허영 사들 만들양 베에서 그거 영 돌팍다 강 거 드밀양 허른 자리가 그레 영 들어가주게. 게민 {게려와.}

5) 뜨다

‘뜨다’는 자질구레한 물고기 따위를 사들 따위로 건져 올리다는 의미다.

⇒ 여기선 금능 옹포 노 젓는 배 자리를 많이 {뚫주.}

6) 걸다

‘걸다’는 늘어진 것을 말아 올리거나 가려진 것을 치우다는 의미다. 바다에 그물을 쳤다가 물고기가 걸려 있으면 걸어온다고 할 때 쓰는 어휘다.

⇒ 그물 허는 고기는 저녁에 가서 그물 낚다가 아침에 가서 {걸어오는} 거죠.

7) 땡기다

‘땡기다’는 물건 따위를 힘을 주어 자기 쪽이나 일정한 방향으로 가까이 오게 하다는 의미다. 표준어 ‘당기다’에 해당한다. 달리 ‘등기다’라고도 한다.

⇒ 옛날은 주낙도 손으로 {땡기고} 이제는 전부 기계로 하니까 쉽지만 옛날은 손으로만.



[사진 14] 땡기다

8) 후리다

‘후리다’는 그물을 둘러치고 기계나 여러 사람의 힘으로 버리의 두끝을 끌어당겨 물고기를 잡는다는 의미다. 멸치를 잡을 때 사용하는 어획 방법이다.

⇒ 뿔은 {후리는} 거.

9) 드밀다

‘드밀다’는 안쪽으로 밀어 넣거나 들여보내다는 의미다. 표준어 ‘들이밀다’에 해당한다.

⇒ 여긴 저 자린 떠난. 사들로 허연. 영 {어음} 만들앙 즈룩 들리곡 허영 사들 만들앙 베에서 그 거 영 돌팍디 강 거 드밀앙 허른 자리가 그레 영 들어가주게.

10) 꺾다

‘꺾다’는 자리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힘을 가하라는 의미다. 표준어 ‘끌다’에 해당한다.

⇒ 저 그물 {꺾는} 거 잇어.

11) 데끼다

‘데끼다’는 표준어 ‘던지다’에 해당하는 제주어다.

⇒ 바당드레 풀영 데꺽당 또 감으멍 걷곡게 춤대 나끄젠 허른 영영 감듯게.

12) 올리다

‘올리다’는 낮은 곳에 있는 것을 높은 곳으로 옮기다는 의미다. 바다에 쳐 놓았던 그물을 배 위로 올릴 때 사용하는 어휘다.

⇒ 영영 꺾땡이 심영 {올리곡}.

13) 트다

‘트다’는 물속이나 지면 따위에서 가라앉거나 내려앉지 않고 물 위나 공중에 있거나 위쪽으로 솟아오르다는 의미다. 표준어 ‘뜨다’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테왁이 {틀} 거 아니.

14) 자시다, 잣다

‘자시다, 잣다’는 그물 따위가 헐어서 떨어진 데를 기우다는 의미다.

- ⇒ 구물 {자시는} 건 난 안 허여.
- ⇒ 맨사는 한 이년 썩지 마는 이 나이롱은 십년 이상 쓰는 것도 있어. 바늘대 만들어가지고 {갓으 면서} 쓰는 거니까.

15) 보망

‘보망’은 터진 그물을 기운다는 의미의 한자어다.

- ⇒ 구물 다 터진 것덜 손보고. 보망엔도 허곡 바농대로 자시는 거.

16) 구물 잣다

‘구물 잣다’는 현 그물을 기운다는 의미다.

- ⇒ {구물 잣곡계.}

17) 구물 제기다

‘구물 제기다’는 그물을 쌓아 두다는 의미다. ‘제기다’는 ‘쌓다’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 구물 제기 거게 {구물 놓엇젠계.}

18) 데미다

‘데미다’는 물건을 차곡차곡 포개어 쌓아 두다는 의미다.

- ⇒ 맨사 그물은 햇빛에 말리지 아녀민 {데미봐도} 힘들엇어요. 물차니까.

19) 다마질

‘다마질’은 뜰채로 고기 따위를 떠올리는 짓을 말한다.

- ⇒ 그물 걸리는 것ᄇ라 하까엔. 걸리는 거. 뜨는 거는 다마. 족바리 ᄇ튼 거. {다마질} 허는 거엔 굴아.

20) 그물 땡기다

‘그물 땡기다’는 바다에 쳐 놓은 그물을 배 위로 당겨 올리다는 의미다.

- ⇒ 구물 올리는 건 손으로 땡겨. 잡아땡긴덴도 허곡, {그물 땡긴테도} 허곡.



[사진 15] 그물 잣다

21) 잡아댕기다

‘잡아댕기다’는 표준어 ‘잡아다니다’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구물 올리는 건 손으로 땡겨. {잡아댕긴텐도} 허곡 그물 땡긴데도 허곡.

22) 멜 털다

‘멜 털다’는 그물 따위에 걸린 멸치를 떨어내다는 의미다.

⇒ 오닐 우리 간 {툰} 건 꼳멜이고.

23) 구물 시치다

‘구물 시치다’는 바다에 쳐 놓았던 더러워진 그물을 씻다는 의미다. ‘시치다’는 ‘씻다’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닷가지는 고정시키는 거난 망 이런 그런 슬진 줄 거 기다가 다 묶어. 그물 도망가지 말렌. 보름 잇당 구물 버물른 새로 바꾸고. 오닐 그물 시침주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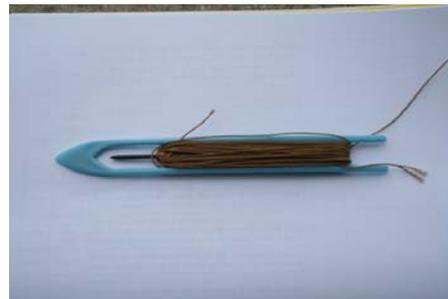
[사진 16] 그물 시치다

3.2.4. 기타

1) 그물바농

‘그물바농’은 그물을 만들거나 기울 때 쓰는 바늘. 쇠나 대, 뼈 따위로 만든다. 표준어 ‘그물바늘’에 해당한다.

⇒ 나무로 허영 만든 거 있어. {그물바농이렌}.



[사진 17] 그물바농

2) 바농대, 바늘대

‘바농대, 바늘대’는 그물을 짜거나 헤진 그물을 기울 때 사용하는 가늘고 긴 막대기. 보통 대나무나 쇠로 만들어 사용한다.

⇒ 멘사는 한 이년 썩지 마는 이 나이롱은 십년 이상 쓰는 것도 있어. 바늘대} 만들영도 쓰곡.

⇒ 구물 다 터진 것덜 손보고. 보망. 보망엔도 허곡 {바농대로} 자시는 거.

3.2.5. 상태

1) 그물 차다

‘그물 차다’는 그물 따위에 물을 머금다는 의미다.

2) 즘질다

‘ 즘질다’는 물건 따위가 잘고 가늘다.

⇒ 구물은 코가 { 즘질아도 } 젓구물이 이만씩 커. 거 우알로 씩왕. 죽은구물은 가운디 담고 안과겅
덜로 그 콧에 뽕뽕 무꺼근에 삼폭이주기.

3) 버물다

‘버물다’는 (물건에) 때 같은 것이 묻어 더러워지다는 의미다.

⇒ 덩장엔 구물 강은에 놔. 그 줄덜이 있어. 그레 다 무껍 놔뉘. {버물든} 바꾸곡. 빨레 허듯.

4) 걸어지다

‘걸어지다’는 그물 따위에 막히거나 잡히다는 의미다. 표준어 ‘걸리다’에 해당하는 말이다.

⇒ 뿔쿠물 바당에 강 쪽 레기그물거찌 낱 놔두든 뿔이 이젠 막 휘여 텅기당 그 그물에 강 다 {걸
어져}.

3.3. 덩장

3.3.1. 종류

1) 덩장, 덩장구물

덩장은 물고기가 다니는 길목을 막고 물고기를 한곳에 몰아 넣어 잡는 그물의 한가지다. 달리 정치망, 자리그물이라 부른다. ‘덩장구물’은 덩장에 쳐놓은 그물을 가리키는 말이다.

⇒ {덩장은} 고정된 장소에 설치해 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고기를 건져오는 곳이주게.

⇒ 이 옛날은, 구물 이 {덩장구물도} 이제 혼 스월로 레기허든 칠월들 허민 옛날은 다 가다쓰기
헤낫주마는 이제 기술이 그게 아니라 계속 허지 아념샤.

2) 불통

‘불통’은 덩장에 쳐놓은 그물 가운데, 고기가 들어가면 나올 수 없이 막힌 그물을 부르는 말이다.

⇒ 고기 유인하는 길 한줄로만 헤영 질망. 질구물. 우리나라 말로 허통. 여기는 {불통}.

3) 허통

‘허통’은 덩장 그물 가운데 고기들이 드나드는 길을 만들기 위하여 쳐 놓은 그물인데,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그물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달리 ‘질구물, 질망’이라 부른다.

⇒ 고기 유인하는 길 한줄로만 헤영 질망. 질구물. 우리나라 말로 {허통}. 여기는 불통.

4) 질구물, 질망

‘질구물, 질망’은 통그물 따위로 고기 떼를 이끄는 길이 되도록 치는 그물이다. 표준어 ‘길그물’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달리 ‘허통’이라고도 한다.

⇒ 고기 유인하는 길 한줄로만 헤영 질망. {질구물}. 우리나라 말로 허통.

⇒ 고기 유인하는 길 한줄로만 헤영 {질망}.



[사진 18] 질구물

3.3.2. 부속물

1) 가빠

‘가빠’는 비바람이나 눈보라를 막기 위하여 만든 두꺼운 천을 가리킨다. 여기에서는 ‘옷’의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 덩장 갈 떼게 작업복 {가빠덜} 입곡. 고기 담아 준비. 고기 경허영 걷어오주.

2) 뗏박

‘뗏박’은 바다 위에 뜰 수 있도록 박 모양으로 만든 물건. 덩장 따위에서 그물 있는 곳에 설치해 부표 역할을 하는 물건이다. 달리 ‘버국’이라고 한다.



[사진 19] 뗏박

⇒ {뗏박} 건 버국. 깃대 건 표시. 불 뽐뽐작하는 표시. 대 빨간 건 것ㄱ라 뽐뽐이엔도 허곡. 거 표시라. 여기 덩장 이시난 배덜 다니지 말렌 허는 거.

3) 깃대

‘깃대’는 덩장이 쳐 있는 곳을 알려 주는 빨간 색 깃발을 단 대. ‘뽐뽐이’라고도 한다.

- ⇒ 뗏박 건 버국. {깃대} 건 표시. 불 뺏작뺏작허는 표시. 대 빨간 건 것ㄴ라 뺏작이엔도 허곡. 거 표시라. 여기 덩장 이시난 배덜 다니지 말렌 허는 거.

4) 뺏작이

‘뺏작이’는 덩장이 쳐 있는 곳을 알려 주는 빨간 색 깃발을 단 깃대. 달리 깃대라고 한다.

- ⇒ 뗏박 건 버국. 깃대 건 표시. 불 뺏작뺏작허는 표시. 대 빨간 건 것ㄴ라 {뺏작이엔도} 허곡. 거 표시라. 여기 덩장 이시난 배덜 다니지 말렌 허는 거.

3.4. 낚시와 낚싯대류

3.4.1. 낚싯대(종류)

1) 낙싯대, 춤대, 낙시춤대

‘낙싯대, 춤대, 낙시춤대’는 표준어 ‘낚싯대’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 낙싯대ㄴ라 {춤대}, 낙시춤대.
- ⇒ 이디서 준준헌 복쟁이 영 {춤대로} 나끄는 거 밀복이엔 해낫저.

3.4.2. 낚시(종류)

1) 낙수, 낙시

‘낙수, 낙시’는 미끼를 꿰어 물고기를 잡는 데 쓰는 작은 쇠갈고리를 말한다. 표준어 ‘낚시’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 노젓는베에 이젠 저 이 비양도 앞의서 생선 {낙수로} 잡단.
- ⇒ 생성낙시 틀리곡 저 우럭 나끄는 {낙시} 틀리곡.

2) 마삭, 갈치마삭

‘마삭’은 예전에 갈치잡이를 할 때 낚시와 줄을 매는 도구다. 갈치를 잡을 때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갈치마삭’이라고도 부른다.

- ⇒ 그거 어음대. 그디 무신거 낙시 돌아매고 뽕돌. 거ㄴ라 {마삭}. 이제 뽕돌 영허영 돌아매는 거. 갈치 나끄는 마삭.
- ⇒ 옛날 {갈치마삭허젠} 허문 이녁 집의서 돼지 고기 사 먹지 못 허문 늙으 집의 돛추럼 허영 먹는다 그디 역불로 가근에 스정허영 그 돛국물에 그 윤노리를 쏘아.

3) 윤노리마삭

‘윤노리마삭’은 윤노리나무로 만든 마삭을 말한다.

- ⇒ 그 {윤노리마삭} 거 돛국물에 혼 서너번만 쓸으면 꺼꺼지지 아녀. 옛날은 갈치술도 웨지피 받 아근에 그거 맥여근에 솟되서 칠 때에도 또 윤노리 ㄱ치 쳐.

4) 건장, 건장낙시

‘건장, 건장낙시’는 고등어를 낚을 때 사용하는 낚시. 갈고리가 세 개 달려 있어 고등어를 낚으면 갈고리에 걸려 올라온다.

- ⇒ {건장이렌} 허영 닷가지 세 가달 돋은 거 물에 들이침 꺾어내는 거 싯곡.
- ⇒ 이 고등어 {건장낙시.}

5) 고등어낙시

‘고등어낙시’는 고등어를 낚을 때 사용하는 낚시다.

- ⇒ 이 {고등어낙시는} 이 갈치낙수로도 옛날 옛날 헤나고. 우리 나끄는 건, 투망은 구물에 허곡. 불케여가지고.

6) 삼봉낙시

‘삼봉낙시’는 세 갈래의 갈고리가 달린 낚시다.

- ⇒ {삼봉낙신} 이 갈치 이것 ㄱ라 {삼봉낙시엔} 허는 거.



[사진 20] 삼봉낙시

7) 갈치낙수, 갈치낙시

‘갈치낙수, 갈치낙시’는 갈치를 낚을 때 사용하는 낚시를 말한다.

- ⇒ 고등어 {갈치낙수에도} 물어.
- ⇒ 돔 나끄는 돔낙시 갈치 나끄는 건 {갈치낙시} 틀려 낙시도.

8) 돔낙시

‘돔낙시’는 돔을 잡을 때 사용하는 낚시를 말한다.

돔 나끄는 {돔낙시} 갈치 나끄는 건 갈치낙시 틀려 낙시도.

9) 벤자리낙시

‘벤자리낙시’는 벤자리를 잡을 때 사용하는 낚시를 말한다.

⇒ {벤자리낙시도} 또 줄아 거.

10) 생성낙시

‘생성낙시’는 옥돔을 잡을 때 사용하는 낙시를 말한다.

⇒ {생성낙시} 틀리곡 저 우럭 나끄는 낙시 틀리곡.

11) 주낫

‘주낫’은 낙시줄에 여러 개의 낙시를 띄엄띄엄 달아 자세에 감아서 물살을 따라 감았다 풀었다 하여 물고기를 잡는 제구의 한 가지. 표준어 ‘주낙’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주로 {주낫을} 많이 하죠.

12) 수지주낫

‘수지주낫’은 수지를 낙시줄로 사용한 주낙을 말한다.

⇒ 이젠 {수지주낫} 해도 옛날은 멘주낫으로 헨.

13) 멘세주낫, 멘주낫

‘멘세주낫, 멘주낫’은 면사를 낙시줄로 사용한 주낙을 말한다.

⇒ 이 주낫 무듬바리. 그 {멘세주낫보고} 무듬바리. 또 수지주낫은 뜸바리.

⇒ 이젠 수지주낫 해도 옛날은 {멘주낫으로} 헨.

14) 경심주낫

‘경심주낫’은 낙시줄을 물 속에 떨어뜨렸을 때 한 장소에서 고기가 물게 된 주낙을 말한다. 달리 ‘땅밭이’, ‘무듬바리’라고 한다.

⇒ 옛날 땅밭이 {경심주낫}.

15) 땅바리

‘땅바리’는 낙시줄을 물 속에 떨어뜨렸을 때 한 장소에서 고기가 물게 된 주낙을 말한다.

⇒ 옛날 {땅밭이} 경심주낫. 우리 땅에 깔아얓이니까 {땅밭이}.

16) 무듬바리

‘무듬바리’는 낚시줄을 물 속에 떨어뜨렸을 때 한 장소에서 고기가 물게 된 주낙이다.

⇒ 주낙 {무듬바리는} 딱 가면은 2만이 있고 뜬바리는 흘러가면서 고기 물게 된 거.

17) 뜬바리

‘뜬바리’는 낚시줄을 물 속에 떨어뜨렸을 때 한 장소에서 고기가 물게 된 주낙을 말한다.

⇒ {뜬바리} 중간중간 버국 있으니깐 니겹만 땅 아래 영 헤가지고 츠츠츠 흘러가게 돼었어.

18) 생성주낙, 옥돔주낙

‘생성주낙, 옥돔주낙’은 옥돔을 잡을 때 사용하는 주낙. ‘생성’은 옥돔을 가리키는 제주어다.

⇒ {생성주낙에} 고등어 이제 콩치, 이제 오징어, 한치이, 또 강원도오징어 다 쓴다게.

⇒ 여기서 비양도서는 주로 {옥돔주낙을} 많이 하죠.

19) 우럭주낙

‘우럭주낙’은 우럭을 잡을 때 사용하는 주낙을 말한다.

⇒ 삼월나면은 {우럭주낙덜} 행 현재까지 하고 잇어요.

3.4.3. 재료

1) 감물

‘감물’은 감의 즙을 말한다. 면사로 그물이나 주낙줄을 할 때 면사에 물을 들일 때 사용했던 재료다.

⇒ 면사는 이 빨간물도 꺼문물도 들이는데 옛날은 {감물} 사다가요.

2) 돛국물

‘돛국물’은 돼지고기를 삶은 물이다. 갈치마삭을 만들 때 재료인 윤노리나무를 삶을 때 사용한다.

⇒ 옛날 갈치마삭허젠 허른 이녀 집의서 돼지 고기 사 먹지 못 허른 늙은 집의 돛추럼 허영 먹는 디 그디 역볼로 가근에 스정허영 그 {돛국물}에 윤노리를 삶아.

3) 돼지피

‘돼지피’는 돼지의 피다. 갈치술에 물을 들이는 염료로 사용한다.

⇒ 옛날에는 전부 그 술이 {돼지피로} 갈치술 들었지.

4) 윤노리

‘윤노리’는 윤노리나무의 준말. 갈치마삭의 재료다.

⇒ 옛날 갈치마삭허젠 허믄 이녁 집의서 돼지 고기 사 먹지 못 허믄 늙으 집의 돛추럼 허영 먹는 디 그디 역불로 가근에 스정허영 그 돛국물에 그 {윤노리를} 쏘아.

5) 멘사

‘멘사’는 면사, 즉 무명실을 말한다.

⇒ {멘사는} 이 빨간물도 꺼문물도 들이는데 옛날은 감물 사다가 들어요.

6) 나이롱

‘나이롱’의 나일론의 일본어식 발음이다. 그물의 재료다.

⇒ 멘사는 한 이년 썩지 마는 이 {나이롱은} 십년 이상 쓰는 것도 있어. 바늘대 만들어가지고 잣 으면서 쓰는 거니까.

3.4.4. 부분명칭

1) 비늘

‘비늘’은 낚시나 작살 끝의 안쪽에 있는, 거스러미처럼 되어 고기가 물면 빠지지 않게 만든 작은 갈고리를 말한다. 표준어 ‘미늘’에 해당하는 제주어다.

⇒ 낙수 {비늘은} 거 낙수에 부딪주기게.

3.4.5. 행위

1) 나끄다

‘나끄다’는 표준어 ‘낚다’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바당드레 풀영 테껏당 또 감으멍 건곡게 춤대 {나끄젠} 허믄 영영 감듯게.

2) 푸끄다

‘푸끄다’는 낚시를 매단 낚싯대를 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들어내다는 의미다.

- ⇒ 갈치도 나끌 땀 착착 {푸건계}.
- ⇒ 옛날은 그 고등어가 이만씩헌 크난 뒤 와상와상 일민 베 두드려볼 정도로 낙수로 {푸끄문} 올라오곡.

3) 주낚 갈리다, 주낚 추리다

‘주낚 갈리다, 주낚 추리다’는 고기잡이 다녀온 주낚을 쓸모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잘 구분해서 가려내어 정돈하라는 의미다.

- ⇒ 우리 둘이만은 못합니다. 우리는 바당에만 하고 할마니덜 빌어 일당 주멍 {주낚 갈리고} 다 하죠.
- ⇒ 한 사람이 이삼십 많이 하면 오십 박스씩 {주낚 추리죠}.

4) 주낚 뿌리다

‘주낚 뿌리다’는 고기잡이를 가서 주낚을 바다에 뿌리다는 의미다.

- ⇒ 거 옛날은 손으로 {주낚도 뿌렛주마는} 이젠 낚시 케면서 기계로 다 지대로 돌리면서 뿌리지.

5) 다기다

‘다기다’는 풀이나 염료 따위를 물건에 칠하라는 의미다.

- ⇒ 갈치술 것에 돼지 피를 막 {다겨요}.

6) 쏘다, 치다

‘쏘다’는 표준어 ‘삶다’에 대응하는 제주어, ‘치다’는 표준어 ‘찌다’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 옛날 {갈치마삭허젠} 허문 이녁 집의서 돼지 고기 사 먹지 못 허문 늙은 집의 돛추럼 허영 먹는디 그디 역불로 가근에 스정허영 그 돛국물에 그 윤노리를 {쏘아}.
- ⇒ 윤도리마삭 거 돛국물에 혼 서너번만 졸으른 꺼꺼지지 아녀. 옛날은 갈치술도 돼지피 받아근에 그거 맥여근에 솟되서 {칠} 때에도 또 윤도리 ㄴ치 쳐.

3.4.6. 단위

1) 촌

‘촌’은 낚싯바늘의 굵기와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 옥돔 낚시는 가장 작은 1촌을 쓰고, 돔은 가장 큰 낚시를 사용한다.

⇒ 주는 낙순 돛낙시도, 이제 돛 잡는 건 혼 {촌} 오나 {촌} 육이나 써야주기.

3.4.7. 낚시줄

1) 꿩기술, 고기술

‘꿩기술, 고기술’은 물고기를 잡기 위한 낚시줄을 말한다. ‘술’은 ‘줄’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꿩기 나끄는 수지 {꿩기술}.

⇒ 그 하르방 이제 돛 지우고 이제 노로 이제 네를 영 머물영 것영 머물영 앓이믄 그 하르방 {고기술} 쥐.

2) 갈치술

‘갈치술’은 갈치를 낚을 때 사용하는 낚시줄을 말한다.

⇒ 옛날은 {갈치술도} 꿩지피 받아근에 그거 맥여근에 솟디서 칠 때에도 또 윤도리 ㄱ치 쳐.

3) 생성술

‘생성술’은 옥돔을 잡기 위한 낚시줄을 말한다.

⇒ 그 하르방이 {생성술} 꿩 하나 물민 이제 그디 닷을 농곡 생성을 잡곡.

4) 아리짱

‘아리짱’은 낚시와 낚시줄 사이에 매어진 끈을 말한다. 표준어 ‘낚시아리’에 해당한다.

⇒ 이제 {아리짱은} 낙시 돌아매영 허민 이게 뜨주게.

5) 차대

‘차대’는 낚시줄을 감는 기두다. 표준어 ‘얼레’에 해당한다.

⇒ 꿩기술 감는 {차대엔} 허여.

6) 가락

‘가락’은 한군데서 갈려 나온 낚시의 줄이나 줄기 따위를 세는 단위다.

⇒ 낙수가 열 {가락이믄} 두 {가락만} 비주.

3.3.7. 상태

1) 연드롭다

‘연드롭다’는 질기면서도 부드럽다는 의미다.

- ⇒ 옛날은 갈춧술도 돼지피 받아근에 그거 맥여근에 솟되서 칠 때에도 또 윤도리 ㄴ치 쳐. 갈춧술이 {연드롭게}.

4. 기타

4.1. 해녀 도구

1) 테왁

‘테왁’은 박의 씨 통을 파내고 구멍을 막아서 해녀들이 작업할 때 바다에 가지고 가서 타는 물건을 말한다.

- ⇒ 그 우퇴레 {테왁} 놔.

2) 망사리, 망아리

‘망사리, 망아리’는 해녀가 채취한 해물 따위를 담아 두는, 그물로 된 그릇을 말한다.

- ⇒ {망사리} 속에서 뭇 담양 가게. 쪼꼴락헌 조락덜게.
- ⇒ 혼 {망아리} 행 오는 사름이 멧이나 셔게.

3) 조락

‘조락’은 오분자기와 같은 작은 해산물을 담기 위해 만든 작은 망사리를 말한다.

- ⇒ {조락} 창 영 들렁 텅기는 거.

4) 소살, 웨소살, 쌍소살

‘소살’은 물고기를 찢러 잡는 기구다. 표준어 ‘작살’에 대응한다. 미늘이 하나 달린 것을 ‘웨소살’, 미늘이 둘 달린 것을 ‘쌍소살’이라고 한다.

- ⇒ 비늘 두 개 들린 건 {쌍소살}이엔 허곡. 하나는 그냥 {소살} {웨소살}.

5) **글쟁이, 바룻글쟁이**

‘글쟁이’는 해산물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호미를 말한다. 바다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바룻글쟁이’라고 한다. 비양도에서는 밭에서 김을 딸 때 사용하는 호미를 ‘웬글쟁쟁’라 불렀다.

- ⇒ {글쟁이로} 허는 건 구살 헐 때에 슴 헐 때에 이제.
- ⇒ 웬글쟁이라라 검질때는 글쟁이엔 허곡. 이제 바룻 잡으레 가젠 허는 것이라 {바룻글쟁이}.

6) **호미**

‘호미’는 표준어 ‘낫’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미역 따위를 벨 때 사용한다.

- ⇒ 메역헐 댜 {호미로} 그치다.

7) **비창**

‘비창’은 전복을 딸 때 사용하는 쇠로 만든 기구다.

- ⇒ 줌복 트는 건 {비창이} 잇어.

8) **오리발**

‘오리발’은 사람이 물속에서 활동할 때에 발에 끼는 오리발 모양의 물건을 말한다.

- ⇒ 발에 고무옷 입영 허는 거 {오리발}.

9) **물속곳, 속곳, 수쟁기**

‘물속곳, 속곳, 수쟁기’는 해녀들이 물질할 때 입는 옷을 말한다.

- ⇒ 옛날 수쟁기엔도 허곡 {물속곳}.
- ⇒ 옛날 {속곳} 입영 물적삼이나 셔시냐?
- ⇒ 옛날 {수쟁기엔도} 허곡 물속곳.

10) **도곰속곳**

‘도곰속곳’은 해녀가 바다에 들 때 입는 물옷으로 여러 차례 기워진 헌 옷을 말한다.

- ⇒ 줌수 늪언보난에 도곰속곳 하나더라 허는 거라. 주곡주곡 헌 것이라 도곰속곳이렌.

11) **물적삼**

‘물적삼’은 해녀들이 물질할 때 입는 적삼이다. 속곳 위에 걸쳐 입는다.

- ⇒ 옛날 속곳 입엉 {물적삼이나} 셔시냐? 속곳만 입어근에 달달달달 떨어근에 불추어근에 오명 피역 즈물곡 이제 정각 즈물곡.

12) 눈, 족쇄눈, 큰눈, 왕눈

‘눈’은 해녀가 물질할 때 사용하는 물안경을 말한다. 알이 두 개 달린 작은 물안경을 ‘족쇄눈’, 알이 하나 달린 큰 물안경을 ‘큰눈’ 또는 ‘왕눈’이라고 한다.



[사진 21] 종짓눈

- ⇒ 물안경은 {눈이렌} 허주.
- ⇒ {족쇄눈} 썩. 느 안경보다도 족은 눈. 이제 {큰눈} 썩 해도 그런 눈 씨근에 졸락물질 허연 춤 저 아기덜 살러낫저게.
- ⇒ 안경치록 현 거는 족쇄눈, 큰눈 7란 {왕눈.}

4.2. 행위

1) 물질

‘물질’은 주로 해녀들이 바다 속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따는 일을 말한다.

- ⇒ 비양도 {물질도} 허고 물에 다니명 살단 곁흔허난 바다에도 가고.

2) 물에 가다, 물에 들다, 물에 다니다

‘물에 가다, 물에 들다, 물에 다니다’는 해녀들이 해산물을 따기 위하여 물에 들 때 표현하는 말이다. 고기잡으러 배를 타고 나가는 것은 ‘바당에 간다’라고 한다.

- ⇒ 비양도 물질도 허고 {물에 다니명} 살단 곁흔허난 바다에도 가고.
- ⇒ 바당 가는 건 배로 고기 잡이 가는 거, 해녀 가는 거 {물에 들레} 가는 거. {물에 가는} 거.

3) 배물질

‘배물질’은 배를 타고 나가서 하는 물질을 말한다.

- ⇒ 즘복허고 헤삼은 지픈디 나. 옛날 모살통에 지픈 디 나. 우리 {배물질} 가낫저.

4) 졸락물질

‘졸락물질’은 깊은 바다에 나가지 못하고 근처 바다에서 대강하는 물질을 말한다.

- ⇒ 족쇄눈 썩. 느 안경보다도 족은 눈. 이제 큰눈 썩 해도 그런 눈 씨근에 {졸락물질} 허연 춤 저 아기덜 살러낫저게.

5) 해녀질

‘해녀질’은 해녀들이 바다에서 해산물을 따기 위해 하는 일을 말한다.

⇒ {해녀질} 해어도 조합원도 개입 안 뵈저게.

6) 트다

‘트다’는 돌에 붙어 있는 전복이나 오분자기 따위를 떼다는 의미다.

⇒ 줌복은 비창으로 {트주게}.

7) 즈물다

‘즈물다’는 해녀들이 바다속에 들어가 해산물을 따다는 의미다.

⇒ 옛날 속곳 입영 물적삼이나 셔시냐? 속곳만 입어근에 달달달달 떨어근에 불추어근에 오멍 미역 {즈물꼭} 이제 정각 즈물꼭.

어로 도구와 방법, 행위와 관련한 조사 어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어로도구	조사 어휘
배	공쟁잇대, 까꾸리, 지피에스, 콘테나, 고물장, 버릿줄, 야오초석, 야웃대, 율네, 이물장, 큰초석, 한장, 고물, 고물초석, 고불, 궁기, 너장, 네, 넷입, 노라, 노랑, 닷, 닷가지, 닷줄, 도레기, 도문네, 도문노, 돛, 돛대, 뒗명애, 몽고지, 물봉, 벤드레, 벤드렛줄, 뱃장, 사울대, 선장방, 앞명애, 어탐, 앵카, 이물, 이물명애, 이물초석, 이물코지, 초석, 초석줄, 추, 치, 칫고망, 콤파스, 과락, 풍, 한간초석, 한장도막, 배깅, 선개, 광목, 배 짓다, 갈척배, 고깃배, 고대구릿배, 고등어배, 그물배, 기계선, 꺾작선, 나꿈바리배, 낙깃배, 노젓는배, 대구리, 덩장배, 도항선, 뽕마, 뽕배, 텃배, 모다배, 목선, 옥돔바리, 자릿배, 주낫배, 초석배, 테, 풍선, 곰늘, 뒤차대, 나륙찍, 구덕, 연장, 하까, 다마, 족바리, 가빠, 네 짓다, 나끄다, 닷 주다, 돌아매다, 돛 들다, 돛 지우다, 돛대 세우다, 등기다, 밀다, 배질, 배물질, 즈물다, 줄락물질, 해녀질, 물에 다니다, 불케다, 네 짓다, 바당 가다, 물에 들다(가다), 바다에 가다,
그물류	구, 줄, 절, 촌, 코, 불통, 질구물, 질망, 허통, 구물, 그물코, 버국, 뽕돌, 아바줄, 유아줄, 즈룩, 물 차다, 줌질다, 바늘대, 자시다, 잣다, 바농대, 감물, 나이롱, 돼지 피, 멘사, 구물 꾸미다, 갓돔구물, 갓구물, ㄱ상구물, 퀘기그물, 콩치구물, 다금바리구물, 덩장, 덩장구물, 도랭이그물, 돔그물, 멜구물, 멜쿠물, 벤자리구물, 삼폭구물, 새우그물, 생선그물, 어망, 웨구물, 자망구물, 정치망, 족은구물, 통발이, 투망구물, 구물 놓다, 구물 잣다, 구물 제기다, 데미다, 버물다, 다마질, 보망, 뽕박, 깃대, 뽕짜이, 구물 시치다, 그물 출리다, 거리다, 견다, 뽕기다, 뜨다, 실르다, 케리다, 드밀다, 뽕기다, 그물 뽕기다, 잡아뽕기다, 털다, 걸어지다

어로도구	조사 어휘
낙시류	가락, 비늘, 아리짱, 돛국물, 윤노리, 윤노리마삭, 다기다, 쫘다, 치다, 갈치낙수, 갈치낙시, 갈치마삭, 건장, 건장낙시, 경심주낙, 고등어낙시, 낙수, 돛낙시, 땅바리, 뜸바리, 마삭, 멘세주낙, 멘주낙, 무듬바리, 벤자리낙시, 생성낙시, 생성주낙, 수지주낙, 옥돔주낙, 우럭주낙, 주낙, 주낙 갈리다, 주낙 추리다, 주낙 뿌리다, 낙싯대, 춤대술, 연드롭다, 갈칫술, 고기술, 생성술, 니껌, 읍주랑이, 갈게수리, 갈게시리, 갈기, 게수리, 즈게수리, 푸끄다
해녀	도곰속곳, 물적삼, 속곳, 비창, 족쇄눈, 큰눈, 물질, 물에 가다,

5. 어획물

5.1. 물고기

5.1.1. 종류

1) 생성, 생선, 양반고기

‘생성, 생선’은 비양도에서 옥돔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다. ‘양반고기’는 다른 생선에 비해 맛이 있는 고급어종이라는 말이다. 크기에 따라 ‘생성’ 앞에 대(大)·중(中)·소(小)를 붙여 ‘대생성, 중생성, 소생성’ 식으로 말한다.



[사진 22] 생성

- ⇒ {생성} 하나 못 나끄곡. {생선은} 경 늘래 안 나.
- ⇒ 생선 질 बे지근헌 것이 {양반고기엔} 허지.
- ⇒ 일름도 {대생성}, {중생성}, {소생성}. 죽은 거 소생성.

2) 빠이룽

‘빠이룽’은 크기가 자잘한 옥돔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다.

- ⇒ 생선도 작은 것도 잇주게. {빠이룽}. 작은 거보고 {빠이룽}.

3) 가라지

‘가라지’는 전갱잇과의 바닷물고기를 말한다. ‘전갱이’과여서 ‘각제기’와 같은 말로 인식하고 있다.

⇒ 각제기보고 {가라지라고} 하지.

4) 각제기

‘각제기’는 표준어 ‘전갱이’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유월달부터는 한치 따치 방어. 또 {각제기} 갈치 그런 어종이 십일월달까지 나는 거주.



[사진 23] 각제기

5) 춤각제기

‘춤각제기’는 전갱이의 일종. 살이 단단하고 토실토실해 맛이 있다.

⇒ 각제기도 {춤각제기} 지름각제기. 그런 건 흐뭇 솔이 물르곡 맛도 덜허곡.

6) 지름각제기

‘지름각제기’는 전갱이의 일종. 살이 무르고 맛이 덜하다.

⇒ 각제기도 춤각제기 {지름각제기}. 그런 건 흐뭇 솔이 물르곡 맛도 덜허곡.

7) 가오리, 개오리

‘가오리, 개오리’는 표준어 ‘가오리’에 해당하는 제주방언이다.

⇒ 여름 뉘민 돔에서도 냄새 나고 {가오리도} 냄새 나고.

8) 갈치

‘갈치’는 갈치과의 바닷물고기다. 크기에 따라서 큰 것은 ‘대갈치’, 중간 크기는 ‘중갈치’, 작은 것은 ‘소갈치’로 구분해서 부른다.

⇒ 유월달부터는 한치 따치 방어. 또 각제기 {갈치} 그런 어종이 십일월달까지 나는 거주.

⇒ 갈치는 작은 거 {소갈치}, {중갈치}, 큰거는 {대갈치} 경 험니다.

9) 봄갈치, 여름갈치, 가을갈치

‘갈치’는 계절에 따라 부르는 이름도 다르다. 봄에 낚는 갈치는 ‘봄갈치’, 여름에 낚는 갈치는 ‘여름갈치’, 가을에 낚는 갈치는 ‘가을갈치’라고 부른다.

⇒ 스월들에 보리 비당 남아도 갈치 나끄레 가주기. 브름 잔잔허곡 노 젓엉 그디가 나끄른 {봄갈치} 여름에 나끄른 {여름갈치}.

⇒ {가을깔치도} 내내 비양도 두어서 물곡.

10) 감팍우럭

‘감팍우럭’은 솜뱅이에 해당하는 제주어다.

⇒ 우럭도 종류가 {감팍우럭이라고} 있고, 또 까만우럭이라고 불락이라고 거 있고.

11) 객주리

‘객주리’는 표준어 ‘쥐치’에 해당하는 제주어다.

⇒ 정치망에는 안 드는 고기가 엇어예. {객주리도} 들고 갓돔도 들고.

12) 고등에

‘고등에’는 표준어 ‘고등어’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크기에 따라서 ‘큰고등어, 중고등어, 작은고등에’라고 부른다.



[사진 24] 고등에

⇒ {고등에도} 잡혀.

⇒ 고도리 {작은고등어} {큰고등어} {중고등어} 고등어도 으라 가지주게.

13) 춤고등에

‘춤고등에’는 고등어 종류의 하나다. 살이 토실토실하여 맛이 있다.

⇒ {춤고등에는} 이만씩 크고 슬이 또락또락 맞서.

14) 지름고등에

‘지름고등에’는 고등어 종류의 하나다. 살이 물러 맛이 없다.

⇒ {지름고등에는} 슬이 흐뭇 미랑미랑허곡 색깔이 쪼뭇 틀러.

15) 고도리

‘고도리’는 고등어의 새끼를 말한다.

⇒ {고도리} 고등어 새끼엔도 허곡. 쟈쟈헌 것ㄴ라 고도리.

16) 근고등에

‘근고등에’는 소금에 절인 고등어를 말한다.

⇒ {근고등에} 막 오래 놔두도 끈적하게 근해.

17) 썩고등어

‘썩고등어’는 말리거나 간을 하거나 하지 않는 고등어를 말한다.

⇒ 고등어죽 이제 고등어 그 거세기 {썩고등어든} 이제 간 현 거든. 무린 걸랑 허지 말라.

18) 활어

‘활어’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말한다.

⇒ 우리 아덜네 잡는 건 상인 헤여가지고 {활어} 산 거 그거 풀곡.

19) 넙치, 광어

‘넙치’는 넙치과의 바닷물고기다. ‘광어’라고도 한다.

⇒ {광어가} {넙치주게}.

20) 돔

‘돔’은 도돔과의 바닷물고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표준어 ‘도미’의 준말이다.

⇒ 이젠 {돔} 잡젠 허든 오징어덤장에서 곧 거려온 거 썰어근에 요만씩 썰어도 경 {돔} 물더라.

21) 베기베기

‘베기베기’는 돔 새끼를 말한다.

⇒ 여름에 또 {베기베기} 나끄레 돔 새끼양 그거 나끄레도 다넛고.

22) 갓돔

‘갓돔’은 돔의 한 가지이다.

⇒ 다금바리보다 {갓돔이} 싸요. 다금바리는 뭐 한두마리씩 하루에 나끄나마나.

23) 돌돔

‘돌돔’은 돔의 한 가지다.

⇒ 돔 틀리곡 갓돔 틀리곡 {돌돔} 틀리곡. 웅이도 틀리곡.

24) 웅이

‘웅이’는 ‘흑돔’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돔 틀리곡 갓돔 틀리곡 돌돔 틀리곡. {웅이도} 틀리곡.

25) 황돔

‘황돔’은 도돔과의 바닷물고기. 색깔이 불그스레하다.

⇒ 빨간 {황돔도} 들고. 검은돔도 들고.

26) 검은돔

‘검은돔’을 표준어 ‘감성돔’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빨간 황돔도 들고. {검은돔도} 들고.

27) 고주웨

‘고주웨’는 바닷물고기의 한 종류다.

⇒ 아까 달고기 닮은 거. 달치 잘도 하영 들어. {고주웨} 또 막 하영 들어. 한치, 또 갑오징어, 물 오징어, 돔도 들고.

28) 늘치

‘늘치’는 날치과의 바닷물고기를 말한다. 몸의 길이는 35cm 정도이며, 옆으로 약간 납작한 원통형이다. 가슴지느러미가 커서 날개 모양을 이루어 바다 위를 2~3미터 날아오른다.

⇒ 뿔 가튼 거 이제 그런 {늘치} 가튼 거는 막 들어올 때는 물이 파딱파딱 뛰는데.

29) 다금바리

‘다금바리’는 바릿과의 바닷물고기를 말한다.

⇒ {다금바리보다} 갓돔이 싸요. {다금바리는} 하루에 뭐 한두마리씩 나쁘나마나.

30) 덤부지

‘덤부지’는 별망둑에 해당하는 제주어다.

⇒ 이녁 술이나 이제 그 옛날 그 브들레기, {덤부지} 그런 거 잡앙 가문 갈치 나쁘거니와 문어 가정은에 갈치 안 물어.

31) 따치

‘따치’는 독가시돔과의 바닷물고기를 말한다.

⇒ 유월달부터는 한치, {따치}, 방어. 또 각제기, 갈치 그런 어종이 십일월달까지 나는 거주.

32) 멍치

‘멍치’는 가다랑어에 해당하는 제주어다.

⇒ 정치망에 드는 고기. 우럭도 들고 여기서 십이가스라고 들고, {멍치}, 뭐 안 드는 고기 있어.

33) 벤자리

‘벤자리’는 하스돔과에 딸린 바닷물고기를 말한다.

⇒ {벤자리} 옛날은 그 낙수로 나까났저.

34) 브들레기

‘브들레기’는 베도라치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이녁 술이나 이제 그 옛날 그 {브들레기}, 덤부지 그런 거 잡앙 가문 갈치 나쁘거니와 문어 가정은에 갈치 안 물어.

35) 볼락

‘볼락’은 양볼락과에 딸린 바닷물고기를 말한다.

⇒ 하늬브름 겨울에 그 {볼락} 나난. 베 죽으믄 놈으 그 물 우의 턱우믄 구물 끈차부렁 춤 한 재산 잃어볼다실 피 허단.



[사진 25] 볼락

36) 붉바리

‘붉바리’는 바릿과의 바닷물고기를 말한다.

⇒ 옛날은 이 비양도에서 춤 우럭, {붉바리덜} 경 하나도 이젠 하나 엇주기.

37) 붉은볼락

‘붉은볼락’은 ‘빨돔’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이 추자에 {빨근볼락} 잡으레 가든.

38) 삼치

‘삼치’는 고등엇과의 바닷물고기다. 청색에 푸른 갈색의 얼룩무늬가 있고 배는 흰색이다. 옆구리에는 회색 얼룩점이 흩어져 있고 비늘로 덮여 있다.

⇒ 이제 {삼치}, 방어. 또 이제 방어도 ㄱ뽕 궤기라도 저 이제 저 뵈고 히라지.

39) 십이가스

‘십이가스’는 고등엇과의 바닷물고기. 가다랭이와 비슷한데 몸의 길이는 1미터 정도이며, 등 쪽은 푸른색, 배 쪽은 은백색이고 등 쪽에 검은색 세로줄이 있다. 표준어 ‘줄삼치’에 해당하는 말이다.

⇒ 정치망에 드는 고기. 우럭도 들고 여기서 {십이가스라고} 들고.

40) 생키, 솔치

‘생키’는 ‘쭈기미’에 해당하는 제주어다. 달리 ‘솔치’라고도 부른다.

⇒ {솔치가} {생키엔} 헤낫주기.

41) 생키우럭

‘생키우럭’은 우럭의 한 종류. 크기가 잔 우럭 이름이다.

⇒ 우럭에도 존존헌 {생키우럭이} 있어.

42) 송어

‘송어’는 송엇과의 바닷물고기다.

⇒ {송어는} 궤기 물 우의 팔딱팔딱 뛰고.

43) 어랭이

‘어랭이’는 표준어 ‘황놀래기’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어랭이} 니경 거 이제 계수리.

44) 에리, 에여리

‘에리, 에여리’는 표준어 ‘매통이’에 해당하는 물고기다.

⇒ 이젠 {에리도} 웃어.

⇒ 아 {에여리는} 못헌다. 그건 지숙 안 써. 콩치도 안 쓰곡이.

45) 우럭

‘우럭’은 우럭볼락을 말한다.

⇒ 옛날은 이 비양도 아래 벨 가정 가문 {우럭} 이녀 먹을 거 혼 못씩은 나까났주게.

46) 자리

‘자리’는 표준어 ‘자리돔’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자리} 미끼는 {자리로} 헤 가지고 잡았지.



[사진 26] 자리

47) 알자리

‘알자리’는 알에서 갸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작은 자리돔을 말한다.

⇒ {알자리엔} 현 건 준준헌 거 보깡 먹어났주.

48) 횃자리

‘횃자리’는 횃감으로 주로 먹는 자리돔을 말한다.

⇒ 족은 자린 알자리, {횃자리} 경 허여.

49) 잡어

‘잡어’는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물고기를 통칭하는 말이다.

⇒ 요새 비양도에선 옥돔이 안 나요. {잡어도} 안 물어요.

50) 방에

‘방에’는 표준어 ‘방어’에 해당하는 말이다.

⇒ {방에는} 똑 고등에 비슷한 거.

51) 잿방어, 아까반어

‘잿방어’는 고등엇과의 바닷물고기로, 비양도 어부들은 ‘아까반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 아까반어엔 현 거 잇어예. 표준어에는 {잿방어로} 됐더라고예.

52) 상어

‘상어’는 연골어강 악상어목의 물고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 {상어} 종류는 백상어도 있고 청상어도 있고 비계도 있고.

53) 비계

‘비계’는 표준어 ‘수염상어’에 해당하는 제주어다.

⇒ {비계는} 이제 저 거죽이 더 두껍고 얼룩얼룩허곡 땅에만 부뜨곡 뭍장 아래만 사는 거.

54) 백상어

‘백상어’는 까치상엇과의 바닷물고기로, 표준어 ‘별상어’에 해당하는 말이다.

⇒ 상어 종류도 {백상어도} 있고 청상어도 있고.

55) 청상어

‘청상어’는 상어의 일종이다.

⇒ 상어 종류도 백상어도 있고 {청상어도} 있고.

56) 도랭이

‘도랭이’는 표준어 ‘팽이상어’에 해당하는 제주어다.

⇒ 옛날은 그 도랭이구물엔 허영이, {도랭이} 알아지느냐? 찍노 ㄱ왕 줄을 쏘앗덴 헤라. 줄을 꼬 왕 손으로 이제 하르방네 이제 베 꼬듯이 세 가달로 꼬왕 그물 꾸면 씨낫주기.

57) 모도리

‘모도리’는 표준어 ‘돌묵상어’에 대응하는 말이다.

⇒ 상어 7과도 옛날은 {모도리엔도} 허곡 상어엔도 허곡.

58) 얼룩상어

‘얼룩상어’는 얼룩상엇과의 바닷물고기를 말한다.

⇒ 상어도게 춤상어도 쇳곡 {얼룩상어도} 쇳곡.

59) 춤상어

‘춤상어’는 상어의 일종이다.

⇒ 상어도게 춤상어도 쇳곡 {얼룩상어도} 쇳곡.

60) 콜생이, 코생이

‘콜생이, 코생이’는 표준어 ‘용치놀레기’에 해당하는 제주어다.

⇒ 낙싯대 들린 다니면서 비양도 돌아다니면서 옛날이 {콜생이라고} 허는 고기, 조금만씩헌 고기.

⇒ {코생인} 몸뻐이 전체가 푸리롱허여. 어랭인 가운데 붉은 비늘 박아지고. 흰 색깔로만. 어랭인 때 잇어.

61) 불볼락

‘불볼락’은 뽕돔과의 바닷물고기로, 표준어 ‘뽕돔’에 해당하는 말이다.

⇒ 덩장에서 나오는 거. 저 각제기도 들고, 자리도 들어. 저런 {불볼락도} 들곡 볼락도 들고. 광어도 들곡. 안 드는 거 셔. 구룻, 뽕어돔에 헌 거 그린 것도 들고.

62) 혁세기

‘혁세기’는 바닷물고기의 일종이다.

<표준> {혁세기} 이거 기냥 지정 먹어. 맛 잇어.

63) 뽕어돔

‘뽕어돔’은 뽕어돔과에 딸린 바닷물고기로, 표준어 ‘뽕어돔’을 말한다.



[사진 27] 혁세기

- ⇒ 덩장에서 나오는 거. 저 각제기도 들고, 자리도 들어. 저런 불블락도 들곡 불락도 들고. 광어도 들곡. 안 드는 거 셔. 구룻, {벵어돔에} 현 거 그런 것도 들고.

64) 구룻

‘구룻’은 ‘벵어돔’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지역에 따라서 ‘귀룻’이라고도 부른다.

- ⇒ {구룻이렌} 현 거 거멍현 췌기.

65) 들치, 달치, 달고기

‘들치, 달치, 달고기’는 달고깃과의 바닷물고기를 말한다. 몸 가운데 달 같은 둥근 문양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표준어 ‘달고기’에 대응하는 말이다.

- ⇒ {들치엔} 현 고기는 막 물 우의로 휘곡 놀곡 경허주.
- ⇒ 아까 {달고기} 닳은 거. {달치} 잘도 하영 들어. 고주웨 또 막 하영 들어.

66) 멜

‘멜’은 표준어 ‘멸치’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 옛날은 이 비양도 아래 {멜} 가정 가문 우력 이녁 먹을 거 흔 못씩은 나까낫주게.

67) 춤멜

‘춤멜’은 멸치의 한 종류다. 등에 줄이 그어져 있지 않다. 젓갈을 담그면 살이 물러진다.

- ⇒ {춤멜} 잇고 이제 우리 간 오닐 턴 건 이제 꽃멜이고.

68) 꽃멜

‘꽃멜’은 등에 줄이 그어진 멸치다. 표준어 ‘셋줄멸’에 해당하는 멸이다. 젓갈을 담가도 살이 물러지지 않는다.

- ⇒ 딴 디선 춤멜 잡는디 비양도에선 {꽃멜} 잡아요.



[사진 28] 꽃멜

69) 뽕룻이멜

‘뽕룻이멜’은 눈을 부릅뜬 것처럼 눈이 큰 멸치. 먹지 않는다.

- ⇒ {뽕룻이멜} 건 눈 뽕룻허고 막 가시가 사근사근허영 안 먹는 거.

70) 징어리

‘징어리’는 표준어 ‘정어리’에 해당하는 말이다.

⇒ 여기는 {징어리는} 잘 안 잡힙니다.

71) 흥어

‘흥어’는 가오릿과의 바닷물고기를 말한다.

⇒ {흥어} ㄹ튼거라 퀘기 막 낚작허주.

72) 가제미

‘가제미’는 표준어 ‘가자미’에 대응하는 말이다.

⇒ 웨눈베기엔도 허곡 저 {가제미엔도} 허곡 신착퀘기엔도 허곡.

73) 웨눈베기

‘웨눈베기’는 가자미를 민간에서 부르는 속칭. 눈이 한쪽으로 물려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웨눈베기엔도} 허곡 저 가제미엔도 허곡 신착퀘기엔도 허곡.

74) 신착퀘기

‘신착퀘기’는 가자미를 민간에서 부르는 속칭이다. 신발 모양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웨눈베기엔도 허곡 저 가제미엔도 허곡 {신착퀘기엔도} 허곡.

75) 조기

‘조기’는 민어과의 보구치, 수조기, 참조기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 이젠 {조기} 잡으레 멧이는 사름 엇어.

76) 백조기

‘백조기’는 민엇과에 딸린 바닷물고기. 몸길이 30 ~ 40cm쯤으로, 참조기와 비슷하게 생겼고, 몸빛은 희다. 표준어 ‘보구치’에 해당하는 말이다.

⇒ 배때기 노랑헌 거 춤조기, 회 먹는 거는 {백조기가} 맞셔.

77) 참조기

‘참조기’는 표준어 ‘참조기’에 해당하는 말이다.

- ⇒ 배때기 노랑현 거 {참조기}, 회 먹는 거는 백조기가 맞서.



[사진 29] 백조기

78) 굴비

‘굴비’는 소금에 약간 절여서 통으로 말린 조기를 말한다.

- ⇒ {굴비렌도} 허주게.

79) 콩치

‘콩치’는 콩치과의 바닷물고기를 말한다.

- ⇒ 생선은 문어로 미끼해서. 지금은 오징어도 쓰고 {콩치도} 쓰고 그러지.

80) 복쟁이

‘복쟁이’는 표준어 ‘복어’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 {복쟁이} 최고로 비양도 나난.

81) 까칠복

‘까칠복’은 참복과에 딸린 바닷물고기를 말한다.

- ⇒ 이제 또 참복, {까칠복}. 또 이제 뭐 물복, 이제 졸복.

82) 노랑복, 노랑참복

‘노랑복, 노랑참복’은 표준어 ‘졸복’의 다른 이름이다.

- ⇒ 옛날에 거 {노랑참복허고} 이제 참복허고 까칠복 뭐 여러 가지 씻저.
- ⇒ 껍데기가 노랑현 {노랑복} 그 복쟁이가 없어.

83) 졸복

‘졸복’은 참복과의 바닷물고기. 몸이 짧고 굵으며 누런 갈색이다.

- ⇒ 이제 또 참복, 까칠복, 또 이제 뭐 물복, 이제 {졸복}.

84) 물복

‘물복’은 복어의 일종이다.

⇒ 이제 또 참복, 까칠복, 또 이제 뭐 {물복}, 이제 졸복.

85) 가시복쟁이

‘가시복쟁이’는 표준어 ‘가시복’에 해당하는 제주어다.

⇒ 복쟁이도게 {가시복쟁이도} 싯고 춤복쟁이 싯고게 밀폭쟁이 싯고게 돌고래 싯곡게.

86) 밀폭쟁이, 밀복

‘밀폭쟁이’는 참복과에 딸린 바닷물고기다. 표준어 ‘밀복’에 해당한다.

⇒ 이디서 준준헌 복쟁이 영 춤대로 나끄는 거 {밀복이엔} 해낫저.

⇒ 복쟁이도게 가시복쟁이도 싯고 춤복쟁이 싯고게 {밀폭쟁이} 싯고게 돌고래 싯곡게.

87) 참복, 춤복쟁이

‘참복, 춤복쟁이’는 표준어 ‘자주복’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이제 또 {참복}, 까칠복, 또 이제 뭐 물복, 이제 졸복.

⇒ 복쟁이도게 가시복쟁이도 싯고 {춤복쟁이} 싯고게 밀폭쟁이 싯고게 돌고래 싯곡게.

88) 고래

‘고래’는 포유강 고래목의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 일본 사름덜 오랑 덩장 헐 때에 그때 {고래} 해나실 거라.

89) 돌고래

‘돌고래’는 치아가 있는 돌고랫과의 작은 고래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 복쟁이도게 가시복쟁이도 싯고 춤복쟁이 싯고게 밀폭쟁이 싯고게 {돌고래} 싯곡게.

90) 갯장어

‘갯장어’는 갯장어과의 바닷물고기를 말한다. 달리 ‘붕장어’라고 한다.

⇒ 장어도게 {갯장어} 이제 또 아나고장어 잇고 뱀장어도 잇고. 갯장언 막 거멍헌 거 이만씩 헌 거.

91) 아나고장어, 아나고

‘아나고장어, 아나고’는 표준어 ‘붕장어’에 해당한다. ‘아나고’는 붕장어를 뜻하는 일본어.

- ⇒ {아나고장어} 요만씩 하얏.
- ⇒ {아나고} 같은 거 고기 종류는 잡아봐야 돈도 안 나고.

92) 붕장어

‘붕장어’는 갯장어과의 바닷물고기를 말한다. 달리 ‘갯장어’라고 한다.

- ⇒ {붕장에엔} 현 것이 그 갯장어엔 현 거주기게.

93) 뱀장어

‘뱀장어’는 뱀장어과의 민물고기를 말한다.

- ⇒ {뱀장언} 베염 ㄹ찌 깨는깨는해.

94) 농어

‘농어’는 농엇과의 바닷물고기를 말한다.

- ⇒ {농어는} 막 여기서 나끄곡.

95) 민어

‘민어’는 민엇과에 딸린 바닷물고기를 말한다.

- ⇒ {민어는} 똑 조기 비슷해도 건 막 커.

96) 야드

‘야드’는 바닷물고기의 한 종류다.

- ⇒ 여기는 옥돔도 잡고 이제 활어, 다금바리, {야드}, 없는 거 없어.

5.1.2. 부분명칭

1) 눈깔

‘눈깔’은 눈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 눈은 {눈깔이엔} 허주 뒤.

2) 주둥이

‘주둥이’는 표준어 ‘입’에 해당하는 말이다.

⇒ {주둥이} 그치고.

3) 머리뺨

‘머리뺨’은 머리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 자리물취 손 하영 가는 거. 자리 {머리뺨이영} 눈깔이랑 다 찍어야 자리물취도 풀풀허고 담백
헌 게 우러나.

4) 데가리

‘데가리’는 표준어 ‘대가리’를 말한다.

⇒ 이거 자리 {데가리}.

5) 구생이

‘구생이’는 표준어 ‘아가미’에 해당하는 말이다.

⇒ 아가미 속에 잇는 것ᄇ란 쨌기 {구생이엔} 허곡.

6) 껌데기

‘껌데기’는 물체의 겉을 싸고 잇는 물질을 말한다.

⇒ {껌데기가} 노랑헌 노랑복 그 복쟁이가 없어.

7) 꼴랑지, 꼴랭이

‘꼴랑지, 꼴랭이’는 표준어 ‘꼬리’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이건 머리, 이건 {꼴랑지}, 이건 놀게.

⇒ 쨌기 {꼴랭이}.

8) 알

‘알’은 조류, 파충류, 어류, 곤충 따위의 암컷이 낳는, 둥근 모양의 물질을 말한다.

⇒ 하얀 {알은} 미리알엔 허곡.

9) 미리알, 하얀알

‘미리알, 하얀알’은 물고기의 알 가운데 흰색을 띠는 알을 말한다. 알이 한 덩어리를 이루며, 수컷이라고 관념하는 알이다.

⇒ {하얀알은} {미리알엔} 허곡.

⇒ {하얀알} 신 거는 수커고 노랑알 담아진 거는 암커. 노랑알은 그건 퀘기 웨는 거.

10) 붉은알, 노랑알, 좁쌀알

물고기의 알 가운데 붉은색을 띠는 알. 알이 좁쌀처럼 낱알이 되어 있어 ‘좁쌀알’이라고도 한다. 알의 색깔이 노랗다는 데서 ‘노랑알’이라고도 부른다. 암컷이라고 관념하는 알이다.

⇒ 불그스름허여근에 이제 사락사락헌 거는 그거는 이제 {붉은알이퀸} 허곡.

⇒ 하얀알 신 거는 수커고 {노랑알} 담아진 거는 암커. 노랑알은 그건 퀘기 웨는 거.

⇒ 이거 노랑알 {좁쌀알엔도} 허곡.

11) 늘게, 늘게기

‘늘게, 늘게기’는 표준어 ‘지느러미’에 해당하는 말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날개기’로 되어 있는데, 아래아(·)가 있는 ‘늘게기’로 표기해야 맞다.

⇒ 이긴 머리. 이긴 풀랑지, 이긴 {늘게}.

⇒ 쫄르는 건 자리 {늘게기}.

12) 빼다구

‘빼다구’는 표준어 ‘빼다귀’에 해당한다. 생선의 굵은 뼈를 일컬을 때 사용한다.

⇒ 옥돔 물뿔도 맛있어요. {빼다구째} 썰어가지고 허면은.

13) 지름

‘지름’은 생선의 지방을 일컬을 때 쓰는 말이다.

⇒ 새끼 찰 생선 알은 잘 안 봐판. 베설에 {지름}, 알ㄴ튼 건 안 봐판.

14) 피곶

‘피곶’은 생선에 피가 엉키어 있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 빼부는 거 창지게. {피끗} 때불곡.

15) 비늘

‘비늘’은 물고기나 뱀 따위의 표피를 덮고 있는 얇고 단단하게 생긴 작은 조각을 말한다.

⇒ 이거 {비늘} 거시리는 거.

16) 배창지, 창지, 배설

물고기의 배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기관을 통칭하는 말. 표준어 ‘배창자’에 해당한다.

⇒ 배따는 거. {배창지} 내는 거.

⇒ 그 고긴 못 먹고 그 {창지}, 에리 {창지} 빼여긴에 우리 먹엇주기.

⇒ 새끼 찰 생선 알은 잘 안 봐판. {배설에} 지름, 알ㄴ튼 건 안 봐판.

17) 등

‘등’은 사람이나 동물의 몸통에서 가슴과 배의 반대쪽 부분을 말한다.

⇒ {등은} 그냥 {등.}

18) 등머리짱

‘등머리짱’은 표준어 ‘등골뼈’에 해당하는 말이다.

⇒ 이건 자리 {등머리짱}.

19) 뱃부기, 배때기

‘뱃부기, 배때기’는 배를 속되게 부르는 말이다. 표준어 ‘배때기’에 해당한다.

⇒ 퀘기 배보고 {뱃부기엔} 하지.

⇒ 창지 담아지는 딘 {배때기엔} 허주기.

20) 슬

‘슬’은 표준어 ‘살’에 해당하는 말이다.

⇒ 퀘기 {슬}.

21) 가시

‘가시’는 물고기의 잔뼈를 말한다.

⇒ 빨둥이멜 건 눈 빨롱허고 막 {가시가} 사근사근허영 안 먹는 거.

5.1.3. 상태

1) 몽탁허다

‘몽탁허다’는 끓어서 몽똥그려 놓은 것처럼 찝막하다는 말이다.

⇒ 덩부지 사발 머리빱 {몽탁헌} 거 싯저게.

2) 소랑허다

‘소랑허다’는 조금 기름하다는 의미다. 생선 모양이 기름한 모양을 말할 때 쓰는 어휘다.

⇒ 저 이 에리는 {소랑해가지고} 나 손 췌지 못 헐 정도로 헌 췌긴디 이만이 진 건디 것도 해낫 이 나까낫주기.

3) 녁작허다

‘냅작허다’는 관관하고 얇으면서 좀 넓다는 의미로, 가오리 모양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 가오리 ㄴ튼 거 흥어 ㄴ튼 거 췌기 막 {냅작허주}.

4) 깨는깨는허다

‘깨는깨는허다’는 가늘디 가늘다는 말이다. 뱀장어의 모양을 말할 때 사용한 어휘다.

⇒ 뱀장언 베염 ㄴ찌 {깨는깨근혜}.

5) 알롭다

‘알롭다’는 표준어 ‘얇다’에 해당하는 말이다.

⇒ 췌기도 뚜꺼운 건 뚜겹고 {알루는} 건 얇긴 얇아.

6) 훑다

‘훑다’는 표준어 ‘긫다’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훑은} 꼬막은 안 나도 요만씩헌 바지락 그거는 이디 막 하메.

7) 질다

‘질다’는 표준어 ‘길다’에 해당하는 말이다.

⇒ 저 이 에리는 소랑해가지고 나 손 췌지 못 헐 정도로 현 췌긴디 이만이 {진} 건디 것도 해낫 이 나까낫주기.

8) 쨌쨌허다, 존존허다

‘쨌쨌허다, 존존허다’는 크기가 자디잘다는 의미다.

⇒ 고도리 고등어 새끼엔도 허곡. {쨌쨌헌 것7라} 고도리.

⇒ 우럭에도 {존존헌} 생키우럭이 있어.

9) 휘다

‘휘다’는 ‘물속에 몸을 뜨게 하고 팔다리를 놀려 물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다’는 의미다. 표준어 ‘헤다’에 대응하는 말이다.

⇒ 들치엔 현 고기는 막 물 우의로 {휘곡} 놀곡 경허주.

10) 찼르다

‘찼르다’는 끝이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것으로 물체의 겉면이 뚫어지거나 쑥 들어가도록 세차게 들어밀다. 표준어 ‘찌르다’에 해당하는 말이다.

⇒ 난 바닷케긴 안 {찼러} 받.

11) 거멍허다

‘거멍허다’는 표준어 ‘거뭇다’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갯짱언 막 {거멍헌} 거 이만씩 현 거.

12) 헤양허다

‘헤양허다’는 표준어 ‘하얗다’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수커 알은 등창 떼영 보면은 {헤양헌} 미리알 그거.

13) 노랑허다

‘노랑허다’는 표준어 ‘노랗다’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껌데기가 {노랑헌} 노랑복 그 복쟁이가 없어.

14) 빨강허다

‘빨강허다’는 표준어 ‘빨강다’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빨강헌} 것도 싣고

15) 까실까실허다

‘까실까실허다’는 살결이나 물체의 거죽이 아주 보드랍지 못하고 깔깔하거나 몹시 깔깔하다는 말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의 까실까실의 뜻풀이 가운데, ‘까실까실’을 까슬까슬의 잘못으로 되어 있는 것은 ‘까슬까슬’의 제주방언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 뽕룽이멜은 눈 뽕룽허곡 껌데기가 막 {까실까실헌} 거.

16) 또락또락, 토락토락

‘또락또락, 토락토락’은 생선의 살 따위가 무르지 않고 탄력이 있다는 말이다.

⇒ 춤고등에는 이만씩 크고 술이 {또락또락} 맞셔.

⇒ 비계는 살이 {토락토락하고} 상어는 물르고.

17) 성허다

‘성허다’는 채소나 과일, 생선 따위가 싱싱하다는 의미다.

⇒ 막 {성헌} 꿩기게 그거 또 우럭 비슷헤도 막 가시 경 왕상헌 거.

18) 무리다

‘무리다’는 열과 습기로 말미암아 떠서 상하다는 의미다.

⇒ 고등어죽 이제 고등어 그 거세기 썩고등어든 이제 간 헌 거든. {무린} 걸랑 허지 말라.

19) 물르다

‘물르다’는 고깃살이 단단하지 않고 무르다는 의미다. 표준어 ‘무르다’에 해당한다. 《표준국어대사전》의 ‘무르다’의 잘못은 제주방언으로 고쳐야 한다.

⇒ 지름각제기. 그런 건 흥뽀 술이 {물르곡} 맛도 덜허곡.

20) 미랑미랑허다

‘미랑미랑허다’는 생선의 살 따위가 단단하지 않고 무르디 무르디라는 의미다.

⇒ 지름고등에는 술 흠뻑 {미랑미랑허곡} 색깔이 쪼끔 틀려.

21) 밀락허다

‘밀락허다’는 생선의 살이 단단하지 못하고 무르디라는 의미다.

⇒ 지름고등엔 꿩 못 먹어 술 {밀락허영}.

22) 뽕룽허다

‘뽕룽허다’는 눈알이 크고 번쩍 뜨다는 의미다. 다른 지역에서는 ‘뽕룽허다’라고 말한다.

⇒ 뽕룽이뽕 건 눈 {뽕룽허고} 막 가시가 사근사근허영 안 먹는 거.

23) 사락사락허다

‘사락사락허다’는 고기의 알이 하나씩 떨어질 듯이 떨어져 있다는 의미다.

⇒ 불그스름허여근에 이제 {사락사락헌} 거는 그거는 이제 붉은알이렌 허곡.

24) 왕상허다

‘왕상허다’는 표준어 ‘왕성하다’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그거 또 우럭 비슷해도 막 가시 경 {왕상헌} 거.

25) 핏독

‘핏독’은 생선의 살 부분에 피가 엉켜 있는 것을 말한다.

⇒ 그물코에 꿩기 끼어나민 하루 지나민 그뭇이 나요. {핏독} 올라서 별경허지.

5.1.4. 냄새

1) 늘래

‘늘래’는 바닷고기 따위에서 나는 비린 냄새를 말한다. 표준어 ‘비린내’에 해당한다.

⇒ 생선은 경 {늘래} 안 나.

2) 늘레나다

‘늘레나다’는 바닷고기 따위에서 비린내가 나다는 의미다.

⇒ 비린내게 {늘레남젠}.

3) 진독내

‘진독내’는 옥돔 따위의 생선에서 나는 독한 냄새다. 여름철에 옥돔 가운데 독한 냄새가 나는 것이 있는데, 이를 ‘진독내’라고 한다.

⇒ 생성 저 {진독내} 나는 거, 냄새 나는 것이 있어. 건 못 먹어. 사름 ㄱ트민 옛날에 암내 그런 거 닮아. 어평허당 하나 있어.

5.1.5. 단위

1) 머리

‘머리’는 짐승이나 물고기, 벌레 따위를 세는 단위다. 표준어 ‘마리’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갈치 흐루 나깡 혼 서른 {머리}, 마흔 {머리}, 쉬은 {머리} 나까도 돈은 못 벌언게.

2) 꿩미

‘꿩미’는 생선의 묶음을 세는 단위다. 생선 3마리가 한 꿩미다.

⇒ 생선 세 머리가 혼 {꿩미거든}.

3) 뭇

‘뭇’은 생선의 묶음을 세는 단위다. 한 뭇은 생선 10마리를 말한다.

⇒ 생선 열 머리가 혼 뭇.

5.1.6. 미끼

1) 니깍

‘니깍’은 표준어 ‘미끼’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고등언 이 바당에 나른 거 근질럿당 우리 생선주낫에도 물큰 거 근질럿당 {니깍허곡게}.

2) 갈게수리, 갈게시리

‘갈게수리, 갈게시리’는 갯지렁이 한 종류다. 갯지렁이보다 크고 길다.

- ⇒ {갈게수리도게} 돌 소곱게 박아진 거 물에도 막 하메.
- ⇒ 퀘기 나끄는 니줍 갈게시리.

3) 갈기, 게수리, 준게수리

‘갈기, 게수리, 준게수리’는 갯지렁이과의 환형동물. 몸의 길이는 5~12cm이며, 지렁이와 비슷한데 납작하다. 환절(環節)이 있고 그 양쪽에는 강모가 돋는 기관이 있다. 낚싯밥으로 쓰며 바닷가 진흙 속에 산다. ‘준게수리’는 ‘갈게수리’가 길고 큰 것에 대비해서 작아서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한다.

- ⇒ 구물로 잡아낸 것이 아니고, 낙수로 퀘기 허문 그 이제 미긴 뭐이냐 허민 {갈기}.
- ⇒ 갈기는 {게수리}.
- ⇒ 벤자리도 옛날은 {준게수리로} 나끄곡 큰 갈게수리엔 현 건 손바닥 현 거 이만씩 진 거 나오주게.

5.1.7. 손질 행위

1) 비늘 거시리다

‘비늘 거시리다’는 생선의 비늘을 칼로 손질하여 없애다는 의미다.

- ⇒ 칼로게 {비늘 거시렁} 영 그 아가미 빼여똥 게여근에 칼로 영 벵강 계긴에 소곱 헤긴에 소금 맞추왕 허문 맛 존 생성도 잇고 너미 짜게 허문 흐뎡 짜곡게.



[사진 30] 비늘 거시리다

2) 고기 카다

‘고기 카다’는 생선의 배를 갈라 창자 등을 빼내다는 의미다.

- ⇒ 생성 비늘 거시렁 {고기 캉} 소곱 헛당 물리는 거지.

3) 배따다, 베카다

‘배따다, 베카다’는 생선의 배를 갈라 창자 등을 빼내다는 의미다. 달리 ‘고기 카다’라고 한다. ‘배따다’를 ‘배타다’라고도 한다.

- ⇒ 생선 지속으로도 {베땅} 물령은에 풀고.
- ⇒ 칼로게 비늘 거시령 영 그 아가미 빼여뒹 게여근에 칼로 영 {베강} 계긴에 소곰 헤긴에 소곰 맞추왕 허믄 맛존 생성도 있고 너미 짜게 허믄 흐뎡 짜곡게.

4) 카다

‘카다’는 생선의 내장을 빼내기 위하여 생선의 배를 양쪽으로 열어젖히다는 의미다.

- ⇒ 생선 잡양오민 집에서 {카서} 널영 물려 갖고 지속으로도 쓰곡 풀기도 허곡.

5) 근질르다

‘근질르다’는 생선을 소금에 절이다는 의미다. ‘근’은 간을 말하고, 지르다는 저리다는 의미로 쓰였다.

- ⇒ 고등언 이 바당에 나믄 거 물큰 {근질러당} 우리 생선주낫에도 니껌허곡게.

6) 근허다

‘근허다’는 생선, 채소 따위를 소금에 절이다는 의미다. 표준어 ‘간하다’에 해당한다.

- ⇒ 조기 막 소금 {근허영은에} 먹을 땀 그거 물에 둥그멍 우리 먹어낫주게.

7) 둥그다

‘당그다’는 물에 담그다는 뜻이다. 표준어 ‘잠그다’에 해당하는 제주어다.

- ⇒ 조기 막 소금 근허영은에 먹을 땀 그거 물에 {둥그멍} 우리 먹어낫주게.

8) 물리다

‘물리다’는 표준어 ‘말리다’의 의미다.

- ⇒ 생선 잡양오민 집에서 카서 널영 {물려} 갖고 지속으로도 쓰곡 풀기도 허곡.

5.2. 조개류

5.2.1 종류

1) 조쟁이

‘조쟁이’는 표준어 ‘조개’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집 짓으멍 보난 대엽조갱이라. 대엽이영 전복 닥살도 싯곡. 즈물아나서. 잇날 아니라도 먹는 {조갱이} 풀아.

2) 대엽조갱이, 대엽

‘대엽조갱이, 대엽’은 표준어 ‘대합’을 가리키는 말이다.



[사진 31] 조갱이

⇒ 집 짓으멍 보난 {대엽조갱이}라. 대엽이영 전복 닥살도 싯곡. 즈물아나서.

3) 새조개

‘새조개’는 새조갯과의 연체동물을 말한다.

⇒ 대엽조강이 허곡 이제 저 {새조개} 허곡.

4) 꼬끼리조강이

‘꼬끼리조강이’는 조개의 일종이다. 모양이 꼬끼리 꼬 모양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꼬끼리조강이} 허곡 또 이제 꺼멍조강이.

5) 뭇굽조개

‘뭇굽조개’는 조개의 일종이다. 조개 모양이 말 발톱 닮아 붙여진 이름이다.

⇒ {뭇굽조개엔} 현 건 말 발톱 닮아. 터럭 바위에 가망케 나곡 동글락허여.

6) 합제

‘합제’는 홍합과의 조개를 말한다. 표준어 ‘섭조개’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홍합이렌 허여. 저 거세기 {합제} 비슷헤도 쥬쥬현 거.

7) 흥합

‘흥합’은 홍합과의 조개를 말한다.

⇒ {흥합이렌} 허여. 저 거세기 합제 비슷헤도 쥬쥬현 거.

8) 군벗

‘군벗’은 표준어 ‘군부’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 터럭군부 싯고 보통 {군벗} 잇고. 영 거찌믄 움짱 들어가는 하래비군붓이엔 현 거 싯고.

9) 터럭군부

‘터럭군부’는 표준어 ‘털군부’에 해당하는 제주어다.



[사진 32] 군벗

- ⇒ {터럭군부} 싯고 영 거찌믄 움짱 들어가는 하래비군붓이엔 현 거 싯고.

10) 하래비군붓

‘하래비군붓’은 군부의 일종이다.

- ⇒ 터럭군부 싯고 영 거찌믄 움짱 들어가는 {하래비군붓이엔} 현 거 싯고.

11) 굴

‘굴’은 표준어 ‘굴’을 말한다.

- ⇒ {굴} 저 바닷속에 나근에 영 꿩 찍영 먹는 거 그런 거 이십네다.

12) 오분자구

‘오분자구’는 전복과 비슷하나 전복보다 작다. 껍데기에 뚫린 숨구멍은 전복보다 많다. 《표준국어대사전》의 딱조개와는 다르다.

- ⇒ {오분자구도} 트곡 구살도 트곡 메역도 허곡. 우미도 허곡.

13) 점복, 줌복, 줌복

‘점복, 줌복, 줌복’은 표준어 ‘전복’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 해삼은 그냥 해삼. {점복은} 벨로 없어.
- ⇒ {줌복허고} 해삼은 지픈디 나. 옛날 모살통에 지픈 디 나. 우리 배물질 가났저.
- ⇒ {줌복은} 영덕에 이런 돌 밑에 부트곡.

14) 암침복, 수침복, 머들줌복

‘암침복’은 전복의 암컷, ‘수침복’은 전복의 수컷을 말한다. ‘암침복’은 색이 희멀건한 편이며, 둥글고 모양이 납적한 것이 특징이고, ‘수침복’은 거무스레하고 살쨍서 뭉툭한 편이다. ‘머들줌복’은 전복이 돌무더기 따위의 ‘머들’에 붙어서 사는 종류다.

- ⇒ {암침복} 싯곡 수침복 싯곡.
- ⇒ {머들즙복이엔} 현 건 눈이 버롱어곡 왕눈이 닳은 거 이런 돌 우의 머들에부더.

5.2.2 행위

1) 파다

‘파다’는 안에 있는 파내다는 의미다.

- ⇒ 조강이 손으로 {파는} 거.

2) 올다

‘올다’는 껍질 속에 들어 있는 알맹이 따위를 꺼내다는 의미다.

- ⇒ 보멸 {올양} 먹으라. 즐아도 슬지난 먹을 만허다.

3) 트다

‘트다’는 돌에 붙어 있는 전복이나 오분자기 따위를 떼어 내다는 의미다. 전복을 돌에서 떼어내는 것을 ‘점복 트다’, 오분자기를 떼내는 것을 ‘오분자기 트다’라고 말한다.

5.2.3. 상태

1) 까릿까릿까릿

‘까릿까릿까릿’은 모양이 기름하면서도 툽니바퀴가 있는 것처럼 오돌토돌한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민들레 이파리 모양이다.

- ⇒ 새조개는 이제 또 {까릿까릿까릿} 헤여근에 흐꿈 영.

2) 옴팍허다

‘옴팍허다’는 가운데가 좀 들어가 오목하다는 의미다.

- ⇒ 오갈은 베말거찌 까망은 아녕은에 색깔은 몹아도 베말 비슷한 헤도 이거는 {옴팍허고} 즐아.

3) 부트다

‘부트다’는 들이닿아서 떨어지지 않다는 의미다. 표준어 ‘붙다’에 대응하는 말이다.

- ⇒ 돌에 {부튼} 거 중에 그 무신 것고 영 뽀쪽허게 이신 거.

4) 뽀족허다

‘뽀족허다’는 물체의 끝이 점차 가늘어져서 날카롭다는 의미다.

⇒ 돌에 {부튼} 거 중에 그 무신 짓고 영 뽀족허게 이신 거.

5) 동글락허다

‘동글락허다’는 표준어 ‘동그랗다’는 의미다.

⇒ 물콧조개엔 현 건 말 발톱 닮아. 터럭 바위에 가망케 나곡 {동글락허여}.

5.3. 고동류

5.3.1. 종류

1) 보멸, 보말

‘보멸, 보말’은 고동에 해당하는 제주어다.

⇒ {보멸도게} 먹보말 짓고 수두리보말 짓고.

2) 수두리, 수두리보말

‘수두리, 수두리보말’은 조간대 돌에 붙어 사는 고동이다. ‘두드럭고동’을 말한다. 달리 ‘바당 수두리’라고 있는데, 이는 모양은 ‘수두리’와 비슷해도 바다 속에 살며 크기가 크다.

⇒ 보말은 먹보말 {수두리} 그거주게.

⇒ 보멸도게 먹보말 짓고 {수두리보말} 짓고.

3) 문닥지, 문데기

‘문닥지, 문데기’는 조간대 중간층에 서식하는 패류로, 표준어 ‘눈알고동’을 말한다.

⇒ {문닥지도} 잇고. 당뇨병 약에 허멍 헤양허여난디. 우린 몰랏주게.

⇒ 구제기딱지궂짜 딱딱헌 딱지 신 거 그것궂라 {문데기}.



[사진 33] 문닥지

4) 코트데기, 곰생이보말

‘코트데기, 곰생이보말’은 조간대 중간층에 서식하는 고동으로, 남방울타리고동을 말한

다. ‘코트데기’는 깔 때 껍질이 잘 뜯어져서 붙여진 이름이고, ‘곰생이보말’은 바닷가인 ‘곰’에 살면서도 크기가 작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 ⇒ 젼젠헌 보말은 그것ᄇ란 올라가ᄇᄇ 영 코 톤아져게 계난 {코트데기엔} 허곡.
- ⇒ 이제 {곰생이보말} 잇곡 문닥지엔 헌 보말 잇고.

5) 오갈

‘오갈’은 바닷가 조간대 돌에 붙어 사는 패류의 한 종류. 아기삿갓조개인 ‘베말’ 보다 작다.

- ⇒ {오갈은} 베말거찌 까망은 아녕은에 색깔은 몹아도 베말 비슷한 헤도 이거는 움팍허고 즐아.

6) 베말

베말은 바닷가 조간대 돌에 붙어 사는 패류의 일종이다. 표준어 ‘아기삿갓조개’를 말한다.

- ⇒ {베말은} ᄇᄇ 동글동글 요 돌에 영 부트는 거 까망헌 거.

7) 구쟁기

‘구쟁기’는 참소라를 말한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소라’와는 모양이 다르다.



[사진 34] 구쟁기

- ⇒ {구쟁기는} 쌀구쟁기 싯고 이제 쌀 엇영 문드글락헌 거 문둥구쟁기.

8) 쌀구쟁기

‘쌀구쟁기’는 껍질에 돌기가 돋은 성숙한 소라다. ‘쌀’은 껍질에 돋은 돌기를 말한다.

- ⇒ 구쟁기는 {쌀구쟁기} 싯고 이제 쌀 엇영 문드글락헌 거 문둥구쟁기.

9) 문둥구쟁기

‘문둥구쟁기’는 껍질의 돌기가 닳아 없어진 성숙한 소라를 말한다.

- ⇒ 구쟁기는 쌀구쟁기 싯고 이제 쌀 엇영 문드글락헌 거 {문둥구쟁기}.

10) 조쿠쟁기

‘조쿠쟁기’는 어린 소라를 가리키는 말이다. ‘조-’는 작다는 의미의 접두사다.

⇒ 쪼꼬만 흰 건 이제 저 {조쿠쟁기}.

5.3.2. 부분명칭

1) 짝

‘짝’은 고동의 짚을 때 똥부분을 일컫는 말이다.

⇒ 보멸은 {짝이} 지치든 좋아들명 비삭비삭허주게. {짝이} 검은 거 맛 웃어.

2) 검은짝

‘검은짝’은 고동의 똥 가운데 거무스레한 똥을 가리키는 말이다.

⇒ {검은짝} 앞세보단 더 슬져신게. 보멸이 막 더 슬져서.

3) 장군

‘장군’은 소라의 살을 덮고 있는 뚜껑을 가리키는 말이다.

⇒ {장군이엔도} 허곡 구제기딱지엔도 허곡.

5.3.3. 상태

1) 슬지다

‘슬지다’는 표준어 ‘살찌다’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보멸은 {슬지믄} 잘 나오주게. 짝 그차지지 아녀고.

2) 읊다

‘읊다’는 살이 통통하게 여물다는 의미다.

⇒ 보멸 즌 것도 잡아오난 문딱 읊앗저.

3) 문드글락허다

‘문드글락허다’는 표면이 거칠지 않으면서도 크고 뭉툭하다는 의미다.

⇒ 구쟁기는 쌀구쟁기 싯고 이제 쌀 엇엉 {문드글락헌} 거 문둥구쟁기.

5.4. 게류

5.4.1. 종류

1) 긍이, 갱이

‘긍이, 갱이’는 표준어 ‘게’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 긍이껍데기 {긍이} 등창이렌 허여.
- ⇒ {갱이} 잡아간에 그때 궤기허믄 벤자린 혼 마은 머리 백 머리 그렇게도 잡고.



[사진 35] 갱이

2) 거드레기

‘거드레기’는 표준어 ‘소라게’를 뜻하는 제주어다.

- ⇒ 놈의집 들어강 사는 거난 {거드레기}. 집 웃인 {거드레기}.

3) 춤궁이

‘춤궁이’는 표준어 ‘참게’를 말한다.

- ⇒ {춤궁이엔} 현 거게 그 아래 가믄 풋갱이렌 허곡 그런 거 춤갱이 있어.

4) 풋궁이

‘풋궁이’는 아주 작은 게를 말한다. 알이 팔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 {풋궁이엔} 현 거 알도 풋거찌 베는 거 있어.

5) 지름콩이

‘지름콩이’는 조간대 상층에 서식하는 게의 일종이다.

- ⇒ 긍이도 {지름콩이도} 있어나고 노랑현 건 {지름콩이}. 얼룩얼룩허영은에 발발 기는 것ᄇ란 바룻콩이엔 허고.

6) 장콩이

‘장콩이’는 게의 일종이다. 자갈하여 짓갈을 담가서 먹는다.

- ⇒ 짓갈 닦양 먹는 긍이ᄇ란 쟈쟈현 거 {장콩이엔} 허고.

7) 바룻콩이

‘바룻콩이’는 바닷 게의 일종이다. 등껍질에 얼룩얼룩한 문양이 있다.

- ⇒ 공이도 지름콩이도 있어나고 노랑현 건 지름콩이. 얼룩얼룩허영은에 발발 기는 것그란 {바룻콩이엔} 허고.

8) 펼깁이

‘펼깁이’는 빨에 나는 게를 말한다. 표준어 ‘펼게’에 해당하는 말이다.

- ⇒ {펼깁인} 펼 잇는디 문 셔나서. 고망 브롱브롱헤나서. 사위 도 셔나서. 이제도 신디 몰라. 평랑물이 죽은 물이라.



[사진 36] 어강발

5.4.2. 부분명칭

1) 어강발

‘어강발’은 게의 집게말을 말한다.

- ⇒ 눈도 싯곡 입도 싯곡 허난 다 툃아떡업주게. {어강발로} 줍아 떡곡게.

2) 등창

‘등창’은 게의 등껍질을 말한다.

- ⇒ 공이꺽테기 공이 {등창이렌} 허여.

5.5. 오징어류

5.5.1. 종류

1) 오징어

‘오징어’는 연체동물 두족강 갑오징어목과 살오징어목의 일부 종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 ⇒ 이제 돔 잡젠 허른 {오징어}, 덩장에서 곧 거려온 거 요만씩 썰어도 경 돔 물더라.

2) 한치, 한치오징어, 춤오징어

‘한치, 한치오징어’는 제주 바다에서 많이 잡히는 오징어다. 달리 ‘춤오징어’라고도 하는데, ‘화살오징어’를 말한다.

- ⇒ 유월달부터는 {한치} 따치 방어. 또 각제기 갈치 그런 어종이 십일월달까지 나는 거주.
- ⇒ 한치 이것 ㄹ라 {춤오징어엔}.

3) 갑오징어

‘갑오징어’는 등에 하얀 심이 박혀 있는 오징어다.

- ⇒ {갑오징어} 등뺑이에 영 꺾테기 신 거.

4) 강원도오징어

‘강원도오징어’는 강원도에서 주로 잡히는 크기가 큰 오징어를 일컫는 말이다.

- ⇒ {강원도오징어는} 귀가 크쥬.

5) 물오징어, 미스이까

‘물오징어, 미스이까’는 오징어의 한 종류. 흰빛을 띤 크기가 큰 오징어를 일컫는다. 일본어로 ‘미스이까’라고 한다. 미스이까를 말하는 물오징어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생오징어와는 의미가 다르다.

- ⇒ 스월달에는 {물오징어} 주로. {물오징어가} 한 유월달까지 납니다.

6) 무꾸럭

‘무꾸럭’은 표준어 ‘문어’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 {무꾸럭} 툄린 거 그거 영 췌영 췌여가지고 생성 미끼 니꺾 쓴 거.

7) 낙지

‘낙지’는 문어과의 하나. 여덟 개의 발이 있고 거기에 수많은 빨판이 있다. 낙지 머리를 ‘낙지 창둥이’라고 부른다.

- ⇒ {낙지} 철은 ㄹ을 때에 나곡 봄에 나곡 건 아무 때나 싯는 거.

5.6. 기타 어획물

5.6.1. 종류

1) 베체기

‘베체기’는 표준어 ‘거북손’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2) 해슴, 미

‘해슴, 미’는 표준어 ‘해삼’을 말한다.

⇒ {해슴ㄹ란게} {미엔} 허주게. {미}.

3) 난미

‘난미’는 먹을 수 없는 해삼을 말한다. 해삼 비슷해도 길이가 긴 게 특징이다.

⇒ 먹지 아녀는 미 {난미엔} 헨 거 있어. 미 닳은 거라도 이만씩 질어.

4) 거북이, 거북체시

‘거북이, 거북체시’는 표준어 ‘거북’을 말한다. ‘거북체시’는 거북이를 신성한 동물에 인식해서 붙인 말로, 함부로 건들지 않는다고 한다.

⇒ {거북}은 이제 저 바다사자엔 허는 거. {거북체시렌} 곶아. 경허난 거북인 흙불로 안 건드려.

5) 미실

‘미실’은 표준어 ‘해파리’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해파리 이디션 저 {미실}.

6) 물미주리, 물문주리

‘물미주리, 물문주리’는 표준어 ‘말미잘’에 해당하는 제주어다.



[사진 37] 물미주리

7) 멍게, 돌멍게

‘멍게’는 멍게과에 딸린 원생동물을 말한다. ‘돌멍게’는 표면이 돌처럼 딱딱한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 {돌멍게} 그거 저 진짜 {멍게가} 아니지.

8) 고녕이할미

‘고녕이할미’는 비양도에서 ‘불가사리’를 지칭할 때 부르는 이름이다.

⇒ 불가사리 영 다리 까릿까릿헌 돌에 기어헿기는 거 심어오민 {고녕이할미} {고녕이할미} 헤나서.

9) 사위

‘사위’는 표준어 ‘새우’에 해당하는 제주어다.

⇒ 펼강인 펼 잇는디 문 셔나서. 고망 브롱브롱헤나서. {사위도} 셔나서.

10) 구살, 붉은구살, 꺼문구살

‘구살’은 표준어 ‘성게’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붉은 색을 띠는 성게를 ‘붉은구살’, 검정 색을 띠는 성게를 ‘꺼문구살’이라고 부른다.

⇒ {구살은} 저 알 싸불른 못떡어게.
⇒ 이제 구살은 {붉은구살} 싯고 {꺼문구살} 싯고.

11) 슝

‘슝’은 표준어 ‘말뚱성게’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슝} 알이 구살 알보다 더 진허여.

5.7. 해조류

5.7.1. 종류

1) 메역

‘메역’은 표준어 ‘미역’의 제주어다.

⇒ 오분자구도 트곡 구살도 트곡 {메역도} 허곡. 우미도 허곡.

2) 돌메역

‘돌메역’은 바다 속 바위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는 미역. 양식 미역인 ‘줄메역’에 대비해서 이르는 말이다.

⇒ 먹는 메역은 게 저 {돌메역게}.

3) 다실메역

‘다실메역’은 표준어 ‘다시마’에 대응하는 말이다.

⇒ {다실메역은} 이제 그 깊은 바당에 싯는 거.

4) 뭍, 뭍짱

‘뭍’은 표준어 ‘모자반’에 대응하는 말이다.

- ⇒ {뭍은} 비양도 {뭍이} 쫄 좋아.
- ⇒ 비끼는 이제 저 거죽이 더 두껍고 얼룩얼룩허곡 땅에만 부뜨곡 {뭍짱} 아래만 사는 거.

5) 춤뭍

‘춤뭍’은 모자반의 일종. 먹을 수 있는 모자반이다.

- ⇒ 이 비양도 {춤뭍} 옛날 상당히 좋아난 섬이여.

6) 주뭍

‘주뭍’은 모자반의 일종이다. 지역에 따라서 ‘쥐뭍’이라고 한다.

- ⇒ 뭍도 춤뭍 싹고 실갱이뭍 노랑쟁이 싹고 {주뭍} 싹고.

7) 실갱이뭍

‘실갱이뭍’은 모자반의 일종으로 거름용으로 쓴다.

- ⇒ {실갱이뭍이엔} 푸글레기 이만큼씩 으는 거는 걸름 뉘.

8) 노랑쟁이

‘노랑쟁이’는 표준어 ‘팽생이모자반’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거름용 해초다.

- ⇒ 뭍도 춤뭍 싹고 실갱이뭍 {노랑쟁이} 싹고 주뭍 싹고.



[사진 38] 노랑쟁이

9) 갑쌀뭍, 고지기뭍

‘갑쌀뭍’은 거름용 해초의 일종이다. 달리 ‘고지기뭍’이라고 한다.

- ⇒ {갑쌀뭍이엔} 정각 폐기ㄴ찌 크지 아녕 물 아래만 싹는 거 있어.
- ⇒ {고지기뭍} 이제 그런 것ㄴ라 갑쌀뭍이엔 허는 거고.

10) 툷

‘툷’은 갈조류 모자반과의 해초다. 무쳐 먹거나 냉국을 해서 먹는다.

⇒ 우리 비양도선 해마다 {툃} 헤연 살암주.

11) 우미, 천초

‘우미’는 표준어 ‘우뭇가사리’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천초도} 이제 건 {우미렌} 허주.

12) 돌우미

‘돌우미’는 우뭇가사리의 일종. 바닷가 바위 위에 자라나는 자잘한 우뭇가사리를 말한다.

⇒ 이제 막 복삭허게 돌에 부땡 나는 것ᄇ라 돌우미.

13) 감태

‘감태’는 갈조류(褐藻類)의 해초를 말한다.

⇒ 감태 허영 한글힘이랑 말앙.

14) 정각, 청각

‘정각, 청각’은 표준어 ‘청각채’를 말한다.

⇒ 옛날 속곳 입영 물적삼이나 셔시냐? 속곳만 입어근에 달달달달 떨어근에 불추어근에 오명 미역 즈물곡 이제 {정각} 즈물곡.



[사진 39] 정각

15) 돌청각

‘돌청각’은 청각의 일종. 먹지 않는다.

⇒ {돌청각} 건 안 먹는 거 또 이제 물청각 이만씩 지는 거.

16) 물청각

‘물청각’은 청각의 일종. 청각의 길이가 길다.

⇒ 돌청각 건 안 먹는 거 또 이제 {물청각} 이만씩 지는 거.

17) 프레

‘프레’는 표준어 ‘파래’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이제 그냥 {프레도} 싣고 김프레엔 현 거 똑 짐 색깔ㄴ찌 비슷한 {프레도} 셔나고.

18) 춤프레

‘춤프레’는 파래의 일종이다. 먹을 수 있는 파래다.

⇒ {춤프레} 이제 오염돼연 그런 것도 있어. 가시리도 엇곡.

19) 김프레

‘김프레’는 파래의 일종이다. 색깔이 김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이제 그냥 프레도 싣고 {김프레엔} 현 거 똑 짐 색깔ㄴ찌 비슷한 프레도 셔나고.

20) 금이프레, 강이프레

‘금이프레, 강이프레’는 파래의 일종. 게가 먹는 파래란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 {금이프레} 안 먹어.

⇒ 먹보말이난 몸 ㄴ튼 거 하근 바당에 거 {강이프레} ㄴ튼 거 먹엄주게.

21) 가시리

‘가시리’는 표준어 ‘풀가사리’를 말한다.

⇒ 춤프레 이디 셔? 이제 오염돼연 그런 것도 있어. {가시리도} 엇곡.

22) 돌카시리

‘돌카시리’는 풀가사리의 일종이다.

⇒ 그거 영 까실까실현 거 이런 {돌카시리} 잇고 춤가시리 무신 것도 잇고.

23) 춤가시리

‘춤가시리’는 풀가사리의 일종.

⇒ 그거 영 까실까실현 거 이런 돌가시리 잇고 {춤가시리} 무신 것도 잇고.

24) 바당풀

‘바당풀’은 바다에서 자라는 풀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 {바당풀} 하근 것이 다 돈 나난 이젠 엇어.

25) 짐

‘짐’은 표준어 ‘김’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김포레엔 현 거 똑 {짐} 색깔ㄴ찌 비슷한 프레도 셔나고.

26) 돌짐

‘돌짐’은 표준어 ‘돌김’에 해당하는 이름이다.

⇒ 짐 돌에 막 나른 {돌짐} 낫젠.

27) 도박, 메역구두리

‘도박’은 붉은말에 딸린 바다에 나는 풀. 붉은 자줏빛의 가죽 조각 같고 마르면 자줏빛이 되는데, 풀이나 점착제를 만드는 재료로 쓰인다. 달리 ‘메역구두리’라고 한다.

⇒ {도박은} 똑 구두리 닳은 거라도 도박 잇어.

⇒ 제주도서 것ㄴ라 {메역구두리렌} 우린 곱아나고 육지 사름덜은 것ㄴ라 도박이엔 해난.

28) 구두리

‘구두리’는 붉은말의 한 종류다.

⇒ 도박은 똑 {구두리} 닳은 거라도 도박 잇어.

29) 메역세

‘메역세’는 표준어 ‘미역쇠’에 대응하는 말이다.

⇒ {메역세는} 딱로 나는 거 메역겨찌.

30) 폐

‘폐’는 해초류의 일종이다. 구황식물의 한 가지다. ‘괘’에 해당한다.

⇒ {괘에} ㄴ찌 부평 나는 거 이제 저 넘피엔 현 것도 쇧곡.

31) 넘피

‘넘피’는 표준어 ‘넙패’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폐에 ㄹ찌 부땡 나는 거 이제 저 {넘피엔} 현 것도 싯곡.

5.7.2. 부분명칭

1) 몰그리

‘몰그리’는 미역 따위의 해초류의 줄기를 말한다.



[사진 40] 넘피

⇒ 메역 이제 {몰그리엔} 허는 사름 줄기렌 허는 사름 싯곡.

2) 메역귀

‘메역귀’는 표준어 ‘미역귀’를 말한다.

⇒ {메역귀도} 먹주게.

3) 푸글레기

‘푸글레기’는 모자반 따위의 해조류에 있는 공기주머니를 일컫는 말이다.

⇒ 실갱이뭉이엔 {푸글레기} 이만큼씩 으는 거는 걸름 놔.

5.7.3. 상태

1) 트박트박허다

‘트박트박허다’는 풀이나 나무 따위가 여기저기 아주 탐스럽게 소복하다는 의미다.

⇒ 우미도 막 풀이파리ㄹ찌 {트박트박헌} 거 싯곡 또 돌에 막 즐게 부튼 우미가 잇어.

2) 발래다

‘발래다’는 우뭇가사리 등에 물을 뿌려 색깔이 바래게 하다는 의미다.

⇒ 우미 퍼렁헌 건 {발랜} 거라.

3) 근피다

‘근피다’는 미역이나 모자반 따위가 햇볕을 받아서 소금기가 피다는 의미다.

⇒ 메역 {근피믄} 아이고, 시세 좋켜. 옛날 할망덜.

5.7.4. 행위

1) 메다

‘메다’는 과래 따위를 돌에서 뜯어낼 때 쓰는 말이다

⇒ 프렌 므른밧되서 {메는} 거.

2) 근다

‘근다’는 갈퀴 따위로 널어진 물건을 긁어 모으다는 의미다. 표준어 ‘긁다’에 해당한다.

⇒ 다실메역은 이제 그 깊은 바당에 씻는 거. 우리 즈물고 막 까쿠리로 {근영} 풀아난.

3) 비다

‘비다’는 표준어 ‘베다’에 해당하는 말이다.

⇒ {비여사} 뉘는 거는 다 호미로 허주.

어휘물과 관련하여 조사한 어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어휘물	조사 어휘
물고기	가라지, 가오리, 가을갈치, 각제기, 갈치, 감팍우럭, 갯돔, 객주리, 고도리, 근고 등에, 광어, 구룻, 까칠복, 꽃멜, 쫘치, 노랑복, 노랑참복, 늘치, 다금바리, 덤부지, 도랭이, 도롱이, 들치, 돔, 따치, 멍치, 멜, 물복, 물뚝, 밀복, 방어, 백상어, बे기베기, 벤자리, 브들레기, 복쟁이, 볼락, 봄갈치, 붉바리, 비계, 붉은볼락, 삼치, 상어, 생키, 생키우럭, 생성, 생선, 솔치, 승어, 십이가스, 아까반어, 아나고, 양반고기, 어랭이, 예리, 예여리, 여름갈치, 우럭, 자리, 잡어, 잣방어, 졸복, 참복, 청상어, 콜생이, 히라스, 히라지, 알자리, 횃자리, 불볼락, 핵세기, 코생이, 뺑어돔, 고주워, 달치, 달고기, 돔, 황돔, 감은돔, 대갈치, 대생선, 대생성, 빠이룻, 소갈치, 소생성, 쟈헨허다, 죽은고등어, 존즌허다, 중갈치, 중고등어, 중생선, 중생성, 질다, 고등어, 켜다, 물다, 휘다, 야드, 늘래, 진독내, 켜미, 머리, 뭇, 몽탁허다, 소랑허다, 구생이, 꺾데기, 풀랑지, 노랑알, 늘게, 늘게기, 베설, 벳부기, 빼다구, 지름, 창지, 피끗, 하얀알, 데가리, 등머리짱, 비늘, 배창지, 좁쌀알, 헤양허다, 눈깔, 머리뺍, 까실까실허다, 깨는깨는허다, 또락또락, 무리다, 물르다, 미랑미랑허다, 밀락허다, 뺑룻허다, 사락사락허다, 쟈고등어, 왕상허다, 찢르다, 토락토락, 핏독, 활어, 노랑허다, 고기 카다, 근질르다, 근허다, 등그다, 물리다, 배따다, 베카다, 비늘, 거리시라, 카다, 거멍허다
조개.고동류	조쟁이, 까룻까룻까룻, 움팍허다, 검은깍, 깍, 슬지다, 움다, 구쟁기, 군벗, 먹보말, 베말, 수두리, 오갈, 줌복, 터럭군부, 하래비군부, 합제, 홍합, 문닥지, 대엽조쟁이, 대엽, 먹보말, 오분자구, 문대기, 거쩌다, 올다, 가치다
해조류	감태, 넘피, 돌청각, 메역세, 물린메역, 물청각, 뭍짱, 미역, 정각, 춤뭍, 툷, 폐, 뭍, 갱이프래, 춤프래, 가시리, 메역, 우미, 바당풀, 냅작냅작, 냅작냅작, 물그리, 메역귀, 폐기, 푸글레기, 트박트박허다, 널다, 근다, 비다, 트다
기타	강원도오징어, 물오징어, 미스이까, 오징어, 한치, 구살, 해습, 사위, 갱이, 꿩갱이,

6. 민속

6.1. 고사

6.1.1. 종류

1) 고사

‘고사’는 액운(厄運)은 없어지고 풍요와 행운이 오도록 집안에서 섬기는 신(神)에게 음식을 차려 놓고 비는 제사를 말한다.

⇒ 배에서 선양 놀러. {고사덜} 지내명 그거 선양굿.

2) 선양굿

‘선양굿’은 고기잡이하는 사람들의 풍어와 안녕을 기원하는 굿을 말한다.

⇒ {심방} 빌어당도 건 배 선양굿.

6.1.2. 신과 행위자

1) 선양

‘선양’은 배를 관장하는 신 이름이다.

⇒ 선주들이 이녁 집에서 허는 거니까. 이녁 {선양을} 잘 뒤편 비는 거주게.

⇒ 배 {선양도} 혼 가지가 아니라.

2) 남자선양

‘남자선양’은 배를 관장하는 남자 신 이름이다.

⇒ 배 선양도 혼 한 가지가 아니라. 여자선양 잇고 {남자선양} 잇고 도령선양 잇고 영감선양 잇어 시든 그것도 그 배에 가문가례로 굿허여.

3) 여자선양

‘여자선양’은 배를 관장하는 여자 신 이름이다.

⇒ 배 선양도 혼 한 가지가 아니라. {여자선양} 잇고 남자선양 잇고 도령선양 잇고 영감선양 잇어 시든 그것도 그 배에 가문가례로 굿허여.

4) 도령선앙

‘도령선앙’은 배를 관장하는 도령 신 이름이다.

- ⇒ 배 선앙도 혼 한 가지가 아니라. 여자선앙 있고 남자선앙 있고 {도령선앙} 있고 영감선앙 있어 시몬 그것도 그 배에 가문가례로 굿허여.

5) 영감선앙

‘영감선앙’은 배를 관장하는 영감 신 이름이다.

- ⇒ 배 선앙도 혼 한 가지가 아니라. 여자선앙 있고 남자선앙 있고 도령선앙 있고 {영감선앙} 있어 시몬 그것도 그 배에 가문가례로 굿허여.

6) 심방, 나그네

‘심방’은 곳을 집전하는 무당을 말한다. 달리 ‘나그네’라고도 부른다.

- ⇒ 심방 빌어당도 건 배 {선앙곳}.
- ⇒ {나그네} 지네 초상거엔 허영 더 허여.과일도 더 허곡 메도 더 허여.

6.1.3. 제물

1) 돼지머리

고사를 지낼 때 올리는 돼지머리 삶은 음식을 말한다.

- ⇒ 선앙곳헐 때 {돼지머리도} 사도 거세기 허곡, 떡도 청 가곡. 시리떡이엔 허여도 거 사발시리떡 이주게.

2) 시리떡, 줍쌀시리, 흰시리

‘시리떡’은 시루에 쌀가루나 줍쌀가루 따위를 넣고 찌낸 떡을 말한다. 줍쌀가루 넣어서 찌 시루떡을 ‘줍쌀시리’, 쌀가루를 넣어서 찌 시루떡을 ‘흰시리’라고 하다.

- ⇒ 선앙곳헐 때 돼지머리도 사도 거세기 허곡, 떡도 청 가곡. {시리떡이엔} 허여도 거 사발시리떡 이주게.
- ⇒ 그 배에, 이 제기 허젠 허문 {흰시리}, {줍쌀시리}, 조팍 이제 쌀밥 그치룩허연 다니지 아녀서.

3) 사발시리떡

‘사발시리떡’은 사발에 쌀가루 따위를 넣고 시루떡처럼 찌낸 떡. 굿떡의 일종이다.

⇒ 선양굿할 때 돼지머리도 사도 거세기 허곡, 떡도 청 가곡. 시리떡이엔 허여도 거 {사발시리떡이주게}.

4) 좁쌀메

‘좁쌀메’는 제 따위에 올리는 좁쌀로 지은 밥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다.

⇒ 흰메 두 기, {좁쌀메} 두 기. 네 기 올려줘야주기.

5) 흰메

‘흰메’는 제 따위에 올리는 흰쌀로 지은 밥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다.

⇒ {흰메} 두 기, 좁쌀메 두 기. 네 기 올려줘야주기.

6) 지숙

‘지숙’은 제사에 사용하는 구운 생선을 말한다.

⇒ 에여리는 {지숙} 안 써. 콩치도 안 쓰곡이.

6.1.4 행위

1) 네조

‘네조’는 영등에 바다에 갈 때 돛을 지웠다 펼쳤다 하는 것을 세 차례 하고 네 번째 돛을 올려서 출어하는 의식을 말한다.

⇒ {네존} 뭐이나 허른 이 풍선은 돛을 흔 번 들앗당 느리곡 또 흔번 들앗당 내리우곡 세 번 쩌 들앙 내리곡 내번 쩌 돛 들앙.

6.2. 속담 · 금기어

6.2.1. 배에 닻 발앙 중이가 내리믄 그날 바당 가지 말라.

이 속담은 배의 닻을 타서 쥐가 내리면 그날 바다에 가지 마라. 선원들은 쥐가 배를 지켜주는 신으로 관념해 배에서 쥐가 내리면 그날 바다에 가지 않는다는 의미의 속담이다.

⇒ 그것 잇어른 말인디이 뭐 그 {배에 닻 발앙 중이가 내리믄 그날 바당가지 말라} 대라. 그치록 해나서.

6.2.2. 즈수 늪언 보난에 도곰속곳 하나더라.

이 속담은 해녀가 늪어서 보니까 다리속곳 하나밖에 없었다. 힘든 해녀 생활을 하다봐도 남은 것은 현 다리속곳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 {즈수 늪언보난에 도곰속곳 하나더라} 허는 거라. 주곡주곡 현 것ᄃ라 도곰속곳이렌.

6.2.3. 비늘 엇인 궤기는 제사상에 안 올라간다.

비늘 없는 고기 제사상에 안 올라간다는 말이다. 예전 우리 조상들은 제사 음식을 차릴 때도 정성을 다했음을 알 수 있는 금기어다.

민속과 관련하여 조사한 어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민속	조사 어휘
뱃고사	고사, 선양긋, 선양, 지숙, 돼지머리, 사발시리떡, 시리떡, 쌀밥, 조팍, 줍쌀메, 줍쌀시리, 흰메, 흰시리, 네조, 나그네, 심방
속담, 금기어	배에 닛 발앙 중이가 내리ᄃ 그날 바당 가지 말라. 즈수 늪언 보난에 도곰속곳 하나더라. 비늘 엇인 궤기는 제사상에 안 올라간다.

7. 음식

7.1. 종류

7.1.1. 국류

1) 자리젓국, 젓국

‘자리젓국’은 자리젓을 인 물에 나물이나 해초류를 넣어서 끓인 국을 말한다. 달리 ‘젓국’이라고 한다.

- ⇒ 자리젓 물 끓영 뜨거운 물 허영 일어가ᄃ 그 국물에 ᄃᄃ물 ᄃᄃ 거, ᄃᄃ피 낱 국 끌령 먹어. 자리젓국이라고.
- ⇒ 자리 젓 담양 떡국, 젓 담양 {젓국} 끌령 떡국. ᄃᄃ물 ᄃᄃ국 허영.

2) 생선국, 생성국

‘생선국, 생성국’은 옥돔에 미역이나 무 따위를 넣고 끓인 국을 말한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생선국’의 의미와는 다르다.

⇒ 생성 나까지른 생성 하나씩 내 낵 그거 허영 {생성국} 끌렁 먹곡.

3) 메역국

‘메역국’은 미역을 넣고 끓인 국이다. ‘메역’은 표준어 ‘미역’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이 보멸로, 슴양도 국도 허고. {메역국에} 보멸 낵 국 끌리믄 좋아. 장물에 켝도 먹곡.

4) 자리물훤

‘자리물훤’은 자리돔을 날로 썰거나 다져서 갖은 양념을 한 후에 식초를 넣어서 만든 국.

⇒ {자리물훤} 손 하영 가는 거.

5) 훤국

‘훤국’은 옥돔 따위의 생선에 파와 미나리 따위의 나물을 초를 넣은 양념에 무친 후에 물을 넣어서 만든 국을 말한다.

⇒ 그 음식은게 베에서 난도질허영 {훤국} 헤영 먹엇젠.

7.1.2. 젓갈

1) 자리젓

‘자리젓’은 자리돔으로 만든 젓갈을 말한다.

⇒ 건 {자리젓} 담은 거라도 짜게 헛당 념살 안 나게 줌복 껌데기에 낵 지정도 먹곡.

2) 멜젓

‘멜젓’은 멸치로 담근 젓을 말한다. ‘꼳멜’(삿줄멸)로 담근 멸치는 물러지지 않는다고 한다.

⇒ {멜젓도} 담고 젓허는 건 다 허여.



[사진 41] 멜젓

3) 갈치젓

‘갈치젓’은 갈치로 담근 젓을 말한다.

⇒ 멜젓 자리젓 {갈치젓} 고등에젓 빛이든 젓갈 허는 거는 다 허여.

4) 고등에젓

‘고등에젓’은 고등어살로 담근 젓갈을 말한다.

⇒ 뿔젓 자리젓 갈치젓 {고등에젓} 빛이든 젓갈 허는 거는 다 허여.

5) 조기젓

‘조기젓’은 조기로 담근 젓을 말한다.

⇒ {조기젓도} 허여.

6) 오징에젓

‘오징에젓’은 오징어로 담근 젓을 말한다.

⇒ {오징에젓도} 허곡게.

7) 새우젓

‘새우젓’은 새우로 담근 젓을 말한다.

⇒ 여기는 새우는 엇어부난 {새우젓}은 사당 먹어.

8) 육젓

‘육젓’은 여름에 담그는 젓갈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 젓갈은 유월에 담은 것마라 육젓.

9) 오젓

‘오젓’은 새우젓의 짠 이름. 오월에 주로 담근다고 해서 오젓이라고도 한다.

⇒ 새우젓 {오젓}. 오월 들에 담은 것마라 오젓이엔 현텐.

10) 알게미젓, 알가미젓

‘알게미젓, 알가미젓’은 생선의 아가미와 이리로 담근 것이다. 표준어 ‘아감젓’에 해당한다.

⇒ {알게미젓}.

⇒ {알가미젓이엔} 허영 담양 먹어나서.

7.1.3. 죽

1) 고등어죽

‘고등어죽’은 고등어를 넣어서 끓인 죽을 말한다.

⇒ {고등어죽} 쭈든 닭 죽 저레 가렌 현다.

2) 생성죽

‘생성죽’은 옥돔을 넣고 끓인 죽을 말한다.

⇒ 생성 늘 것도 좋고 근헌 것도 {생성죽도} 끌리른 언마나 맛 좋느니?

7.1.4. 기타

1) 깡이술

‘깡이술’은 게로 담근 술을 말한다.

⇒ 깡이 빼 아픈 디 누룩 해낱 술 해. 드박드박 {깡이술}. 우리 경헨 폴레 가와나서.

2) 강훼

‘강훼’는 옥돔 따위의 생선을 날로 썬 것에 파와 미나리 등을 곁들여서 초고추장에 버무린 음식을 말한다.

⇒ 옥돔훼가 언마나 맛 조은지 알압디. 날로 헤영도 떡곡 짝어서 {강훼도} 헤영 떡곡.

3) 옥돔훼

‘옥돔훼’는 옥돔을 날로 썰어서 먹는 음식을 말한다.

⇒ {옥돔훼가} 언마나 맛 조은지 알압디. 날로 헤영도 떡곡 짝어서 강훼도 헤영 떡곡.

7.2. 맛

1) 베지근허다

‘베지근허다’는 고기나 생선 따위의 것이 기름기가 돌아 맛이 있다는 의미다.

⇒ 생선이 {베지근헿} 생선 따라갈 고긴 엇주게.

2) 닉닉허다

‘닉닉허다’는 조금 느끼한 맛이 있다는 뜻이다.

⇒ 술 먹을 때는 짓국치록 {닉닉헌} 거 먹으면 안 좋아. 자리물혜 최고주게.

3) 쑤우릉허다

‘쑤우릉허다’는 조금 쓴 맛이 있다는 뜻이다.

⇒ 이게 문대기. 그 보멸이 저피난디 아무 것도 엇어. 막 잡아가분 생이라. 베꼈디 막 나누게. {쑤우릉헌} 게.

4) 비삭비삭허다

‘비삭비삭허다’는 (음식에) 찰기가 없어서 부서져리다는 의미다.

⇒ 보멸은 각이 지치른 줄아들명 {비삭비삭허주게}. 각이 검은 거 맛 웃어.

7.3. 행위

1) 굶다

‘굶다’는 불에 익히다는 의미다.

⇒ 생선은 물령 {구웡도} 먹고 휘로도 먹고.

2) 삶다

‘삶다’는 물에 넣고 끓이다는 의미다. 표준어 ‘삶다’에 해당한다.

⇒ 가시리 {삶으민} 우미겨찌도 돼는 거. 거 언디여. 가시리도.

3) 끌리다

‘끌리다’는 표준어 ‘끓이다’에 해당하는 제주어다.

⇒ 생성 나까지른 생성 하나씩 내 낵 그거 허영 생성국 {끌령} 떡곡.

4) 보끄다, 지지다

‘보끄다, 지지다’는 표준어 ‘볶다’에 해당하는 말이다.

- ⇒ 근고등에 물 등갓당 늪빼 썰어낱 {보간} 먹어낱주.
- ⇒ 건 자리젓 담은 거라도 짜게 헛당 냄살 안 나게 즘북 껌데기에 낱 {지정도} 먹곡.

5) 시치다

‘시치다’는 표준어 ‘씻다’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 잇날은 초 없으믄 고등어 갈치는 그 소금. 소금 확 절영 확 {시쳐불민} 그것이 소독웬덴 허영.

6) 크다

‘크다’는 무엇을 물이나 간장 따위에 담그다는 의미다.

- ⇒ 이 보멸로, 숲양도 국도 허고. 메역국에 보멸 낱 국 끌리믄 좋아. 장물에 {경도} 먹곡.

7) 짝다

‘ 짝다’는 날이 있는 연장으로 내리쳐서 잘게 자르다는 의미다. 표준어 ‘다지다’의 의미다.

- ⇒ 소생선으로 그거 그냥 { 짝어 } 갖고 창자 내영 시쳐서 다져 가지고 초 놓고 고치장 농곡 파 마 늘 낱 물혜 행 먹으민 맛좋지.

8) 언디다

‘언디다’는 점성이 있는 액체나 가루 따위가 한 덩어리가 되면서 굳어지다는 의미다.

- ⇒ 가시리 쏘으민 우미거찌도 웨는 거. 거 {언디여}. 가시리도.

9) 풀풀허다

‘풀풀허다’는 국 따위의 국물에 풀기가 있다는 뜻이다.

- ⇒ 자리물혜 손 하영 가는 거. 자리 머리뺨이영 눈갈이랑 다 짝어야 자리물혜도 {풀풀허고} 담백 현 게 우러나.

10) 드박드박

‘드박드박’은 두부처럼 건데기가 엉켜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 ⇒ 강이 빼 아픈 디 누룩 해방 술 혜. {드박드박} 강이술. 우리 경헨 폴레 가와나서.

음식 관련 어휘를 종합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음식	어휘
종류	젓국, 생선국, 쫄국, 끌리다, 찌다, 메역국, 자리젓국, 강혜, 옥돔혜, 자리물혜, 자리젓, 육젓, 새우젓, 오젓, 창난젓, 알가미젓, 고등에젓, 고등어죽, 생성죽, 깡이술
행위	굽다, 지지다, 크다, 시치다, 복삭, 보끄다,
맛	베지근허다, 넉넉허다, 쭈우룽허다
상태	풀풀허다, 드박드박, 비삭비삭허다

제 3 부

연 구 결 과

제 5 장 마무리

제 5 장 마무리

이 보고서는 제주 서부 ‘비양도의 고기잡이’를 주제로 조사한 결과물이다. 비양도 고기잡이 조사는 5월 31일, 7월 20일과 21일, 7월 24일, 9월 17일 5일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주제보자 차철의 등 8명의 제보자들에게 비양도 고기잡이와 관련한 어휘들이 조사되었다. 조사는 민족지적 방식으로 구술채록 형식으로 이루어져 비양도 고기잡이상이 한 눈에 펼쳐진다. 구술 자료 속에서 어휘와 용례를 추출하고 뜻풀이와 해설을 하였다.

이번에 조사된 비양도 고기잡이 관련 어휘는 629개이다. 이 가운데 기초어휘와 중복된 어휘들도 있지만 《표준 국어 대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상당수의 어휘들이 새롭게 조사되었다. 비양도 어장에서 잡히는 바닷물고기는 물론 해조류, 기타 해산물 등이 집중적으로 조사되었다. 사전이나 도감에 등재되지 않은 물고기 이름은 물론 어로 도구, 어획 방법, 어로 행위 등과 관련한 새로운 어휘들도 조사되었다.

가령 물고기의 이름도 총칭 외에도 부분 명칭들이 수두룩 조사되었다. 고등어와 각제기를 ‘지름고등어, 참고등어’로 구분해 불렀고, 돔 새끼를 ‘배기배기’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복어 종류도 다양하게 조사되었는데, 표준어형을 찾지 못한 어형이 많은 게 흠이다.

생선의 부분 명칭도 세밀하게 조사하였다. 알 이름은 색깔에 따라 달리 부르고 있었다. 흰색을 띠는 알은 ‘미리알’, 붉은색을 띠는 알은 ‘노랑알, 좁쌀알, 붉은알’이라 하였다. 옥돔에서 나는 역겨운 냄새는 ‘진독내’라 하였다.

생선을 세는 단위도 조사되었다. 비양도에서는 생선 3마리를 한 꿩미라고 하였고, 열마리를 한 뭇이라고 하였다.

어로도구에서도 특이한 어형들도 추출되었다. 어종에 따라 배 이름을 달리 불렀다. 벤자리를 주로 낚는 배는 벤자리배, 옥돔을 주로 잡는 배는 옥돔바리,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 배를 ‘그물배’라고 하였다. 돛이 없는 작을 배를 ‘걸리쟁이’라 하였다. 배의 부분 명칭과 사공들의 이름도 조사되었다. 이물사공을 ‘이사공’, 고물사공을 ‘고사공’이라 불렀다. 그물류와 낚시류 관련 어휘도 새로운 어형들도 많이 조사되었다. 특징적인 것은 그물인 경우 ‘벤자리그물’, ‘벨쿠물’, ‘갓돔그물’ 따위처럼 고기이름을 붙여서 부른다는 점이다. 또 주낙인 경우도, 낚시줄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주낙 줄을 ‘무덤바리’라 하고, 흘러 다니는 주낙을 ‘뚝바리’라고 하였다. 이밖에도 비양도 어장과 바다 이름, 물때와 바람 이름 등도 상세히 조사하였다. 고사와 금기어, 속담 등과 관련한 이름과 음식 관련 어휘도 조사되었다. 특히 뱃고사를 지내고 첫 출어할 때는 돛을 달고 지우고, 달고 지우고를 세 번 한 후에 네

번째 달아서 조업에 임하였다고 한다. 이런 습속을 비양도에서는 ‘네조’라고 불렀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조사 어휘들에 대한 대응 표준어를 찾을 수 없는 어형이 많을 뿐만 아니라 뜻풀이를 유쾌하게 할 수 없는 어형들도 많은 점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이처럼 이번 조사에서는 미등재 어휘 등 자료 가치 있는 제주 특유의 어휘가 상당히 집적되었다. 이는 국어사뿐만 아니라 제주어를 풍부하게 해주는 민족문화유산으로 누대로 이어져야 할 언어자산인 셈이다.

과제도 많다. 가령 위와 같은 고갱이 같은 어휘들을 제보해 줄 제보자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비양도에만 해당하는 일이다. 기층민들의 삶 속에서 배태된 민족생활어를 체계적으로 화급하게 조사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비양도에서는 어촌생활어, 특히 고기잡이와 관련해서 제보해 줄 수 있는 제보자가 많지 않았다. 특히 남자 제보자인 경우 80대는 없었다. 똑같이 옥돔잡이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나이에 따라서 쓰는 어휘가 확연히 달랐다. 주 제보자로 선정한 차철의, 장명상 두 명을 비교할 때 70대 차철의는 제주 방언을 그나마 많이 구사하는 반면 60대인 장명상은 방언형과 표준어형을 섞어 쓰고, 50대 제보자인 강영철은 대부분 표준 어형을 쓰고 있었다.

여성 제보자인 경우는 그나마 나은 편이었다. 80대인 김순선과 강씨 할머니는 비교적 제주방언을 구사하고, 70대인 공옥자도 제주방언을 잘 구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50대인 김선자는 거의 표준어형을 구사하고 있어 머잖아 비양도에서도 전통적인 어로 행위나, 어로 도구, 어획방법, 어획물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조사가 쉽지 않음을 시사해 주었다.

더욱이 비양도에서 많이 잡혔던 어획물, 즉 물고기, 조개류, 고동류, 성게류, 오징어류 등 어획물 전반에 걸쳐 사라지거나 사라진 어획물이 많아 머잖은 장래에 비양도에서 잡았던 어종은 물론 그에 따라 파생되었던 많은 민족생활어가 사라지거나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게다가 젊은 제보자들이 사용하는 어휘들 가운데는 일본어가 많이 섞여 있어 이들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양도 고기잡이와 관련한 어휘를 하나라도 더 자료화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를 통하여 기존 자료의 오류도 바로 잡았다. 예를 들어 어부에 해당하는 ‘보제기’가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보자기’가 등재되어 있는데, ‘바다 속에 들어가서 조개, 미역 따위의 해산물을 따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제주에서는 ‘보제기’는 어부만을 지칭하는 용어여서 사전의 뜻풀이가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바람의 종류 가운데 ‘하늬바람’도 제주 비양도에서는 ‘북풍’의 뜻으로 쓰였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서쪽에서 부는 바람’으로 기술되어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

문제는 새로운 어휘들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생활어 조사는 국어학자들만의 조사가 아니라 해양수산 전공자들과의 연계 조사로 보다 폭넓은 조사와 뜻풀이가 필요하다는 과제를 남겼다. 이는 민족 생활어 조사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 가운데 하나다.

참고 문헌

- 고광민,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2004.
 -----, 《돌의 민속지》, 도서출판 각, 2006.
 -----, 《어구》, 제주대학교박물관, 2002.
 -----, 《한국의 바구니》, 제주대학교출판부, 2000.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김순자, 《해녀, 어부, 민속주-제주도의 민족생활어》, 글누림, 2009.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1976.
 박용후, 《제주방언연구》(자료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8.
 백문하, 《제주도 해산 어류도감》, 신아문화사, 1994.
 북제주군, 《북제주군 지명사전》, 2005.
 성산고등학교, 《수산일반향토교육자료》, 1983.
 제주도, 《증보 개정 제주어사전》, 2009.
 제주도, 《제주어사전》, 1995.
 제주도, 《제주의 민속Ⅱ》, 1996.
 제주도교육청, 《제주바다물고기》, 1995.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비양도 학술조사 보고서》, 2003.
 현평효, 《제주도방언연구》(제1집 자료편), 정연사, 1962.

부 부

1 비양도의 고기잡이 조사 어휘 (김순자)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리양	발음 정보	조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단 정보 사지	명단 정보 음성	표준국 어사전 등재여
어촌생활어	기타	행위						완양자랑	부	명사	매우 부스럽게 왔다갔다 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편장 병 생성국 풀러근에 거 막영 받인 걸 지 나꼬고 안 물어, 그 바영에서도. 이젠 영 같지 나꼬래 {완양자랑} 다녀도.	차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민속	금기어						베에 닷 벌영 중이가 내리근 그날 바영 가 지 말라.	구	명사	베의 뜻을 타서 쥐가 내리면 그날 바다에 중이가 내리근 중이가 배를 지켜주는 신으로 관념해 베에서 쥐가 내리면 그날 바다에 가지 않는다.	차철의(한림 비양)						*
어촌생활어	민속	금기어						비를 잊인 궤기는 제사상에 안 올라간다.	구	명사	비를 잊는 고기 제사상에 안 올라간다.	비를 잊인 궤기는 제사상에 안 올라간다.	공배(한림 비양)					
어촌생활어	민속	벋고사	명칭				고사		명	명사	=고사;<표준>10	{고사} 지날 때 밧히고 풍노/물/하고 홀 돌리고.	정영성(한림 비양)			0	0	0
어촌생활어	민속	벋고사	명칭					선양국	명	명사	고기잡이하는 사람들의 풍어와 인영을 기원하는 곳.	{선양} 밧어영도 건 배 선양국.	차철의(한림 비양)					*
어촌생활어	민속	벋고사	신명					선양	명	명사	배를 관장하는 신 이름.	선주들이 어낙 집에서 하는 거니까. 어낙 {선양을} 잘 뒤편게 밧는 거주개.	차철의(한림 비양)					*
어촌생활어	민속	벋고사	제물				매지머리	매지머리	명	명사	=매지머리;<표준>	선양국할 때 {매지머리도} 사도 거세기 해 밧시리떡이주개.	차철의(한림 비양)					*
어촌생활어	민속	벋고사	제물					사발시리떡	명	명사	사발에 쌀가루 마퀴를 넣고 시루떡처럼 찌낸 떡.	선양국할 때 매지머리도 사도 거세기 찰국 떡도 잘 가곡, 시리떡이엔 하여도 거 사발 시리떡이주개.	차철의(한림 비양)					*
어촌생활어	민속	벋고사	제물				시루떡	시리떡	명	명사	시루에 쌀가루나 쫄쌀가루 마퀴를 넣고 찌낸 떡.	선양국할 때 매지머리도 사도 거세기 찰국 떡도 잘 가곡, {시리떡이엔} 하여도 거 사발 시리떡이주개.	차철의(한림 비양)					*
어촌생활어	민속	벋고사	제물				쫄밭	쫄밭	명	명사	=쫄밭<표준>	그 배에, 이 궤기 허젠 허은 흰시리, 쫄쌀사리, 조팜 이제 {쫄밭} 그지룩하면 디나지기 아녀서.	차철의(한림 비양)					0
어촌생활어	민속	벋고사	제물				조팜	조팜	명	명사	=조팜<표준>	그 배에, 이 궤기 허젠 허은 흰시리, 쫄쌀사리, {조팜} 이제 쫄밭 그지룩하면 디나지기 아녀서.	차철의(한림 비양)					0
어촌생활어	민속	벋고사	제물					쫄쌀매	명	명사	제 마위에 올라는 쫄쌀로 지은 밥.	흰매 두 기, {쫄쌀매} 두 기, 내 기 올라져 아주기.	차철의(한림 비양)					*
어촌생활어	민속	벋고사	제물					쫄쌀시리	명	명사	쫄쌀가루를 시루에 넣어서 찌낸 떡.	그 배에, 이 궤기 허젠 허은 흰시리, {쫄쌀사리}, 조팜 이제 쫄밭 그지룩하면 디나지기 아녀서.	차철의(한림 비양)					*
어촌생활어	민속	벋고사	제물					흰매	명	명사	흰쌀로 지은 매.	{흰매} 두 기, 쫄쌀매 두 기, 내 기 올라져 아주기.	차철의(한림 비양)					*
어촌생활어	민속	벋고사	제물					흰시리	명	명사	쌀가루를 넣고 시루에서 찌낸 떡.	그 배에, 이 궤기 허젠 허은 {흰시리}, 쫄쌀사리, 조팜 이제 쫄밭 그지룩하면 디나지기 아녀서.	차철의(한림 비양)					*
어촌생활어	민속	벋고사	행위					내조	명	명사	영등에 바다에 갈 때 돛을 지웠다 펼쳤다 하는 것을 새차레 하고 내번째 돛을 올려서 풀어하는 의식.	[내조] 위이나 허은 이 쫄선은 돛을 쫄 바영 내양영, 누리크 또 흥반 동안당 내리우크새 반째 들양 내리크 내반 쫄 돛양.	차철의(한림 비양)					*
어촌생활어	민속	벋고사	행위자					나그네	명	명사	무명의 별칭.	{나그네} 지내 초상가에 허영 더 허여 고영 도 더 허극 매도 더 허어, {나그네일} 심영 올 오은 지내 초상영 거 목의 몰라보야 지기내 똥똥 나오지어.	차철의(한림 비양)					*
어촌생활어	민속	벋고사	행위자				무당	심방	명	명사	=<표준>02.	심방 밧어영도 건 배 {선양국}.	차철의(한림 비양)					0

1 비양도의 고기잡이 조사 어휘 (김순자)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의양	발음정보	조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타 정보 사지	명타 정보 음성	표준국 어사전 등록여
어촌생활어	민속	속담					좁수 놓인 퍼 년에 도공속곳 하니더란.	구	해나가 놓여서 모니까 다리속곳 하나밖에 없었다. 좁은 해너 생활을 하더라도 남은 것은 한 다리속곳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좁/수 놓인 퍼/년에 도공속곳 하나더란} 해 는 가라. 주걱주걱 한 것꼬/라 도공속곳이 만.		김순선(한림 비양)					*
어촌생활어	민속	체물	명칭		체수		지속	명	체사에 사용되는 구운 생선.		아 예애리는 뭇한다. 그건 {지속} 안 써. 끄 지도 안 쓰곡어.			차철(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구	그물류	단위				손	명	부식바늘의 굵기와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 약동 부식은 가장 작은 1촌을 쓰고, 동은 가장 큰 부시를 사용한다.		주는 녹순 등낙시도. 이제 동 잡는 건 동 {손} 오나 {손} 육에나 써야주기.			차철(한림 비양)		0		
어촌생활어	어로도 구	그물류	단위		그물코		코	명	그물에 둘러 있는 구멍.		침수가 작을수록 {코기} 커요			정영선(한림 비양)		0		0
어촌생활어	어로도 구	그물류	단위	부분명			물통	명	망장을 채우는 그물 가운데 고기가 들어가 일 나눌 수 없이 막힌 그물.		고기 유인하는 길 한줄로만 해양 질망. 질 구물. 우리나라 말로 어물. 여기는 {물통}.			강영철(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구	그물류	단위	종류	김그물		김구물	명	통그물 따위로 고기 때를 이끄는 길이 되도 부 주는 그물.		고기 유인하는 길 한줄로만 해양 질망. {질 구물}. 우리나라 말로 어물.			강영철(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구	그물류	단위	종류	길		질망	명	통그물 따위로 고기 때를 이끄는 길이 되도 부 주는 그물.		고기 유인하는 길 한줄로만 해양 {질망}. =질구물.			강영철(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구	그물류	단위	부분명			허물	명	망장 그물 가운데 고기들이 드나드는 길을 만들기 위하여 쳐 놓은 그물.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그물에서 붙여진 이물.		고기 유인하는 길 한줄로만 해양 질망. 질 구물. 우리나라 말로 {허물}. 여기는 불통. =질구물. 질망.			강영철(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구	그물류	명칭		그물		구물	명	=그물 <표준어>.		{구물통} 잡어낸 것이 아니고, 낙수로 개기 하든 그 이제 미린 묶이나 하린 갈기.			차철(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구	그물류	부분명	종	그물코		그물코	명	그물에 둘러 있는 구멍.		개기 {그물코에} 걸어지나면 하루 지나면 그릇이 나오.			정영선(한림 비양)		0		0
어촌생활어	어로도 구	그물류	부분명	종	부표		부국	명	물 위에 띄워 어획 표적으로 삼는 물건.		우래레 뜨는 건 {부국개}.			김순선(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구	그물류	부분명	종	행물		행물	명	그물이나 낚시 따위에 매다는 낚시이나 물 덩어 따위.		그거 어음대. 그디 무신거 낚시 돌 아매고 {행물}. 거고/라 마삭. 이제 광물 영허영 물/아매는 거. 갈지 나그는 마삭			김순선(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구	그물류	부분명	종	아버줄		아버줄	명	그물의 버킷줄에 달아서 그물을 물 속에서 뜨게 하는 물건을 단 줄.		물 우의 뜨는 거는 {아버줄아예} 허곡. 또 아바(그물의 버킷줄에 달아서 그물 줄아예) 허곡. 또 물 속에서 뜨게 하는 것)+줄. 밑 바줄만 물통/아매어.			김순선(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구	그물류	부분명	종	유아줄		유아줄	명	그물의 버킷줄에 달아서 그물을 물 속에 가 리안얇게 하는 쪽의 줄.		물 우의 뜨는 거는 유아 줄/지 거세기 아바 줄아예 허곡. 또 물아래 끌/라 뜨는 건 {유 아줄아예} 허곡.			김순선(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구	그물류	부분명	종	저루		저/록	명	=저루 <표준어>[1]		어린 저 저린 떠난. 사들로 허언. 영 어음 만들양 {저/록} 물/라 허영 사들 만들양 <표준어> 배에서 그거 영 돌판디 강 거 드밀양 허영 차리가 그레 영 들어가주게.			김순선(한림 비양)		0		0
어촌생활어	어로도 구	그물류	상태				물 차다	구	그물 따위에 물을 머금다.		개기 {그물코에} 걸리민 코에 끼어 나민 해 루 저니는 그릇이 나오.			정영선(한림 비양)		0		

1 비양도의 고기잡이 조사 어휘 (김순자)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의양	발음정보	조사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타 정보 사지	명타 정보 음성	표준국어사진 등재여부
어촌생활어구	어로도구	그물류	상태					증질다	형		물건 따위가 잘고 가를다.	구물은 코가 {증질어도} 더구물이 이만씩 가, 거 우열로 피앙, 혹은 구물은 거문디고 인파것말로 그 후에 뽕뽕 무꺼근에 삼복이 주기.	차철의(한림 비양)			0	0	
어촌생활어구	어로도구	그물류	심진도구		배늘대		배늘대	바늘대	명		그물을 파개가 험진 그물을 기을 때 사용하는 것은 가늘고 긴 막대기. 보통 더나무나 쇠로 만들어 사용한다.	배사는 한 이년 썩지 마는 이 나이들은 시년 이상 쓰는 것도 있어, {배늘대} 만들어가지고 있으면서 쓰는 거니까.	장영성(한림 비양)			0		
어촌생활어구	어로도구	그물류	심행류					자시다	동		그물 따위가 활어서 떨어진 대를 기우다.	구물 {자시는} 건 난 안 하여, =자다.	김순선(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구	어로도구	그물류	심행류					자다	동		그물 따위가 활어서 떨어진 대를 기우다.	배사는 한 이년 썩지 마는 이 나이들은 시년 이상 쓰는 것도 있어, 바늘대 만들어가지고 {젓으면서} 쓰는 거니까.	장영성(한림 비양)			0	0	
어촌생활어구	어로도구	그물류	수신도구		배늘대		배늘대	바늘대	명	바늘때	그물을 파개가 험진 그물을 기을 때 사용하는 것은 가늘고 긴 막대기. 보통 더나무나 쇠로 만들어 사용한다.	구물 다 더진 것덜 손보고, 모양, 모양멘도 허구 바늘대로 자시는 거.	김선자(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구	어로도구	그물류	재료		럼물		럼물	감물	명		감의 즙 면사로 그물이나 주낙줄을 할 때 면사에 물을 들일 때 사용했던 재료.	배사는 이 빨간물도 까은물도 들어는데 옛날은 {감물} 서다가요.	장영성(한림 비양)			0	0	
어촌생활어구	어로도구	그물류	재료		타일론		타일론	나이롱	명		나이론.	배사는 한 이년 썩지 마는 이 {나이롱은} 시년 이상 쓰는 것도 있어, 바늘대 만들어가지고 있으면서 쓰는 거니까.	장영성(한림 비양)			0	0	
어촌생활어구	어로도구	그물류	재료					되지피	명		돼지의 피. 영로로 사용한다.	옛날에는 전부 그 숲이 {돼지피로} 갈것술 들었지.	장영성(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구	어로도구	그물류	재료		무양실		무양실	민사	명		민사, 무명실.	{민사는} 이 빨간물도 까은물도 들어는데 옛날은 감물 서다가요.	장영성(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구	어로도구	그물류	제작행류					구물 꾸미다	구		구물을 만든다.	옛날은 그 도령이 구물엔 하영이, 도령이 열가지냐? 썩노 간장 줄을 쏘/엇던 해린, 줄을 꼬왕 손으로 이제 하르번네 이제 배 깎듯이 새 거덜로 꼬왕 {구물 꾸멍} 써놔주 기.	차철의(한림 비양)				*	
어촌생활어구	어로도구	그물류	종류					깃둥구물	명		깃둥을 잠을 때 사용하는 그물.	어제 모년에 백자리구물도 간 년 옷고 {깃둥구물도} 낚 옷고.	김순선(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구	어로도구	그물류	종류		검그물		검그물	검그물	명		삼중 망의 길에 색은 그물, 실의 굵기는 색 그물의 1.5~2배, 코의 크기는 3~7배이다.	구물은 크기 증정에도 {검구물} 이만씩 가, 거 우열로 피앙, 혹은 구물은 거문디고 인파것말로 그 후에 뽕뽕 무꺼근에 삼복이 주기.	차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구	어로도구	그물류	종류					7상구물	명		배던가 가까이에 쳐 놓는 그물.	도령이는 {7상구물} 받게 물싼 편 강 낚 놔두민 들어가면 그 도령이 왕 막 그물에 얽어젼.	김순선(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구	어로도구	그물류	종류					개기그물	명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그물.	웬구물 바탕에 강 쪽 {개기그물거짜} 낚 놔두민 웬이 이젠 막 취어 뎡기당 그 그물에 강 다 걸려져.	김순선(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구	어로도구	그물류	종류					꿈지구물	명		꿈치를 잠을 때 사용하는 그물.	꿈지도 옛날엔 허연개 이젠 아니 행신개 {꿈지그물들} 안 왕, 뎡구물거짜 놓는 쪽 뎡 걸러오듯 걸러와놔주게.	김순선(한림 비양)			0	*	

1 비양도의 고기잡이 조사 어휘 (김순자)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역	발음 정보	조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타 정보 사지	명타 정보 음성	표준국 어사전 등록여
어촌생활어	어로도	그물류	중류	다름바리구물		명	다름바리를 잡을 때 사용하는 그물.		어디서 {다름바리구물}이여, 깃둥구물이여 이제 그지복허영 살앗개.			차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그물류	중류	덤장	덤장그물, 덩 장	명	물고기가 다니는 길목을 막고 물고기를 한 곳에 몰아 넣어 잡는 그물의 한가지.		{덤장은} 고정된 장소에 설치해 놓고 거기 에 들어가는 고기를 건져오는 곳아주개.	=정자망, 자리그물.		강영철(한림 비양)		0		0
어촌생활어	어로도	그물류	중류	덤장구물		명	덤장에 쳐 놓는 그물.		이 어넛은, 구물 이 {덤장구물도} 이제 총 스물로 깨기허는 칠월도 허민 어넛은 다 거 다쓰기 해놔주마는 이젠 기술이 그개 아니 라 계속 허지 아범사.			차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그물류	중류	도령이그물		명	괘이삼어를 잡을 때 사용하는 그물.		{도령이그물} 그 물 막 싸은 각 놚음에 이젠 물영도 형에 들어원 들어시는 도물 싸은 각 같아와.			김순선(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그물류	중류	동그물		명	동을 잡기 위하여 사용하는 그물.		셋서 꾸니은 또 이 칠에 {동그물} 헤근에 자 차꾸디에 강 깨기 허는 동 잡아도 그때 도 깨각 잇어라.			차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그물류	중류	뿔구물, 뿔구물 구물		명	뿔치를 잡아올릴 때 사용하는 그물.		이 {뿔구물}이 헛이여 헤긴에 혼 칠삼세 헛까진 해 진 거 같으디개./공지도 잇불헛 하런개 여진 아니 행신개 공지그물님 인 뿔, {뿔구물}개 놓은 뿔 뿔 걸러오든 걸 러와놔주개.			차철의, 김순 선(한림 비 양)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그물류	중류	벤자리구물		명	벤자리를 잡을 때 사용하는 그물.		{벤자리구물은}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이 고 망장 구물은 한 군더 걸러지는 거.			강영철(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그물류	중류	삼복구물		명	그물이 세 겹으로 짜여진 그물.		벤자리 어넛에 삼바이라고 삼복, {삼복그 물}아주개.			차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그물류	중류	새우그물		명	새우를 잡을 때 사용하는 그물.		{새우그물도} 뿔 새우도 막 잡아나고.			김순선(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그물류	중류	생선그물		명	뿔치를 잡을 때 사용하는 그물.		그물도 벤자리그물도 있고 동그물도 있고 뿔 {생선그물도} 있고 여라 가지지.			정영상(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그물류	중류	어망	어망, 그물	명	물고기를 잡는 데 쓰는 그물.		{어망만디} 고등어 투망 구물어린 오만이 한 테쪽덜 투망도 잡고			차철의(한림 비양)		0		0
어촌생활어	어로도	그물류	중류	웨구물		명	한 장소로만 이루어진 그물.		삼복구물 만 싸, 이젠 다 {웨구물},			차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그물류	중류	자망구물	자망, 걸그물	명	바다에서 물고기 떼가 지나다니는 길목에 쳐 놓아 고기를 잡는 데 쓰는 그물.		뿔총사리만 이 {자망 구물도} 벤자리 잡방 = 뿔그물			차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그물류	중류	정자망	자리그물, 덩 장	명	항구에 쳐 놓고 고기 떼가 지나가다가 걸러 오도록 한 그물.		{정자망은} 자리도 들고, 동도 들고 삼지도 들고,	=뿔망, 자리그물.		정영상(한림 비양)		0		0
어촌생활어	어로도	그물류	중류	죽은구물	죽은그물	명	세 겹으로 되어 있는 그물의 안 쪽의 작은 그물.		구물은 구개, 죽은도 죽구물아 이만싸커 가 우말로 싸영, {죽은구물은} 가온디 덩고 안파것덜도 그 곳에 뿔 뿔 무개근에 삼복이 주기.			차철의(한림 비양)		0		*

1 비양도의 고기잡이 조사 어휘 (김순자)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의양	발음 정보	조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사 정보 사지	명사 정보 성성	표준국 어사전 등재여
어촌생활어	어로도	낚시류	제작형 어		잡다	잡다	동	잡다.	옛날 {갈치마삭하전} 허은 어낙 짐의서 해 지 고기 사 먹지 못 허은 낚은 짐의 못주렁 허영 먹는다. 그대 악별로 가근에 수정하영 그 두국물에 그 완노리를 {잡아}.			자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낚시류	제작형 어		잡다		동	잡다.	그 완노리마삭 거 두국물에 혼 서너번만 잡 으른 깨까지지 아너. 옛날은 갈치살도 돼지 때 반이근에 그거 맥어근에 속되서 {잡} 때 해도 또 완노리 거지 채.			자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낚시류	종류		갈치낚수,갈치 낚시		명	갈치를 낚을 때 사용하는 낚시.	고등어 {갈치낚수해도} 물어. /동 나그는 낚낚시 갈치 나그는 건 {갈치낚시} 들러 낚 시도.			자철의, 김순 선(한림 비 양)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낚시류	종류		갈치마삭		명	갈치를 잡을 때 사용하는 낚시의 일종.	옛날 {갈치마삭하전} 허은 어낙 짐의서 해 지 고기 사 먹지 못 허은 낚은 짐의 못주렁 허영 먹는다. 그대 악별로 가근에 수정하영 그 두국물에 그 완노리를 {잡아}.			자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낚시류	종류		건장, 건장낚 시		명	고등어를 낚을 때 사용하는 낚시. 갈고리거 세 개 달랑 있어 고등어를 낚으면 갈고리에 걸려 올라온다.	{건장어래} 허영 뒤까지 세 가달 물은 거 물에 들어칠 곳여마는 거 식곡./이 고등어 {건장낚시}.			김순선,자철 의(한림 비 양)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낚시류	종류		경심주낙		명	낚시줄을 물 속에 떨어뜨렸을 때 한 장소에 서 고기가 물게 된 주낙.	옛날 명발이 {경심주낙}.			강영래(한림 비양)		0		
어촌생활어	어로도	낚시류	종류		고등어낚시		명	고등어를 낚을 때 사용하는 낚시.	이 {고등어낚시는} 이 갈치낚수로도 옛날 옛날 해나고. 우리 나그는 건, 투망은 구물 때 허곡, 볼캐여가지고.			자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낚시류	종류		낙수		명	미끼를 꿰어 물고기를 잡는 데 쓰는 작은 낚시줄을 꿰어 떨어뜨렸을 때 한 장소에 서 고기가 물게 된 주낙.	낙수는배에 아젠 지 이 비양도 앞의서 생연 =낚시 {낙수로} 잡단.			자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낚시류	종류		돌낚시		명	돌을 잡을 때 사용하는 낚시.	돌 나그는 {돌낚시} 갈치 나그는 건 갈치낚 시를러 낚시도.			김순선(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낚시류	종류		명바리		명	낚시줄을 물 속에 떨어뜨렸을 때 한 장소에 서 고기가 물게 된 주낙.	옛날 {명발이} 경심주낙. 우리 명에 끌어왔 이니까 {명발이}.			강영래(한림 비양)		0		
어촌생활어	어로도	낚시류	종류		돌바리		명	낚시줄을 물 속에 떨어뜨렸을 때 한 장소에 서 고기가 물게 된 주낙.	{돌바리} 중간중간 비국 잊으니가 니랍면 명 아래 영 해가지고 추추추추 물러가게 때 었어.			자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낚시류	종류		마삭		명	해전에 갈치잡이를 할 때 주낙 사용 할 때 주낙 사용 할 때 주낙 사용 할 때 '갈치마삭'이라고도 부른다.	그거 어용다. 그대 무신거 낚시 돌/아매고 뽕물 거고라 {마삭}. 아래 뽕물 영하영 물/아매는 거. 갈치 나그는 마삭.			김순선(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낚시류	종류		맨세 주낙		명	맨사를 낚시줄로 사용한 주낙.	이 주낙 무등바리. 그 {맨세주낙보고} 무등 =바리. 또 수지주낙은 뜬바리.			자철의(한림 비양)		0		
어촌생활어	어로도	낚시류	종류		맨주낙		명	맨사를 낚시줄로 사용한 주낙.	이젠 수지주낙 해도 옛날은 {맨주낙으로} 해.			김순선(한림 비양)		0		*

1 비양도의 고기잡이 조사 어휘 (김순자)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음역	뜻풀이	조사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사	명사	명사	명사	표준국어대사전
어촌생활어	어로도	부시류	종류	무덤바리	원표제어	원표제어	원표제어	무덤바리	주난의 부시줄을 물 속에 떨어뜨렸을 때 한 장소에서만 고기가 몰려 온 주난.	명	주난의 부시줄을 물 속에 떨어뜨렸을 때 한 장소에서만 고기가 몰려 온 주난.		자철의(한림 비양)		명	명	명	명	*
어촌생활어	어로도	부시류	종류	반자리부시	원표제어	원표제어	원표제어	반자리부시	반자리를 잡을 때 사용하는 부시.	명	반자리를 잡을 때 사용하는 부시.		김순선(한림 비양)		명	명	명	명	*
어촌생활어	어로도	부시류	종류	생성부시	원표제어	원표제어	원표제어	생성부시	웁동을 집을 때 사용하는 부시.	명	웁동을 집을 때 사용하는 부시.		김순선(한림 비양)		명	명	명	명	*
어촌생활어	어로도	부시류	종류	칭성주난	원표제어	원표제어	원표제어	칭성주난	웁동을 집을 때 사용하는 주난.	명	웁동을 집을 때 사용하는 주난.		자철의(한림 비양)		명	명	명	명	*
어촌생활어	어로도	부시류	종류	수지주난	원표제어	원표제어	원표제어	수지주난	수지를 부시줄로 사용한 주난.	명	수지를 부시줄로 사용한 주난.		김순선(한림 비양)		명	명	명	명	*
어촌생활어	어로도	부시류	종류	웁동주난	원표제어	원표제어	원표제어	웁동주난	웁동을 집을 때 사용하는 주난.	명	웁동을 집을 때 사용하는 주난.		정영성(한림 비양)		명	명	명	명	*
어촌생활어	어로도	부시류	종류	우럭주난	원표제어	원표제어	원표제어	우럭주난	우럭을 집을 때 사용하는 주난.	명	우럭을 집을 때 사용하는 주난.		정영성(한림 비양)		명	명	명	명	*
어촌생활어	어로도	부시류	종류	주난	원표제어	원표제어	원표제어	주난	부시줄에 여러 개의 부시를 띄움됨 일어 지체에 걸어서 물줄을 따라 강았다 풀었다 하여 물고기를 잡는 재구의 한 가지.	명	부시줄에 여러 개의 부시를 띄움됨 일어 지체에 걸어서 물줄을 따라 강았다 풀었다 하여 물고기를 잡는 재구의 한 가지.		정영성(한림 비양)		명	명	명	명	0
어촌생활어	어로도	부시류	행위	주난 걸리다	원표제어	원표제어	원표제어	주난 걸리다	고기잡이 더너운 주난을 쓸모있는 것과 그 좋지 않은 것을 잘 구분해서 가려내어 정돈한다.	구	고기잡이 더너운 주난을 쓸모있는 것과 그 좋지 않은 것을 잘 구분해서 가려내어 정돈한다.		정영성(한림 비양)		구	구	구	구	*
어촌생활어	어로도	부시류	행위	주난 추리다	원표제어	원표제어	원표제어	주난 추리다	주난을 잘 정돈하다.	구	주난을 잘 정돈하다.		정영성(한림 비양)		구	구	구	구	*
어촌생활어	어로도	부시대	명칭	부시대	원표제어	원표제어	원표제어	부시대	부시대.	명	부시대.		정영성(한림 비양)		명	명	명	명	0
어촌생활어	어로도	부시대	종류	총대	원표제어	원표제어	원표제어	총대	부시대를 묶는 줄.	명	부시대를 묶는 줄.		자철의(한림 비양)		명	명	명	명	*
어촌생활어	어로도	부시줄	명칭	줄	원표제어	원표제어	원표제어	줄	부시의 줄.	명	부시의 줄.		자철의(한림 비양)		명	명	명	명	*
어촌생활어	어로도	부시줄	상태	연드름다	원표제어	원표제어	원표제어	연드름다	잡기만해도 부드럽다.	명	잡기만해도 부드럽다.		자철의(한림 비양)		명	명	명	명	*
어촌생활어	어로도	부시줄	종류	갈치줄	원표제어	원표제어	원표제어	갈치줄	갈치줄을 누을 때 사용하는 부시줄.	명	갈치줄을 누을 때 사용하는 부시줄.		자철의(한림 비양)		명	명	명	명	*
어촌생활어	어로도	부시줄	종류	고기줄	원표제어	원표제어	원표제어	고기줄	물고기를 잡기 위한 부시줄.	명	물고기를 잡기 위한 부시줄.		자철의(한림 비양)		명	명	명	명	*
어촌생활어	어로도	부시줄	종류	생성줄	원표제어	원표제어	원표제어	생성줄	웁동을 잡기 위한 부시줄.	명	웁동을 잡기 위한 부시줄.		자철의(한림 비양)		명	명	명	명	*

1 비양도의 고기잡이 조사 어휘 (김순자)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역량	발음정보	형사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타 정보 사지	명타 정보 음성	표준국어사진
어촌생활어	어로도 구	논	종류					죽은 논	명	명	해너가 물질을 할 때에 쓰는, 작은 일이다. (죽은 논, 이제 물이 안 돌아오지 않음)	{죽은 논} 썩, 느 안경보다도 죽은 논, 이제 물이 안 돌아오지 않음. 그런 논 사이에 풀이 많이 자라기 시작한다.	차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구	논	종류				큰 논		명	명	해너가 물질을 할 때에 쓰는, 큰 일이다. (큰 논, 이제 물이 안 돌아오지 않음)	{큰 논} 썩, 느 안경보다도 죽은 논, 이제 물이 안 돌아오지 않음. 그런 논 사이에 풀이 많이 자라기 시작한다.	차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구	당장	부속물				뿔뿔		명	명	바다 위에 뜬 수 있도록 박 모양으로 만든 뿔뿔. 당장 위에서 그물 있는 곳에 설치해 부표 역할을 하는 물건이다.	{뿔뿔} 건 벼국, {건대} 건 포시, 풀 뿔뿔이 있는 포시, 대 빨간 건 건국라 {뿔뿔이엔도} 건국, 거 포시라, 여기 당장 어시난 배달다 니지 말라 하는 거.	김선지(한림 비양)		0		0	
어촌생활어	어로도 구	당장	부속물				깃대		명	명	당장이 쳐 있는 곳을 알려 주는 빨간 색 깃대를 단다.	{깃대} 건 벼국, {건대} 건 포시, 풀 뿔뿔이 있는 포시, 대 빨간 건 건국라 {뿔뿔이엔도} 건국, 거 포시라, 여기 당장 어시난 배달다 니지 말라 하는 거.	김선지(한림 비양)		0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구	당장	부속물				뿔뿔이		명	명	당장이 쳐 있는 곳을 알려 주는 빨간 색 깃대를 단 깃대를 달리 표현하는 말.	{뿔뿔} 건 벼국, {건대} 건 포시, 풀 뿔뿔이 있는 포시, 대 빨간 건 건국라 {뿔뿔이엔도} 건국, 거 포시라, 여기 당장 어시난 배달다 니지 말라 하는 거.	김선지(한림 비양)		0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구	당장	행위				구를 시지다		구	구	바다에 쳤던 다리워진 그물을 씻다.	땀자기는 고정시키는 거난 망 어린 그물 속 간 줄 거다가 다 썩어, 그물 도망가지 할 땀, 모를 잇당 구물 버물로 새로 바꾸고, 그 땀 그물 시킬주게.	김선지(한림 비양)					
어촌생활어	어로도 구	미개류	명칭				니검		명	명	=미개 <표준>	고등인 이 바탕에 나른 거 고정당한 우리 땀선주는데도 물은 거 고정당한 {니검하국} 거.	차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구	미개류	모양				음/주랑이		부	부	두개가 두껍지 아니하게.	썩성 썩 두 서너 서너머리 나꺼저는 썩성을 이제 미개로 썩은 울/대영 칼로 {몸/주랑이} 썩었음에 양쪽이 니검을 꿰어 하민 고기도 더 물어.	차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구	미개류	종류				갈개수리, 갈개시리		명	명	꺾지랑이 한 종류, 꺾지랑이보다 크고 갈개수리, 갈개시리	{갈개수리도계} 돌 슝개 바아지 거 물에 도막 하에/꺾개 나고는 니검 갈개시리.	김순선(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구	미개류	종류				갈기		명	명	꺾지랑이과와 황형동물 몸의 길이는 5~12cm이며, 지랑이와 비슷하게 납작하다. 황형(環形)이 있고 그 양쪽에는 강모가 붙는 기관이 있다. 부싯밥으로 쓰며 바닷가 진흙 속에 산다.	구물로 점어난 것이 아니고, 누수로 꺾개는 그 이제 미꺼워이나 하민 {갈기}.	차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구	미개류	종류				개수리		명	명	꺾지랑이과와 황형동물 몸의 길이는 5~13cm이며, 지랑이와 비슷하게 납작하다. 황형(環形)이 있고 그 양쪽에는 강모가 붙는 기관이 있다. 부싯밥으로 쓰며 바닷가 진흙 속에 산다.	=개수리, 큰/개수리.	차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구	미개류	종류				큰/개수리		명	명	꺾지랑이과와 황형동물 몸의 길이는 5~14cm이며, 지랑이와 비슷하게 납작하다. 황형(環形)이 있고 그 양쪽에는 강모가 붙는 기관이 있다. 부싯밥으로 쓰며 바닷가 진흙 속에 산다.	뿔자리도 여넬은 {큰개수리} 나고 큰 개수리엔 한 손바닥 한 거 이만씩 썩기 나오주게.	차철의(한림 비양)			0		*

1 비양도의 고기잡이 조사 어휘 (김순자)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의양	발음정보	조사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사 정보	명사 정보	명사 정보	표준국어대사전	
어촌생활어	어로도	배	기로	도	배구니		배구니	구덕	명	명	태오리 때위로 위은 바꾸니.	옛날은 배당 갈 때 (구덕) 가경 가느주.		정영성(한림 비양)		0	0	0	0	
어촌생활어	어로도	배	기로	도	연장		연장	연장	명	명	고기잡이 등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 일체.	자기 {연장은} 자기가 사용하기 좋게 만들어서 씀주.		정영성(한림 비양)		0	0	0	0	
어촌생활어	어로도	배	기로	도	하가			하가	명	명	그물 따위를 걸어 올릴 때 사용하는 도구.	그물 걸리는 것구라 {하가엔}. 걸리는 게 뜨는 게는 디마. 족바리 구튼거. 디마질 해는 거엔 골야.		김순선(한림 비양)		0	0	0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배	기로	도	디마		틀채	디마	명	명	그물에 걸려온 고기 따위를 뜨는 도구를 가리키는 일꾼어.	그물 걸리는 것구라 {하가엔}. 걸리는 게 뜨는 게는 디마. {족바리} 구튼거. 디마질 해는 거엔 골야.		김순선(한림 비양)		0	0	0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배	기로	도	족바리		틀채	족바리	명	명	그물에 걸려온 고기 따위를 뜨는 도구.	그물 걸리는 것구라 {하가엔}. 걸리는 게 뜨는 게는 디마. {족바리} 구튼거. 디마질 해는 거엔 골야.		김순선(한림 비양)		0	0	0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배	기로	도	공쟁잇대			공쟁잇대	명	명	긴 막대 한쪽 끝에 고리를 달아 물건을 끌거나 올릴 때 사용하는 도구.	공쟁이 걸리는 공쟁이난 {공쟁잇대}.		김순선(한림 비양)		0	0	0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배	기로	도					명	명	저 구를 굽는 거 인어. 밑 아래 기근에 면 주머니째 헤어근에 돌 돌(아메) (까)가 들어근에 돌을 막 굽어근은 오만 잡게 굽는 것구라 고따구엇배. 질구를 굽어부나 까.		김순선(한림 비양)		0	0	0	0	0	0
어촌생활어	어로도	배	기로	도	뚜치대			뚜치대	명	명	두 가닥의 줄을 하나로 꼬을 때 뒤에서 돌리는 기구.	호랭이 너미 지개 비은 줄 끈자지난 줄에 앞추웠 거세기 {뚜치대로} 영 비어추극 영의 두에서 거 공노로 이제 당줄 뽑아가근 구 풀 돌라주는 거세기 헤어났주게.		차철의(한림 비양)		0	0	0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배	기로	도	금늘			금늘	명	명	얇을 만드는 줄을 꼬을 때 사용하는 도구.	새끼 꼬안 꿰기 혀은 덧 뽑는 공늘이 잇주 기. 금/늘엔 한 거.		차철의(한림 비양)		0	0	0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배	기로	도	지피메스			지피메스	명	명	고기잡이 하는 어선에서 사용하는 현재 위치를 표시해 주는 기계. GPS는 Global Position System의 약어다.	연장이라고 육동 잡으라 갈 때는 도구들은 배에 다 잇어오. 매배에 잇는 어탕하고 노는 배. {지피메스} 하나 하고.		정영성(한림 비양)		0	0	0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배	기로	도	몬티나			몬티나	명	명	물건을 넣기 위해 네모나게 만들어진 플라스틱 상자. 어부들이 배에서 잡은 고기를 담을 때 사용한다.	캐기 장으면 옛날은 구덕에 보신디 오엔홍 배에 담야. {몬티나에} 담양 와.		정영성(한림 비양)		0	0	0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배	부로	명	고물장			고물장	명	명	물건의 고물에 잇는 장.	이물장 {고물장} 한장 가운데 율/내. 기이 는 노 짓는 거.		정영철(한림 비양)		0	0	0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배	부로	명	버릿줄			버릿줄	명	명	돛에 매달려 잇는 줄. 바람에 따라 돛의 폭을 줄 수잇는 줄이다.	초색에 바람 땡기는 줄 잇어. {버릿줄이}		정영철(한림 비양)		0	0	0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배	부로	명	아오초석			아오초석	명	명	배의 이물 쪽에 잇는 돛.	기기도 {아오초석}. 큰초석 또 초석에 바람이 올추석 땡기는 줄 잇어. 버릿줄이아.		정영철(한림 비양)		0	0	0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배	부로	명	아웃대			아웃대	명	명	배의 이물 쪽에 잇는 돛대.	{아웃대는} 앞에 돛대.		정영철(한림 비양)		0	0	0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배	부로	명	율내		율노	율내	명	명	물산 따위의 노 짓는 배에서 배 양쪽에서 노 짓는 노.	이물장 고평장 한장 가운데 {율/내}. 기이 는 노 짓는 거.		정영철(한림 비양)		0	0	0	0	*

1 비양도의 고기잡이 조사 어휘 (김순자)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리양	발음정보	조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타 정보 사지	명타 정보 음성	표준국 어사전 등재여
어촌생활어	어로도	배	부분명 중	부분명 중	어로도	배	돛	돛	명	명	배 바닥에 세운 기둥에 매어 퍼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도록 만든 낚시. 바람을 받아 배를 가게 한다.	돛대가 두 개인 {돛도} 두 개.	=초석, 돛, 풍	정영선(한림 비양)	정영선(한림 비양)	0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배	부분명 중	부분명 중	어로도	배	돛대	돛대	명	명	돛을 받기 위하여 배 바닥에 세운 기둥.	{돛대}가 두 개인 돛도 두 개.	= 돛대의 엷말.	정영선(한림 비양)	정영선(한림 비양)	0	0	0
어촌생활어	어로도	배	부분명 중	부분명 중	어로도	배	돛명	돛명	명	명	가룻배나 돛대배 따위에서 그물쪽의 뒷편 밖으로 내란 장막이 각부분의 끝 부분.	이물명엔 한디 그 이물코지에 이디 잇수께, 양명에 {돛명애} 한디 양명에 그기 매는 디가 잇어.		김순선(한림 비양)	김순선(한림 비양)	0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배	부분명 중	부분명 중	어로도	배	몽고지	몽고지	명	명	배를 짓는 노의 손잡이.	{몽고지애} 이 지 그 지 무순줄을 걸양, 영 {몽고지애} 이 지 그 지 무순줄을 걸양, 영		김순선(한림 비양)	김순선(한림 비양)	0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배	부분명 중	부분명 중	어로도	배	물봉	물봉	명	명	배 바닥에 물을 담을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구멍.	뽕징애 그 배 아래 {물봉애} 잇어, 물 영막 이 요민름 공기 잇어.		김순선(한림 비양)	김순선(한림 비양)	0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배	부분명 중	부분명 중	어로도	배	밴드래, 밴드 켓줄	밴드래, 밴드 켓줄	명	명	낚시가구의 노를 지을 수 있도록 배 양애와 노손을 묶는 밧줄.	몽고지에 이 지 그 지 무순줄을 걸양, 영		김순선(한림 비양)	김순선(한림 비양)	0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배	부분명 중	부분명 중	어로도	배	뽕징	뽕징	명	명	뽕신(木船)의 인축 바닥.	{뽕징애} 그 배 아래 물봉이 잇어, 물 영막 이 요민름 공기 잇어.		김순선(한림 비양)	김순선(한림 비양)	0	0	0
어촌생활어	어로도	배	부분명 중	부분명 중	어로도	배	상앗대	상앗대	명	명	배장을 할 때 쓰는 긴 막대. 배를 땠 때나 띄울 때, 또는 물이 얇은 곳에서 배를 밀어 나갈 때 쓴다.	이 {상앗대} 해양 밧고 양고고.	=상앗대	정영선(한림 비양)	정영선(한림 비양)	0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배	부분명 중	부분명 중	어로도	배	선장방	선장방	명	명	배의 선장이 사용하는 공간.	뽕날은 이물장 안바서 고사 모셨는데 요즘 은 {선장명애서} 고사 지나지.		정영선(한림 비양)	정영선(한림 비양)	0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배	부분명 중	부분명 중	어로도	배	양명애	양명애	명	명	가룻배나 돛대배 따위에서 이물쪽의 뒷편 밖으로 내란 장막이 각부분의 끝 부분.	이물명엔 한디 그 이물코지에 이디 잇수께, {양명애} 뒷명애 한디 양명애에 그기 매는 디가 잇어.		김순선(한림 비양)	김순선(한림 비양)	0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배	부분명 중	부분명 중	어로도	배	어군탐지기	어군탐지기	명	명	어군탐지기의 준말. 어선 바닥에서 초음파의 반사를 내어 물속의 어군의 존재나 수량 종류 등을 분석하는 장치.	배매에 다 잇는 거, {어탐하고} 노랑 지퍼 배스 하나.		정영선(한림 비양)	정영선(한림 비양)	0	0	0
어촌생활어	어로도	배	부분명 중	부분명 중	어로도	배	뽕	뽕	명	명	뽕을 가리키는 일반어.	{영막}는 돛.		정영선(한림 비양)	정영선(한림 비양)	0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배	부분명 중	부분명 중	어로도	배	이물사공	이물	명	명	배의 머리.	고블린 고사공, 한강애 한사공 {이물애} 이 사공.		정영선(한림 비양)	정영선(한림 비양)	0	0	0
어촌생활어	어로도	배	부분명 중	부분명 중	어로도	배	이물명애	이물명애	명	명	가룻배나 돛대배 따위에서 이물쪽의 뒷편 밖으로 내란 장막이 각부분의 끝 부분.	{이물명애엔} 한디 그 이물코지에 이디 잇수께, 양명에 뒷명애 한디 양명애에 그기 매는 디가 잇어.		김순선(한림 비양)	김순선(한림 비양)	0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배	부분명 중	부분명 중	어로도	배	이물초석	이물초석	명	명	돛대배의 이물애 디는 돛, 두 개의 돛을 다스베의 꼭대기.	뽕신린 초석 두 개 도/는 배도 식극 큰 뽕신 매 세 개 뽕/극, {이물초석} 이체 고뽕초석 =아오초석 한간초석 그 기둔디 가.		김순선(한림 비양)	김순선(한림 비양)	0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배	부분명 중	부분명 중	어로도	배	이물코지	이물코지	명	명	배의 윗머리 부분의 뽕출한 부분.	이물 앞의고/라 {이물코지}		김순선(한림 비양)	김순선(한림 비양)	0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배	부분명 중	부분명 중	어로도	배	초석	초석	명	명	배 바닥에 세운 기둥에 매어 퍼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도록 만든 낚시. 바람을 받아 배를 가게 한다.	가룻애 파도가 싸는 {초석}, {초석애} 돛 이체 거세기 허는 제일 몫의 돛 그기 가룻 이체 세왕 조그먼이 뽕양 그 누애 뽕출 오주 =돛, 풍		정영선(한림 비양)	정영선(한림 비양)	0	0	*

1 비양도의 고기잡이 조사 어휘 (김순자)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역량	발음정보	조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형태 정보 사지	형태 정보 성성	표준국 어사전 등록여부
어촌생활어	어로도 구	배	종류		상세분류1	상세분류2		물신	명	명	바람으로 움직이는 배를 통틀어 이르는 말. =>초식배, 뚝단배	한라산으로 오는 노루 헤어근에 그 조서 모 바닷까지 그 {풍선} 탕강.		차철의(한림 비양)	출전정보2	0	0	0
어촌생활어	어로도 구	배	행위		상세분류1	상세분류2	물채	다마질	명	명	물채로 고기 따위를 떠물리는 짓.	그물 걸리는 짓고라, 하깨엔, 걸리는 거, 드는 거는 다마. 죽바리 7튼 거, {다마질} 하는 거엔 죽야.		김선진(한림 비양)		0	0	0
어촌생활어	어로도 구	배류	기타		상세분류1	상세분류2	물채	나루박	명	명	=>박포, <표준>	{나루박으로} 거 뒤죽을 허나 그 배 디니엔 허안 풀 막 열이든 막 새끼 고옹 나요허 허어.		차철의(한림 비양)		0	0	0
어촌생활어	어로도 구	상태			상세분류1	상세분류2		버물다	명	명	때 같은 것이 물이 들어 더러워지다.	당장인 구물 강든에 보. 그 줄물이 잇어. 그 래 더 무렁 보며, {버물든} 바구곡, 팔레 하 듯.		김선진(한림 비양)		0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구	해녀	의복	종류	상세분류1	상세분류2		도금속곳	명	명	해나가 바다에 들 때 입는 물웃으로 여러 차례 기워진 흰 옷.	좁/수 놓인보년에 도금속곳 허나더라 하는 가라. 추곡추곡 흰 것고/라 도금속곳이런.		김순진(한림 비양)		0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구	해녀	의복	종류	상세분류1	상세분류2		물직상	명	명	해녀들이 물직할 때 입는 직삼, 속곳 위에 걸쳐 입는다.	헛날 속곳 입영 {물직상이나} 셔시나? 속곳만 입어근에 당당당 땀어근에 풀초야 근에 오양 마역 주물곡 이제 정각 주물곡.		차철의(한림 비양)		0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구	해녀	의복	종류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속곳	명	명	해녀들이 물직할 때 입는 옷.	헛날 {속곳} 입영 물직상이나 셔시나? 속곳만 입어근에 당당당 땀어근에 풀초야 근에 오양 마역 주물곡 이제 정각 주물곡.		차철의(한림 비양)		0	0	*
어촌생활어	어로도 구	해녀	종류		상세분류1	상세분류2		비창	명	명	진복을 땀 때 사용하는 쇠로 만든 기구.	좁/복 트는 건 {비창이} 잇어.		김순진(한림 비양)		0	0	*
어촌생활어	어로방 법	해녀	행위		상세분류1	상세분류2		배물질	명	명	배를 타고 나가서 하는 물질.	중복하고 해삼은 지르디나. 옛날 모실물에 지르디나, 우리 {배물질} 가너저		강현미(한림 비양)		0	0	*
어촌생활어	어로방 법	그물류	행위		상세분류1	상세분류2		그물 줄리다	구	구	고기잡이를 나갈 때 사용하는 그물을 잘 정돈하다.	뽕줄나민 복통 {그물도 줄리고}, 또 물에 갇들 나민도 하고 다금바리그물도 하고.		장영성(한림 비양)				*
어촌생활어	어로방 법	그물류	행위		상세분류1	상세분류2		거리다	동	동	지정한 물고기 따위를 그물로 잡아 올린다.	이진 돌 잠진 허은 오징어, 덩징에서 갓 {거리운} 거 썰어근에 오양씩 썰어도 경 통 =>거리다.		차철의(한림 비양)		0	0	0
어촌생활어	어로방 법	그물류	행위		상세분류1	상세분류2		걸다	동	동	복어진 것을 얹어 올리거나 가려진 것을 치운다는 의미이다. 바다에 그물을 쳤다가 물고기가 걸려 있으면 걸어온다고 할 때 쓰인다.	그물 쳤는 고기는 저변에 가서 그물 보다가 아침에 가서 {걸어오는} 거요.		장영성(한림 비양)		0	0	0
어촌생활어	어로방 법	그물류	행위		상세분류1	상세분류2		떨기다	동	동	물건 따위를 칠을 주어 자기 쪽이나 일정한 방향으로 가게끔 오게 하다.	헛날은 죽나노 손으로 {떨기고} 이제는 저 부기게로 허니까 잡지만 옛날은 손으로만 떨기다. 옹기다.		장영성(한림 비양)		0	0	*
어촌생활어	어로방 법	그물류	행위		상세분류1	상세분류2		뜨다	동	동	지칭구레한 물고기 따위를 사들 따위로 건져 올린다.	{어기서} 금는 옹포 노 짓는 배 자리를 얹어 뜨 올린다.		장영성(한림 비양)		0	0	*
어촌생활어	어로방 법	낚시류	행위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주걱 뿌리다	구	구	고기잡이를 가서 주낙을 바다에 뿌린다.	거 옛날은 손으로 {주낙도 뿌릿주마는} 이젠 낚시 캐면서 기계로 다 지대로 둘러면서 뿌리자.		장영성(한림 비양)				*
어촌생활어	어로방 법	그물고기	행위		상세분류1	상세분류2		물다	동	동	=>물다, <표준>	물고 건 죽은 오징어 물어 헤가지고, 자민 해도 질 {물니다.}		장영성(한림 비양)		0	0	0
어촌생활어	어로방 법	배	행위		상세분류1	상세분류2		네 짓다	구	구	노를 짓다.	비양도 요디서 {네 짓당} 보은 판포 알 거 부리.		차철의(한림 비양)				*
어촌생활어	어로방 법	배	행위		상세분류1	상세분류2		나끄다	동	동	누다.	어름에 또 배기배기 {나끄래} 돛 새끼양 그 거 {나끄래도} 다얏고.		장영성(한림 비양)		0	0	*

1 비양도의 고기잡이 조사 어휘 (김순자)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발음정보	조사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사	명사	명사	표준국어사진
어촌생활어	어로방	배	어로행	우	우	우			구	배를 한곳에 멈추어 있게 하기 위하여 덧붙을 수 있도록 가라앉혀다.		그 하르방 중 생긴 하나 둘은 이디 이제 {단 주편} 해영 {단 쟁} 나갠주. 경 어머니 우리 생선 하나도 못 나쁘다.	차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로방	배	어로행	배	배	배	배달다.		동	돌이나 끈, 실 따위로 짐아메에서 달려 있게 하디.		뜻은 이 뜻대에 {돌/아메영} 이거 도레기 배영 이 이제 초석 아래 그 횡대에 줄을 이 무정음에 영 짐아메기는 이제 그때가 줄 강기고 줄을 늦추면 알래레 뜻대) 꾸구리 영 알래레 영. 그것고/타는 지 {초석줄}.	김순신(한림 비양)						
어촌생활어	어로방	배	어로행	우	우	우			구	줄을 말디.		이제 열 시 댕은 배를 출발하여. {옷 돌영} 노릇에.	차철의(한림 비양)						*
어촌생활어	어로방	배	어로행	우	우	우			구	뽕쳐있는 줄을 내리디.		그 하르방 이제 {옷 지우고} 이제 노로 이 제 내를 영 머물영 정영 머물영 옷이은 그 하르방 고기술 쥬.	차철의(한림 비양)						*
어촌생활어	어로방	배	어로행	우	우	우			구	줄을 달기 위하여 붙여있는 기둥을 세우디.		뜻 두 개 있으면 세우는 기는 뜻대. {옷때 세운다고} 하고.	정영상(한림 비양)						*
어촌생활어	어로방	배	어로행	우	우	우	당기다		동	물건 따위를 힘을 주어 자기 쪽이나 일정한 방향으로 가까이 오게 하디.		이 한장도막을 {동기지} 못하고 하영 실디. =당기디.	차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로방	배	어로행	우	우	우	말디		동	=말디.<표준>		이 시종대로 해영 배도 {말고} 당기고 강혀 쥬.	장영상(한림 비양)			0			0
어촌생활어	어로방	배	어로행	우	우	우	배질		명	어부들이 바다에서 배를 타고 고기잡이 하디는 말.		마루를 랑랑 불은 거기서 이제 {배질} 하영 지 도실포 앞바다에서 {배질} 하디 지 어디 가디나 하디는 신도영이 도착 웨야.	차철의(한림 비양)			0			0
어촌생활어	어로방	배	행	우	우	우	시끄러		동	신디.		니경을 배에 {시끄러} 날 불은 바영에 가.	장영래(한림 비양)			0			0
어촌생활어	어로방	아부	행				배에 다니다		구	고기잡이를 위해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갠다.		비양도 촌에덜은 물에도 다니고 {배에도 다니고} 살기가 힘들어. 이전 농사구름 가 아녀.	장영래(한림 비양)						0
어촌생활어	어로방	해녀	물집행	우	우	우	주물디		동	해녀들이 바다속에 들어가 해산물을 따디.		옛날 속근 인영 물집이나 서시나? 속근 안 인영이기에 달달달 딸어근에 붙추어근 해 오영 마역 {수풀곡} 이제 장각 수풀곡.	차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로방	해녀	물집행	우	우	우	물락물질		명	깊은 바다에 나가지 못하고 근처 바다에서 따강하는 물질.		죽세는 쟁. 느 안강보디도 죽은 눈. 이제 큰 눈 쟁 해도 그런 눈 쟁간에 {물락물질} 하 연 중 지 아기덜 실러놔지개.	차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로방	해녀	물집행	우	우	우	해녀질		명	해녀들이 바다에서 해산물을 따기 위해 하디는 말.		{해녀질} 해여도 조합원도 개인 인 똬자개	차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로방	해녀	어로행	우	우	우	물에 다니다		구	해녀들이 해산물을 따기 위하여 물에 들디.		비양도 촌에덜은 {물에도 다니고} 배에도 다니고 살기가 힘들어. 이전 농사구름 가 아녀.	장영래(한림 비양)						*
어촌생활어	어로방	해조류	은반행	우	우	우	실르디		동	실디.		음 {실러내} 이디 못 오면 그리 들어가근 해 었날 영 파난 쟁이여	차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로방	해조류	행	우	우	우	포/레 메다		구	물 위에 붙은 파래를 뜯어내디.		워오난 송/키 조/물아당 먹어놔주. 포/레 배국.	강활머니(한림 비양)						
어촌생활어	어학도	옷	명				가빠		명	비바람이나 눈부라를 막기 위하여 만든 두드림이 끼운 천. 또는 옷.		덜장 갈 때개 적안복 {가빠영} 입국. 고기 잡아. 고기 경혀영 곁이오주.	강성자(한림 비양)			0			0

1 비양도의 고기잡이 조사 어휘 (김순자)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리양	발음 정보	조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사 정보	명사 정보	명사 정보	명사 정보	표준국어사전에 이수진 등록여부	
어촌생활어	어획물	계류	중류	강이	개			강이	명	=개.<표준>		{강이} 잠이간에 그때 계기허은 벤자린 후 마은 머리 백 머리 그렇게도 잠고.		자철의(한림 비양)		0	0	0	0	0	0
어촌생활어	어획물	계류	중류	폴강이				폴강이	명	폴에 나는 계.		{폴강이} 풀 잇는디 온 서나서, 고망 부록 부록해나서, 사위도 서나서, 이제도 신디 물리, 풍령물이 죽은 물이려.		강화머니(한림 비양)		0	0	0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기타	명칭	구살				구살	명	=성개.<표준>		오보자구도 트국 {구살도} 트국 매역도 해 국, 우미도 해국.		강화머니(한림 비양)		0	0	0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나지	부분명칭	나지찰롱어				나지찰롱어	명	나지의 머리.		{나지찰롱어} 독 푸글레기거지 푸글푸글 폴라와거는 그거 경 주어놔.		김순선(한림 비양)		0	0	0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문어	중류	무구럭	문어			무구럭	명	=문어.<표준>		{무구럭} 올린 거 그거 영 쾌영 쾌어거지고 쟁선 미끼 나겔 쓴 거.		자철의(한림 비양)		0	0	0	0	0	0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남새	늘래	비린내			늘래	명	비웃고기 따위에서 나는 비린 냄새.		쟁선은 경 {늘래} 안 나.		강영래(한림 비양)		0	0	0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남새	진독내				진독내	명	육독 따위의 생선에서 나는 독한 냄새.		쟁상 지 {진독내} 나는 거, 낚살 나는 것이 잇어, 건 못 먹어, 사름 7트민 엇볼매 용마 그런 거 못야, 아똥허음 하나 잇어.		강영래(한림 비양)		0	0	0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단위	깨미				깨미	명	생선의 튀음을 세는 단위. 생선 3마리가 한 깨미다.		쟁선 세 머리가 혼/{깨미거름}.		자철의(한림 비양)		0	0	0	0	0	0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단위	머리	머리			머리	명	=머리.<표준>이.		갈지 후루 나갓 혼 서른 {머리}, 마흔 {머리}, 쉰은 {머리} 나갓도 혼은 못 벌어 게.		자철의(한림 비양)		0	0	0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단위	못				못	명	생선의 튀음을 세는 단위.		쟁선 올 머리가 혼/못.		자철의(한림 비양)		0	0	0	0	0	0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모양	몽탁하다	몽탁하다.			몽탁하다	형	곁에서 몽둥그러 놓은 것처럼 찢어지다.		덤부지 사발 머리턱 {몽탁한} 거 숫지게.		자철의(한림 비양)		0	0	0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모양	소랑하다	기름하다			소랑하다	형	조름 기름하다.		저 이 메리는 {소랑해거지고} 나 손 제지 못 할 정도로 흰 게긴디 아만이 진 건디 그것 해놔야 나갓너추기.		자철의(한림 비양)		0	0	0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부분명칭	구쟁이	어가미			구쟁이	명	=아가미.<표준>		쟁선 {구쟁이로} 영 띠민 잠지하고 {구쟁이만} 뻐.		강영래(한림 비양)		0	0	0	0	0	0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부분명칭	경태기	경태기			경태기	명	=경태기.		{경태기} 노랑한 노랑복 그 복쟁이가 없 어.		자철의(한림 비양)		0	0	0	0	0	0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부분명칭	폴랑지	고리			폴랑지	명	=고리.<표준>이.		이건 머리, 이건 {폴랑지}, 이건 늦게.		강영래(한림 비양)		0	0	0	0	0	0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부분명칭	노랑알				노랑알	명	물고기의 알 가운데 노란색을 띠는 알.		하얀알 산 거는 수커고 {노랑알} 덩어진 거는 암게, 노랑알은 그건 계기 튀는 거.		김순선(한림 비양)		0	0	0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부분명칭	놀개	저느러미			놀개	명	=저느러미.<표준>		이건 머리, 이건 폴랑지, 이건 {놀개}.		강영래(한림 비양)		0	0	0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부분명칭	놀/게기	저느러미			놀/게기	명	=저느러미.<표준>		놀/르는 건 자리 {놀/게기}.	<표준>에 낚개기로 되어 있는데, 낚/게기로 표기해야 맞다.	강영래(한림 비양)		0	0	0	0	0	*

1 비양도의 고기잡이 조사 어휘 (김순자)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역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사 정보	명사 정보	명사 정보	표준국어대사전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상태		부른다	물	고각살이 단단하지 않고 무르다.	지방각재기, 그런 건 호/점 술/이 {물리} <표준>의 무르다의 절뚝은 수경미 어야 함.			김순선(한림 비양)		명사 정보	명사 정보	명사 정보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상태		미랑미랑하다	형	생선의 살 따위가 단단하지 않고 무르다.	지름고등에는 술/이 호/점 {미랑미랑하}의 색깔이 조금 들러.			김순선(한림 비양)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상태		밀랑하다	형	살이 단단하지 못하고 무르다.	지름고등엔 해 못 먹어 술/{밀랑점영}.			김순선(한림 비양)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상태		벨롱하다	형	눈알이 크다.	벨롱이 벨 건 눈 {벨롱하}고 막 가시가 사그 =벨롱하다.			김순선(한림 비양)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상태		사락사락하다	형	고기의 알이 하나씩 떨어져 돌이 떨어져있다.	볼그스름하거든에 이제 {사락사락하} 거는 그거는 이제 붉은말이런 하국.			김순선(한림 비양)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상태	종류		명	빨라거나 간을 하지 않는 고등어.	고등어족 이제 고등어 그 거세기 {빨고등 어트} 이제 간 거는 무린 갈랑 하지 말 라.			자철의(한림 비양)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상태		웅상하다	형	웅상하다.	그거 또 우럭 비슷해도 막 가시 경 {웅상 하} 거			김순선(한림 비양)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상태		젤르다	동	=짜르다.<표준>	가 {젤르}는 아른다.			자철의(한림 비양)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상태		도락도락	부	생선의 살 따위가 무르지 않고 탄력이 있다.	비개는 살이 {도락도락하}고 생어는 물리 고.			장영삼(한림 비양)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상태		핏득	명	생선의 살 부분에 피가 엉켜 있는 것.	그물코에 캐기 꺼어나면 하루 지나면 그곳 이 나오. {핏득} 몰라서 빨강하지.			장영삼(한림 비양)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상태	종류		명	살이있는 물고기.	우리 아델내 잡는 건 상인 헤어가지고 {화 어} 산 거 그거 풀국			자철의(한림 비양)					0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색깔		하얗다	형	=하얗다.[1]	또 {해양현} 앞 건 미리알엔 하고.			공바지(한림 비양)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색깔		노랑다	형	=노랑다.<표준>	관타기가 {노랑현} 노랑복 그 복쟁이가 없 어.			자철의(한림 비양)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수질행	수질행		구	생선의 배를 갈라 참차 등을 빼내다.	생선 비늘 거지형 {고기 칼} 소금 헛담을/ 리는 거지.			강영래(한림 비양)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수질행	수질행		동	생선을 소금에 절이다.	고등어 이 비양에 나른 거 {건질점영} 우리 생선주먹에도 물른 거 건질현당 니겔하국 게.			자철의(한림 비양)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수질행	수질행		동	생선, 채소 따위를 소금에 절이다.	조기 막 소금 {건/하영은에} 막을 댐 그거 물 롬에 동/그영 우리 막아놓주게.			김순선(한림 비양)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수질행	수질행		동	물에 담그다.	조기 막 소금 건/하영은에 막을 댐 그거 물 롬에 {동/그영} 우리 막아놓주게.			김순선(한림 비양)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수질행	수질행		동	=말리다.<표준>03[1]	생선 중앙오민 짐에서 카서 날양 {물/라} 갖고 지속으로 쓰국 풀/기도 하국.			장영삼(한림 비양)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수질행	수질행		동	생선의 배를 갈라 참차 등을 빼내다.	생선 지속으로도 {배양} 올렁은에 풀고.			강영래(한림 비양)					*

1 비양도의 고기잡이 조사 어휘 (김순자)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의양	발음정보	품사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타 정보 사지	명타 정보 음성	표준국어사진 등재여부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순행물					배카다		명	생선의 배를 갈라 찬자 등을 빼낸다.	칼로게 비늘 거시렁 영 그 아가미 빼어낸 게아근에 칼로 영 배칼 개근에 소금 해근에 소금 맞추렁 혀는 잇는 생살도 잇고 너미 씨게 혀는 후렁 씨죽게.	차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순행물					비늘 거리시간		구	생선의 비늘을 칼로 쓴줄여 없애다.	칼로게 비늘 거시렁 영 그 아가미 빼어낸 게아근에 칼로 영 배칼 개근에 소금 해근에 소금 맞추렁 혀는 잇는 생살도 잇고 너미 씨게 혀는 후렁 씨죽게.	차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순행물					카다		명	(생선의 내장을 빼내기 위하여 생선의 배(물) 양쪽으로 열어젖히다.	생선 평양오민 정에서 {카서} 넣일 물/러 갖고 지숙으로도 쓰르 풀/기도 하구.	장영선(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중류					가라지		명	전경양과의 버섯물고기.	각제기보고 {가라지라고} 하지.	=각제기.	장영선(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중류					가오리		명	가오리.	어름 뒤민 뜰에서도 밤새 나고 {가오리도} =가오리	장영선(한림 비양)		0		0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중류					가을갈치		명	가을에 잡히는 갈치.	{가을갈지도} 내내 비양도 두이서 몰구.	차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중류					간쟁이		명	간쟁이.	유월달부터는 한치 따지 밍어. 또 {각제기} =각제기	강영철(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중류					갈치		명	갈치과외의 버섯물고기(크기에 따라서 큰 것은 '대갈치', 중간 크기는 '중갈치', 작은 것은 '소갈치'로 구분해서 부른다.	유월달부터는 한치 따지 밍어. 또 각제기 {갈치} 그런 어종이 심월월달까지 나는 거 주.	강영철(한림 비양)		0		0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중류					생뎡이		명	생뎡이	우럭도 종류가 {감박우럭이라고} 잇고. 또 개만우럭이라고 불락이라고 거 잇고.	장영선(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중류					들돔		명	=돔<표준>	대금바리보다 {갖돌이} 싸오. 대금바리는 뉘 한두마리씩 하후에 나고나다.	장영선(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중류					쨍치		명	쨍치.	정지명에는 안 드는 고기가 잇어예. {객죽 린도} 들고 갖돌도 들고.	장영선(한림 비양)		0		0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중류					고도리		명	고동어의 새끼.	{고도리} 고동어 새끼면도 하구. 쨍첸하 찌고/러 고도리.	김순선(한림 비양)		0		0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중류					자반고동어		명	수리에 잡힌 고동어.	{고동어} 막 오래 놔두도 골짜하게 고 해.	김순선(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중류					괭어		명	남치고외의 버섯물고기	{괭어도} 잇구.	차철의(한림 비양)		0		0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중류					구룡		명	=강성돔<표준>	오지금 흥 새 치 내 치 경한 그물은 {구룡도} 삼구 따지고 갈리구 쨍기 하구.	차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중류					개질복		명	참복과의 버섯물고기.	이제 또 참복. {까질복}, 또 이제 뉘 올복. 이제 쨍복.	차철의(한림 비양)		0		0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중류					꽃물		명	등에 풀이 그어인 열치. <표준>의 셋물물(물)에 해당하는 제주말이다.	만 디산 참물 쨍는디 비양도해선 {꽃물} 쨍 아오.	장영선(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중류					괭치		명	=괭치.<표준>	생선은 동어은 미끼해서. 지금은 오징어도 쓰고 {괭지도} 쓰고 그러지.	장영선(한림 비양)		0		0		

1 비양도의 고기잡이 조사 어휘 (김순자)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리양	발음정보	형사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어정보	영단어정보	표준국어대사전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물고기		종류	종류	물고기	노랑복	명	=물복.		김대기가 노랑현 {노랑복} 그 복정이가 복... =노랑복/복.		차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물고기		종류	종류	노랑총복	노랑총복	명	총복의 한 가지.		옛날에 거 {노랑총복하고} 이제 총복하고 까칠복 뭐 여러 가지 있지. =노랑복.		차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물고기		종류	종류	복/치	복/치	명	복치과의 바닷물고기. 몸의 길이는 35cm 정도이며 옆으로 납작한 원통형이다. 가슴지느러미가 커서 날개 모양을 이루어 바다 위를 2-3미터 날아오른다.		옛날에 거 이제 그런 {복/치} 기쁜 거는 먹 들어올 때는 물이 파딱파딱 뛰는데. =복치/복/치		김순선(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물고기		종류	종류	다음바리	다음바리	명	=다음바리.<표준>		{다음바리보다} 깃뚫이 싸오. {다음바리 는} 하루에 뭐 한두 마리씩 나오나마나.		장영성(한림 비양)		0		0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물고기		종류	종류	뽕망둑	뽕망둑	명	=뽕망둑.<표준>		아낙 죽이나 이제 그 언남 그 복/틀레기 {뽕망둑} 그런 거 정말 기분 좋게 나오기나 왜 문에 가절은에 잘지 안 들어.		차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물고기		종류	종류	괘이상어	괘이상어	명	=괘이상어.<표준>1.		옛날은 그 도랭이구물엔 허영이. 도랭이 물 아지드나? 찍노 간양 물을 훑/섯던 해라. 줄을 곁왕 손으로 이제 하르방내 이제 배 꼬듯이 세 가달로 곁왕 그물 꾸먼 싸너주 기.		차철의(한림 비양)		0		0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물고기		종류	종류	물고기	물고기	명			뽕고깃과의 바닷물고기. 몸의 길이는 50cm 정도이고 납작하며, 잿빛 갈색이다. 흰 등백의 광택이 나고 옆구리에 검은 원통 점이 있으며 작은 등근비늘로 덮여 있다.		김순선(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물고기		종류	종류	물	물	명	도랭이의 준말		이젠 {뽕} 정편 허는 오징어잡장에서 맑기 같은 거 뽕어근에 오만씩 뽕어도 강 {뽕} 물다라.		차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물고기		종류	종류	뽕가시치	뽕가시치	명	뽕가시치.<표준>		유월달부터는 한치 {따치} 뽕어. 또 각체가 같이 그런 어종이 심일월달까지 나는 거주 기.		장영철(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물고기		종류	종류	거대양어	거대양어	명	=거대양어.<표준>		장치양에 드는 고기. 우럭도 들고 여기서 삼이거스라고 들고. {양치}. 뭐 안 드는 고 기 있어.		정영성(한림 비양)		0		0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물고기		종류	종류	물치	물치	명	=물치.<표준>		옛날은 이 비양도 아래 {물} 가장 거른 무 락. 아낙 먹을 거 혼 못씩은 나까너주께.		차철의(한림 비양)		0		0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물고기		종류	종류	물복	물복	명	복어의 일종.		이제 또 총복, 까칠복, 또 이제 뭐 {물복}, 이제 물복.		차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물고기		종류	종류	물복	물복	명	바다에서 거 캐낸 툇. 말리지 않은 툇을 말려 한다.		이 툇을 말린애 혼 번박. 이젠 총 이 {물복 으로}. 툇 요면이 흰 캐양도 툇극하는 다이.		차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물고기		종류	종류	물복	물복	명	=물복.<표준>		이디서 존존한 복정어 영 총대로 나그는 거 {물복어에} 해너지.		차철의(한림 비양)		0		0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물고기		종류	종류	방어	방어	명	=방어.		유월달부터는 한치 따치 {방어}. 또 각체가 같이 그런 어종이 심일월달까지 나는 거주 기.		장영성(한림 비양)		0		0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물고기		종류	종류	백상어	백상어	명	=백상어.<표준>. 까치상어과의 바닷물고 기.		상어 종류도 {백상어도} 있고 흰상어도 있 고.		장영성(한림 비양)		0		*

1 비양도의 고기잡이 조사 어휘 (김순자)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역	뜻풀이	명사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타 정보 사지	명타 정보 음성	표준국어사진 등재여부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중류				배기배기	물 새끼.		명	어름에 또 {배기배기} 나고래 돌 새끼랑 그거 나고래도 다녔고.		장영성(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중류				반자리	=반자리.<표준>		명	{반자리} 옛날은 그 낙수로 나가놔지.		차철의(한림 비양)		0		0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중류				보/들레기	=보도라치.<표준>		명	이낙 속이나 이제 그 옛날 그 {보/들레기} 많부지 그런 거 장영 가든 갈지 나고래기와 문어 가장은에 갈지 안 물어.		차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중류				복쟁이	=복어.<표준>		명	이 {복쟁이} 이 어디고? 신참 알 하고 이 쉼령 알 많이 나놔주지.		차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중류				볼락	=볼락.<표준>		명	하너부를 거울에 그 {볼락} 나닌, 배 쪽으믄 낚으 그물 우의 띄우믄 구물 근자부령 손 한 채산 알아볼다살피 하던.		차철의(한림 비양)		0		0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중류				복갈치		복체에 잡히는 갈치.	명	수돗물에 보리 비양 남아도 갈치 나고래 가주지. 부름 잔잔하구 노 저잉 그디가 나고은 {복갈치} 어름에 나고은 어름갈치.		차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중류				복바리	=복바리.<표준>		명	옛날은 이 비양도에서 총 우렁, {복바리}일경 하나도 이전 하나 없주지.		차철의(한림 비양)		0		0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중류				무름상어	=수름상어.<표준>		명	옛날은 {비깨도} 하나신디 구경 못해.		장영성(한림 비양)		0		0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중류				볼은볼락	=볼은<표준>		명	이 추자에 {볼은볼락} 잡으래 가든.		차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중류				상치	=상치.<표준>		명	이제 {상치} 방어, 또 이제 방어도 2근 짜기라도 저 이제 저 쪼고 하던지.		차철의(한림 비양)		0		0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중류				상어	=상어.<표준>		명	{상어} 쫓랑는 편상어도 잇고 정상어도 잇고 비깨도 잇고.		장영성(한림 비양)		0		0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중류				생키	=생키미.<표준>		명	술치가 {생키미} 해놔주지.		차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중류				생키우럭		우럭의 한 종류, 크기가 잔 우럭 이름이다.	명	우럭에도 혼/흔 {생키우럭이} 잇어.		차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중류				생성,생선		비양도에서 육종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	명	{생성} 하나 못 나고크./생선은 경 놀래 안나.		차철의(한림 비양)		0		0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중류				술치	=술기미.<표준>		명	{술치} 생키미 해놔주지.		차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중류				승어	=승어.<표준>		명	{승어}는 켈기 물 우의 발막말막 튀고.		김순선(한림 비양)		0		0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중류				심이가스		=출삼치.<표준> 고등어과의 바닷물고기. 기다랭이와 비슷한데 몸의 길이는 1미터 정도이며, 등 쪽은 푸른색, 배 쪽은 은백색이고 등 쪽에 검은색 세로줄이 있다.	명	정지망에 드는 고기. 유릭도 들고 여기서 {심이가스라고} 들고, 망치, 튀 안 드는 고기 잇어.	장영성(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중류				아까버너		젓방어를 가리키는 일본어 이름.	명	{아까버너} 흰 거 잇어에, 표준어에는 젓방어로 됐단고예.		장영성(한림 비양)		0		*

1 비양도의 고기잡이 조사 어휘 (김순자)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의양	발음 정보	조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타 정보 사지	명타 정보 음성	표준국어사진 등재여부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중류		비양장어		비양장어	아니고	명	명사 정보	비양장어의 일본어.	{아니고} 같은 거 고기 종류는 살아야 봐도 안 나고.		장영성(한림 비양)		0	0	0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중류		부동		양반고기		명		부동을 놓아서 부르는 말. 다리를 생선에 비해서 못 갖어 있는 고름어종이라는 말.	생선 쥬 비지르한 것이 {양반고기엔} 허지.		강영래(한림 비양)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중류		늘레기		어련이		명		=황늘레기.<표준>	{어련이} 니름 거 이제 개수리.		자철의(한림 비양)		0	0	0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중류		매종이		매리		명		=매종이.<표준>	어련 {매리도} 뜻어.	=애이리, 아여리	자철의(한림 비양)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중류		매종이		매이리		명		=매종이.<표준>	아 {매이리는} 뜻한다. 그런 지숙 안 써. 곧 지도 안 쓰곡이.		자철의(한림 비양)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중류				여름갈치	여름갈치	명		여름철에 잡히는 갈치.	수월동에 모리 비양 넘어도 갈치 나고레가 증가. 부를 진작하곡. 노 적임 그다가 나고름 봄갈치 여름에 나고름 {여름갈치}.		자철의(한림 비양)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중류		우럭		우럭	우럭	명		=우럭물락.<표준>	옛날은 이 비양도 아래. 맬 가정 거는 {우럭} 이년 막을 거 흥 뜻씨는 나가사우게.		자철의(한림 비양)		0	0	0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중류		자리돔		자리	자리	명		=자리돔.<표준>	{자리} 미개는 {자리로} 해 가지고 잠았지.		장영성(한림 비양)		0	0	0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중류		잡어		잡어	잡어	명		어러 가지 자물구레한 물고기.	요새 비양도에선 목동이 안 나오. {범어도} 안 물어오.		장영성(한림 비양)		0	0	0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중류		갯방어		갯방어	갯방어	명		=갯방어.<표준>	이갯방어엔 한 거 있어. 표준어에는 {갯방어} 없더라고.		강영철(한림 비양)		0	0	0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중류		줄복		줄복	줄복	명		=줄복.<표준>	이제 또 참복, 까칠복, 또 이제 뭐 물복, 이제 {물복}.		자철의(한림 비양)		0	0	0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중류		자주복		자주복	자주복	명		=자주복.<표준>	이제 또 {참복}, 까칠복, 또 이제 뭐 물복, 이제 물복.		자철의(한림 비양)		0	0	0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중류				정상어	정상어	명		상어의 일종.	상어 종류도 백상어도 있고 {정상어도} 있그.		장영성(한림 비양)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중류		영치늘레기		골생이	골생이	명		=영치늘레기.<표준>	낙시대 돌린 다니면서 비양도 돌아다니면서 영치가 골생이라고 하는 고기 조금만 써=골생이. 한 고기.		장영성(한림 비양)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중류		부시리		허라스	허라스	명		=부시리.<표준>	병에는 복 고름어 비슷한 거. {허라스이엔도} 하곡.		김순성(한림 비양)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중류				허라지	허라지	명		병어 비슷한 고기.	또 이제 병어도 그든 कै기라도 저 이제 저 병어 {허라지}.		자철의(한림 비양)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중류				알자리	알자리	명		알에서 갯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작은 자리.	{알자리엔} 한 건 존/존한 거 보강 먹어보지.		공비자(한림 비양)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중류				훈짜리	훈짜리	명		훈강으로 주로 먹는 자리돔.	죽은 자리 알자리. {훈짜리} 경 하여.		공비자(한림 비양)		0	0	*

1 비양도의 고기잡이 조사 어휘 (김순자)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의양	발음정보	조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사 정보 사지	명사 정보 성	표준국 어사전 등록여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종류		별동		별동	불발락	명	=별동<표준>. 별동과의 비뚤음표기.		명장에서 나오는 거. 저 각재기도 들고, 저 린도 들어. 저런 {불발락} 들과 불발락도 들고. 쫓아도 들락, 안 드는 거 서, 구포, 뽕 어돔에 한 거 그런 것도 들고.		감선지(한림 비양)	0	0	0	0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종류		척새기		척새기	척새기	명	비뚤음표기의 일종.		{척새기} 이거 기냥 지정 먹어, 맛 있어.		증비지(한림 비양)	0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종류		코생이		코생이	코생이	명	=용치늘래기.		{코생이} 뽕뽕이 전체가 푸리뽕하어. 어쩔 만 기운디 뽕은 비는 막아지고, 혼/색깔과 만 어쩔만 때 있어.		증비지(한림 비양)	0	0	0	0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종류		뽕어돔		뽕어돔	뽕어돔	명	=뽕어돔<표준>		명장에서 나오는 거. 저 각재기도 들고, 저 린도 들어. 저런 불발락도 들과 불발락도 들고. 쫓아도 들락, 안 드는 거 서, 구포, {뽕어돔에} 한 거 그런 것도 들고.		감선지(한림 비양)	0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종류		고주께		고주께	고주께	명	비뚤음표기의 한 종류.		이까 달고기 많은 거. 달치 잘도 하영 들어. {고주께} 또 막 하영 들어. 한치, 또 감오쟁어. 뽕오쟁어. 뽕도 들고.		감선지(한림 비양)	0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종류		달치		달치	달치	명	=달고기<표준>		이까 달고기 많은 거. {달치} 잘도 하영 들어. 고주께 또 막 하영 들어. 한치, 또 감오쟁어. 뽕오쟁어. 뽕도 들고.		감선지(한림 비양)	0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종류		달고기		달고기	달고기	명	=달고기<표준>		이까 {달고기} 많은 거. 달치 잘도 하영 들어. 고주께 또 막 하영 들어. 한치, 또 감오쟁어. 뽕오쟁어. 뽕도 들고.		감선지(한림 비양)	0	0	0	0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종류		뽕		뽕	뽕	명	=뽕<표준>		이까 달고기 많은 거. 달치 잘도 하영 들어. 고주께 또 막 하영 들어. 한치, 또 감오쟁어. 뽕오쟁어. {뽕도} 들고.		감선지(한림 비양)	0	0	0	0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종류		뽕동		뽕동	뽕동	명	=뽕동<표준>		뽕간 {뽕동도} 들고. 감은뽕도 들고.		감선지(한림 비양)	0	0	0	0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종류		감성동		감성동	감은뽕	명	=감성동<표준>		뽕간 뽕동도 들고. {감은뽕도} 들고.		감선지(한림 비양)	0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크기		대갈치		대갈치	대갈치	명	크기가 큰 갈치.		갈치는 작은 거 소갈치, 중갈치, 큰거는 {대갈치} 강 합니다.		정명성(한림 비양)	0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크기		대생선, 대생		대생선, 대생	대생선	명	크기가 큰 옥동.		뽕동도 {대생성}, 중생성, 소생성, 죽은 거 소생성.		정명성(한림 비양)	0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크기		뽕이뽕		뽕이뽕	뽕이뽕	명	크기가 지정한 옥동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		뽕이뽕도 작은 거든 것인줄개. {뽕이뽕}. 작은 거보고 {뽕이뽕}.		정명성(한림 비양)	0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크기		소갈치		소갈치	소갈치	명	크기가 작은 갈치.		갈치는 작은 거 {소갈치}, 중갈치, 큰거는 대갈치 강 합니다.		정명성(한림 비양)	0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크기		소생성		소생성	소생성	명	크기가 작은 옥동.		뽕이뽕도 대생성, 중생성, {소생성}, 죽은 거 {소생성}.		정명성(한림 비양)	0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크기		쨌헌하다		쨌헌하다	쨌헌하다	동	크기가 지디잘다.		고도리 고등어 세개엔도 허구. {쨌헌하다} 고도리.		감선선(한림 비양)	0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크기		쨌은 고등어		쨌은 고등어	쨌은 고등어	명	크기가 작은 고등어.		고도리 {쨌은고등어}. 큰고등어 쨌은고등어 고등어도 으라가지주께.		정명성(한림 비양)	0	0	0	*

1 비양도의 고기잡이 조사 어휘 (김순자)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역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사 정보 사지	명사 정보 음성	표준국어사진 등재여부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크기		원표제어 표준어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행 =지절하다.	우럭에도 {존/흰} 생키우럭이 있어.	자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크기		원표제어 표준어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명 =줄기 크기의 갈치.	갈치는 작은 거 소갈치, {줄갈치}, 큰거는 대갈치 같 합니다.	정영상(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크기		원표제어 표준어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명 =크기가 중간크기의 고등어.	고다리 쪽은 고등어 큰 고등어 {중고등어} 고등어도 올라 가지주게.	자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크기		원표제어 표준어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명 =줄기 크기의 옥동.	원름도 대생성, {중생성}, 소생성, 죽은 거 소생성.	정영상, 자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크기		원표제어 표준어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명 =줄다.<표준>	잡 이 애리는 소항해가지고 나 속 제지 몇 할 정도로 현 깨인다. 이만이 {진} 건디 건디 솟도 예뻐이 나까놋수기.	자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크기		원표제어 표준어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명 =크기가 큰 고등어.	고다리 쪽은 고등어 {크고등어} 중고등어 고등어도 올라 가지주게.	자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행위		원표제어 표준어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명 =깨다.<표준>	깨이 {깨어진애} 깨기 허는 이백 원도 반국 상박 원도 반국 그지쪽 허단 포난 무는 포를 버는니?	자철의(한림 비양)		0		0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행위		원표제어 표준어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명 (물고기 따위)가 낚시 바늘을 안으로 물다.	상수-줄 꿰는 이 말바다에 생선이 안 물기 때문에 노를 젓던 도살포 바양까지 그 물신 양 강 고기 잡아.	자철의(한림 비양)		0		0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행위		원표제어 표준어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명 =헤다.<표준>	물/지엔 흰 고기는 막 물 우의로 {취락} 놀 국 경허주.	김순신(한림 비양)		0		0
어촌생활어	어획물	물고기	색깔		원표제어 표준어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명 =바닷물고기의 한 종류.	어기는 옥동도 점고 이제 활아, 다름바라, {아드} 없는 거 없어.	김선지(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새우	명칭		원표제어 표준어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명 =기름다.<표준>	갯방안 막 {기명현} 거 이만씩 한 거.	김순신(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새우	모양		원표제어 표준어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명 =새우.<표준>>02.	물강인 풀 있는데 온 세나서, 고품 부롤부 물헤나서, {사위도} 서나서, 이제도 신디 물라, 평랭물이 죽은 물이라.	강할머니(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오징어	모양		원표제어 표준어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명 =표면이 거칠지 않으면서도 크고 뚱뚱하다.	구정기는 썰구정기 시고 이제 활 잊영 {큰 드글라한} 거 문둥구정기.	김순신(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오징어	종류		원표제어 표준어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명 =강원도에서 주로 잡히는 크기가 큰 오징어.	{강원도오징어는} 귀가 크조.	정영상(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오징어	종류		원표제어 표준어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명 =오징어의 한 종류, 활빛을 띤 크기가 큰 오징어를 일컫는다. 달리 미스이라고 함.	오징어의 한 종류, 활빛을 띤 크기가 큰 오징어. {물오징어는} 주로, {물오징어} =미스이까 =미스이까 한 율달까지 낚는다.	정영상(한림 비양)		0		0
어촌생활어	어획물	오징어	종류		원표제어 표준어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명 =오징어의 한 종류, 활빛을 띤 크기가 큰 오징어를 일컫는다. 달리 물오징어라고 함.	미스이까를 일컫는 물오징어는 <표준>의 =물오징어. 이젠 동 잡힌 허는 {오징어}, 엄중에서 귀 가려온 거 썰어드애 오만씩 썰어도 경 동 물이다.	정영상(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오징어	종류		원표제어 표준어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명 =오징어.<표준>		자철의(한림 비양)		0		0

1 비양도의 고기잡이 조사 어휘 (김순자)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역량	발음 정보	조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타 정보 사지	명타 정보 음성	표준국 어사전 등록여
어촌생활어	어획물	오징어	종류	한치				명	회살오징어		회살오징어	우물따부터는 {한치} 따지 벌어. 또 각계기 갈치 그런 어종이 심일월달까지 나는 거주 집 짓으일 모난 대뎡조경이라. 옛날부터 피서 대뎡조경이라. 대뎡어랑 전복 딱살도 시국. 주물아니셔. 외날 아니라도 막는 {조경이} 풀아.	우물따부터는 {한치} 따지 벌어. 또 각계기 갈치 그런 어종이 심일월달까지 나는 거주 집 짓으일 모난 대뎡조경이라. 옛날부터 피서 대뎡조경이라. 대뎡어랑 전복 딱살도 시국. 주물아니셔. 외날 아니라도 막는 {조경이} 풀아.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조개류	명칭	조경이			조개	명	=조개 <표준어>		모양이 기름하면서도 툄니바퀴가 있는 것처럼 오뎡도돌한 모양을 나타내는 말. 민들레 이파리 모양이다.	세조개는 이제 또 {까리까리까리} 헤어그 배 호/꿈 영.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조개류	모양	까리까리까리				부			모양이 기름하면서도 툄니바퀴가 있는 것처럼 오뎡도돌한 모양을 나타내는 말. 민들레 이파리 모양이다.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조개류	모양	음막커다				형	음막커다		가운뎃가 좀 들어가 오목하다.	오갈은 배알개째 까망은 아녕은애 색깔은 황/아도 배알 비숫은 헤도 아가는 {음막어고} 줄/아.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조개류	칭	검은각				명	검은각		고공의 똥 가운데 거무스레한 똥을 가리키는 말.	{검은까} 앞세모단 더 숨저신개. 보월이 막 더 숨저셔.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조개류	칭	각				명	각		고공의 똥을 때 똥부분을 일컫는 말.	보월은 {각이} 지저는 풀아들렁 비식비식 하주개, {각이} 검은 가 막 웃어.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조개류	상태	술지다				형	술지다 <표준>		=술지다 <표준>	보월은 {술지은} 잘 나오주개. 각 그치지아 이너고.	0	0	0			
어촌생활어	어획물	조개류	상태	응다				동	응다		색이 통통하게 어둡다.	보월 존 것도 잠아오난 문막 응아저.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조개류	종류	구쟁기				명	구쟁기		=소라 <표준>	구쟁기도 같이 활질 떠나 물리이 같이 비싸는 물리이 어이엔.	0	0	0			
어촌생활어	어획물	조개류	종류	군벚				명	군벚		=군부 <표준>	타락군부시고 보통 {군벚} 있고. 영 거개는 움작 들어가는 하래비군포어엔 한 거 짓고.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조개류	종류	막모말				명	막모말		=방고동.	보말은 {막모말} 수두리 그거주개.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조개류	종류	배알				명	배알		=이기깃조개 <표준>	{배알은} 호/꿈 통글통글 오 돌에 영 부트는 거 까망현 가.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조개류	종류	수두리				명	수두리		=두드럭고동 <표준>	보말은 막모말 {수두리} 그거주개.	0	0	0			
어촌생활어	어획물	조개류	종류	오갈				명	오갈		바닷가 조갯대 돌에 붙어 사는 따류의 한 종류. 아기깃조개인 '배알' 보다 작다.	{오갈은} 배알개째 까망은 아녕은애 색깔은 황/아도 배알 비숫은 헤도 아가는 움막하고 풀/아.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조개류	종류	점복, 줌/복				명	점복, 줌/복		=점복 <표준>	해송은 그냥 해송. {점복은} 펠로 없어./죽복하고 해송은 지른다. 나. 옛날 모살통애 지른다. 나. 우리 배물질 가놔저.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조개류	종류	타락군부				명	타락군부		=탈군부 <표준>	{타락군부} 시고 보통 군벚 있고. 영 거개는 움작 들어가는 하래비군포어엔 한 거 짓고.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조개류	종류	하래비군부				명	하래비군부		=탈군부 <표준>	타락군부 시고 보통 군벚 있고. 영 거개는 움작 들어가는 {하래비군포어엔} 한 거 짓고.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조개류	종류	합제				명	합제		=섬조개, 총합과의 조개.	총합이엔 허어. 저 거개기 {합제} 비숫헤도 켜진한 거.	0	0	*			

1 비양도의 고기잡이 조사 어휘 (김순자)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음역	음역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타 정보 사진	명타 정보 음성	표준국어사진
어촌생활어	어획물	조개류	조개류	조개류	음합	음합	음합	음합	음합	=음합<표준>	{음합이런} 하여. 지 거세기 합제 비스헤도 쉐첸한 거.		김순선(한림 비양)		0	0	0
어촌생활어	어획물	조개류	조개류	문두지	눈알고동	눈알고동	눈알고동	문두지	문두지	=눈알고동<표준>	{문두지도} 있고, 영노병 약에 하염 해양해 어난디. 우린 몰랏주게.		강활머니(한림 비양)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조개류	조개류	대양조쟁이	대합, 백합	대합, 백합	대합, 백합	대합조쟁이	대합조쟁이	=대합<표준>02.	진 조으림 보난 {대양조쟁이}라. 옛날부터 따서 {대양조쟁이}라. 대양이영 진북 덕살도 시곡, 조물어나서, 잇날 아니라도 막는 조쟁이 풀아.		강활머니(한림 비양)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조개류	조개류	대합	대합	대합	대합	대합	대합	=대합<표준>02.	진 조으림 보난 대합조쟁이라. 옛날부터 따서 대합조쟁이라. {대합이영} 진북 덕살도 시곡, 조물어나서, 잇날 아니라도 막는 조쟁이 풀아.		강활머니(한림 비양)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조개류	조개류	먹모름				먹모름	먹모름	꽤대기 색깔이 검은 고동, 멍고동.	{먹모름이난} 응 구분 거 하근 비당에 거 강이푸레 구른 거 먹양주게.		강활머니(한림 비양)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조개류	조개류	오문자구	눈알고동	눈알고동	눈알고동	오문자구	오문자구	=오문자구.	{오문자구도} 트크 구살도 트크 매역도 해 구. 우미도 여구.		강활머니(한림 비양)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조개류	조개류	문대기	눈알고동	눈알고동	눈알고동	문대기	문대기	=눈알고동<표준>	이게 {문대기}. 그 부명이 지판난디 아무 것도 없애 막 집아가분 생이라. 빼갸디 하디 나주게, 싸우통한 게.		강활머니(한림 비양)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조개류	조개류	거짜다	건물다	건물다	건물다	거짜다	거짜다	=건물다.	타락난부 시고 모롬 군것 잇고, 응 {거짜다} 응학 들어가는 하래비문포이엔 한 거 시고.		김순선(한림 비양)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조개류	조개류	올다				올다	올다	꽤집 속에 들어 있는 알맹이 따위를 꺼내 다.	보름 {올양} 먹으라. 줄야도 줄지안 먹클 만하다.		강활머니(한림 비양)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해삼/조류	해삼/조류	해삼/조류	해삼/조류	해삼/조류	해삼/조류	해삼/조류	해삼/조류	=해삼<표준>	{해삼은} 그냥 해삼, 점복은 벨로 없애.		강영래(한림 비양)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해조류	해조류	남작남작	남작남작	남작남작	남작남작	남작남작	남작남작	=남작남작<표준>	구두리는 남작남작 허영은에 영 크크 매역 구두리라는 북 그건 도박기재 그건 남작남작 원 거주.		김순선(한림 비양)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해조류	해조류	남작남작	남작남작	남작남작	남작남작	남작남작	남작남작	=남작남작<표준>01	구두리는 {남작남작} 허영은에 영 크크 매역 구두리라는 북 그건 도박기재 그건 남작남작 원 거주.		김순선(한림 비양)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해조류	해조류	물그리				물그리	물그리	=미역 따위의 해초류의 줄기.	매역 이제 {물/그리엔} 하는 새를 줄기엔 하는 새를 시곡.		김순선(한림 비양)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해조류	해조류	매역귀				매역귀	매역귀	=미역귀<표준>	{매역귀도} 먹주게.		김순선(한림 비양)		0	0	0
어촌생활어	어획물	해조류	해조류	폐기	폐기	폐기	폐기	폐기	폐기	=폐기<표준>	갈뻘뻘/이엔 정각 {매기고/찌} 크지 아넛 물 아래만 잇는 거 잇어.		김순선(한림 비양)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해조류	해조류	푸물레기				푸물레기	푸물레기	모자반 따위의 해조류에 있는 공기주머니.	썰깡이영/이엔 {푸물레기} 이만클복 요/는 가는 걸름 노.		김순선(한림 비양)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해조류	해조류	트박트박하다				트박트박하다	트박트박하다	풀이나 나무 따위가 여기저기 아주 탐스럽게 솟아나다.	우미도 막 풀이파라고/치 {트박트박한} 거 시곡 또 돌에 막 줄/게 부름 우미가 잇어.		김순선(한림 비양)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해조류	해조류	널다	널다	널다	널다	널다	널다	=널다<표준>01.	널엇양 기남 췌 먹어도 사름 죽지 아니.		차철의(한림 비양)		0	0	0

1 비양도의 고기잡이 조사 어휘 (김순자)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리양	발음정보	조사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타 정보 사지	명타 정보 음성	표준국어사진
어촌생활어	어획물	해조류	중류					비양물	명	바다에서 자라는 풀을 통틀어 일컫는 말.		{비양물} 하근 것이 다 온 나날 이런 것이 아직 좀더 있지 아니, 물질 안 비외노나게		강활머니(한 량 비양)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해조류	중류					감태	명	=감태.<표준>이.		감태 하얗 한결창이얗 말양.		자철의(한량 비양)		0	0	0
어촌생활어	어획물	해조류	중류					남피	명	=남피.<표준>		배에 고/째 부엌 나는 거 이제 저 {남피엔} 한 것도 씹국.		김순선(한량 비양)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해조류	중류					돌청각	명	청각의 일종. 먹지 않는다.		{돌청각} 건 안 먹는 거 또 이제 돌/청각 이 만씩 지는 거.		김순선(한량 비양)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해조류	중류					매역새	명	=매역쇠.		{매역새는} 또/로 나는 거 매역가짜.		김순선(한량 비양)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해조류	중류					물/린매역	명	=아른미역.<표준>		어기서 {물/린매역은} 왜로 하얗에 이 옛 날에 보리 흰 흰 보리낭 풀/양을 너나 영석 꽃/양 너나 그물을 패양 낚은 그 한 볼로 웨볼로 낚은 그날 파짝 물/르주게.		김순선(한량 비양)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해조류	중류					물/청각	명	청각의 일종. 청각의 길이가 길다.		물청각 건 안 먹는 거 또 이제 {물/청각} 이 만씩 지는 거.		김순선(한량 비양)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해조류	중류					물/양	명	모자반을 일컫는 말.		비개는 이제 저 거독이 더 두껍고 열죽을 하락 영매만 부드락 {물/양} 아래만 지는 거.		김순선(한량 비양)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해조류	중류					미역	명	=미역.		옛날 속곳 임영 물직삼이나 서시나? 속곳 만 임어간에 당당당 땀어근에 붙초어근 에 오양 미역 주물럭 이제 장각 주물럭.		차철의(한량 비양)		0	0	0
어촌생활어	어획물	해조류	중류					장각	명	=장각.<표준>이		옛날 속곳 임영 물직삼이나 서시나? 속곳 만 임어간에 당당당 땀어근에 붙초어근 에 오양 미역 주물럭 이제 {장각} 주물럭.		자철의(한량 비양)		0	0	0
어촌생활어	어획물	해조류	중류					총/몸/	명	모자반의 일종. 먹을 수 있는 모자반이다.		이 비양도 {총몸} 옛날 상당이 풀어난 정 이어.		차철의(한량 비양)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해조류	중류					꽃	명	=꽃.<표준>		이 비양도 {꽃은} 이번 9개리 아흔개엔 옛 주마는 옛날은 수 개리주거.		차철의(한량 비양)		0	0	0
어촌생활어	어획물	해조류	중류					패	명	=패. 해조류의 일종.		{패에} 고/째 부엌 나는 거 이제 저 남피엔 한 것도 씹국.		김순선(한량 비양)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해조류	중류					몸/	명	=모자반.<표준>		{몸은} 비양도 {몸이} 쥘 좋아.		김순선(한량 비양)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해조류	중류					강이/포/래	명	패래의 일종. 고통의 막이다.		어부엌이온 몸 구툼 거 하근 비양에 거 {강 이푸래} 구툼 거 먹양주게.		강활머니(한 량 비양)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해조류	중류					총/포/래	명	패래의 일종. 먹을 수 있는 패래다.		{총포래} 이다. 서? 이제 오양땀엔 그런 거 도 있어. 가시리도 엇국.		강활머니(한 량 비양)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해조류	중류					가시리	명	=불가사리.<표준>		총포래 이다. 서? 이제 오양땀엔 그런 것도 있어. {가시리도} 엇국.		강활머니(한 량 비양)		0	0	*
어촌생활어	어획물	해조류	중류					매역	명	=미역.<표준>이		오남자구도 트국 구살도 트국 {매역도} 하 국. 우미도 하국.		강활머니(한 량 비양)		0	0	0

1 비양도의 고기잡이 조사 어휘 (김순자)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의양	발음정보	조사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사 정보 사지	명사 정보 성성	표준국어사전 등재여부
어촌생활어	어획물	해조류	종류	우미						명	=우물가사리.<표준>	오분자구도 특구 구살도 특구 메역도 허구 {우미도} 허구.		강황마니(한림 비양)		0	0	0
어촌생활어	어획방법	그물류	어로행위	개리다						동	=뜨다. 저질구래한 물고기 파위를 그물로 따서 잡아 놓는다.	어긴 저 저린 떠난, 사물로 허먼, 영 어음 만들음 조/특 물/리국 허영 사물 만들음 배에서 그거 영 돌팍다 강 거 드밀양 허은 저 리가 그레 영 들어가주게. 케민 {개리외}.		김순선(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획방법	그물류	어로행위	드밀다						동	안쪽으로 밀어 넣거나 들어보낸다.	어긴 저 저린 떠난, 사물로 허먼, 영 {어음} 만들음 조/특 물/리국 허영 사물 만들음 배에서 그거 영 돌팍다 강 거 드밀양 허은 저 리가 그레 영 들어가주게.		김순선(한림 비양)		0		0
어촌생활어	어획방법	그물류	어로행위	헙기다						동	=헙기다.	선원 역할은 그물 {헙거} 흘리는 거.		강영철(한림 비양)		0	0	*
어촌생활어	어획방법	낚시류	어로행위	푸끄다						동	낚시를 매단 낚시대들 물 속에 잠여넣었다가 들어낸다.	연남은 그 고등어가 이만썬힐 크나 맥 와살 고상 일민 배 두드러볼 정도로 낚수로 {우 고은} 풀리오구.		차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획방법	잡종	행위	그물 헙기다						구	바다에 쳐 놓은 그물을 배 위로 당겨 올린다.	그물 올리는 건 손으로 헙거. 잠여넣긴데 허구 {그물 헙기데도} 허구.		김선지(한림 비양)		0		
어촌생활어	어획방법	잡종	행위	잠여헙기다						동	잠여다니다.	그물 올리는 건 손으로 헙거. {잠여헙기데도} 허구 그물 헙기데도 허구.		김선지(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획방법	떨기	어로행위	떨다						동	{그물} 파위에 걸린 열치를 떨어내다.	오늘 우라 간 {된} 건 썬땀이고.		김순선(한림 비양)		0	0	0
어촌생활어	어획방법	떨기	어로행위	걸여지다						동	그물 파위에 막히거나 잠히다.	헙꾸물 바탕에 강 쪽 케기그물까지 볼 놔두면 헙이 이전 막 휘여 헙기데그 그물에 걸 = 걸려져.		김순선(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획방법	떨기	어로행위	헙들다						구	헙치를 그물에서 떨어내다.	{헙 터는} 사름 두드럼 때려 주는 사름 열 짐도 췌야 할 거.		차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어획방법	배	어로행위	볼케다						동	볼을 밟히다.	그긴 투망 허먼 걸러오구 이전 걸지놔수애야 {볼켄} 배에 거 총대에도 올란왕시내까지 고등어.		차철의(한림 비양)				*
어촌생활어	어획방법	배	행위	네 췌다						구	노 췌다.	한림까지 {내 췌양가기} 싹핀 물국.		차철의(한림 비양)				*
어촌생활어	어획방법	어로행위	어부	바양 가다						구	배를 타고 바다에 고기잡이 가다.	{바양 가는} 건 배로 고기 잡이 가는 거. {물에 가는} 건, 해너 가는 거. 물에 들레 가는 거.		김선지(한림 비양)				
어촌생활어	어획방법	어로행위	행위	물에 들다(가다)						구	{해너가} 물에 들어서 해산물을 따다.	바양 가는 건 배로 고기 잡이 가는 거. {물에 가는} 건, 해너 가는 거. {물에 들레} 가는 거.		김선지(한림 비양)				*
어촌생활어	어획방법	어로행위	어로행위	바양에 가다						구	바다에 배를 타고 고기잡이 가다.	{바양에 감지}, 물에 감지 허구 바양에 고기 {바양에 감지} 하고 경하는 건가 허영 살양주게.		강영래(한림 비양)				*
어촌생활어	어획방법	해너	행위	물질						구	주로 해너들이 바다 속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따는 일.	바양도 {물질도} 하고 물에 다니랑 살단 걸러놓하닌 바다에도 가고.		강영래(한림 비양)				0

1 비양도의 고기잡이 조사 어휘 (김순자)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의미	뜻풀이	조사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사 정보	명사 정보	명사 정보	표준국어사전에	
어촌생활어	어획방법	해녀	행위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의미	뜻풀이	조사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사 정보	명사 정보	명사 정보	표준국어사전에	
								해녀들이 해산물을 따기 위하여 물에 들어 때 표현하는 말.			=물에 들어들다, 물에 다니다		강영래(한림 비양)					*	
어촌생활어	어획방법	해조류	상태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의미	뜻풀이	조사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사 정보	명사 정보	명사 정보	표준국어사전에	
								바다 속의 (해조류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물갈 등의 작업을) 등어다.					김순선(한림 비양)					*	
어촌생활어	어획방법	해조류	행위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의미	뜻풀이	조사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사 정보	명사 정보	명사 정보	표준국어사전에	
								=잡다. 결국 따위로 붙어진 물건을 묶어 모으다.					김순선(한림 비양)					*	
어촌생활어	어획방법	해조류	행위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의미	뜻풀이	조사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사 정보	명사 정보	명사 정보	표준국어사전에	
								=배다. <표준>2[1]			[비어서] 텅은 가는 다 호미로 허주.		김순선(한림 비양)					*	
어촌생활어	어획방법	해조류	행위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의미	뜻풀이	조사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사 정보	명사 정보	명사 정보	표준국어사전에	
								물에 붙어 있는 전복이나 오문자기 따위를 배다.			오문자구도 (트럭) 구실도 (트럭) 매역도 허주, 우미도 허주.		강할머니(한림 비양)					0	
어촌생활어	음식	국류	종류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의미	뜻풀이	조사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사 정보	명사 정보	명사 정보	표준국어사전에	
								자리를 저장을 넣어서 끓인 국물에 배추 따위를 넣고 끓인 국.			국, 노/물/ 불국 허영.		공비자(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음식	국류	종류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의미	뜻풀이	조사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사 정보	명사 정보	명사 정보	표준국어사전에	
								국중에 미역이나 두 따위를 넣고 끓인 국.			생성 나까지의 생선 하나씩 내 놓 그거 해 (생선국) 끓여 먹국.		장영성(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음식	국류	종류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의미	뜻풀이	조사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사 정보	명사 정보	명사 정보	표준국어사전에	
								영동 따위의 생선에 파와 미나리 따위의 나물을 조물 넣은 양념에 우진 후에 물을 넣어 끓여 먹국.			그 음식은계 배에서 반도겉허영 (해국) 해영 먹었겐.		자철(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음식	국류	종류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의미	뜻풀이	조사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사 정보	명사 정보	명사 정보	표준국어사전에	
								=미역국.<표준>			이 보말로, 송양도 국도 하고. (미역국)에 보말 불국 끓린들 좋아, 장물에 강도 먹국		강할머니(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음식	국류	종류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의미	뜻풀이	조사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사 정보	명사 정보	명사 정보	표준국어사전에	
								자리를 일 물에 나물이나 해초류를 넣어 끓여 먹국.			자리전 물 끓여 뜨거운 물 허영 일가영 그 국물에 노/물/ 고/든 거, 밥따 불국 끓여 먹어, 자리전국이라고.		김선자(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음식	국류	행위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의미	뜻풀이	조사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사 정보	명사 정보	명사 정보	표준국어사전에	
								=끓이다.<표준>			생성 나까지의 생선 하나씩 내 놓 그거 해영 생성국 (끓임) 먹국.		자철(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음식	국류	행위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의미	뜻풀이	조사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사 정보	명사 정보	명사 정보	표준국어사전에	
								끓이 있는 연장으로 내리쳐서 쫄게 자르다.			소생선으로 그거 그냥 {떡이} 갖고 찹자 내영 시저서 다져 가지고 조 놓고 고자장 불국 파 마늘 불 물해 행 먹으면 맛좋지.		장영성(한림 비양)				0	0	
어촌생활어	음식	기타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의미	뜻풀이	조사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사 정보	명사 정보	명사 정보	표준국어사전에	
								바닷고기에 번대어서 육지에서 나는 쇠고기, 돼지고기 따위를 일컫는 말.			이제 바탕 거 잘 먹어놓나, {육계기로}, 바닷게기로게, 바닷게기가 좋긴 허국.		강할머니(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음식	기타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의미	뜻풀이	조사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사 정보	명사 정보	명사 정보	표준국어사전에	
								=바닷고기.<표준>			이제 바탕 거 잘 먹어놓나, 용계기로, {바닷게기로게}, {바닷게기가} 좋긴 허국.		강할머니(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음식	맛	상태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의미	뜻풀이	조사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사 정보	명사 정보	명사 정보	표준국어사전에	
								(음식) {잘기가} 없어서 부석거리다.			부엌은 짝이 자지는 좋아들면 {비석비석해 주게}, 짝이 잠은 거 맛 웃어.		강할머니(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음식	맛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의미	뜻풀이	조사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사 정보	명사 정보	명사 정보	표준국어사전에	
								고기나 생선 따위의 것이 기름기가 돌아 맛 있다.			{생선} {배지근형} 생선 따라갈 고긴 허주게.		강영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음식	맛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의미	뜻풀이	조사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사 정보	명사 정보	명사 정보	표준국어사전에	
								조금 느끼한 맛이 있다.			술 먹을 때는 쪽국치록 (늑늑한) 거 먹으면 안 좋아, 자리물해 최고주게.		김선자(한림 비양)				0	*	

1 비양도의 고기잡이 조사 어휘 (김순자)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소분류3	원표제어 표준어	음의미	음의미	뜻풀이	조사 장소	발음 정보	형태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사 정보 사지	명사 정보 성성	표준국 어사전 등재여
어촌생활어	음식	엇		슈우통하다		슈우통하다	형	형	조름 쓴 맛이 있다.				이게 못대기. 그 보말이 지퍼난디 아무 것도 없어. 막 잡아가본 쟁이라 바저디 막나주게. {슈우통한} 게.		강활머니(한 음 바탕)		0		*
어촌생활어	음식	올회	중류	지리물해		지리물해	명	명	지리물을 날로 썰거나 다져서 갖은 양념을 한 후에 식조를 넣어서 만든 국.				{지리물해} 손 하영 가는 거.		강선지(한음 바탕)		0		*
어촌생활어	음식	볶음	상태	복삭		복삭	부	부	볶지 않아 비스러진 모양을 나타내는 말.				지리 보강도 막국게. 간장 넣 복삭 보강 먹어.		강선지(한음 바탕)		0		*
어촌생활어	음식	상태	상태	인디다		인디다	동	동	겉성이 있는 떡채나 가루 따위가 한 덩어리가 되면서 굳어짐.				{인디다} {인디다} {인디다}.		김순선(한림 바탕)		0		*
어촌생활어	음식	상태	상태	폴폴하다		폴폴하다	형	형	국 따위의 국물에 풀기가 있다.				지리물해 손 하영 가는 거. 지리 머리풀이 영 누웠어랑 다 짝어야. 지리물해도 {폴폴} 하고! 딱백해 우리라.		강선지(한음 바탕)		0		*
어촌생활어	음식	술	술	드박드박		드박드박	부	부	두부처럼 건더기가 엉켜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같이 중앙 고상까지 쏠 바꾸려 가놔지. 쏠 수 관둬로 하나민 같이도 관둬로 하나. 배아는 디 누룩 해놓 술 해. {드박드박} 같이 술. 우리 경래 풀러 가와나서.		강활머니(한 음 바탕)		0		*
어촌생활어	음식	술	중류	강이 술		강이 술	명	명	개로 담근 술.				같이 중앙 고상까지 쏠 바꾸려 가놔지. 쏠 수 관둬로 하나민 같이도 관둬로 하나. 배아는 디 누룩 해놓 술 해. {드박드박} 같이 술. 우리 경래 풀러 가와나서.		강활머니(한 음 바탕)		0		*
어촌생활어	음식	저갈	중류	지리저		지리저	명	명	지리물로 만든 저갈.				간 {지리저} 담은 거라도 짬개 해당 밤살 안 나게 풀/꼭 쟁터기에 풀 지장도 먹국.		공방지(한림 바탕)		0	0	0
어촌생활어	음식	저갈	중류	육저		육저	명	명	어름에 담그는 저갈을 말리 이르는 말.				저갈은 유월에 담은 것/과라 육저.		공방지(한림 바탕)		0	0	0
어촌생활어	음식	저갈	중류	새우저		새우저	명	명	새우로 담근 것.				{새우저도} 경첩어, 새우저 오젇/올/에 담은 것/과라 오젇이엔 현면.		공방지(한림 바탕)		0	0	0
어촌생활어	음식	저갈	중류	오젇		오서리젇	명	명	새우저의 만 이름. 오월에 주로 담근다고 해서 오젇이라고도 함.				새우저 {오젇}. 오월/올/에 담은 것/과라 오젇이엔 현면.		공방지(한림 바탕)		0	0	0
어촌생활어	음식	저갈	중류	창난젇		창난젇	명	명	명태의 창자에 소금, 고춧가루 따위의 양념을 쳐서 담근 것.				창지 저 담은은 만 있어. 창난젇 담듯이 그 등에 창지 저 담은은 맛 있어.		공방지(한림 바탕)		0	0	0
어촌생활어	음식	저갈	중류	알가미저		알가미저	명	명	=알가미저.<표준>				알가미저이엔 하영 담양 먹어나서.		공방지(한림 바탕)		0	0	0
어촌생활어	음식	저갈	중류	고등에저		고등에저	명	명	고등어살로 담근 저갈.				{고등에저도} 담아놔지.		공방지(한림 바탕)		0	0	0
어촌생활어	음식	저	중류	고등어저		고등어저	명	명	고등어를 넣고 끓인 죽.				{고등어저} 썩은 닭 죽 레레 가린 한다.		자릴의(한림 바탕)		0		*
어촌생활어	음식	저	중류	쟁장죽		쟁장죽	명	명	유물을 넣고 끓인 죽.				쟁성 녹 것도 조리는 썰 수도 있고 근한 것도 {쟁성죽도} 풀리는 인마나 맛 풀드니?		자릴의(한림 바탕)		0		*
어촌생활어	음식	평어	평어	시지다		시지다	동	동	=썩다.<표준>>[1]				잇날은 썩었으면 고등어 같지는 그 소금 소금 확 쟁영 확 {시지풀민} 그곳이 소독면 맨 하영.		자릴의(한림 바탕)		0		0
어촌생활어	음식	평어	평어	썩다		썩다	동	동	=썩다.<표준>				가사리 {썩/으민} 우미거제도 뚱는 거. 가사리. 가사리도.		김순선(한림 바탕)		0		*

1 비양도의 고기잡이 조사 어휘 (김순자)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리양	발음 정보	조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별칭 정보	별칭 정보	표준국어사전
어촌생활어	음식	행위	행위		부다	보그다	똥		=부다.<표준>	근/고등에 똥/것당 놔/뿔어놓 (보간) 먹어놔주.		김순선(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음식	행위	행위		부다	지지다	똥		=부다.<표준>	긴 자린것 담은 거라도 짜게 휘당 낚살 언 나게 줌/뿔겔대기에 놓 (지정도) 막국.		공비자(한림 비양)		0		0
어촌생활어	음식	행위	행위		잠그다	크다	똥		무엇을 놓이나 가장 마위에 담그다.	이 보뿔음, 속양도 국도 하고. 매덕국에 국 뿔 뿔 국 끌리는 좋아. 정월에 {경도} 막국		강활머니(한림 비양)		0		0
어촌생활어	음식	행위	행위		금다	금다	똥		=금다.<표준>[1]	생선은 물/령 (구형도) 먹고 휘로도 먹고.		장영성(한림 비양)		0		0
어촌생활어	음식	회	종류		강해	강해	뿔		뿔뿔을 날로 썰 것에 파와 미나리 등을 곁들여서 조그추장에 버무리 음식.	뿔뿔해가 언마나 맛 조은지 알았다. 날로 해양도 막국 짝어서 {강해도} 해양 막국.		차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음식	회	종류		죽통해	죽통해	뿔		죽통을 날로 썰어서 먹는 음식.	{죽통해가} 언마나 맛 조은지 알았다. 날로 해양도 막국 짝어서 강해도 해양 막국.		차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행위자	사공	명칭		고물사공	고사공	뿔		고물사공을 성체에 비유해서 일컫는 말.	고물맨 {고사공}.		차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행위자	사공	명칭		사공	사공	뿔		=사공.	근도를 짓는 사공을 {사공이민} 짝주게. 근도 있고 착은노 있고. 관쪽 오른쪽 다 잇엇 주게.		강영철(한림 비양)		0		0
어촌생활어	행위자	사공	명칭		이물사공	이물사공	뿔		이물사공.	이물은 {이물사공}.		차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행위자	사공	명칭		짚사공	짚사공	뿔		배의 키를 잡은 사공.	차. 심은 사를 그 예쁜은 짚사공이민 해냈 자. 엇뿔은.		차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행위자	선원	명칭		선원	선원	뿔		=선원.<표준>06.	뿔 타는 사를 두드렁 때려 주는 사를 일름 도 짝어 뿔 가. {선원별도} 짝아고		차철의(한림 비양)		0		0
어촌생활어	행위자	선주	명칭		선주	배임제	뿔		배의 임자.	그 {배임제} 하르방 그 문성숙이 하르방이 밭어란 거민 밭어근에 거양 주욱.		차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행위자	선주	명칭		선주	선주	뿔		배의 주인.	배 {선주} 하르방은 누구나 하른 문성숙이 하르방이라.		차철의(한림 비양)		0		0
어촌생활어	행위자	어부	명칭		어부	어부	뿔		=어부.<표준>03.	끼. 낚는 사를 구라 어부. 보제기도 근국 끼. 물정하는 사를 중수.		강활머니(한림 비양)		0		0
어촌생활어	행위자	어부	명칭		어부	보제기	뿔		=어부.<표준>03.	끼기 낚는 사를 구라 어부. 보제기도 근국 끼. 물정하는 사를 중수.	<표준>에는 바다 속에 들어가서 조끼. 미역 따위의 해산물을 따는 일. 낚살머니(한림 비양)을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나, 재림 비양 주에서는 어부의 뜻으로만 쓰임.		차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행위자	해녀	명칭		해녀	잠/수	뿔		=해녀.<표준>	끼기 낚는 사를 구라 어부. 보제기도 근국 끼. 물정하는 사를 중수.		강활머니(한림 비양)		0		0
어촌생활어	행위자	해녀	명칭		해녀	잠/녀	뿔		=해녀.<표준>	바닷물 하근 것이 다 툰 나닌 이젠 엇어. 이 툰 {잠녀} 하지 아녀. 물질 안 배와노는끼.		강활머니(한림 비양)		0		0
어촌생활어	환경	공간	기타		고/이	고/이	뿔		비양도에서 한림이나 협재 등 제주도 본섬을 일컫는 말.	지속은 다 이제도 생성 썰. {7에서} 불려 올는다끼.		차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환경	공간	명칭		조	조	뿔		비양도에서 한림이나 협재 등 제주 본섬을 일컫는 말.	{조되는} 보뿔 구른 것도 엇어.		강활머니(한림 비양)		0		*

1 비양도의 고기잡이 조사 어휘 (김순자)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역	발음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단 정보 사지	명단 정보 음성	표준국어사진
어촌생활어	환경	공간	바다	바다	동안이술/ 동안이	명	명사	명	동안이술	뚝배기	양장 파도 막 치는 디 (동안이술). 또 큰가래알, 이끼, 또 테메는개, 이끼 죽은 가지, 이끼 영 돌아오는 (돌랑머리), 너구 배, 양지코는고지, 이끼 흰, 이끼 우족나간 건 오저부리.		자철의(한림 비양)	출전정보2	0		*
어촌생활어	환경	공간	바다	바다	돌랑머리	명	명사	명	돌랑머리	뚝배기	또 큰가래알, 이끼, 또 테메는개, 이끼 죽은 가지, 이끼 영 돌아오는 (돌랑머리), 너구 배, 양지코는고지, 이끼 흰, 이끼 우족나간 건 오저부리.		자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환경	공간	바다	바다	원바당	명	명사	명	원바당	뚝배기	뚝배기 주닛은 비양도 여기 비양은 공동어에 요. 여기에서 (원바당에) 뚝배기라고 거기에서 하죠.		장영성(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환경	공간	바다	바다	무른맛	명	명사	명	무른맛	뚝배기	뚝배기 주닛은 비양도 여기 비양은 공동어에 요. 여기에서 (원바당에) 뚝배기라고 거기에서 하죠.	=웃발	김순선(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환경	공간	바다	바다	목주리	명	명사	명	목주리	뚝배기	뚝배기 주닛은 비양도 여기 비양은 공동어에 요. 여기에서 (원바당에) 뚝배기라고 거기에서 하죠.		자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환경	공간	바다	바다	뱃목주리	명	명사	명	뱃목주리	뚝배기	뚝배기 주닛은 비양도 여기 비양은 공동어에 요. 여기에서 (원바당에) 뚝배기라고 거기에서 하죠.		자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환경	공간	바다	바다	뱃서비어	명	명사	명	뱃서비어	뚝배기	뚝배기 주닛은 비양도 여기 비양은 공동어에 요. 여기에서 (원바당에) 뚝배기라고 거기에서 하죠.		자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환경	공간	바다	바다	배릿맛	명	명사	명	배릿맛	뚝배기	뚝배기 주닛은 비양도 여기 비양은 공동어에 요. 여기에서 (원바당에) 뚝배기라고 거기에서 하죠.		자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환경	공간	바다	바다	뿔바다	명	명사	명	뿔바다	뚝배기	뚝배기 주닛은 비양도 여기 비양은 공동어에 요. 여기에서 (원바당에) 뚝배기라고 거기에서 하죠.		장영성(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환경	공간	바다	바다	신여부리,산여부리	명	명사	명	신여부리,산여부리	뚝배기	뚝배기 주닛은 비양도 여기 비양은 공동어에 요. 여기에서 (원바당에) 뚝배기라고 거기에서 하죠.		자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환경	공간	바다	바다	상방난여	명	명사	명	상방난여	뚝배기	뚝배기 주닛은 비양도 여기 비양은 공동어에 요. 여기에서 (원바당에) 뚝배기라고 거기에서 하죠.		자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환경	공간	바다	바다	상경주	명	명사	명	상경주	뚝배기	뚝배기 주닛은 비양도 여기 비양은 공동어에 요. 여기에서 (원바당에) 뚝배기라고 거기에서 하죠.		자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환경	공간	바다	바다	상자리어, 상재리어	명	명사	명	상자리어, 상재리어	뚝배기	뚝배기 주닛은 비양도 여기 비양은 공동어에 요. 여기에서 (원바당에) 뚝배기라고 거기에서 하죠.		자철의(한림 비양)		0		*

1 비양도의 고기잡이 조사 어휘 (김순자)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소분류3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의미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사 정보 사지	명사 정보 성성	표준국어 어사지 등급
어촌생활어	환경	공간	바다	바다		명사 정보	명	명	비양도의 서쪽 어장 이름.	비양도에 이름 어장도 동바양 {서바양} 어장 가지 있음.		장영성(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환경	공간	바다	바다		명	명	명	비양도 북쪽에 있는 큰어, 비양도 등대기 해역에 있는 곳이다. '아기엄은돌' 북쪽 바다이다.	{서바어} 안내도 이제 동안이술, 이제 작지 뿌리.		차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환경	공간	바다	바다		명	명	명	포구 물가에 배를 대고 짐을 싣거나 부리 개만은 시절.	배 매는 민 {성창}.	개창, 축항, 개	차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환경	공간	바다	바다		명	명	명	비양도 북쪽 바닷가에 있는 서 있는 바위 위로, 그 형상이 마치 사람이 어린 아기를 영고 있는 형태여서 붙여진 이름.	비양도에도 이거 동쪽에 기은 현상두리, 후관 갯만 종남머리, {아기엄은돌}, 이제 큰현, 죽은현, 신이뿌리동산, 또 지영 가는 영장주.		차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환경	공간	바다	바다		명	명	명	비양도 바다 이름의 한 가지.	저 서바어, 큰서바어, 부서바어, 이 비양도 이 비양 영통도 한다. 돌주리, {인목주리} 밧목주리, 배짖맛, 뭐 굴부리술, 이제 느리남어, 성양남어, 뭐 어디 죽진여술, 어디 어디.		차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환경	공간	바다	바다		명	명	명	비양도 포구 있는 앞쪽의 바다 이름.	이제 그지록청담 또 이 {안바당에이} 뱀자리, 뱀자리 옛날은 그 녹수로 나까냈지.		차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환경	공간	바다	바다		명	명	명	=남떠러지.	{영창} 파도 막 치는 디 동안이술.		차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환경	공간	바다	바다		명	명	명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않는 바위	이렇게 하라디 {여기} 있고 그렇게 휩수가 있느냐?		차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환경	공간	바다	바다		명	명	명	비양도 서쪽 바닷가로 서남쪽으로 갈게 뱀머리 어나간 곳.	또 큰가제할, 이제 또 테메는개, 이제 죽은가제, 이제 영 돌아오른 돌랑머리, 너무배 남시고는코지, 이제 현, 이제 후죽나간 건 {오지뿌리}.		차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환경	공간	바다	바다		명	명	명	비양도 개창과 오점뿌리 사이에 있는 어로 '용', 즉 바다오리가 잘 없는 자리라고 해서 붙여진 바다이름	죽은가제, 신어뿌리, 큰현, 죽은원, 종남머리, 또 일로 오른 이제 저 돌랑머리, 이제 상제리여, {웃앗는어}, 그거추기 뱀이라.		차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환경	공간	바다	바다		명	명	명	바다에서 밀물과 썰물의 차이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돌로 둘러쌓아서 만든 장치.	{원} 둘러난 원엄 더러 서.	=원엄	차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환경	공간	바다	바다		명	명	명	바다에서 밀물과 썰물의 차이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만드는 장치인 원엄 두르는 돌엄.	원 돌러난 {원엄} 더러 서.	=원	차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환경	공간	바다	바다		명	명	명	비양도 바다 이름의 한 가지.	서바어 안내도 이제 동안이술, 이제 {작지 뿌리}.		차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환경	공간	바다	바다		명	명	명	비양도 바다 이름의 한 가지.	저 서바어, 큰서바어, 부서바어, 이 비양도 이 비양 영통도 한다. 돌주리, 인목주리, 밧목주리, 배짖맛, 뭐 굴부리술, 이제 느리남어, 성양남어, 뭐 어디 {죽진여술}, 어디 어디.		차철의(한림 비양)		0		*
어촌생활어	환경	공간	바다	바다		명	명	명	비양도 초소 앞 바닷가에 있는 작은 돌.	{죽은가제}, 신어뿌리, 큰현, 죽은원, 종남머리, 또 일로 오른 이제 저 돌랑머리, 이제 상제리여, 웃앗는어, 그거추기 뱀이라.		차철의(한림 비양)		0		*

1 비양도의 고기잡이 조사 어휘 (김순자)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소분류3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역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별칭	별칭	별칭	표준국어사전에				
어촌생활어	환경	공간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조근년	바양도 북쪽 갯가 중 '배던코지'(또는 '중남머리코지') 서쪽에 있다. '애기범은돌' 바로 서쪽에 위치해 있는 원이다. 조근년 총애를 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물웅덩이를 만들어 두고 있다. 뜻이 많이 서식하는 곳이다. 그곳에 서쪽에 있는 것은 원에 비해 적기 때문에 '죽은 원'이라고 한다.	죽은원	죽은원	김순선(한림비양)	0	0						*	
어촌생활어	환경	공간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죽남머리	바양도에도 이거 동쪽에 가든 환상두리, 죽남머리, 죽은원, 신이뿌리동산, 또 지렁이 가는 성경주.	죽남머리	죽남머리	차철의(한림비양)	0	0						*	
어촌생활어	환경	공간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죽남	=비양도 포구를 말한다.	죽남	죽남	차철의(한림비양)	0	0						*	
어촌생활어	환경	공간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큰가재	바양도 서쪽 해안가에 있는 바위, 바위 안으로 굴이 뚫려 있다. 바위 형상이 코끼리 모양이라고 해서 코끼리 바위라고도 부른다. 갈마온지와 갈매기의 서식지로, 바위 위가 새둥지로 활용되곤 한다.	큰가재	큰가재	김순선(한림비양)	0	0						*	
어촌생활어	환경	공간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르서비어	바양도 북쪽에 있는 큰 여 이름.	르서비어	르서비어	차철의(한림비양)	0	0						*	
어촌생활어	환경	공간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르년	바양도 서쪽 해안에 있는 원으로, 죽은 원 서쪽에 위치한다. 큰 원 사이로 도로가 뚫려 있어 두 개로 나뉘었다. 뚫려있던 곳이었는데 뚫어 놓은 곳이 많아 나뉘는 곳이기도 하다.	르년	르년	김순선(한림비양)	0	0						*	
어촌생활어	환경	공간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테매는개	바양도 서쪽 갯가에 있는 백지리, '테' 죽 '테우'를 매어두었던 개로, 지면 포구이다. 큰 가재 북쪽에 있다.	테매는개	테매는개	차철의(한림비양)	0	0						*	
어촌생활어	환경	공간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뚫바당	뚫이 많이 나는 바다.	뚫바당	뚫바당	김순선(한림비양)	0	0						*	
어촌생활어	환경	공간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환상도리	바양도 동쪽 해안 지역 비양도항양에서 서쪽 해안으로 30m 거리에 위치한 지경.	환상도리	환상도리	차철의(한림비양)	0	0						*	
어촌생활어	환경	공간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해너바당	해너들이 주로 몰집하는 바다.	해너바당	해너바당	김순선(한림비양)	0	0						*	
어촌생활어	환경	공간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모살뚝	바다 속에 모래가 있는 곳을 가리키는 말.	모살뚝	모살뚝	강할머니(한림비양)	0	0						*	
어촌생활어	환경	공간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금글금글	=출렁출렁, 바다 물결이 흔들거리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금글금글	금글금글	김순선(한림비양)	0	0						*	
어촌생활어	환경	공간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누	=파도 <표준>	누	누	차철의(한림비양)	0	0						*	
어촌생활어	환경	공간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죽	=파도 <표준>	죽	죽	김순선(한림비양)	0	0						0	
어촌생활어	환경	공간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죽지시다	=파도 <표준>	죽지시다	죽지시다	김순선(한림비양)	0	0							*

1 비양도의 고기잡이 조사 어휘 (김순자)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의양	발음정보	조사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사 정보	명사 정보	명사 정보	표준국어대사전
어촌생활어	환경	공간	파도	상태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울림양	발음정보	조사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사 정보	명사 정보	명사 정보	표준국어대사전
어촌생활어	환경	공간	파도	상태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종락출락		부	조사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사 정보	명사 정보	명사 정보	*
어촌생활어	환경	공간	파도	상태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종파		명	조사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사 정보	명사 정보	명사 정보	*
어촌생활어	환경	기타			상세분류1	상세분류2	개남		명	조사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사 정보	명사 정보	명사 정보	*
어촌생활어	환경	기타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산개남		명	조사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사 정보	명사 정보	명사 정보	*
어촌생활어	환경	날씨	바람	종류	상세분류1	상세분류2	갈바람		명	조사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사 정보	명사 정보	명사 정보	*
어촌생활어	환경	날씨	바람	종류	상세분류1	상세분류2	곧은하늬		명	조사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사 정보	명사 정보	명사 정보	*
어촌생활어	환경	날씨	바람	종류	상세분류1	상세분류2	노룩		명	조사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사 정보	명사 정보	명사 정보	*
어촌생활어	환경	날씨	바람	종류	상세분류1	상세분류2	봉새바람		명	조사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사 정보	명사 정보	명사 정보	*
어촌생활어	환경	날씨	바람	종류	상세분류1	상세분류2	봉하늬		명	조사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사 정보	명사 정보	명사 정보	*
어촌생활어	환경	날씨	바람	종류	상세분류1	상세분류2	늦하늬		명	조사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사 정보	명사 정보	명사 정보	0
어촌생활어	환경	날씨	바람	종류	상세분류1	상세분류2	마포름		명	조사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사 정보	명사 정보	명사 정보	*
어촌생활어	환경	날씨	바람	종류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신부새, 신부새바람		명	조사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사 정보	명사 정보	명사 정보	*
어촌생활어	환경	날씨	바람	종류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셋바람		명	조사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사 정보	명사 정보	명사 정보	*
어촌생활어	환경	날씨	바람	종류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아름주재		명	조사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사 정보	명사 정보	명사 정보	*
어촌생활어	환경	날씨	바람	종류	상세분류1	상세분류2	하늬바람		명	조사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사 정보	명사 정보	명사 정보	*
어촌생활어	환경	날씨	바람	종류	상세분류1	상세분류2	회오리바람		명	조사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사 정보	명사 정보	명사 정보	*
어촌생활어	환경	날씨	바람	상태	상세분류1	상세분류2	바람 불다		구	조사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사 정보	명사 정보	명사 정보	*
어촌생활어	환경	날씨	바람	상태	상세분류1	상세분류2	불 불다		구	조사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사 정보	명사 정보	명사 정보	*

1 비양도의 고기잡이 조사 어휘 (김순자)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의양	발음정보	조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타 정보 사지	명타 정보 음성	표준국 어사전 등재여
어촌생활어	환경	시간	물때	미세기		개무수	명	명사 정보	무수기를 일두물까지 다 센 다음에 오는 3일 동안의 조임을 일컫는 말.	무수, 일두물부터 일두물까지 센 사용에 {무수} 조금 그렇게 들어가죠.		정영성(한림 비양)		0	0	*
어촌생활어	환경	시간	물때	미세기		갯사리	명		조수(潮水)가 가장 높을 때는 이를르는 말.	{갯사리만} 하는 말이 걸싸게 써본다. 죽사리는 7은 물때라도 죽은 죽사리.		자철의(한림 비양)		0	0	*
어촌생활어	환경	시간	물때	미세기		그롬물찌	명		한 당에 두번 세는 물찌 가운데 그롬부터 기(그롬물찌) 한올이라.	{그롬물찌} 언제부터 하나 허는 쓰무당새		자철의(한림 비양)		0	0	*
어촌생활어	환경	시간	물때	무수기		그롬으섯	명		무수기로 볼 때 그롬이면 어섯무닐이라는 뜻.	물때도 이제 초엿물이 혼올. 일승무가 두 올, 열이올이 서올. 열사올이 너올. 이제 열 나올이 다섯올. 이제 보름이 으섯올. 보름으섯 {그롬으섯}.		자철의(한림 비양)		0	0	*
어촌생활어	환경	시간	물때	무수기	배무날	너올	명		너무날. 음력 13일과 28일의 무수기.	물때도 이제 초엿물이 혼올. 일승무가 두 올, 열이올이 서올. 열사올이 너올. 이제 열 나올이 다섯올. 이제 보름이 으섯올. 보름으섯 그롬으섯.		자철의(한림 비양)		0	0	0
어촌생활어	환경	시간	물때	무수기	다섯무날	다섯올	명		다섯무날. 음력 14일과 29일의 무수기.	물때도 이제 초엿물이 혼올. 일승무가 두 올, 열이올이 서올. 열사올이 너올. 이제 열 나올이 다섯올. 이제 보름이 으섯올. 보름으섯 그롬으섯.		자철의(한림 비양)		0	0	0
어촌생활어	환경	시간	물때	무수기	두무날	두올	명		두무날. 음력 초엿하루와 28일의 무수기.	물때도 이제 초엿물이 혼올. 일승무가 {두 올, 열이올이 서올. 열사올이 너올. 이제 열 나올이 다섯올. 이제 보름이 으섯올. 보름으섯 그롬으섯.		자철의(한림 비양)		0	0	0
어촌생활어	환경	시간	물때	미세기	물밀다	물들다	동		=물밀다.<표준> 비닷물이 육지로 밀려 들 어오다.	물 허영 {들} 때보고 사리엔 허구기/난 물 싸는 들어가국 {물들은} 나와.		자철의(강원 매니)		0	0	*
어촌생활어	환경	시간	물때	미세기	무서	무수	명		=무서.<표준>	물찌는 한올부터 일두물까지 센 다음에 <표준>이의 '1', 무서 의 잘못. 정영성(한림 비양)		정영성(한림 비양)		0	0	0
어촌생활어	환경	시간	물때	미세기	물때	물때	명		=물때.<표준>이. 아침저녁으로 밀올과 썰 올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때.	어부들은 해너들은 {물때} 보고 가죠.		정영성(한림 비양)		0	0	0
어촌생활어	환경	시간	물때	미세기	물싸다	물싸다	동		물러 들어왔던 비닷물이 물러 나간다.	{물싸기만은} 물 썰 썰 때가 사리 때고.		정영성(한림 비양)		0	0	*
어촌생활어	환경	시간	물때	미세기	무수기	물찌	명		물올과 밀올의 찌.	물도 잘 싸는 {물찌가} 잇고 덜 싸는 {물찌가} 잇어.		자철의(한림 비양)		0	0	0
어촌생활어	환경	시간	물때	미세기	민올	민올	명		=민올.<표준> 이. 조수의 간만으로 해면 이 상승하는 현상. 간조에서 만조까지를 이 르며 하루에 두 차례씩 밀려 들어온다.	=민올.		정영성(한림 비양)		0	0	0
어촌생활어	환경	시간	물때	미세기	백중사리	백중사리	명		백중날에 조수(潮水)가 가장 높이 들어오는 때. 곧 백중날의 한사리를 비양도에서 일컫는 말이다.	{백중사리만} 이 지만 구물도 백지리 잠만 무수 거 잠만 그물도 다 걸어 올러나주기.		자철의(한림 비양)		0	0	0
어촌생활어	환경	시간	물때	미세기	보름으섯	보름으섯	명		무수기로 볼 때 음력 보름이면 어섯무닐이 라는 뜻.	물때도 이제 초엿물이 혼올. 일승무가 두 올, 열이올이 서올. 열사올이 너올. 이제 열 나올이 다섯올. 이제 보름이 으섯올. 보름으섯 {그롬으섯}.		자철의(한림 비양)		0	0	*

1 비양도의 고기잡이 조사 어휘 (김순자)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리양	발음 정보	조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형태 정보 사지	형태 정보 음성	표준국어사진 등록여부
어촌생활어	환경	시간	물때	미세기			한사리	사리	명	명	음력 보름과 그믐 무렵에 만물이 가장 높은 때.	물 허일 들 때보고 {사리엔} 허주기.		자철의(한림 비양)		0	0	0
어촌생활어	환경	시간	물때	무수기			서무날	서름, 시름	명	명	=서무날<표준>	물때도 이제 초영물이 혼물, 열수부가 두 물, 열이틀이 {서름}. 열사름이 너물, 이제 열나물이 다섯물, 이제 보름이 오섯물, 또 열오섯 그믐오섯, /혼/물, 두물, 시름.	자철의(강할 마니)		0	0	0	
어촌생활어	환경	시간	물때	미세기			혼물	혼물	명	명	날의 인력(力)으로 바닷물이 밀려 나가서 해변이 낮아지는 현상. 또는 그 바닷물.	민물 {싼물}, 민물이 물 들어올 때, {싼물}은 물 나갈 때.	정영성(한림 비양)		0	0	*	
어촌생활어	환경	시간	물때	무수기			아끈조기	아끈조기	명	명	음력 초이레와 24일 무수기. 한조금 더 늦음.	개은 초이레가 한조금, 초이레가 {아끈조기}.	자철의(한림 비양)		0	0	*	
어촌생활어	환경	시간	물때	무수기			열두무날	열두물	명	명	=열두무날<표준>	물때는 한물부터 {열두물까지} 썬 다음에 개무수 조금 그렇게 들어가조.	정영성(한림 비양)		0	0	0	
어촌생활어	환경	시간	물때	무수기			어섯무날	오섯물	명	명	음력 보름과 그믐 때의 무수기.	물때도 이제 초영물이 혼물, 열수부가 두 물, 열이틀이 서름, 열사름이 너물, 이제 열나물이 다섯물, 이제 보름이 {오섯물}, 또 열오섯 그믐오섯.	자철의(한림 비양)		0	0	*	
어촌생활어	환경	시간	물때	무수기				조금	명	명	음력 초이레부터 초이레, 22일부터 24일 까지의 무수기.	개국 {조금은} 이제 초이레부터.	자철의(한림 비양)		0	0	0	
어촌생활어	환경	시간	물때	미세기			적은사리	적새리	명	명	적은(薄水)가 가장 낮은 때를 이르는 말.	적새리엔 허는 물이 갈싸게 썬다. {적새리는} 그믐 물때라도 죽은 {적새리}.	자철의(한림 비양)		0	0	*	
어촌생활어	환경	시간	물때	무수기				한조금	명	명	무늬를 썬 때 음력으로 여드레와 스무사흘을 이르는 말. 만물이 재워져 들어오는 때다. 아직조금과 무수사에 있다.	개은 초이레가 {한조금}, 초이레가 {아끈조기}.	자철의(한림 비양)		0	0	0	
어촌생활어	환경	시간	물때	무수기				혼물	명	명	음력 초영물과 25일의 무수기.	초영물부터 {혼물어주기}.	자철의(한림 비양)		0	0	*	

찾 아 보 기

ㄱ

가라지	137	것사리	66, 99
가락	30	계수리	27, 50, 160
ㄱ상구물	115	경심주낫	128
가시복쟁이	150	고기술	43
각제기	46, 47, 138	고녕이할미	171
근고등에	140	고도리	47
근질르다	161	고등어	38, 41, 47, 75
근탈	29	고등어나시	46, 127
근피다	177	고등어배	102
갈계수리	50, 160	고등어베	48
갈기	26, 50, 160	고등어죽	76, 185
갈치	26, 29, 36, 37, 44, 45, 50, 53	고등에젓	184
갈치낙수	46, 48	고불	58, 104
갈치마삭	53, 126	고사공	40, 58, 82
갈칫술	132	고지기뭍	173
갈브름	63, 93	곰은하늬	63, 93
곰생이보말	165	곰늬	108
감은돔	141	공쟁잇대	112
감팍우럭	139	광어	37
갑쌀뭍	173	구룻	52, 147
갯돔구물	30, 117	구물	26
강원도오징어	41, 170	구쟁이	77
개남	114	굼부리썰	33
개오리	138	권작선	34
개창	35, 85	그물바농	123
객주리	139	그뭍물찌	65
건장낙시	47, 127	그뭍으섯	65, 99
걸리쟁이	101	깃대	125
걸바당	86	강이	27
걸밭	86	까칠복	39, 149
것구물	115	꼬끼리조강이	162
		꼬불	40
		꽁치	41

꺾미 43, 159

L

늑룻 95
 낙수 26, 30, 42
 낙수꾼 33
 난미 171
 늘 68
 늘계기 77
 낭시끄는코지 57
 너부베 57, 91
 너울파도 85
 네조 70, 181
 넷입 59, 107
 노랑 111
 노랑복 39
 노랑춤복 39
 노젓는배 100
 노젓는배 풍선 36
 눅새브름 62
 눅셋브름 94
 눅하늬 62, 93
 누 54
 느리난여 33, 91
 늦하늬 94
 늦하늬 62
 니껍 41, 42, 44, 45, 47, 51, 159

C

다금바리 141
 다금바리구물 30, 117
 다실메역 172
 들치 147
 닷가지 108
 닷줄 60
 대구리 34

대생성 41
 덤부지 44, 45, 142
 덤장구물 60, 124
 덤장배 103
 도고리여 58
 도곰속곳 134
 도랭이 145
 도랭이구물 117
 도문네 59, 107
 돌우미 174
 돔 37, 52
 돔그물 30, 118
 돔낙시 53, 127
 돔주낫 30
 돛쟁이브름 94
 동안이슬 58, 91
 돌령머리 33, 35, 57
 뒷차대 68
 등창 169
 따치 52
 땅바리 128
 땅발이 128
 땀마 34, 56, 101
 뗏배 56, 101
 뻬박 125
 뜸바리 49, 129

Q

마삭 53
 마브름 43
 마폭름 62, 64, 93
 막조금 98
 툄콧조개 162
 머리 26, 29, 37, 44, 159
 명치 142
 멘세주낫 49
 멜 30

멜구물 36
 멜쿠물 118
 모다베 102
 모다베 36
 목주리 33
 몽고지 107
 무꾸럭 50, 170
 무듬바리 49, 128, 129
 문어 42, 44
 물들다 95
 물복 39
 물싸다 95
 물적삼 34
 물찌 66, 95
 물툫 32
 뭇 26, 42, 50
 미리알 153
 밀락허다 158
 밀복 39

ㅂ

뵈들레기 44, 50, 142
 바룻글쟁이 134
 밧목주리 33
 밧서비여 33
 방어 38
 배깅 26
 배물질 135
 배질 113
 백상어 145
 백조기 148
 백중사리 60, 65, 100
 버국 49, 119
 베기베기 140
 베릿맛 33
 베지근허다 185
 베카다 160

백중사리 60
 벤드레 60, 109
 벤자리 26, 36, 37, 50, 51, 66
 벤자리구물 118
 보름물찌 65
 보름으섯 65, 99
 보제기 82
 복쟁이 38, 149
 볼락 29, 56
 봄갈치 45
 불볼락 146
 불케다 114
 불통 124
 붉바리 50, 142
 붉은볼락 143
 붉은알 153
 비계 69
 비양도 25, 31
 빨룽이멜 147
 빨룽허다 158
 빨근볼락 29

ㅅ

사공 82
 사들 117
 사리 66, 99
 사발시리 73
 사발시리떡 71, 180
 사울대 60, 106
 산개남 114
 산부세 62, 64, 94
 산여뿌리 35
 산이부리동산 57
 삼방난여 33, 90
 삼봉낙시 127
 삼치 38
 삼폭구물 115

삼폭그물 51, 52
 상경주 57, 90
 상저리여 33
 생키 38, 143
 생키우릭 38, 143
 서비여 33, 58, 90
 선개 26
 선양굿 70, 179
 셋마프름 94
 성창 35, 85
 셋브름 62, 93
 생선 44
 생선주낫 41
 생성 30, 37, 41, 42, 66
 생성구물 118
 생성국 25, 76
 생성낙시 128
 생성술 132
 생성주낫 129
 생성죽 78, 185
 소생성 41
 속곳 34
 솔치 38, 143
 수두리보말 165
 수지주낫 49
 신착궤기 148

○

아기엿은돌 57, 89
 아끈조기 65, 98
 아바줄 119
 아옴주제 43, 94
 안목주리 33
 야드 151
 어강발 169
 어랭이 54
 어랭이] 144

어부 82
 어탐 111
 예리 37
 여름갈치 45
 오저뿌리 57, 89
 오징어 30, 41
 옷앗는여 89
 옷앗은여 35
 와랑자랑 25
 우릭 37, 38, 50
 우릭주낫 129
 원담 58, 87
 웨구물 115
 웨눈베기 148
 웅이 141
 유아줄 119
 읍네 59, 107
 이물 39, 58, 104
 이물명에 105
 이사공 39, 58, 82
 이제 상제리여 35

ㄸ

자망구물 116
 자시다 121
 즈진여술 33
 작지뿌리 88
 즈계수리 50, 160
 전갱이 38
 정각 34
 조기 30, 48
 족바리 112
 족바지 117
 족사리 66, 99
 족쇄눈 34, 135
 족은가저 35, 57, 88
 족은원 35, 57, 88

줄락물질 34, 135
 줄복 39, 149
 좁쌀메 71
 좁쌀시리 71, 180
 좁쌀시리떡 71
 종나머리 35
 종남머리 57, 92
 주낫 28, 41, 49, 128
 중생성 41
 지름고등에 139
 진독내 159
 질구물 125

ㄱ

차귀도 30
 차철의 23
 춤각제기 138
 춤고등에 139
 춤대 48
 참복 39
 춤멜 147
 춤조기 149
 춤뭉 34
 창지 37
 초석 67, 109
 초석배 101
 초석베 55
 축항 85
 치 43, 106
 칫사공 43, 58, 83

ㅋ

코트데기 165
 콜생이 146
 콤포스 25, 111

큰가재 87
 큰가저 35
 큰가제앞 57
 큰눈 34
 큰새비여 58
 큰서비여 33
 큰원 35, 57, 87

ㅅ

터럭군부 163
 테메는개 35, 57, 88
 텃베 35
 툫 32
 통발 116
 통발이 33
 투망 48
 투망구물 46, 116
 트다 121

ㅍ

파락 59, 105
 펄랑 31
 푸끄다 131
 풍선 48, 57
 피끗 78

ㅎ

하늬벼름 29, 62, 93
 하래비군붓 163
 한사공 40, 58
 한삼드리 57
 한섬드리 33, 88
 한장 40, 58, 59, 104
 한장도막 106
 한조금 65, 98

한치	41	헛국	75
해녀바당	85	흰메	71
해녀질	34	흰시리	71, 180
허통	125	히라지	38
혁세기	146		

■ 연구책임자 : 강정희(한남대학교)
■ 공동연구원 : 김순자(제주대학교)

2010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1

발행인 권재일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방화 3동 827
전화 : 02-2669-9775 팩스 : 02-2669-9727
인쇄일 2010년 11월 20일
발행일 2010년 11월 25일
인쇄 크리홍보(주) (02-737-5377)
